차 례

고대중세문학

고대가요와 고대중세설화문학 3
공후인 6
주몽전설 7

중세시가문학 12
정읍사 17
청산별곡 19
시조 21
관동별곡 22
강강수월래 25
방주의 노래 26
적성촌의 오막살이 39

중세소설문학 44
임진록 48
재판받는 쥐 52
홍길동전 65
문학작품의 소재 73
춘향전 76
량반전 86
채봉감별곡 92

계몽기문학

상봉유사 106
현미경 107

해방전 진보적문학

벙어리 삼룡이 125
초혼 137
탈출기 139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149
락동강 152
산제비 167
고향 170
인간문제 180
진달래 194
황금산 197

항일혁명문학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과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강반석어머님의 혁명적시가문학 211
남산의 푸른 소나무 214
짓밟힌 동포야 일어나거라 215
만경대에 봄이 와도 215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작된 혁명적문학예술 217
항일혁명문학과 그 특징 217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친필활동 220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 227
불후의 고전적명작 《반일전가》 228
자장가 229
조선의 별 230
적기가 230
자유가 231
문학작품의 사회적성격 232

외국문학

일리아스 240
삼국연의 253
베니스의 상인 268
로빈슨 크루소우 276

고대중세문학

고대가요와 고대중세설화문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예로부터 아름다운 금수강산에서 살아온 우리 인민은 슬기롭고 지혜로왔으며 남달리 고상한 미감을 가지고있었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우리 인민은 민족문화를 찬란하게 발전시켜왔으며 이 과정에 다양하고 아름다운 민족예술형식을 창조하여왔다.》

우리 나라의 문학은 오랜 력사적전통을 가지고있다.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선조들은 조선반도를 비롯한 아시아대륙 동쪽의 넓은 지역에서 살면서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창조적로동을 하였고 이 과정에 비록 소박하기는 하였으나 원시예술을 창조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인류문학의 첫시작으로 되는 원시가요와 신화가 발생하였다.

원시가요는 원시인들의 로동생활과정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일을 흥겨운것으로 만들려는 웨침소리나 저들이 바라던 희망이나 념원이 이룩되였을 때의 기쁨의 웨침소리 같은 단순한것에서 출발하였으며 로동동작이나 자연스러운 몸짓과 결부되여있었다.

먼 옛날 가락국사람들이 거북마루의 산봉우리에서 흙을 파헤치면서 자기들의 왕을 맞이하기 위해 불렀다는《거부기의 노래》는 원시가요의 이러한 한 측면을 보여주고있다.

원시사회가 무너지고 노예사회가 시작되면서 고대계급국가들이 형성되였다. 이리하여 노예와 노예주사이의 첨예한 계급적대립과 투쟁을 반영한 계급문학이 출현하게 되였다.

이 시기 예술은 종합적이던데로부터 음악, 무용, 문학 등 여러 형태로 갈라지게 되였으며 내용에서도 점차 인간생활의 다양한 이모저모를 반영하게 되였다.

늙은 부부가 물에 빠져죽은 구슬픈 사실을 노래로 지어 불렀다는 고대가요《공후인》은 이러한 계급문학의 특성을 보여주고있다.

신화는 인류사회의 첫 설화작품이다.

신화는 원시인간들이 창조한 구전설화로서 자연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변화의 리치를 과학적으로 리해하지 못하고 그앞

에 공포를 느낀 원시인간들이 자연정복에 대한 념원을 신들의 활동과 결부시켜 꾸며낸 환상적인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신화의 주인공은 신이거나 또는 반신반인으로서 비상한 재능을 소유하고있다. 신화에는 원시인간들의 요구와 념원, 생활이 소박하게 반영되여있다.

우리 나라에서 제일 오랜 신화로 전해오는것은 인류사회의 발생과 결부된 환웅의 이야기이다.

환웅은 하늘왕인 옥황상제의 서자로 형상되고있다. 환웅은 아버지의 승낙을 받은 다음 3천명의 신들을 거느리고 하늘에서 태백산(오늘의 묘향산)으로 내려와 360여종의 법질서도 만들어내며 사람이 되고싶어하는 곰은 녀자로 되게 하고 자기가 하라는대로 하지 않은 범은 사람으로 안되게 하는 등 비상한 활동을 한다.

환웅의 이러한 행동은 원시인간들이 환웅처럼 자연을 마음대로 정복하고싶어하는 욕망에 대한 환상적인 반영이다.

《환웅신화》보다 좀 후기에 나온《해모수신화》에도 원시인간들의 자연정복의 념원이 반영되여있다.

천제의 아들인 해모수도 천상에서 오룡차를 타고 부여땅에 내려와 정치를 하고는 다시 저녁이면 하늘로 올라가며 룡왕과의 경쟁에서도 승리하는 비범한 재능을 소유한 인간으로 형상되고있다.

이러한 신화는 물론 무계급사회의 산물이다.

그러나 계급사회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문학은 계급적성격을 띠고 발전하게 되였다. 계급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신화의 유산을 계승하여 구전설화들이 창작되기 시작하였다.

계급사회발생기에 처음으로 나온 설화는 고조선건국과 관련된《단군신화》이다.

《단군신화》에서의 주인공 단군은 환웅의 아들로 형상되고있다. 이것은 고조선국가의 창건자를 신성한 인간으로 형상하여 국가의 위엄을 보여주려는 고대국가인민들의 념원의 반영이다.

이밖에도 부여건국설화가 고대계급국가의 설화의 하나로 전하여지고있다.

고대계급사회가 붕괴되고 봉건사회가 시작되는 시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설화들인《주몽전설》,《온조와 비류》,《박혁거세전설》들이 나왔다.

그후 봉건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설화문학도 더욱 발전하였다.

고구려가 강대한 봉건국가로 발전할 때에는 고구려사람들의 슬기와 애국적기개를 반영한《을지문덕이야기》,《연개소문》등의 설화가 나왔고《토끼와 거부기》,《견우직녀》같은 이야기도 널리 보

급되였다.

이 시기 백제인민들속에서는 썩어빠진 봉건통치배들의 죄행을 폭로하고 그와 맞서 싸우는 인민들의 투쟁과 그들의 아름다운 사상도덕적풍모를 보여주는 설화 《도미의 안해》가 창조되였으며 신라인민들속에서는 일시적안일과 행복보다도 인간의 의리와 도덕을 귀중히 여기는 소행을 보여주는 설화 《설씨와 가실》 같은 작품들이 창조되였다.

세나라이후시기에도 설화는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하였다.

봉건국왕이 높이 우러러볼만 한 존재가 아니라 보잘것없이 더러운 놈이라는것을 보여준《왕의 귀는 노새귀》, 봉건통치배들과 한짝이 된 중들이 얼마나 인민들을 가혹하게 략탈하였으며 그놈들에 대한 인민들의 원망이 얼마나 높았는가를 보여준《에밀레종》을 비롯한 많은 설화작품들이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우리 나라 첫 통일국가인 고려시기에 와서 설화문학은 더욱 높은 수준에로 발전하였다.

설화《설죽화》는 평범한 녀성을 주인공으로 하여 당시 인민들의 반침략애국사상을 감명깊게 반영하고있다.

다른 설화작품인 《부역군의 안해》는 봉건왕의 부화사치한 생활을 위한 건축공사에 부역으로 끌려간 인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주었고 우리 인민들이 가난속에서도 아름다운 마음씨만은 언제나 고이 간직하고있었음을 눈물겹게 그리였다.

한편 고려후반기(13—14세기)에 여러가지 산문들로 이루어진 중세기 우리 나라의 독특한 산문집인 패설집들이 나왔다. 패설이란 특별한 격식이 없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사실들을 이야기식으로 자유롭게 서술한 산문이다. 이 패설집들속에는 시이야기, 일화, 력사이야기들과 함께 짤막한 설화들도 적지 않게 들어있다.

패설은 15세기이후 더 많이 창작되였는데 여기에는 여러가지 류형의 설화들이 들어있다.

우리 나라 중세설화는 봉건말기에 이르러서는 전설, 민화, 민담, 소화(재담) 등 다양한 형식으로 분화되여 발전하면서 인민들의 념원을 반영하게 되였다.

〔명언〕

충효를 버리면 목숨을 잃는다.

김 정 일

공 후 인

《공후인》은 고조선시기 려옥이라는 녀성이 지은 시가이다.

고조선의 어느 나루가에 곽리자고라는 배사공이 살았는데 하루는 새벽에 강가에 나갔더니 머리가 흰 늙은 사람이 강물에 뛰여들어 강을 건느려 하였다. 이때 그의 안해가 뒤따라와서 소리치며 말렸으나 그는 듣지 않고 강에 들어섰다가 그만 물에 빠져죽었다. 그 안해는 강가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다가 남편을 따라 강물에 몸을 던졌다.

곽리자고가 집에 돌아와 자기 안해인 려옥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려옥은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여 공후를 타며 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고 한다.

《공후》란 23줄 또는 25줄로 된 현악기의 이름인데 《공후인》이라고 하면 《공후를 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으로 된다.

강 건느지 말랬는데
왜 굳이 건느셨소
물에 빠져 죽었으니
님아, 이 일 어이하오

주몽전설

우리 나라 력사에서 제일 강대하였던 고구려국가를 세운 동명왕의 어린시절 이름은 주몽이였다.

주몽의 아버지는 천제의 아들 해모수였고 어머니는 류화였다.

주몽은 어머니 류화가 부여국의 금와왕에게 붙잡혀 갇혀있을 때 출생하였다.

주몽은 어려서부터 재능이 출중했다. 주몽은 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이야기도 했고 걸어도 다녔다. 하루는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다.

《어머니, 파리가 많아서 잠을 자지 못하겠어요. 활을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어머니는 주몽에게 작은 활을 만들어주었다. 주몽은 그 활로 누워서 날아다니는 파리를 쏘아맞혔다.

주몽은 나이들면서 더욱더 말을 잘 탔고 활도 잘 쏘았다.

그런데 금와왕의 아들 일곱형제는 주몽의 이런 재능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느날 금와왕의 맏아들 대소가 주몽에게 이런 말을 했다.

《네가 활쏘기에서 나를 당해낼것 같니?》

주몽은 한동안 대소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말했다.

《너 하나쯤이야… 너의 일곱형제모두를 당해낼수 있다.》

자기를 얕잡고 말하는 주몽의 이 말에 대소는 화가 났다.

《정말이냐? 그럼 우리 사냥경기를 하자.》

주몽은 자신있게 머리를 끄떡였다.

이튿날 주몽과 금와왕의 일곱형제는 승벽내기로 짐승을 잡았다.

금와왕의 일곱형제는 모두 주몽보다 엄청나게 많은 짐승을 잡아서 그를 한번 골려주고싶었다. 그러나 저녁에 모여서 세여보니 주몽은 금와왕의 일곱형제들보다 더 많고 큰 짐승들을 잡았다. 금와왕의 일곱형제는 약이 올랐다.

《형, 우리 저 주몽녀석을 이 산속에 비끄러맵시다. 산속에서 옴짝 못하고 굶어죽고말게.》

둘째가 대소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하자.》

대소는 이렇게 말하고 동생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고 잡은 짐승을 말잔등에 올려싣고있는 주몽을 뒤에서 덮쳐눌러 결박을 지웠다. 주몽은 옴짝 못하고 붙잡혀 아름드리나무에 꽁꽁 묶이우고말았다.

금와왕의 일곱형제는 그제야 통쾌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저 녀석이 래일이면 죽고말게야.》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뜻밖의 일이 생겼다. 주몽이 불쑥 일곱왕자 앞에 나타난것이다.

《이놈들아, 내게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붙잡아 매였느냐?》

일곱왕자는 깜짝 놀라 말을 못하고 주몽을 바라보았다. 주몽의 눈은 무섭게 빛나고있었다.

그들은 주몽이 어떻게 돌아왔을가 하고 자세히 보다가 다시한번 놀랐다.

주몽은 자기를 비끄러맨 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등에 지고 왔던것이다.

이날 저녁 대소는 아버지인 금와왕에게로 갔다.

《부왕마마, 주몽은 범상한 인물이 아니로소이다. 그놈을 그냥 두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나이다. 마땅히 주몽을 죽여버려야 옳을것으로 아뢰옵니다.》

대소는 주몽이 앞으로 자기의 왕위를 빼앗을가봐 이렇게 말했다.

금와왕은 아들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러나 주몽을 죽일수는 없었다. 그것은 주몽의 신분이 너무도 어마어마했기때문이다. 류화의 말에 의하면 주몽의 아버지는 천제의 아들이고 외할아버지는 룡왕이다. 만약 이런 혈통을 이은 주몽을 죽였다가는 앞으로 무슨 벼락이 떨어질런지 모른다. 금와왕은 주몽을 죽이는 일을 부득이 뒤로 미루지 않을수 없었다.

《주몽을 래일부터 말몰이군을 시켜라.》

금와왕의 이 말은 곧 주몽에게 알려졌다.

래일부터 말몰이군이 되라는 왕의 말은 주몽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주몽은 어머니에게로 달려갔다.

《어머님, 천제의 손자이며 룡왕의 외손자라고 하는 제가 과연 여기서 말몰이군이 되여야겠나이까. 저는 여기를 떠나 다른 고장으

로 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나이다.》

주몽의 말은 절절하게 울렸다.

《네 말이 옳다. 그러나 새 나라를 세우려면 너 혼자의 힘으로는 안돼. 우선 너를 진심으로 도와줄 방조자들이 있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새 나라는 저절로 세워지는것이 아니란다. 어려운 싸움이 있어. 그래서 너는 가장 날랜 말을 구해야 한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주몽은 그제야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몽은 우선 좋은 말을 구하려고 생각했다. 말몰이군이 된 주몽은 금와왕의 말들중에서 좋은 말을 골라볼 생각을 했다.

어느날 밤 주몽은 말들이 잠잘 때 조용히 마구간으로 가서 힘껏 채찍으로 말들을 내려치기 시작했다.

놀라기를 잘하는 말들은 난데없는 채찍질에 서로 차고 물며 좁은 마구간을 돌아쳤다. 그런데 한마리의 말만은 마구간의 높은 울타리를 훌쩍 뛰여넘어 달아나기 시작했다.

(저 말이 준마로구나.)

주몽은 이렇게 생각하며 달려가서 말을 붙잡았다.

말은 참으로 훌륭하게 생겼다. 그런데 이 좋은 말을 금와왕이 줄리가 없었다. 그래서 주몽은 한가지 꾀를 생각해냈다.

주몽은 그 말의 이몸에 바늘을 꽂아놓았다. 그러자 말은 이몸이 아파서 먹이를 잘 먹지 못하게 되였고 점점 여위여갔다.

얼마후 말들을 돌아보던 금와왕은 여위고 파리한 말을 병이 든 줄 알고 주몽에게 주었다.

주몽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 말을 집으로 가져다가 이몸에서 바늘을 빼고 잘 먹이였다. 그러자 며칠 안 가서 말은 다시 준마로 되였다.

주몽은 다른 한편 평상시에 자기와 친하였던 오이, 마리, 협보에게 자기의 큰뜻을 말하였다.

그러자 세 친구는 주몽의 방조자가 되겠다고 스스로 나섰다.

길 떠날 차비를 갖춘 주몽은 어머니에게 작별인사를 하러 들어갔다.

어머니는 조용히 아들을 고무했다.

《어서 떠나거라. 가서 훌륭한 새 나라를 세워라.》

어머니는 떠나는 아들에게 여러가지 곡식종자를 주었다.

《이 종자를 백성들에게 나누어주어 농사를 잘 짓도록 하라.》

주몽은 자기가 미처 생각 못했던 곡식종자까지 주는 어머니에게 깊숙이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드디여 세 방조자와 함께 부여국가를 탈출했다.

대소는 주몽이 부여국가를 탈출한것을 뒤늦게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하기 시작하였다.

부여의 군사들과 주몽의 거리는 점점 가까와졌다. 주몽의 일행은 필사적으로 앞으로 달렸다. 그런데 주몽이 가는 앞길에는 커다란 강이 나타났다. 다리도 없고 배도 없었다.

뒤를 쫓아오는 부여의 군사들의 말발굽소리는 점점 가까와졌다.

주몽은 비장한 결심을 하고 말에서 내려 채찍을 높이 들고 웨쳤다.

《천제의 손자이며 룡왕의 외손자인 주몽이 여기서 죽어야 하는가? 하늘땅은 나를 도우라.》

주몽은 말채찍으로 강물을 힘껏 내리쳤다. 그러자 강물우로 수많은 물고기와 자라들이 모여들더니 잠간사이에 다리를 만들어놓았다.

주몽의 일행은 그우로 강을 건너갔다.

뒤미처 달려온 부여의 군사들도 강을 건느려고 그 다리우에 올라섰다. 그러자 다리는 잠간사이에 없어지고 부여의 군사들은 모두 물에 빠져죽었다.

강을 무사히 건너온 주몽의 일행이 어느곳에 이르러 쉬고있는데 비둘기 한마리가 날아왔다. 주몽은 어머니가 그 비둘기를 날려보낸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주몽은 활로 비둘기를 쏴떨구고 입안에 물고있는 보리종자를 꺼낸 다음 다시 살렸다.

주몽의 일행은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산좋고 물맑은 곳에 이르러 그곳을 나라의 도읍으로 정하기로 하고 행장을 풀어놓았다.

새 나라를 세우기에 분망한 나날을 보내던 주몽은 어느날 산속에서 웬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주몽을 만나자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참으로 훌륭하게 생겼소. 나는 이 고장을 다스리는 비류국의 송양왕인데 그대는 오늘부터 나의 신하노릇을 하오.》

송양왕의 이 말은 주몽을 몹시 격분케 했다.

《그런 말을 하지 마오. 이 고장의 왕은 나요.》

주몽은 당당하게 말했다.

이렇게 해서 주몽과 송양왕간에는 누가 이 고장의 왕인가 하는 경쟁이 벌어졌다.

여러가지 내기가 있었다. 짐승으로 변하는 변신술경기, 활쏘기경기가 있었으나 송양왕은 매번 주몽에게 졌다.

약이 오른 송양왕은 나중에 누가 더 오래된 왕궁을 가지고있는가 하는것을 보고 이 고장의 진짜왕인가를 결정하자고 했다. 송양왕은 자기의 오랜 왕궁을 믿고있었다. 그러나 주몽은 당황하지 않았다. 주몽은 산속에서 썩은 나무를 골라 왕궁을 지어놓았다. 이 경쟁에서도 송양왕은 졌다. 게다가 비류국에서 의식을 지낼 때 쓰는 북과 나팔도 주몽에게 빼앗기고말았다. 그래도 송양왕은 굴복하려고 하지 않았다.

주몽은 들에 나가서 흰 사슴을 잡아 거꾸로 매달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하늘에서 큰 비가 쏟아져 비류왕의 도성을 모조리 잠기게 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너를 놓아주지 않으리라. 재난을 면하려거든 네가 하늘에 호소하라.》

사슴은 거꾸로 매여달린채 슬피 울기 시작했다. 사슴의 울음소리가 드디여 하늘에까지 울려가더니 장마비가 이레동안 쏟아져 비류국의 도성이 몽땅 물에 잠기였다.

송양왕은 하는수없이 주몽에게 항복하고말았다.

송양왕의 항복을 받은 주몽이 채찍으로 물을 내리치니 순식간에 찌여버렸다.

주몽은 이해 7월에 드디여 후날 동방에서 강국으로 널리 알려진 고구려를 세우고 초대왕인 동명왕이 되였다.

출중하다—여러 사람들가운데서 특출하게 뛰여나다.
범상하다—평범하고 례사롭다.
부왕마마—(지난날에) 아들이 왕인 아버지를 높여 부르던 말.
왕위—왕의 자리.
도읍—(지난날에) 《한 나라의 수도》를 이르는 말.
초대왕—한 나라의 첫번째 왕.

중세시가문학

수천년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가진 우리 인민은 세계에 자랑할만 한 시가문학유산을 남겨놓았다. 이러한 시가문학유산은 고대가요에 이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나라시기에 와서 더욱 높은 수준에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세나라시기 시가와 가요문학의 발전에서 주류를 이룬 나라는 고구려였다.

고구려에서는 일찌기 《인삼노래》, 《꾀꼴새노래》, 《연양》, 《명주》, 《동동》을 비롯한 우수한 가요와 《외로운 바위》, 《적장 우중문에게》와 같은 서정시문학이 창작되였다.

고구려에서의 시가문학의 발전과 함께 백제와 신라에서도 시가문학이 발전하였다. 백제의 《정읍사》와 신라의 《혜성가》를 비롯한 가요들이 창작된것은 시가문학의 발전정도를 잘 말하여준다.

세나라의 뒤를 이어 창건된 발해에서는 발전되였던 고구려의 시가유산을 계승하여 시문학의 창작수준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였다. 나라의 외교상 임무를 띠고 일본에 갔던 일이 있는 발해의 우수한 시인 양태사는 시 《밤에 다듬이소리를 들으며》, 왕효렴은 《달을 보고 고향을 생각하며》와 같은 서정시작품을 창작하였다. 이 시작품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서정적주인공의 내면세계가 생동한 예술적형상으로 반영되여있다.

또한 후기신라의 시인 최치원은 《가을비 내리는 밤에》, 《강남녀인》, 《생각나는대로》, 《옛말투로》 등 우수한 시작품을 창작하여 모순으로 가득찬 당대 현실을 비판하였으며 시창작의 재능을 내외에 널리 시위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첫 통일국가로 형성된 고려는 시가문학을 새롭게 발전시킬수 있는 전제를 마련하였다.

고려시기에 와서 시가문학은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하였다.

고려시기에 와서 특징적인것은 전시기보다 사상예술성이 높은 민요, 참요(뜻을 에둘러 나타내는 표현으로 창작된 구전시가의 한

형식)들이 많이 창작된것이다.

14세기 전반기에 창작된 참요 《묵책요》에서는 봉건착취자들의 뢰물행위와 정사(관리들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일)가 얼마나 어지러웠는가를 비웃으며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있다.

가는 베로 도목을 만들었으니
정사가 실로 묵책이로구나
내 기름에 절이고자 하나
올해엔 삼씨조차 적어
아, 그것도 못하겠구나

고려후반기에는 이와 같은 참요들과 함께 당시 인민들의 고달픈 생활을 소박하게 노래한 민요들도 많이 창작되였다. 그 실례의 하나로 민요 《사리화》를 들수 있다.

농사란 털끝만치도 알지 못하는
요놈의 참새새끼 어디로 오가며
홀아비 늙은이 애써 지어놓은
조, 기장을 다 먹어치우느냐

이 민요는 이와 같이 봉건통치배들을 곡식을 쪼아먹는 참새새끼에 비유하면서 그놈들에 대한 인민들의 원망을 표현하고있다.

고려시기에는 또한《고려가요》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새로운 시가형식이 나왔다. 《사모곡》, 《청산별곡》, 《서경별곡》, 《정석가》 등은 대표적인 고려가요이다.

가요《사모곡》은 그 제목이 말하여주는바와 같이 어머니의 자애로운 사랑에 대하여 노래하고있다. 호미도 날이 있지만 낫과 같이 잘 들수 없는것처럼 아버지도 부모이기는 하지만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이 어머니같이 자애로울수 없다는것을 노래하고있다. 가요《서경별곡》은 평양을 사랑하는 서정적주인공의 리별의 서글픔을 노래하면서 리별없이 살고싶어하는 념원을 노래한 시가작품이다. 가요 《청산별곡》은 그 당시의 옳지 않은 현실에 불평불만을 품고

산골에 숨어사는 선비의 생활감정을 반영한 시가작품이다. 특히 고려가요는 고유한 우리 말로 창작된 국어시가라는것으로 하여 귀중한 시가유산으로 된다.

고려시기에는 또한 민족시가의 형식의 하나로서 시조가 발생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시조는 고려시기에 발생하여 오랜 세기에 걸쳐 각이한 계층속에서 창작되여온 고유한 민족시가형식의 하나이다. 사대주의사상으로 한시만을 숭상하던 봉건시기에 우리 말로 읊어진 새롭고 독특한 민족시조형식이 나온것은 우리 나라 문학발전에서 큰 의의를 가지였다.》

민족시가형식인 시조의 발생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3개의 시행으로 이루어지고 3·4조와 4·4조 등의 음수률을 기본률조로 삼고있는 시조형식은 격식화된 운률구조로 하여 내용표현에서 구속이 많은 약점은 있지만 간결하고 함축된 시구에 깊은 뜻을 담을수 있었다. 고려 말기에 활동한 최영, 정몽주, 리색, 리조년, 우탁 등은 시조형식을 리용하여 일련의 작품을 창작하였다.

이밖에도 고려시기에 리규보를 비롯한 진보적사상을 가진 량반문인들에 의하여 한자로 된 우수한 사실주의적시작품도 많이 창작되였다. 특히 리규보가 창작한 《동명왕편》은 중세서사시문학의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의의있는 작품이다.

중세시가문학은 리조시기에 와서 더욱 높은 수준에로 발전하였다. 특히 1444년에 우리 말을 자유롭게 적을수 있는 우리 글자가 만들어짐으로써 이때까지 입으로만 전하여오던 수많은 국어시가들이 우리 글자로 적혀서 시가집들에 묶이게 되였다. 또한 우리 글자로 된 여러가지 형태의 국어시가작품들이 훌륭히 창작될수 있었다.

고려시기에 발생하였던 시조가 이 시기에 와서 더욱 활발히 창작되였다.

리조 전반기에 김종서, 남이, 리순신과 같은 애국명장들에 의하여 반침략애국적인 시조작품이 창작되였으며 정철을 비롯한 진보적시인들에 의하여 당시의 어지러운 사회현실을 비판하거나 아름다운 조국강산, 근면한 농민들의 생활을 노래한 많은 시조작품이 창

작되였다. 시조가 널리 창작보급되는 과정에 17세기에 이르러서는 윤선도와 같은 시인에 의하여 《어부사시사》와 같은 40수로 된 련시조묶음이 나오기도 하였다.

시조가 계속 창작보급되는 과정에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점차 평민들에 의하여 시조가 창작되였고 이 과정에 엇시조, 사설시조와 같은 새로운 시조형식이 나왔다. 이런 시조작품들을 묶어 1727년에는 김천택에 의하여 《청구영언》이, 1763년에는 김수장에 의하여 《해동가요》와 같은 시조집이 간행되기도 하였다.

리조시기 시가문학의 발전에서 또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가사형식이 발생하여 많은 작가들에 의하여 창작된것이다.

15세기 중엽 정극인의 《상춘곡》에서부터 시작된 가사는 16세기에 이르러 당시의 시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계속 발전하였다. 이 시기에 가장 훌륭한 가사작품으로는 16세기 후반기에 나온 정철의 《관동별곡》을 비롯하여 박인로의 《태평사》와 《선상탄》을 들수 있다. 임진조국전쟁이 조선인민의 빛나는 승리로 끝났을 때 박인로는 가사 《태평사》(1598년)를 지어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였고 1605년에는 가사 《선상탄》을 지어 일본해적들에 대한 증오와 놈들이 침략해온다면 단숨에 쳐물리칠 투지,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절절하게 표현하였다.

늙고 병든 몸을 수군으로 보내시니
을사년 한여름 진동영에 내려왔네
진동영은 내 나라 국방의 요새
병이 깊다 내 어찌 편히 앉아있으랴

이렇게 시작되는 가사《선상탄》은 비록 늙고 병든 몸이지만 일본해적들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기 위하여 나선 시인의 애국적감정을 깊이있게 그리고있다.

가사작품은 18세기에 이르러 더 많이 창작되였고 가사형식이 평민들에게 리용되는 과정에 잡가와 같은 특수한 형식이 나오기도 하였다.

리조시기 시가문학의 발전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사실주의적인

한자시문학이 진보적작가들에 의하여 창작된것이다.

고려시기 사실주의적시문학을 이어 15—16세기 리석형, 김시습, 서거정, 성간, 림제, 리행, 서경덕, 허란설헌 등 진보적시인들에 의하여 리조시기 사실주의시문학은 새롭게 발전하였다. 이러한 시작품은 17세기 권필과 같은 시인들의 창작에 이어 실학파시인들에 의하여 더 많이 창작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실학파는 량반사대부들의 부패성과 공리공담, 무너져가는 봉건국가의 후진성을 개탄하고 〈실사구시〉의 구호밑에 사회적진보와 문명발전을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우수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여 우리 나라 근대문학의 려명기를 개척하는데 기여하였다.》

실학파작가들은 량반사대부들의 부패성과 공리공담, 무너져가는 봉건국가의 후진성을 개탄하며 우리 나라 근대문학의 려명기를 개척하는데 기여한 우수한 시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실학파시인들중에서 대표적인 작가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적성촌의 오막살이》, 《굶주린 백성들》, 《범사냥》을 비롯한 우수한 시작품을 수천편 창작하였다. 《적성촌의 오막살이》에서는 한 농촌마을의 오막살이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나서 다음부분에 가서는 이 집 《재산》이란 조 서너이삭, 고추 한꿰미, 깨여진 항아리와 무명이불 한채, 다 해진 옷가지, 이것이 전부라고 하면서 굶기를 부자집 밥먹듯 하고 여름에는 솜누데기, 겨울에는 삼베옷을 걸치고 다니는것이 이 집 식구들의 신세이니 아무리 세금독촉이 성화같아도 관가의 매를 맞는것쯤은 걱정할것이 못된다고 쓰고있다. 이와 같이 시는 당시 봉건통치배들의 억압과 착취밑에서 시달리고있는 농민대중의 기막힌 생활에 동정을 보내면서 잘못된 당시 사회현실을 비판하였다.

19세기에 와서 실학파의 영향을 받고있던 진보적시인들에 의하여 그 당시의 현실을 심각하게 반영한 비교적 규모가 큰 시가작품들도 창작되였다. 서사시 《방주의 노래》는 시인 김려의 대표적인 작품일뿐아니라 중세기 서사시문학의 대표적작품이다.

실학파시인들과 함께 우리 나라 봉건사회말기에는 김삿갓과 같은 풍자시인도 활동하였다.

봉건말기 김삿갓은 전국각지를 떠돌아다니면서 량반통치배들의 비행을 눈여겨 살피였고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형편도 실지 체험하였다.

김삿갓의 시창작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풍자이다.《온종일 머리숙인 나그네》,《원생원》,《산촌훈장을 조롱하노라》 등은 그의 풍자시에서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김삿갓은 또한《가난을 읊노라》,《비를 만나 촌집에서 묵으며》와 같이 당시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보여주는 작품도 창작하였다.

이와 같이 고구려시기부터 오랜 기간 근로인민들과 진보적시인들에 의하여 수많은 훌륭한 시가작품들이 창작됨으로써 우리 나라 중세시가문학은 우수한 시가유산을 남겨놓았다.

정 읍 사

달하 노피곰 도다샤
어긔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긔야 어강됴리
아으 다롱디리

전져재 녀러신고요
어긔야 즌대를 드대욜셰라
어긔야 어강됴리
아으 다롱디리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긔야 내 가는대 졈그랄셰라
어긔야 어강됴리
아으 다롱디리

달하—달아. 《하》는 《아, 이여》와 같은 호격토.

노피곰—《노피》는 《높이》, 《곰》은 《마다》와 비슷한 뜻을 가지는 단어로서 달이 오늘만이 아니고 언제나 높이 돋기를 바라는 뜻이 있다.

도다샤—돋아서. 《샤》는 존경토.

어긔야—힘든것을 끌 때의 감동사인 《어기여차, 어여차》와 비슷한 감동사.

머리곰—멀리멀리.

어강됴리—아무런 뜻도 없이 노래의 후렴으로 쓰이는 소리마디의 한 묶음.

아으—《아》와 맞먹는 감동사.

다롱디리—아무런 뜻이 없는 소리마디의 묶음.

전져재—온 장터 또는 온 장마당. 여기서 《전》은 한자의 온전 전자이고 《져재》는 《저자》 즉 장마당이라는 뜻.

녀러신고요—다니시지 않는지요.

즌대—질적질적한 곳. 《즌대》는 《진데》 곧 진창. 이 가요에서는 어떤 재해와 곤난(재난)을 비겨이른 말.

드대욜셰라—디디올세라(디딜세라).

어느이다—어디다가 또는 어디다.

졈그랄셰라—《졈그》는 《저물다》, 저물면 어두워지므로 《깜깜할세라》이다.

〔명언〕

글은 지식과 열정의 산물이다.

김 정 일

청산별곡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한 나도
자고니러 우니노라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아래 가던 새 본다
잉무든 장글랑 가지고
물아래 가던 새 본다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이링공 뎌링공하야
나즈란 디내와손뎌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또 엇디하리라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어듸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믜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라래 살어리랏다
나마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라래 살어리랏다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에졍지 가다가 드로라
사사미 짐대에 올아셔
해금을 혀거를 드로라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가다니 배브른 도긔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로기 미와
잡사와니 내 엇디하리잇고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살어리—살으리, 살아나보리.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무슨 뜻이 없는 소리마디의 결합.
널라와—너보다.
시름한—마음에 걸리는 근심과 걱정이 많은, 시름많은.
잉무든—이끼가 묻은, 이끼가 낀.
장글랑—《농쟁기》라는 《쟁기》와 통하는 말로서 《연장을》의 뜻.
이링공 뎌링공하야—이럭저럭하여.
나즈란—낮이야.
디내와손뎌—지내리마는.

바므란—밤을랑, 밤에는.
어듸라 더디던—어디다 던지던.
돌코—돌인가.
믜리도—미운이도, 미운 사람도.
괴리도—사랑하는이도, 정든 사람도.
바라래—바다에, 바다가에, 해변에.
구조개—굴과 조개.
사사미—사슴이.
짐대에—돛대에.
혀거를—켜는것을, (악기를) 타는것을.
가다니—가자니.
조롱곳 누로기—박꽃 누룩이.

시 조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 칼흘 옆에 차고 긴파람을 단는차에
어듸서 일성호가는 단아장을 하는고

(리순신)

한산섬—경상남도 통영과 거제도사이에 있는 섬. 임진조국전쟁때 일본침략군대가 여기서도 참패를 당하였다.
수루—적을 감시하는 루대.
긴파람—긴 휘파람.
일성호가—한가락 호가소리. 여기서 호가는 군악에 쓰는 관악기의 한 종류를 말함.
단아장—나의 애를 끊는다.

삭풍은 나무끝에 불고 명월은 눈속에 찬듸
만리변역에 일장검 짚고 서서
긴파람 큰 한소래에 거칠것이 없에라

(김종서)

삭풍—북풍.
찬듸—찬데.
만리변역—머나먼 변방지역.
일장검—한자루의 큰 칼.
큰 한소래—큰 고함소리.

동창이 밝았는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치는 아희들은 샹기 아니 일어느냐
재너머 사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남구만)

동창—동쪽창문.
노고지리—종달새.

이보오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오
나는 졂었거니 돌인들 무거울가
늙기도 설웨라커든 짐을조차 지실가

(정 철)

설웨라커든—서럽다 하거든.

관동별곡

《관동별곡》은 16세기의 시인 정철이 창작한 가사이다.(가사란 련과 행의 구분이 없이 죽 내려쓴 우리 말로 된 시가문학의 한 형태이다. 그래서 가사를 장가라고도 한다.) 정철은 호를 송강이라고 하였다.

정철(1537—1594)은 서울의 지체높은 량반가정에서 태여나 당시 국어시가에 조예가 깊은 이름있는 학자들이였던 김린후, 기대승 등에게서 글을 배웠다.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나자 정철은 조국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다가 강화도에서 사망하였다.

정철은 량반계급으로서 철저히 통치배들의 립장에 서있었으나 창작생활에서는 우리 말과 글을 사랑하였고 국어시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있었다.

정철은 1580년에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되여 원주에 가있을 때 금강산을 돌아보고 그 아름답고 황홀한 자연풍치를 생동하게 노래한 가사《관동별곡》을 창작하였다. 정철은 그밖에도《사미인곡》,《속미인곡》,《성산별곡》 등 가사작품들과 80여수의 시조, 한자시작품들을 창작하였다.

☆

…
행장을 다 떨치고 석경에 막대짚어
백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 들어가니
은같은 무지개 옥같은 룡의 초리
섯돌며 뿜는 소리 십리에 잦았으니
들을제는 우뢰러니 보니난 눈이로다
금강대 맨 우층에 선학이 사끼치니
춘풍 옥적성에 첫잠을 깨돗던지
호의현상이 반공에 솟오뜨니
서호 옛 주인을 반겨서 넘노난듯
소향로 대향로 눈아래 굽어보고
정양사 진헐대 고쳐올라앉안 말이
려산 진면목이 여기야 다 뵈나다
어화 조화옹이 헌사토 헌사할사
날거든 뛰지마나 섰거든 솟지마나
부용을 꽂안난듯 백옥을 묶었난듯
동명을 박차난듯 북극을 괴완난듯
높을시고 망고대 외로울사 혈망봉이
하날에 추밀어 무삼말삼 사로리라
천만겁 지나도록 굽힐줄 모르난다
어화 너 여이고 너 같은이 또 있난가
개심대 고쳐올라 중향성 바라보며
만이천봉을 력력히 혀여하니
봉마다 맺혀있고 긋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좋지마나 좋거든 맑지마나

저 기운 흘어내야 인걸을 만들고자
형용도 그지없고 체세도 하도할사
천지 삼기실제 자연이 되였마난
이제 와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할사
비로봉 상상두에 올라보니 기 뉘신고
동산 태산이 어나야 높돗던고
로국 좁은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넓거나 넓은 천하 어찌하야 적단 말고
어화 저 경계랄 어이하면 알거이고
오르지 못하거니 나려감이 고이할가
…

선학—(전설에서) 신선이 있는 선경에서 산다는 학.
호의현상—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 학의 모양을 형상적으로 나타낸 말.
조화옹—(전설에서) 세상만물을 만들었다는 늙은이.
헌사토 헌사할사—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다 또는 자랑스럽기도 자랑스럽다.
너 여이고—너를 내놓고, 너밖에.
혀여하니—세여보니, 헤아려보니.
긋마다—끝마다.
체세도 하도할사—몸갖춤새 많기도 하다.
인걸—뛰여난 인물.
천지 삼기실제—하늘땅이 생겨날 때.
유정도 유정할사—정답고 정답다.
상상두—맨 높은 산꼭대기.
올라보니—올라가본 사람.
기 뉘신고—그 누구이신가.
어나야 높돗던고—얼마나 높던가.
어화—옛날 시에서 쓰던 감탄사.
저 경계랄—저 지경을, 저 끝간데를.
고이할가—좋지 않을가.

강강수월래

달 밝았다 계명산천에 달 밝았다
강강수월래
달 밝았으면 오늘 밤도 승전이라네
강강수월래
나는 좋네 나는 좋아
강강수월래
석달열흘 기다려도 나는 좋네
강강수월래
우리 님은 승전하고 오실테니
강강수월래

간다 간다 나는 간다
강강수월래
님 따라서 나는 간다
강강수월래
바늘 가는데 실 안 가랴
강강수월래
열두바다 건너 나는 간다
강강수월래

너 죽으면 내가 있다
강강수월래
내 죽으면 하늘이 있다
강강수월래
어서 싸워라 나라일에
강강수월래
죽은 주검에 꽃이 핀다네
강강수월래

천년천년 사천년을
강강수월래

대대손손 자라왔네
강강수월래
만년만년 사만년을
강강수월래
대대손손 지켜가세
강강수월래

꿈에 뵙던 부모처자
강강수월래
늙지 않고 잘 계시나
강강수월래
오늘 밤에 승전하고
강강수월래
래일날은 돌아가세
강강수월래

방주의 노래

서사시《방주의 노래》는 김려가 지은 시이다.

김려는 19세기초에 창작활동을 진행한 시인이였다. 그는 량반가정에서 태여나 젊은 시절을 서울에서 보내면서 일찌부터 문학창작과 학문연구에 힘썼다.

그의 문집으로는 《담정유고》가 전해지고있다.

김려의 대표적인 시작품으로는 서사시《방주의 노래》가 있다. 그밖에 그의 중요한 작품으로는 진해에 류배되여있을 때 부령류배당시의 여러가지 일들을 회상하여 지은 시들을 묶은 시집 《사유악부》를 비롯하여 시집 《황성리곡》, 《상원리곡》 등이 있다.

시인 김려는 서사시《방주의 노래》에서 당시 가장 천대받으며 사는 백정과 어부들의 생활을 노래하고있다.

시에서는 먼저 호남지방의 백정으로서 온갖 멸시와 천대속에서 살아오는 가정에서 태여난 처녀 방주에 대하여 다함없는 찬양의 감정을 담아 노래하고있다.

방주는 젖떨어질무렵에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

속에서 자라난다. 3살에 말을 하고 4살에 셈을 세고 5살에 이웃집 아이들과 어깨나란히 밭머리에서 소꿉놀이하고 6살에 길쌈을 배웠으며 7살에는 국문을 깨치고 8살에 언니를 따라 제 손으로 머리를 빗고 밤에는 국문소설 《사씨남정기》를 소리내여 읽었다.

방주는 9살에 한문자를 배우고 10살에는 벌써 집안살림살이를 알게 되였으며 논밭에서 일하면서 농부가를 부르군 하였다.

이러던 방주가 열서너살 되던 해의 어느 무더운 여름날 말을 타고 지나가던 환갑나이의 파총(군영의 벼슬이름)이 개울에서 빨래하는 방주에게 마실 물을 한그릇 청한다. 공손한 태도로 물을 떠주는 방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첫눈에 황홀해진 파총은 이날 밤 방주네 집에서 하루밤 묵게 된다.

방주의 아버지인 주인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던 파총은 신분의 높고낮음에 관계없이 방주와 자기 아들과 혼인을 맺자고 꺼리낌없이 말한다. 이 부분이 선문교재로 되여있다.

서사시의 다음부분은 량반집 아들로 태여났지만 집안이 몰락하여 어부들속에서 눈물겨운 청소년시절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였던 파총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어부들의 비참한 생활을 보여준다.

아쉽게도 이 서사시의 그 뒤부분은 전해지지 않고있다.

…

어느덧 나이 열서너살
얌전하고 의젓한 어른이 되여
모든 례절을 갖출줄 아니
어여쁜 그 모습 하늘이 낸듯
바느질솜씨도 소문이 났고
길쌈재간도 따를이 없어
이른새벽에 베틀에 앉으면
어스름 저물 때는 비단필이 나오는데
은하수가의 직녀의 솜씨인듯
하늘무늬가 곱게도 놓였다네
가문의 귀천만을 따지지 말고
사람됨이 어떤가를 보아야 하리로다

아름다운 련꽃도 진흙에서 자라고
개천바닥에서 룡이 난다거니
이름좋은 방어만 고기라 말라
누구도 이 처녀를 따르지 못하리라

향기로운 긴초가 뿌리를 못 가진듯
단 샘물이 근원이 없는듯
세상리치는 공평해야 한다는데
지당한 옛말은 소용이 없구나…
온순하고 아름다운 이 규수는
마침내 얼마나 천해질것인가
방주는 제 가문 원망하지 않고
하늘땅이 좁은것만 한탄을 하였네

삼복더위가 숨을 막지만
그중에도 오늘이 가장 심하여
방안은 찌는 시루와도 같고
흐르는 땀은 자리를 적시네

질그릇에 빨래감을 담아 이고
사립문 나서니 가슴이 열리는듯
하늘에 타는 밝은 해는
넓은 들판에 빛을 쏟는데
흰 자갈 깔린 얕은 여울은
물무늬 곱게도 감돌아 흐른다

물결을 사랑하는 처녀마음 끝없는데
무정히도 여울은 저렇게 흐르누나
물밑에 바위는 깔려있는데
기슭엔 한없이 설레이는 부들풀
바위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건만
부들풀은 왜 저리도 변하기 쉬운가
방주는 생각에 잠겨 머뭇거렸네

이때 북쪽에서 파총이 오는데
그의 의기는 하늘이 떨칠듯
금빛안장에 수놓은 담요
말머리의 장식도 대단하여라
우뢰처럼 말발굽 울리는 소리
드높이 고삐를 추켜든 모습
번개처럼 채찍을 휘두를 때면
해살이 휘감겨 번쩍거린다

제주도 세량립 머리에 쓰고
의양 청모시로 웃옷 지어입고
귀밑엔 백옥으로 관자를 붙이고
허리엔 붉은 비단띠를 매고
키는 아홉자가 훨씬 넘는듯
눈에는 광채가 서리였는데
얼굴엔 결백한 모습 드러나고
수염은 간간이 희기 시작하였네

파총이 물가에서 선뜻 말에서 내려
따르는 사람들도 길옆에 세우고
방주에게 부드럽게 건네는 말
《아가씨 안녕하시오?
해빛쪼이며 가는 먼먼 길
더위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니
부끄럽소만 길가는 이 사람
갈증이 나서 견딜수 없소
아가씨 물을 좀 떠서 주시면
시원히 이 목을 추기겠소.》

방주 이 말을 듣고
공손히 허리 굽히며
왼손으로 빨래 집어
풀언덕에 쌓아두고

바른손에 쪽박들어
고이고이 씻은 다음
물살 헤치고 몇걸음 들어설제
걷어올린 다리의 하이얀 모습이여
맑은 물 가득 길어
두손으로 바치니
파총이 방주의 얼굴 보며
차마 선뜻 받지 못해
머뭇머뭇거리다가
두손만 비비였네

방주 그 뜻 알아차리고
부끄러워도 눈섭을 들며
《나으리는 길 가시는 손님
어데선들 례절에 어긋나리까만
갑자기 이런 들판에서야
어떻게 옛법을 다 지키리까
까다로운 차례를 생각지 마옵시고
편리하신대로 하시옵소서》

파총이 선뜻 바가지를 받으며
마음속에 기쁨을 못 참아
이러한 시골 궁벽한 곳에서
어진 처녀 만난것을 한없이 기뻐했네
—내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60평생을 살아왔건만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은
그 누가 저 처녀를 따른단 말이냐
허허 참 어떤 복있는 어머니가
저렇게 착한 딸을 낳았는고…
바라보면 정신이 황홀해지고
몸을 가누기도 힘들듯 하여라
온 누리가 환하게 빛나는 얼굴
산과 물도 고움을 시새우는듯

아기자기 요염한건 더러 있으나
저렇게 덕성스러움 천하에 드물도다
몸매가 어데나 두루 원만하고
이마가 넓고도 맑게 빛나며
눈섭사이가 곧고 바르고
입술은 너그럽고 윤기가 난다
코는 아름답기 봉새모습인듯
눈섭은 검은 활을 그린듯
열개의 손가락은 죽순처럼 곱고
두손바닥은 무르익어 붉어라

그 마음 맑고도 은혜롭고
그 얼굴 곱고도 깊이가 있으니
저런 처녀 부귀를 누리고
세상에 드문 복을 받아야 하리
하얀 발길 옮겨서 가는 모습
염염히 꽃다움이 피여올라
큰 산처럼 무거운듯 하고
하수처럼 깊은듯도 하고
머리숙일 때는 내려앉는 가을기러기
머리들 때는 날아나는 봄기러기
앞으로 보면 관세음보살인듯
뒤로 보면 석가여래인듯

장엄하고 단정한 얼굴에
마음도 맑고 한없이 넓어
꽃다웁기 란초같고
령롱하기 구슬같으니
가깝게 보면 모래우의 물새요
멀리서 보면 숲밀의 사슴이요
얼른 보면 바람앞의 꽃이요
자세히 보면 물결속의 달이여라

작은 시내엔 외나무다리
다리를 지나면 사립문 하나
문밖엔 까마귀 울고
두어그루 괴화나무 그늘이 짙고
집앞엔 물이 흐르고
집뒤엔 바위들 웅기중기
문안에 한자 남짓한
돌절구 놓은것이 방주네 집이라네

파총이 바라보고
서슴없이 말을 달려
사립문에 들어서 좌우를 둘러보니
눈에 뜨이는것 모두 괴이하다
더부룩한 개바주
여기저기 소가죽이 걸려있고
마당엔 짐승털
토방은 매우 넓기도 한데
둘러앉은건 어떤 사람들인가
가죽과 버들 다루는 명수들일세

더러는 헝클 머리 늘어뜨리고
더러는 쇠코중우 입은 그대로
더러는 가죽을 이기기도 하고
더러는 고리를 엮기도 하고
더러는 서서 칼질도 하고
더러는 앉아서 양내포를 굽다가
낯선 손님 오는데 너무 놀라서
물끓듯 떠들고 당황해하며
어른 아이 차례를 잃고
늙은이 젊은이 온통 뒤섞여서
분분히 문뒤에 숨기도 하고
급해서 개구멍으로 빠져도 나가고
갑자기 새짐승이 흩어진듯
먼지가 온집에 가득찼구나

주인이사 손발을 분간 못할판
옷 입고 신 신을 틈이 있었으랴
꼽추처럼 꾸부리고 뜰아래 엎드려
오래도록 감히 일어도 못 나니
예로부터 이 백정의 집에
꿈엔들 량반이 찾아온 일 있었으랴
《지난밤에 꿈이 좋았삽고
오늘 아침 까치가 지저귀더니
귀한 손님 이렇게 오시니
조상이 주신 복인가 하오이다》

파총이 이 말 듣고
뛰여가 정중히 붙들어 일으키며
《이 늙은이도 세상을 살아오며
가지가지 많은 일 다 겪었네
나라안의 사람이 다 동포라
지나쳐 겸손함은 그만두게
내 그대 집에 찾아왔으니
우리사이에 무슨 혐의가 있으랴

올여름의 더위는 참으로 심하여
근년에 드물게 본다네
길가에 보이는 콩이나 푸성귀들
잎이 타고 말라죽으니
이렇게 길 가기란 고생이 한이 없어
사람과 말이 배 고프고 피곤하네
원컨대 장작에 불을 지펴
저녁밥을 좀 지어주게나》

주인이 선뜻 대답하는 말
《저 분부 어이 어기겠소이까
저의 집이 비록 가난하오나
아직 굶지는 안사옵니다

독안에는 쌀이 있사옵고
가축도 살진것 있사옵지만
다만 한가지 걱정인것은
그릇이 변변한게 없사오니
평생에 처음으로 당하는 일이라
황송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나이다》

파총이 허허허 크게 웃으며
《주인은 참으로 소박하구먼
가난한 시골맛을 내가 좋아하네
초야의 생활을 감출턱이 있는가
하늘에서 받은 분수 그대로
즐거운듯 모두 살아가나니
막사발은 어떻고 뚝배기는 어떤가
허물없이 함께 앉아 먹어보세나》

……
따라온 사람들은 뜰에서 아무렇게나
서로 베고 코를 골며 잠들었네
파총이 간절히 주인에게 하는 말
《방에서 정답게 이야기나 나눕시다
잠시나마 서로 주객이 되였으니
우리사이 무슨 꺼리낌이 있겠소
예로부터 착한 사람 친구를 사귈 때
첫눈에 벌써 친해졌다오
사람의 한평생이 하루살이같다거니
이렇게 좋은 밤을 헛되게 보내겠소…》

주인이 이 말 듣고
황송하여 꿇어앉으며
《한솥에 지은 밥은 함께 먹었지만
한자리에 앉기야 어이하오리까
귀신의 눈이 번개처럼 번쩍이는
저 하늘이 무섭소이다》

파총이 너그럽게 웃으며
《지나친 겸손은 례절이 아니요
서로 믿으면 벗이 되고
정이 들면 형제처럼 가깝지요
저 공평한 하늘의 뜻이야
사람에게 어이 계급을 만들었겠소…》
주인이 이 말에 끌려
마루우에 올라와서는
서로 다정히 무릎을 맞대고 앉으니
사람에게 본시 무슨 등급이 있으랴

대밭에는 구슬처럼 이슬이 맺히고
처마끝엔 별들도 가물거리고
깊은 밤 반디불은 날아
보일락말락 우물가를 비치고
주위는 한없이 고요해졌는데
파총이 비로소 벼르던 말을 하였네

《우리 집에 훌륭한 사내아이가 있소
그대 집엔 저렇게 고운 딸이 있으니
사내아이 자라면 장가를 가고
처녀는 과년차면 시집을 가는 법
열매도 한철 젊음도 한철이라오
혼인할 때를 놓쳐서야 되겠소
그대는 여러가지 생각지 말고
단번에 선선히 승낙을 하시오》

주인이 이 말 듣자
가슴이 막히고 마음이 떨려
부모의 이름을 들은것처럼
귀로는 들어도 말은 안 나오네
《천인이 비록 어리석사오나
맑고 흐린것은 가릴줄 아옵니다
짚신도 날이 같아야 하며
삼베도 씨가 같아야 고르옵지요
본래 천인중에서도
백정이란 첫째가는 천인
종들보다도 훨씬 못하고
쟁인바치는 우러러 받드는 신세
량반들과야 하늘과 땅사이라
하시는 말씀 어찌 합당하오리까
저에게 무슨 죄가 있사옵거든
마음대로 매를 치시옵소서
혼백이 부지를 못하옵고
사지가 떨리옵니다
어이하여 그런 말씀 하시옵는지
너무 놀라와 죽을것만 같나이다》

파총이 주인의 말을 듣자
하하하 크게 웃으며
《귀한자는 조상의 덕분이요
천한 사람은 세상이 야박해서라
이 세상의 밝고 무궁한 리치야
만인간이 공평히 살라는것이요

뜯고 싸우며 계급을 만든 뒤부터
인간은 지옥처럼 괴로와졌소
그대 불행히 장거리에서
짐승의 살점을 손으로 만지지마는
착한 사람은 마음 편히 자기 일을 하고
소인들은 힘든 일을 피하는 법이요
부엌과 도마를 풍성히 해줌이
큰 갓 쓰고 뽐내는것보다 못할리 없지요

내 늙었으나 성질이 오활하여
더러운 세상풍속 따르기를 부끄러워하오
인연이 어긋나면 친한 사이도 원쑤가 되고
뜻이 합치면 성글던 사이도 혼인을 하지요
우리들이 친근한 사돈이 되는덴
오직 말 한마디면 넉넉하다오
빈부를 서로 묻지 맙시다
처지나 문벌을 왜 따지겠소
앞날에 젊은것들 잘살고 못삶은
팔자소관이라 하여둡시다
사람 하나가 오직 제일이지요
다른것은 아무것도 헤아리지 말자요》

이 말을 들은 주인은
묵묵히 대답없고
머리숙여 숨길 가다듬으며
오직 몸둘바를 몰라하였네
…

직녀—직녀성(별의 이름).

귀천—귀함과 천함, 부귀와 빈천.

규수—남의 집 처녀를 점잖게 이르는 말. 학문과 재주가 뛰여난 녀자.

부들풀—내가나 늪에 절로 나는 여러해살이풀의 한가지. 줄기는 1m 내외이고 잎은 가늘고 길다. 여름에 이삭모양으로 노란 꽃이 핀다. 꽃가루는 지혈제로 쓰이며 잎은 자리를 매는데 쓴다.

파총—봉건사회에서 각 군영의 종4품벼슬.

관자—망건에 달아 당줄을 꿰여 거는 작은 고리. 금, 옥, 뿔, 뼈들로 만든다.

요염하다—(사람의 마음을 확 끌 정도로) 매우 아릿답다.

하수—강물.

령롱하다—눈부시게 찬란하다. (말이나 행동이) 원만하고 능란하다.

쇠코중우—짧은 적삼.

꼽추—곱사등이.

초야—풀이 난 들이라는 뜻으로서 시골의 궁벽한 곳을 이르는 말.

과년—결혼하기에 적당한 녀자의 나이.

천인—봉건사회에서 사회의 가장 낮은 신분의 하나. 대개 대대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착취와 천대를 받는다.

쟁인바치—수공업적기술을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것을 업으로 삼거나 건축부문에 불려다니며 벌이를 하는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

혼백—넋.

부지—어려운 일을 오래 견디여 배김.

오활하다—곧바르지 않고 에돌아서 멀다. 사리에 어둡고 덩둘하다.

〔명언〕

인민을 믿는자는 보약이 차례지지만 인민을 등진자는 독약이 차례진다.

김 정 일

적성촌의 오막살이

《적성촌의 오막살이》는 우리 나라 봉건말기에 활동한 시인 정약용의 대표적작품의 하나이다.

정약용(1762—1836)은 경기도 광주군의 량반유학자의 가정에서 출생하여 서울에 가서 공부하였다.

정약용의 아이때 이름은 귀농이고 호는 다산 또는 여유당이라고 하였다.

정약용은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실학자의 한 사람이며 박식하고 재능있는 학자이고 이름난 시인이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글짓기솜씨가 뛰여났는데 6살 때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리워》라는 시를 지어 어른들을 놀라게 하였다고 한다.

그는 많은 실학자들과 사귀고 그들이 쓴 책들을 읽는 과정에 점차 사회현실을 비판적으로 대하고 《낡은 우리 나라를 새롭게 만들자》는 지향과 포부를 품게 되였다. 정약용의 실학사상에서 기본으로 되는 이 지향은 비록 봉건유교사상에 기초하고 거기에서 출발한것이기는 하지만 국력이 약화되고 외세의 간섭이 심해지고있던 당시의 조건에서는 애국적이며 진보적인것이였다.

정약용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구체적인 사실들에 기초하여 당대 사회현실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폭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백성들의 처지에 동정을 표시한 우수한 시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적성촌의 오막살이》, 《굶주리는 백성의 노래》는 그 대표적작품들이다.

시내가 찌그러진 집 한채
게딱지같구나
새바람에 이영 걷혀
서까래만 앙상하네

삭은 재에 눈이 덮여
부엌은 차디차고
허물어진 벽틈으로
별이 송송 비쳐드네

쓸쓸한 방안에는
그 무엇이 남았으랴
모조리 다 팔아도
한냥어치도 못될것을…

개끄리 조이삭
서너이삭
빨간 고추꿰미
단 한꿰미

깨여진 항아리는
헝겊으로 발랐으며
찌그러진 시렁대는
새끼줄로 얽매였다

놋수저는 지난날에
리정놈이 채가더니
쇠남비 남았던건
옆집량반 앗아가고

검푸른 무명이불
단 한벌뿐이여라
《부부유별》이란
당치 않는 말이로세

막내동이 입힌 적삼
어깨 다 나왔거니
바지 버선이야
끼여나 보았으랴

큰 아이 다섯살에
기병으로 등록되고
셋에 난 작은 애도
군적에 적혔다네

두 아들 군포세로
돈 닷냥 물고나니
죽기라도 원할판에
옷이 다 무슨 말고

아이랑 강아지랑
한방안에 잠 자는데
호랑이는 밤이 들면
울밖에서 으르렁거려

남편은 나무하러
안해는 방아품에
대낮에도 사립 닫아
볼 모양이 참담하다

아침 점심 다 굶다가
밤이라야 불 지피며
여름에는 솜누데기
겨울에는 삼베옷을

들냉이나 캐려 하나
해토 아직 아니되여
이웃집 술 나거든
술찌끼나 얻어먹세

지난봄에 꾸어먹은
환자가 닷말이라
금년엔 이짓 하고도
살길이 전혀 없네

무섭고도 두려울사
라졸놈이 또 안 올가
관가의 볼기쯤이야
걱정도 아니로세

어허！ 이런 집들이
온 천하에 가득하다
구중궁궐 깊고깊어
듣기나 하였으랴

한나라 옛 제도인
직지사자 파견하여
이천석 관리놈도
즉결처분 내렸거든

악정 학정 갖은 페단
뿌리부터 안 뽑으면
공황이 다시 온들
구원하기 어려우리

두어라
정협의 류민도인양
이 시 한편 그려내여
임에게나 드리고저

새바람—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리정—한개 리를 맡은 벼슬아치.

《부부유별》—3강5륜에서 5륜의 한가지. 남편과 안해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 뜻.

군적—군대명단.

군포세—군적에 들어있는 사람이 군대복무를 안하거나 못하는 경우 그 대신으로 봉건정부에 바치는 천이나 베, 무명 같은것.

구중궁궐—《아홉겹의 궁궐》이라는 뜻으로서 《아무나 함부로 드나들수 없게 겹겹이 문으로 막은 대궐》을 이르는 말.

한나라—옛날 중국의 나라이름.

직지사자—한나라때 암행어사와 비슷한 벼슬자리.

이천석—한나라때 지방장관의 벼슬이름.

공황—한나라때 백성을 잘 다스렸다는 공수와 황패라는 사람을 이르는 말.

정협—중국 송나라때 사람으로서 그림 그리는 사람을 시켜 류랑민의 모습을 그려 왕에게 바쳤다고 한다.

중세소설문학

우리 나라 소설문학은 오랜 력사적연원을 가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류문학사를 보면 어느 나라에서나 소설은 이야기형식의 작품으로부터 유래되였다. 소설이 발전하는 과정에 점차 묘사의 비중이 커지고 성격형상에 중심이 쏠리면서 이야기체가 묘사체로 바뀌여지고 내용은 성격형상을 축으로 하는 문학적인 이야기로 발전하였다.》

우리 나라 중세소설은 이야기형식의 작품으로부터 유래되였다.

인류사회의 이른 시기부터 발전한 설화문학은 우리 나라 중세소설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초기봉건국가였던 고구려에서는 《온달전》과 같은 소설작품이 창작되였다.

《온달전》과 같은 작품은 발해, 후기신라시기에 더 많이 나타났다. 설총이 쓴 《화왕계》, 최치원의 작품으로 인정되는 《두 녀자의 무덤》과 같은것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이야기형식의 작품집으로 짐작되는 《계림잡전》, 《신라수이전》도 간행되였다.

소설작품은 고려시기에 와서 더 발전되였다.

우리 나라의 첫 통일국가로 출현한 고려의 사회력사적인 환경은 문학의 여러 형태들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이 과정에 전시기부터 창작되여오던 소설문학은 새롭게 발전하였다. 의인전기체로 불리우는 《공방전》, 《국선생전》, 《죽부인전》 등 여러 작품들, 김부식과 일연이 저술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수록된 이야기형식의 작품과 렬전 그리고 리규보와 같은 작가들에 의하여 창작된 《게으름병을 조롱한다》, 《로극청전》과 같은 작품들은 전시기에 비하여 고려시기에 소설문학이 새롭게 발전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중세소설문학은 봉건사회의 발전과 함께 더욱 형태적으로 완성되였다.

중세기 소설문학은 15—16세기에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 소설문학의 발전은 15세기 후반기에 재능있는 작가인 김시습의 단편소설집 《금오신화》의 출현으로 설명할수 있다.

《금오신화》에 들어있는 5편의 단편소설들은 이미 죽은 녀인과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라든가 꿈에 있은 이야기 같은 환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끌어들여 당시의 불합리한 사회현실과 인민들의 사상적지향을 반영하였다.

《금오신화》에 실린 작품들은 당시 사회에 있었거나 있을수 있는 생활을 소재로 하여 창작된것으로서 이야기줄거리, 인물성격, 묘사 등에서 소설의 형식을 새롭게 갖추고 주제사상을 예술적으로 잘 밝혀냈다.

이 시기 소설의 발전에서 《금오신화》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16세기의 작가 림제가 창작한 《재판받는 쥐》이다.

소설 《재판받는 쥐》는 늙고 꾀많은 큰쥐가 뭇쥐들을 거느리고 나라창고의 낟알을 훔치다가 들켜서 창고신에게서 재판받는 이야기를 기본줄거리로 하고있다.

소설은 늙은 쥐와 창고신 그리고 여러 동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봉건통치계급의 탐욕성과 교활성, 봉건사회의 법의 문란성과 허위성을 보여주고있다.

임진조국전쟁이후시기인 17세기에 와서도 소설문학은 계속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이 시기 소설들은 허균, 김만중 등과 같은 진보적작가들에 의하여 창작된것이 있는가 하면 《임진록》이나 《전우치전》과 같이 구전설화에 따라 씌여진것으로서 그 작품의 작가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은것들도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와서 소설은 주제가 다양할뿐아니라 형태도 발전하여 단편소설과 함께 중편소설, 장편소설들도 창작되였다.

소설 《사씨남정기》는 김만중의 대표적인 작품일뿐아니라 17세기 소설의 대표작의 하나이다. 《사씨남정기》는 당시의 통치자였던 왕의 무능한 처사를 량반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 펼쳐보여주었다. 이 소설에서는 부패무능한 량반통치배들의 음흉하고 간악한 리면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류연수(사정옥의 남편)의 첩 교채란은 갖은 음모를 다 꾸며 사정옥을 집에서 쫓아내고 이어 남편 류연수마저 멀리 남쪽으로 정배를 보내게 한다.

남쪽으로 떠나게 된 사정옥은 어렵고 위험한 고비에 부닥치다가

마침내 귀양 가서 죽을 지경에 이른 남편과 만나게 된다. 그리하여 헤여졌던 사정옥일가가 다시 모여 행복한 생활을 누리며 교채란, 동청을 비롯한 부정인물들이 파멸당하는것으로 이야기는 끝난다.

소설에서는 이러한 인간들의 호상관계를 통하여 봉건축첩제도가 옳지 않음을 보여주는것과 함께 봉건지배계급의 부패성을 비판하였다.

17세기에는 봉건지배계급의 죄악과 봉건제도의 부패상을 폭로한 소설들과 함께 반침략애국적주제의 소설들도 창작되였다.

임진조국전쟁이후에 창작된 고전소설 《임진록》이나 병자전쟁이후에 나온《박씨부인전》,《림경업전》과 같은 작품은 반침략애국주의적지향이 강하다.

작품에 등장하는 긍정인물들은 남녀로소와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침략자들을 끝없이 미워하고 나라와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려져있으며 반침략투쟁에서 그들이 세운 위훈을 높이 칭송하였다.

18세기에 이르러 소설문학은 더욱 새롭게 발전하였다.

이 시기의 소설은 봉건통치자들의 죄악을 폭로하거나 봉건가족제도가 옳지 않음을 비판한 내용, 나라를 지켜 싸운 우리 인민의 투쟁과 남녀간의 사랑에 대한 내용 등 다양한 주제로 창작되였다.

이 시기의 소설은 표현형식상 국문소설과 한문소설의 두가지로 갈라볼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문소설이 한문소설보다 사상예술적으로 더 우수하였고 따라서 인민들속에도 더 널리 알려졌다.

18세기의 소설문학은 박지원의 《량반전》과 같은 단편소설들과 함께 인간들의 생활을 폭넓게 묘사한 《춘향전》이나 《심청전》과 같은 중편소설들과《옥루몽》,《사성기봉》과 같은 장편소설 등 다양한 형태로 창작되였다.

이 시기의 소설들은 그 형태가 다양할뿐아니라 그 전시기에 나온 소설들에 비하여 이야기줄거리도 잘 째이고 묘사수준도 훨씬 높아졌다.

18세기 소설문학의 발전에서 특징적인 현상의 하나는 한문으로 씌여진 소설들에 비하여 국문으로 씌여진 소설들이 더 많이 창작된것이다.

이 시기 국문소설의 대표적인 작품들은《토끼전》,《흥부전》,

《심청전》, 《춘향전》, 《옥루몽》, 《사성기봉》, 《쌍천기봉》 같은것들이다.

《흥부전》은 심술궂고 욕심많은 놀부가 망해빠지며 마음 착하고 부지런한 흥부가 복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통하여 욕심 사나운 부자놈을 미워하고 마음 착하고 가난한 인민을 동정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소설은 흥부일가의 모습을 통하여 가난하고 아무런 권리도 없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민들의 생활을 보여주면서 지주, 토호들이 얼마나 못된짓을 함부로 하였으며 욕심 사나왔는가를 폭로하였다.

《심청전》은 인민들속에 전해지는 부모에 대한 우리 나라 녀성들의 효성을 반영한 설화들에 기초하여 18세기에 소설로 창작된 작품이다.

소설 《심청전》은 일찌기 어머니를 여읜 가난한 처녀 심청이 소경인 자기 아버지를 위하여 공양미 300섬에 몸을 팔아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이야기를 소설의 기본줄거리로 하고있다.

《심청전》은 아버지에 대한 심청의 효성과 함께 당시 천대받고 압박받던 인민들의 생활을 보여주고있다.

《심청전》은 심봉사일가의 형상을 통하여 당시 인민들의 암담한 처지를 보여주고있다. 심청은 가난하고 천대받는 근로인민가운데서도 보다 참담한 처지에 놓인 소경의 딸이며 일찌기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의 슬하에서 동냥젖을 먹으며 자라난 녀성이다. 심봉사와 심청은 갖은 천대와 멸시속에서 살아왔으며 나중에 심청은 팔린 몸이 되여 죽게 되고 심봉사는 의지할데없이 류랑걸식을 하는 처지에 빠지게 된다. 소설에서는 심청이가 왕비로 되고 심봉사가 눈을 뜨고 딸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는것으로 이야기를 맺어주었는데 이것은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념원과 지향을 반영한것이다.

《흥부전》이나 《심청전》과 같은 소설은 앞부분은 사실주의적수법으로 그려졌다면 뒤부분은 랑만주의적수법으로 씌여졌다.

18세기말에 이르러 실학파의 작가인 박지원에 의하여 《량반전》, 《허생전》과 같은 의의있는 단편소설이 창작되였으며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근대소설의 맹아적인 요소를 내포한 《배비장전》이나 《채봉감별곡》과 같은 소설이 창작되였다.

소설 《배비장전》은 구전설화에 토대하여 창작된 작품으로서 봉건사회말기 량반들의 위선성과 부패성을 날카롭게 풍자하고있는 작품이다.

이 시기의 소설들은 환상적수법에서 벗어나 생활을 있는 그대로 실감있게 그리고있는것이 특징적이다. 이런 특징은 특히 《채봉감별곡》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되고있다.

이 소설은 종전의 중세소설들에 비하여 중세기적인 환상의 수법이 없어졌으며 언어문체에서는 한문투가 상당한 정도로 없어지고 입말을 많이 쓰고있으며 묘사에서도 새로운 전진을 하였다.

소설 《채봉감별곡》은 이런것으로 하여 조선문학사에서 중세 마지막시기를 대표하는 중요한 작품의 하나로 되고있다.

우리의 중세소설문학은 이와 같이 오랜 시기에 걸쳐 발전하면서 우수한 유산을 남겨놓았다.

임 진 록

국문소설 《임진록》은 임진조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인민들속에서 창조되고 보급된 애국적설화들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작품이다. 이로부터 임진년(1592년)에 일어난 왜놈들과의 싸움에서 있은 이야기를 기록한것이라는 뜻에서부터 《임진록》이란 제목이 나온것이다.

소설은 네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여있다.

작품의 첫째 부분에서는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나라안팎의 정세와 임진조국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였는가에 대하여 쓰고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일본이 어떤 나라이며 왜놈의 괴수 도요도미히데요시(풍신수길)란 놈이 어떤 놈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한 다음 이놈이 우리 나라를 먹어보려는 더러운 욕심을 품고 조선팔도에 밀정들을 들여보내여 나라안의 형편을 알아내게 하는 한편 싸움배도 많이 뭇고 무기도 푼푼히 장만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전쟁준비를 서두르고있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작품은 이러한 형편에서도 나라를 지켜나갈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서로 벼슬자리만 다투고있는 우리 나라 조정의 형편에

대하여서도 폭로하고있다.

작품의 둘째 부분에서는 1592년(임진년) 4월 왜놈들이 불의에 쳐들어온 전쟁초기의 형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있다.

여기에서는 전쟁초기에 왜놈들이 일시적인 우세를 차지하고 우리 나라 깊이에까지 쳐들어온 사실을 그대로 그려내면서 왕을 비롯한 무능하고 비겁한 봉건통치배들이 적들과 변변히 싸워보지도 않고 제 목숨 하나를 건지려고 비겁하게 멀리 압록강변에까지 도망침으로써 조국강토를 원쑤놈들에게 내말긴데 대하여 폭로하였다.

한편 목숨으로 나라를 지켜 싸운 동래부사 송상현, 한성판윤 신립 등 여러 애국적인물들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하고있다.

소설의 셋째 부분은 리순신장군의 해전에서의 승리를 비롯하여 정문부, 곽재우, 김응서, 김덕령 등 의병장들이 각지에서 원쑤놈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주면서 놈들을 무찔러나가는 이야기를 생동하게 펼쳐보이고있다. 특히 1597년 1월 또다시 침공하여온 왜적을 완전히 소멸하기 위한 로량해전에서의 우리 수군의 빛나는 승리와 리순신장군의 최후장면을 감동적으로 그려내고있다.

작품은 마지막 네번째 부분에서 왜적이 우리 나라 강토에서 쫓겨난 다음 애국적인 중이였던 서산대사의 제자 사명당이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놈들의 온갖 음흉한 잔꾀를 짓부시고 일본왕에게서 항복서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이야기를 쓰고있다.

교재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해전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리순신장군의 모습을 그린 부분을 발취한것이다.

이 소설은 사건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끌어나가는 주인공을 내세우지 않고 애국적명장들과 의병장들의 투쟁을 엮어나가는 독특한 구성형식을 취하여 임진조국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반침략애국투쟁을 폭넓게 형상하고있다.

…

리순신이 갑주를 입고 노를 저어나가 요해처에 매복하였더니 적장 마적시 동남풍이 일어남을 보고 이때에 순풍을 좇아 치면 원쑤를 갚으리라 하고 즉시 십여척에 총포와 염초, 화약을 갖춘 후에 일시에 행선하여 순신의 진에 나아가 급히 불을 놓고 쪄치니 순신

의 군사 일정 요동치 아니한지라 고이 여겨 자세히 보니 빈 배에 초인만 서있거늘 마적시 대경하여 배를 돌려가고저 하더니 문득 함성이 크게 일어나며 순신의 복병이 화포를 놓으며 편전과 화전으로 어지러이 쏘니 왜병이 무수히 맞아죽난지라 비록 대적코저 하나 살과 철환이 이미 초인 실은 배에 허비하였는지라 능히 대적치 못하고 군사를 거의 다 죽이고 겨우 백여명을 거느리고 남해로 달아나더니 수상에서 무수한 전선이 급히 따르며 크게 우여왈《적장은 이제 하날로 오른다, 땅으로 드난다》하는 소래 벽해를 흔들더라, 바라보니 큰 기에 썼으되《조선수군대장 리순신》이라 하였거늘 대경하여 피코저 하나 피할 곳이 없는지라 배를 한데 모으고 민망하여 하더니 또 리억기, 원균의 수군이 따라와 좌우로 들어오거늘 도적이 능히 동서를 분별치 못하여 황망전도히 도망할 새 순신이 승세하여 몸을 공중에 날려 왜선에 뛰여들어 왜병을 몰수히 버히니라.

이때 왜병 하나이 배에 숨었다가 조총으로 순신을 쏘니 순신이 어깨를 맞았는지라 본진으로 돌아올 새 피가 흘러 갑주에 사무쳤더라. 제장이 대경하여 갑주를 벗기고보니 철환이 두어치나 들어갔거늘 제장이 한심하여 아무리 할줄을 모르고 황망하여 한대 순신이 안색을 불변하고 천연히 앉으며 의술로 하여금 칼로 살을 베여 철환을 빼여내라 하니 장졸들이 더욱 실색하더라.

철환을 빼여낸 후에 약을 발라 싸매고 누워 조리하려다가 다시 생각하고 이때를 당하여 대장이 누워 일어나지 아니하면 군정이 불우할가 념려하여 혼자 가로되《대장부 요만 상처에 어찌 누워 조리하리요.》 하고 즉시 전선을 거느려 한산도로 돌아가 뭍에 진을 치고 장졸을 호상한 후에 상처를 조리하더라.

갑주—갑옷과 투구. 옛날 군사들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몸에 입고 머리에 쓰는 물건.

요해처—군사상 중요한 곳. 적을 막기에 편리하고 쳐들어오기에 불리한, 지형이 험한 곳. 은해지라고도 한다.

순풍—배가 가려는쪽으로 부는 바람. 또는 순하게 부는 바람.

총포—총과 포.

염초—초석. 화약의 일종.

행선—배가 떠나는것, 배를 내모는것.

일정—한결같이, 아주.
요동하다—흔들어 움직이다.
초인—풀로 사람처럼 만든것.
대경하다—크게 놀라다.
편전—총통에 넣어서 쏘는 짧고 작은 화살. 아기살.
화전—불을 일으키는 화살.
오른다—오르는가.
드난다—들어가는가.
벽해—푸른 바다.
민망하여—안타까와.
리억기(1561—1597)—17살에 무관으로 되였고 녀진을 내모는 싸움에 공을 세웠다. 임진조국전쟁에서 리순신과 함께 많은 전투에서 공을 세웠으나 리순신이 억울하게 옥에 갇힌 다음 원균이 통제사가 되였을 때 칠천도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원균—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난 1592년 경상우수사로서 적의 침공을 막아 싸우기도 전에 함대를 괴멸시키고 도주했으며 리순신장군이 옥에 갇힌 다음에는 그의 뒤를 이어 3도수군통제사로 되였으나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못하고 리순신장군이 축적해놓은 모든 성과를 무너뜨리고 부화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1597년 7월 전함대를 완전히 붕괴시키고말았다.
황망전도히—몹시 당황하여 엎어질듯이.
승세하여—유리한 형세를 타서.
몰수히—있는 수효대로, 모두.
제장—여러 장수들.
안색을 불변하고—얼굴빛을 변치 않고 태연하게.
실색하여—놀라서, 얼굴빛이 달라져.
철환—총알.
군정—군대의 규률.
불우할가—예견치 못한 일이 생길가보아.
한산도—1592년 7월 8일 왜적함대를 크게 격파한 고장, 1593년 6월 해군의 주둔지로 된 고장.
호상하다—봉건시대에 군대들을 위로하여 크게 잔치를 베풀어 음식을 먹이며 표창하다.

재판받는 쥐

소설《재판받는 쥐》는 림제가 지은것이다. 림제(1549—1587)는 16세기 후반기에 활동한 시인이며 소설가이다.

그는 전라도 라주에서 태여났다. 그의 아버지 림진은 절도사라는 벼슬을 지낸 량반으로서 외래침략자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나라를 지키는 초소에서 활동한 애국자였다.

마음이 깨끗하고 정의감이 강하며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품고있던 림제는 당파싸움에도 휩쓸리지 않고 그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대하였다.

림제는 소설작가로 널리 알려져있지만 시조, 한자시 등의 시작품들도 적지 않게 쓴 시인이기도 하였다. 그의 대표적인 시작품들로는《마소의 노래》,《잠령민정》,《두메사람들》,《먼 수자리》,《그네노래》 등이 있다.

림제의 소설로는 재치있는 의인화의 수법으로 봉건통치배들의 부정면을 날카롭게 폭로비판한 《재판받는 쥐》를 비롯하여 《꽃력사》, 《시름에 싸인 성》, 《원생의 꿈이야기》 등이 있다.

소설《재판받는 쥐》는 늙고 꾀많은 큰쥐가 뭇쥐들을 거느리고 나라창고를 뚫고들어가서 낟알을 도적질해먹다가 창고신에게 잡혀서 재판받는 이야기를 기본줄거리로 하고있다.

작품의 이야기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작품의 첫머리에서는 마을로부터 외따로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는 창고집에 대하여 그리고 큰쥐에 대하여 소개하고있다.

작품의 사건은 이 큰쥐가 뭇쥐들을 거느리고 나라창고에 뚫고 들어가서 10여년이나 낟알을 파먹다가 창고신에게 들켜서 취조를 받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창고신은 큰쥐의 죄과가 대단히 큰데 이러한 엄청난 일을 혼자서 했을수는 없다고 하면서 그의 공모자와 사촉자를 댈것을 요구한다.

간사한 큰쥐는 자기의 죄를 덜기 위하여 있지도 않는 사촉자, 공모자를 꾸며댄다. 처음에 그는 자기가 창고벽을 뚫을 때 복숭아꽃은 생긋생긋 웃고 버들가지는 하늘하늘 춤을 추어 자기를 고무해주었다고 그들을 고발한다.

창고신이 복숭아꽃과 버드나무의 넋을 잡아다가 심문을 하니

그들은 자기들은 본래부터 천성이 그래서 웃고 춤춘것이지 쥐를 보고 그런것은 아니라고 변명한다. 창고신은 그들을 옥에 가두어두고 다시 쥐를 심문한다.

이렇게 쥐는 고양이와 개, 족제비와 두더지, 여우와 삵, 고슴도치와 수달, 노루와 토끼, 사슴과 메돼지, 양과 염소, 원숭이와 코끼리, 이리와 곰, 소와 말 그리고 기린과 사자, 범과 룡에 이르기까지 여러 동물들을 일러바친다. 창고신은 그들을 잡아다 심문하나 그들은 저저마다 자기는 죄가 없음을 변명하고 쥐의 간사함을 분해한다. 창고신은 그들을 옥에 가두고 큰쥐에게 나라의 창고를 뚫고 그 많은 량곡을 도적질하는데 어찌 너와 같은 일개 미물의 힘으로 할수 있었겠느냐고 하면서 바삐 사실대로 말하라고 위협하며 으른다.

큰쥐는 말이 길면 요령을 잡기 어려울것이며 끌어대기를 많이 하면 분별하기가 어려울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새삼스럽게 앞에 든 여러 동물들의 《죄》를 길게 늘어놓은 다음 계속하여 달팽이와 개미, 반디불과 닭, 두견새와 앵무새, 꾀꼬리와 나비, 제비와 개구리, 박쥐와 참새, 까마귀와 까치, 소리개와 올빼미, 게사니와 집오리, 뱁새와 비둘기, 메추라기와 꿩, 보라매와 새매, 기러기와 따오기, 황새와 들오리, 갈매기와 해오라기, 골새와 독수리, 비취새와 원앙새, 꼬청과 비오리, 란새와 학 그리고 봉황새와 공작새까지 끌어댄다.

그래도 안되니 이번에는 교활하게 륙지에는 없는 대붕새와 고래에게 죄를 밀었으며 그것 역시 실패하자 이제부터는 《지극히 작고 어리석고 밸도 없고 배심도 없는 미물》들을 끌어대기로 결심한다. 그리하여 그는 벌과 매미, 거미와 버마재비, 하루살이와 잠자리, 파리와 모기, 두꺼비와 지렁이, 가재와 게 등 무려 80여가지의 동물들을 고해바친다.

큰쥐의 간사스러운 말에 성이 독같이 난 창고신은 형리, 라졸들에게 쥐를 쇠줄로 묶어 기둥에다가 거꾸로 달아매고 제대로 말할때까지 가혹한 형벌을 내리라고 무섭게 명령한다.

쥐는 얼굴이 파래져서 눈물을 좔좔 흘리면서 마지막으로 할 말을 하고 죽기를 애원한다. 창고신의 허락을 받은 큰쥐는 다시한번 달팽이로부터 파리, 모기에 이르는 새들과 미물들의 《죄행》을 고발한다.

그러다가 큰쥐는 자기를 노려보는 사나운 개와 표독스러운 고양이모습에 질겁하여 그만 자기를 그렇게 만든것은 결국 상제의 뜻이라고 하면서 상제를 건드리는데까지 이른다.

이리하여 이 사실이 상제에게 알려지게 되며 상제는 엄중한 판결을 내린다.

상제의 판결에 의하여 쥐는 창고앞에서 처단되고 애매하게 옥에 갇혔던 뭇짐승들은 석방된다. 풀려나온 그들은 쥐에게 마음대로 복수하며 쥐무리들은 모조리 섬멸을 당한다.

교재는 창고신이 큰쥐를 기둥에다 거꾸로 달아매고 문초하는 대목으로부터 이 작품의 마지막까지의 부분을 발취한것이다.

…

가재와 게를 옥에 가두어넣고 형리, 라졸들에게 명령하여 쇠줄로 쥐를 결박하여 기둥에다 거꾸로 달아매고 다섯가지 형벌기구를 내여놓는 한편 큰 가마에 기름을 끓이면서 위협한다.

《늙은 도적놈! 마땅히 삼족을 멸할것이다. 네놈의 당류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잡아들여 한꺼번에 죽일테다. 하늘과 땅사이에 크고작고 날고기고 꿈틀거리는 물건치고 네놈의 구초에 오르지 않은것이 없으나 모두 허망에 돌아가고 하나도 그럴듯 한 증거가 없다. 너의 죄상은 더할나위없이 청천백일하에 드러났다.》

하고 형리들에게 다시 명령한다.

《너희들은 먼저 날카로운 칼로 이놈의 주둥이를 자르고 가죽을 벗겨라. 사지를 찢고 가슴팍을 찔러라. 꼬리와 귀를 베고 눈을 빼고 대가리를 끊고 허리동아리는 끓는 가마속에 집어넣어서 데치고 삶고 찌고 휘젓고 하여 한점의 살도 남기지 말라.》

창고신의 추상같은 명령이 내리자 늙은 쥐의 얼굴은 문득 풀잎처럼 새파래지고 줄방울의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으로 몇마디만 더 하고 죽기를 애원하였다.

그래서 창고신은 《할 말이 무에냐?》고 하였다.

이때에 늙고 간사한 쥐는 어미젖 먹던 힘까지를 다 내여 한바탕 장황하게 진술하였다.

《다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두렵습니다만 이 늙은것이 여직껏

고백한바 여러 짐승들이 죄를 범하지 아니한 놈은 하나도 없었건만 나으리께서 너무 인자하시여 다스리기를 엄하게 안하였기때문에 그 놈들이 모두 불복한것이옵고 이 늙은 놈이 처음부터 속여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나으리께서는 이 늙은것을 간사한 놈으로만 알으시고 저들이 이 늙은것보다 몇백배나 더 간악한줄은 도무지 모르오니 이것이 더욱 억울한바입니다.

첫째, 달팽이로 말하오면 귀, 눈, 입, 코 일곱 구멍이 뚫리지 못하였고 사지가 생기지 못하였으니 본대 생물이라 할수 없으므로 죄를 짓고도 죄가 무엇인줄도 모르는 물건입니다.

개미로 말하오면 한 미미한 벌레에 불과한것들이 제멋대로 성곽을 벌려놓고 망녕되이 나라이름을 지어서 만승천자의 행세를 하고있으니 그 참람한 죄는 만번 죽어도 남지 아니하리이다. 나라의 칭호도 감히 도적하여 쓰는데 이 늙은것을 사촉하여 나라창고를 훔쳐먹게 하는것쯤이야 누워서 팔떡먹기입니다.

반디불로 말하오면 빛의 큰것으로 해와 달이 있고 빛이 작은것으로서는 등잔과 초불이 있는데 반디불은 한치도 못되는 형각에 한점의 불을 켜가지고 나무에 붙어서 반짝거리고 물에 대질러도 꺼지지 아니하여 자칭 밤을 낮으로 만드는 재주를 가졌다고 하오나 이는 고작해야 깊은 궁궐 가을밤에 한갖 소박받은 첩년들의 원망을 북돋으며 빈 주막 가랑비에 속절없이 먼 나그네들의 시름을 자아낼뿐이오니 보잘것이 무엇 있으오리까? 더구나 여우, 삵과 흉악한 범, 이리를 한밤중에 앞서 인도하여 담장을 넘어 사람의 집으로 끌어들여서 한량없는 재앙을 끼치게 하오니 생김은 비록 작으나 해독은 실로 큽니다.

닭으로 말하오면 사람의 기름을 받고 사람의 은혜를 입었으니 마땅히 사람에게 리익이 있는 노릇을 해야만 할것인데 한다는짓은 한갖 사람이 애써 가꿔놓은 채마를 발로 파뒤지고 사람이 금이야옥이야 하는 곡식이삭을 주둥이로 쪼아먹으며 혹은 암놈이 소리쳐 부르짖고 혹은 초저녁에 울기도 하여 주인집에 재해를 주오니 이야말로 거치른 닭이라 상서롭지 못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두견으로 말하오면 가죽에는 털이 드물고 울고는 반드시 피를 토하오니 그 생김을 족히 알수 있습니다. 그는 새끼를 기르지 않고 뭇새를 저의 신하로 여기오니 그 어리석음을 가히 알수 있습니다.

산천이 막히지 않고 날아서 못 갈바 없으니 돌아가려면 돌아갈것이지 누가 못 가게 하기에 항상 불여귀를 부르짖고만 있습니까? 그는 자칭 임금의 넋이라고 하나 믿을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 많은 수풀을 다 두고 하필 나그네창밖에 와서 울며 대낮에 무얼 하다가 달밤에야 구슬퍼합니까? 이 늙은것이 도무지 료량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앵무로 말하오면 하늘이 만물을 마련할 때부터 사람과 짐승이 말을 통하지 못하는것은 리치의 떳떳한 일이어늘 오직 이 새는 능히 사람의 말을 알고 사람의 뜻을 통하여 손님이 오면 반드시 알려주고 일이 있으면 반드시 고하오니 이는 요망한 물건입니다. 요망한 놈의 말을 곧이듣고 이 늙은것이 말씀드리는것은 순전히 허망한것으로 들리오니 옛말에 요망한것은 덕을 이기지 못한다는것이 도리여 빈말로 되고말았습니다.

꾀꼬리로 말하오면 그 빛이 아무리 고운들 그림만 같지 못하며 그 소리가 아무리 좋은들 풍악소리를 당할수 없는데 세상사람들은 그림을 버리고 그놈의 빛을 취하고 풍악을 두고 그놈의 소리만을 들으려 하오니 이것이 유혹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구나 그놈의 소리는 음탕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즐겁게도 하고 서러워하게도 하오니 이는 요망한 소리가 분명합니다. 그 소리가 요망할진대 그 마음인들 요망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면 나으리께서 지적하신 간사한것은 비단 이 늙은것에게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나비로 말하오면 그놈은 일시 벌레의 화신이며 오행의 완전한 기운을 타고난 물건이 아니므로 그 근본이 보잘것 없거늘 세상사람들은 그의 가볍고 연약한 모양을 사랑하기도 하며 시인들은 펄펄 나는 분결같은 날개를 읊기도 하니 그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백방으로 아첨하는것을 미루어 알수 있습니다.

한개 미물로서 갖은 술책을 다 부리여 혹은 철인의 꿈에 들어가 형체를 바꾸며 혹은 미인의 몸으로 변장하여 사람을 유혹하니 그 변화하는 요술은 귀신도 오히려 측량하지 못하오니 그놈이 구멍파는 짐승으로 화하여 창고에 쌓인 곡식을 훔쳐먹지 아니했다고 누가 보증하겠습니까?

제비로 말하오면 말만 나불나불할뿐이옵고 성질은 실상 투미하

여 가벼이 날기에만 힘쓰고 진중하지 못하며 남의 심부름군으로 편지나 전해주오니 어찌 그리 지저분합니까? 온집에 불이 붙는줄도 모르고 제 보금자리에서 암놈수놈이 새끼와 함께 기뻐하오니 어찌 그리 어리석소이까?

개고리로 말하오면 밤새도록 우는것이 무엇을 하소하며 진종일 떠드는것이 무엇을 말함인지 한갖 사람으로 하여금 귀를 가리고 이마살을 찌프리게 할뿐입니다. 그리고 그놈의 공술가운데에 은연히 함구무언하려는 의사가 있으니 그놈이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것입니까? 나으리를 속이는것입니다.

박쥐로 말하오면 본디 저의 집안 서파자식들이였는데 애초에 저의 집 적파가 몹시 빈한하여 생활이 곤난하므로 박쥐들은 일가를 배반하고 족보를 파가지고 날짐승에게 투탁하여 그들의 날개를 빌리고 그들의 세력에 의지하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였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것이 문중회의를 열고 그놈들을 잡아다가 조상사당앞에 꿇어앉히고 벌을 주려고 하니 그놈들은 문득 날아가며 하는 소리가 우리는 본디 조씨이지 서씨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하였습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그놈들이 날짐승패에 들어 덤비다가 〈집에서 새던 쪽박이 들에 가서도 샌다〉는 격으로 부정한 행실이 탄로되여 날짐승들의 배척을 받게 되면 그때에는 또 조씨가 아니고 서가자손이라고 칭탁합니다.

그놈들의 심사가 하도 괘씸하기에 이 늙은것이 루차 꾸짖고 사정을 두지 아니하였더니 그놈들이 이것으로 반감을 품고 험담과 중상을 일삼아온지가 이미 오랬습니다. 더구나 이 늙은것이 곤경에 빠진것을 보고는 그놈들이 샐쭉샐쭉 웃으며 미친 춤을 추는판이온데 어찌 이 늙은것을 위하여 사실을 자백하겠습니까?

참새들로 말하오면 그 몸집이 반드시 저보다 크지 못하며 그 지혜가 반드시 저보다 많지 않건마는 다만 나는 재주를 믿고 이 늙은것의 일족을 아주 업수이 여기고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일 그놈의 날개를 잘라버리면 그다음엔 갈데 없어서 반드시 이 늙은것의 구멍으로 기여들어 서가의 일족에 탁명하기를 애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늙은것이 가문의 명예를 위하여 항상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갈데없는 그들은 저의 문밖에서 더러 얼고 굶어죽은자가 있게 되였습니다. 이 까닭에 그들이 당치 않은 원한을 품

고 기회만 있으면 이 늙은것을 잡아먹으려고 할것은 뻔한 일이 아니옵니까?

까마귀로 말하오면 성질이 본대 음흉하고 소리조차 상서롭지 못합니다. 사람이 죽어가면 반드시 먼저 알고 병들려면 또한 먼저 알리기때문에 세상에서는 까마귀를 귀신졸개라고 부릅니다. 자신은 열두가지 소리를 한다고 자랑하나 어느 누가 그 소리 듣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까치로 말하오면 지혜로운듯 하면서 간사하고 공교한듯 하면서 옹졸합니다. 이른아침에 짖으면 반가운 소식이 온다고 하나 반드시 그렇지도 아니한데 공연히 빈 이름만을 얻고있으니 그놈으로선 어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소리개와 올빼미로 말하오면 두놈의 성질과 모양이 비슷합니다. 오곡의 맛은 즐기지 않는자가 없는데 소리개는 이것을 싫어하고 오직 썩은 고기를 좋아하며 태양의 빛은 반기지 않는자가 없는데 올빼미는 이것을 꺼리고 항상 어두운 밤을 좋아하오니 그들의 당류가 천하고 성질이 음흉함을 족히 알수 있습니다. 이 늙은것이 그놈들의 가르침을 받은것을 이제 와서 생각하니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게사니와 물오리로 말하오면 그놈들의 우리가 마침 이 늙은것의 집과 가까와서 항상 시끄러운 소리로 고요한 지경을 깨뜨리기에 늙은것이 무뚝 솟아오르는 분기를 이기지 못하여 몰래 그우에 기여들어가서 먼저 게사니의 다리를 깨물으니 게사니는 고함을 치고 달아났으며 그다음 물오리의 가슴을 물어먹으니 물오리는 살이 다하고 뼈가 나와도 입을 악물고 한마디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한놈은 성질이 왈패스럽고 한놈은 성질이 몹시 독살스러우니 어찌 례사 잡도리로써 그들을 자복시킬수 있겠습니까?

뱁새로 말하오면 바탕이 보잘것 없으니 그속엔들 무엇이 있겠습니까?

비둘기로 말하오면 성질이 심히 옹졸하니 그 무슨 뛰여난노릇을 하겠습니까? 메추라기와 꿩은 그 고기맛이 좋은탓으로 제 목숨들을 잃어버립니다.

매와 새매로 말하오면 특수한 재간을 가졌기때문에 흔히 사람들에게 잡히는바가 되오니 이는 맛있는것이 맛없는것만 같지 못하오며 재주있는것이 재주없는것만 같지 못합니다. 아, 가엾소이다.

이 늙은것도 만일 아무 지각도 꾀도 없었던들 어찌 오늘날의 불행이 있겠습니까?

큰 기러기와 따오기로 말하오면 그들은 눈치만 보면 그만 피하고 기틀을 알면 문득 날아가버리니 평생에 죽을고로 들어갈리가 만무하겠지만 그래도 갈대밭에 내려앉아 마름과 련밥을 먹다가 가끔 사람들의 화살, 주살에 맞아서 신세를 그르치니 이 늙은것이 먹기를 위하다가 목숨을 빼앗기는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황새와 들오리로 말하오면 다리와 부리가 길뿐이니 그들의 소장이란 다리와 부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지혜가 적어서 혹은 주살에 죽으며 계교가 짧아서 혹은 돌팔매에 상하오니 이는 먹는데만 밝고 몸보호에는 어두움이 이 늙은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갈매기와 해오라기로 말하오면 겉은 희나 속은 검기때문에 이들은 겉보기와 다른 무리입니다. 이들이 까마귀가 새까맣다고 몹시 비웃지마는 이는 남들의 겉 검으면 속도 검은줄만 알고 자신들의 겉 희고 속 검은줄은 도무지 모르는 까닭입니다. 속이 검다는것은 그 마음이 도적놈이라는 말이오니 이들이 이 늙은것을 사촉한것은 더 의심할바 없습니다.

골새와 독수리로 말하오면 기운이 억세고 마음이 녕악하여 죽음을 겁내지 아니하는 무리오니 죽을 죄를 짓고도 자복하지 아니할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비취와 원앙으로 말하오면 한갖 깃과 털의 아름다움으로 범죄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였으니 참으로 겉만 보는 세상입니다. 말씀하기는 외람하오나 이 늙은것도 만일 조물의 은혜를 입어 비취와 원앙 같은 화려한 털을 타고났더라면 어떠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조금도 혐의를 받지 않았을것입니다.

교청과 비오리는 아침에도 고기를 잡아먹고 저녁에도 고기를 잡아먹으오니 이처럼 심한 욕심쟁이들이 어찌 비린 고기만 편식하고 옥백미흰쌀밥에는 식욕이 동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란새, 학, 봉황, 공작 등속은 모두 빛좋은 개살구고 이름좋은 큰 아기들입니다. 그른것이 옳은것으로 되며 굽은것이 바른것으로 가장된다면 더 말할나위도 없습니다.

사자, 코끼리, 기린 등속도 덮어놓고 열넉냥금입니다. 모두 이

상한 짐승들이라고 하여 범의 그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면 령이한 이름을 듣는 날짐승들도 의레 죄목에서 벗어나야 할것입니다.

대붕새와 고래로 말하오면 이 늙은것이 힘과 몸집에서 그들보다 천길만길이나 떨어지나 량심과 체면에 있어서는 도리여 그들이 이 늙은것과 겨룰수 없을만큼 적고 희미합니다.

이제 나으리께서 만일 그들의 몸덩어리가 크다고 놓아주시고 그들의 힘이 웅장하다고 용서하여주신다면 장차 이 세상은 힘센 놈의 세상이 되고말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하고 작은것들은 무얼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벌, 개미, 거미, 버마재비, 하루살이, 잠자리, 파리, 모기, 가재, 게 등 미물로 말하오면 혹은 날개만 있고 꽁지가 없으며 혹은 껍질만 있고 날개가 없으며 혹은 가죽만 있고 발이 없습니다. 생물의 형체도 갖추지 못한것이 어찌 생물의 성질을 똑똑히 가졌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겉보기와 달라서 한쪼각의 간사한 마음은 다같이 지니고 크나작으나 모두 이 늙은것을 사촉하였습니다. 세상일은 이렇게 알수 없는것이 많으오니 나으리께서 깊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청산류수같은 늙은 쥐의 장황한 구변에 창고신은 저으기 지치기도 하고 정신이 어리둥절하였다. 그는 잠간 눈을 감고 등신처럼 앉아있었다.

늙은 쥐의 말이 끝나자 옆에 있던 사나운 개는 침을 흘리고 노리며 표독스러운 고양이는 눈을 부릅뜨고 달려들려 하였다. 늙은 쥐는 전신을 부들부들 떨면서 어찌할바를 몰랐다.

쥐는 다시 고개를 바싹 뒤로 제껴들고 창고신을 바라보며 애소한다.

《이 늙은것이 과연 죽을 때를 당하여 여직껏 두서없는 빈 말씀을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참말로 이 늙은것을 사촉한자를 똑바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자 창고신은 그제야 늙은 놈의 수천만마디 말이 전부 거짓말이였음을 깨닫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주먹을 휘두르며 고래고래 웨쳤다.

《먼저 뜨락에 놓인 저 대돌을 들어 저놈의 이발을 쳐부수어라!》

늙은 쥐는 땅에 엎드렸다 펄쩍 뛰면서 연거퍼 소래기를 지른다.
《천만 억울합니다. 하늘과 땅과 들귀신, 산귀신과 푸르고 울밀한 소나무, 잣나무와 쇄쇄 부는 바람과 뭉게뭉게 떠오르는 구름과 침침한 안개와 축축한 이슬과 반짝이는 별들과 환한 해와 달이 모두 상제의 명령을 받들고 나로 하여금 나라창고의 곡식을 마음대로 먹게 하였으니 이 늙은것이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마치 마들린듯이 주어섬기는 늙은 쥐의 말을 듣고나서 창고신은 손바닥을 치고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아닌게아니라 하느님이 다사하시여 이런 못된 종류를 만들어내서 공공연히 세상에 해를 끼치게 하시고는 도리여 원망을 사서 들으시니 상제가 어찌 그 책임을 사양하실수 있으랴!
그러나 이 늙은 도적놈이 몇달을 두고 수많은 새와 짐승들을 끌어대며 온갖 악담과 무도막심한 언사를 토하다가 종말에는 감히 상제까지를 범죄의 사촉자로 지목하니 이는 례사 범죄자가 아니고 대역부도의 범죄자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른 이상 내 직권으로는 단독 처결할수 없으니 부득불 하늘에 상고하여 상제의 처분을 기다릴수밖에 없다.》하고 늙은 쥐에게 항쇄, 족쇄를 채워서 감옥에 깊이 가두어두고 신병으로 하여금 엄중히 감시케 하였다.
그리고 창고신은 사흘을 목욕재계한 다음 초사받은 문서를 모조리 정리하여 몸소 휴대하고 상제의 앞에 나아가 문건을 드리고 삼가 말씀을 올렸다.
《소신이 백성의 하늘을 옳게 지키지 못하옵고 또 간사한 도적들을 능히 징계하지 못하였으니 소신의 죄는 만번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련루가 너무 광범하여 생명의 손상이 많을것이오며 또 요망한 벌레가 이미 범상의 언사를 발하였으므로 소신이 감히 홀로 처결할수 없어 이렇게 보고하오니 상제께서는 밝게 명령하여주시기 엎디여 바랍니다.》
상제는 그 옥사문건과 사건전말을 열람하고 곧 다음과 같은 재결을 내리였다.
《하계 한 미물의 간악한 죄는 족히 나의 죄결을 번거로이 할것이 못되나 그 죄상으로 말하면 불가불 천벌을 내리여 신령한 새와 이상한 짐승에게 사례하여야만 하겠다. 너 창고신은 곧 돌아가서 역적인 늙은 쥐를 나라창고앞에서 죽이고 그 시체를 네거리에다

내버리여 부리가 있는자, 발톱이 있는자, 이발이 있는자, 어금이가 있는자들로 하여금 그놈의 고기살을 물고 후비고 너을고 씹어서 그들의 울분을 풀게 할지어다. 가두어두었던 뭇새와 뭇짐승들은 전부 석방할것이며 역적의 소굴과 족당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날날이 소탕하여 다시는 하계에 악한 씨를 끼치지 말게 하라.》

창고신은 공순히 엎드려서 상제의 명령을 받들고 곧 돌아와서 창고앞에서 늙은 쥐의 대가리를 자르고 옥문을 열어제끼고 오래도록 가두어두었던 무리들을 내놓으며 선포하였다.

《상제께서 그대들이 마음껏 복수할것을 명령하시였다.》

이 선포를 듣자 뭇새, 뭇짐승들이 모두 기뻐 춤추며 옥문간에서 몰려나와서 나는 놈은 날고 기는 놈은 기며 혹은 두 날개를 푸드득거리고 혹은 네발로 뛰여 한참 야단법석을 치다가 어느덧 구름이 흩어진듯, 바람이 자는듯 하였다.

그리고 고양이와 개는 바로 쥐의 소굴로 달려가서 늙은 쥐의 삼족륙친과 사돈의 팔촌까지를 전부 수색하여 창고앞마당에다가 잡아 팽개쳤다. 이리와 삵은 그들의 대가리를 씹어먹으며 까마귀와 소리개는 그들의 배때기를 쪼으며 매와 새매는 그들의 사지를 내려후비며 메돌과 수달은 그들의 허리와 등척을 너을며 고슴도치는 그들의 갈비대를 등어리에 걸머지고 가며 버마재비는 그들의 꼬리를 안고 날려 하며 닭은 그들 썩은 고기에 오물거리는 구데기를 쪼아먹으며 까치는 그들의 터럭을 물고 날며 지렁이, 파리, 모기, 돌드레, 개미는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다. 그밖에 비린것을 먹지 아니하는자들도 모두 시체들을 찢고 씹어먹으려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나라와 백성들에게 죄를 지은 범죄자에 대한 뭇짐승들의 복수는 통쾌한바 있었다. 이때 감금되였다가 놓여나온 여러 무리들중에 룡과 범과 학과 란새는 늙은 쥐의 시체를 못 본체 하고 갈데로 가버렸으며 기린과 봉황은 그 잔인처참한 광경을 바라보고 여러 동물들을 향하여 말했다.

《그대들의 복수는 너무나 심하도다! 이미 죽은 시체에 그처럼 륙시할것이 무어 있는가?》하고 간절히 말리였다. 그래서 뭇새와 뭇짐승들은 모두 흩어져갔다.

이렇게 한참 혈극을 치른 다음 창고신은 신병을 명령하여 늙은 쥐의 소굴을 파뒤지고 엄밀히 검사하여보니 그의 당류와 족속이 모

두 고양이에게 도륙을 당했었다. 드디여 회토 박석으로 그놈들의 구멍을 막고 틈을 메우고 고양이와 삵으로 하여금 순번을 정하여 엄밀히 수호하게 하였더니 그뒤부터는 나라창고에 곡식이 축가거나 허비되는 일이 없어졌다.

× × ×

태사씨는 말한다.

《불은 당장에 꺼버리지 아니하면 번지는 법이요, 옥사는 결단성이 없이 우유부단하면 번거로와지는 법이다.

만일 창고신이 늙은 쥐의 죄상을 밝게 조사하여 조속히 처단하였더라면 그 화는 반드시 그렇게 범람하여지지 않았을것이다. 아, 간사하고 흉악한 성질을 가진자는 어찌 창고를 뚫는 쥐뿐이랴! 아 참 두려운 일이로다.》

청천백일—하늘이 맑은 대낮.

성곽—외적을 막기 위한 내성과 외성을 통털어 이르는 말.

만승천자—이른바 황제를 더 높이여 이르는 말.

참람하다—분수에 맞지 않게 지나치다.

형각—드러나보이는 형체와 그 겉모양.

소박—안해를 박대하거나 또는 미워하여 안해로 여기지 아니함.

료량—일정한 일에 대하여 헤아려 생각함 또는 그 생각.

철인의 꿈—전설에 중국 전국시기 송나라의 철학가인 장주(약 B. C. 369—B. C. 286)가 꿈에 나비로 되여 펄펄 날았다는것을 가리킨것이다.

서파자식—(낡은 사회에서) 서자의 자손.

적파—(낡은 사회에서) 집안의 계통관계에서 정실아들의 계통.

투탁하다—남의 세력에 의거하다.

문중회의—같은 성, 같은 본의 가까운 집안회의.

칭탁—핑게를 댐.

탁명하다—(봉건사회에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봉내를 뜬다.

공교하다—재치있고 기묘하다.

애소하다—슬프게 하소연하다.
상제—이른바 《하느님》을 이르는 말.
마—일이 잘못되게 헤살을 부리는 요사스러운 장애물을 이르는 말.
대역부도—대역으로서 사람의 도리에 크게 어그러진다는 뜻. 대역이란 봉건사회에서 왕권을 침해하거나 부모를 살해하거나 하는 행동을《크게 죄가 되는 일》이라는 뜻으로 이르는 말이다.
항쇄—(봉건사회에서) 죄인의 목에 씌우는 칼.
족쇄—죄인의 발에 채우는 쇠사슬.
목욕재계—(미신적관념에서) 부정을 타지 않도록 목욕을 하고 몸가짐을 깨끗이 하는 일.
징계하다—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고 경계하다.
범상—(낡은 사회에서) 신하가 왕에게 하여서는 안될짓을 함.
처결하다—결정하며 처리하다.
옥사문건—(봉건사회에서) 역적, 살인 등의 크고 중한 범죄를 다스리는 사업문건.
재결—헤아려 결정함.
하계—(종교적관념에서) 사람이 사는 세상을 천상계에 상대해서 이르는 말.
삼족륙친—자기 집안과 외가와 처가를 통털어 이르는 말.
륙시하다—(봉건사회에서) 죽은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여 그 목을 베다.
도륙—무참하게 마구 죽임.
회토—석회가 섞인 흙.
박석—넙적하고 얇은 돌.

〔명언〕

남의 덕을 바라는자는 바보이다.

김 정 일

홍길동전

《홍길동전》은 16세기말부터 17세기초에 활동한 작가 허균(호는 교산)이 17세기초에 창작발표한 소설로서 우리 나라 중세소설의 대표작의 하나이다.

허균(1569—1618)은 서울의 량반가문에서 태여나 참판 등의 벼슬을 지냈다. 그는 당대의 진보적문인이였던 아버지 허엽과 형들인 허성, 허봉, 누이 허란설헌의 창작적영향을 많이 받았고 12살에 아버지를 여윈 뒤에는 서자(첩의 아들)로서 봉건위정자들에게 불평불만을 품고있은 시인이였던 자기 스승 리달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진보적작가로 자라났다.

1610년에 봉건관료들로부터 모해를 입어 류배살이를 하였는데 이 기회에 일정하게 농촌생활을 알게 되였으며 그리하여 농민들의 생활을 노래한 시들을 적지 않게 창작하였다.

류배에서 풀려나온 이후 그는 낮은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서자들에 대한 차별대우에 불만을 품고 봉건통치자들을 반대하여 들고 일어날 준비를 하고있던 박응서, 심우영 등과 련계를 가지고있었는데 사전에 일이 드러나 1618년 10월 12일 봉건통치배들에게 사형당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고전소설 〈홍길동전〉은 지난날 우리 인민들속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전설처럼 전하여왔습니다. 그것은 홍길동의 신비로운 재주이야기가 흥미를 끌었기때문이 아니라 작품에 반영된 강한 비판적경향이 인민대중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사정과 관련됩니다.》

《홍길동전》은 15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여러 지방에서 량반복장을 하고 자기를《첨지》라고 하면서 많은 농

민군을 지휘하여 통치배들과 싸운 실지 있은 인물인 홍길동을 원형으로 하여 창작되였다. 그러나 실지 있은 홍길동의 투쟁내용과 소설내용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홍길동전》은 홍길동이 태여난 가정환경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길동의 아버지 홍성판은 리조판서(정부의 관리들을 추천하거나 떼는 일을 맡아보는 중앙기관의 우두머리)라는 높은 벼슬자리에 있었다.

그는 녀종이였던 춘섬을 첩으로 삼았는데 이 춘섬이에게서 태여난 아들이 곧 홍길동이다.

홍길동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세상물정을 가려보는품이 어른들도 따르지 못할 지경이였다. 그러나 서자로 태여난탓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떳떳이 부르지 못하며 량반의 자식이면서도 벼슬길에 나설수 없었다.

그는 남몰래 병법을 익혀서 장검을 휘둘러 이 어지러운 세상과 맞서보리라 마음먹고 밤마다 뒤동산에 올라가 칼쓰기훈련을 한다.

한편 홍판서의 다른 첩인 초란은 이 집의 본댁과 춘섬을 물리치고 제가 큰댁처럼 이 집의 권력을 틀어쥐였다가 홍재상이 죽으면 그 재산을 몽땅 차지하려는 음흉한 속심을 품고 우선 길동이를 없애치울 생각으로 무당과 짜고들어 관상쟁이를 불러다가 흉계를 꾸민다.

홍재상앞에서 길동의 관상을 본 관상쟁이(미신에서 사람의 얼굴생김새를 보고 그 사람의 수명이나 운명을 판단하는 사람)는 길동이 장차 왕이나 재상이 될 기상인데 그렇게 못되는 경우에는 나라에 반역죄를 지어 홍재상의 가문이 몽땅 망하고말것이라고 꾸며댄다.

초란이는 이것을 구실로 자객(사람을 몰래 죽이는 사람)인 특재에게 돈을 안겨주고 길동이를 죽이도록 한다.

밤중에 칼을 들고 길동의 방에 기여들었던 특재는 도리여 길동에게 잡히여 칼을 빼앗기고 초란이, 무당, 관상쟁이가 짜고들어 자기를 보냈다는 사실을 실토하고 살려달라고 애걸한다.

길동은 그 자리에서 특재의 목을 베고 그달음으로 무당과 관상쟁이를 끌어다 자기 방에 처넣고 죽여버린다. 그리고는 아버지

홍재상과 자기 어머니를 찾아가서 하직인사를 하고 집을 뛰쳐나간다.

홍길동은 그후 정처없는 길을 가던 도중 산속에서 《도적》(착취와 압박을 반대하여 나선 농민봉기군을 말함)들을 만나 힘내기를 겨룬 뒤에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며 《활빈당》(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무리라는 뜻)을 무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악질관료배들을 습격처단한다.

홍길동은 묘한 꾀를 써서 합천 해인사, 함경감영 등을 습격하여 인민들로부터 빼앗은 재물을 도로 앗아낸것을 비롯하여 서울로 올려가는 봉물(봉건사회에서 지방에서 서울에 사는 관료들에게 선사한다는 명목으로 바치는 물건)을 빼앗아내기도 하고 짚으로 만든 허수아비 일곱에 도술의 힘으로 넋을 불어넣어 진짜 홍길동이처럼 되게 하여 조선 8도에 나가 활동하게도 함으로써 왕을 비롯한 봉건통치배들이 겁에 질려 쩔쩔매게 한다.

이렇게 되자 정부에서는 홍길동의 배 다른 형 인형에게 경상감사의 벼슬을 주어 동생 길동을 붙잡게 한다.

형이 사방에 내붙인 글을 읽은 홍길동은 인형의 앞에 나타나 거짓 잡힌 몸이 되여 서울에 이른다. 그때 동시에 8도에서 각각 길동을 잡아올리니 왕을 비롯한 통치배들은 어느것이 진짜 길동인지 분간을 못해 안절부절한다.

왕을 비롯한 통치배들은 더는 어쩔수 없어 길동에게 그의 요구대로 병조판서(봉건사회에서 주로 군사관계의 일을 맡아보는 중앙행정기관의 우두머리)의 직책을 준다고 선포하지 않을수 없었다.

병조판서의 옷차림을 하고 왕앞에 나타난 홍길동은 서자들의 불우한 처지를 낱낱이 까밝힌 다음 약속대로 자기의 무리들을 이끌고 여러척의 배로 멀리 남쪽바다 제도라는 섬으로 간다. 섬에 도착한 홍길동은 거기에 《리상적인 왕국》을 세우고 자신이 왕이 되며 두 안해를 맞아들여 행복을 누린다.

…

원한품고 떠난 길동의 앞길은 칠칠야밤이요 동서남북 바라보이느니 첩첩산발이라 그는 정처없이 헤매이며 끼니를 번지기가 일쑤였고 인가도 없는 산속에서 구새먹은 나무통에 의지하여 쪽잠으로

날을 새우기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이렇게 모진 고생과 풍파속에서 처음 집 떠날 때 품은 결심은 더욱 굳어져 그는 점점 억센 장부로 자라났다.

길동이 한곳에 이르니 산모양이 묘하고 골짜기가 깊은데 경치 또한 아름다와 필경 이 골안에 인가가 있으리라는 짐작이 갔다.

부지런히 걸음을 다우쳐 인가를 찾아 점점 깊이 들어가니 큰 바위밑에 돌문이 닫겨있었다. 그는 이상히 여겨 가만히 문을 밀어보니 가볍게 열렸다. 찾아오던 길이라 어차피 들어가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문안에 들어서서 다시 한동안 걸어가던 길동은 문득 굳어진듯 발길을 멈추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의 눈을 의심하리만치 문안에는 오곡백과가 무르녹은 넓으나넓은 벌판이 펼쳐지고 양지바른 언덕밑에는 수백호의 집이 즐비하게 늘어서있는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번에는 또 자기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광경이 벌어지고있었다. 마을 한복판에서 류량한 풍악이 울려오고 그에 맞추어 즐기며 떠드는 사람들의 소리가 온 골안을 메우고있었던것이다.

길동은 마음에 끌리는대로 한동안 걸어갔다.

숱한 사람들이 넓은 마당복판에 큰 잔치상을 차려놓고 즐기고 있었다.

한 장정이 길동이를 보자 달려왔다.

《그대는 어떤 사람인데 이곳에 왔소.》

《정처없이 동서남북으로 떠다니는 길손이로소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잔치를 베푸시였소이까.》

장정은 길동의 아래우를 자세히 훑어보더니 다부진 몸집과 록록치 않아보이는 눈찌며 웅글은 말투가 그를 위압하였던지 아니면 그의 마음을 끌었던 모양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팔도강산에서 다 모여와서 사는 곳이웨다.

모두가 호걸들이라 아직은 두령을 정하지 못하여 오늘 우리가 두령을 뽑는 잔치를 차린것이웨다. 보아하니 길손의 힘이 장수일듯하니 우리와 같이 뜻을 합침이 어떠하오리까.》

이 말을 들은 길동은 속으로 여간 기쁘지 않았다. 지금까지 정처없이 헤매인것은 바로 량반을 미워하는 뜻있는 사람들을 찾아 헤매인것이 아닌가.

길동은 머리를 숙여 절하며 말하였다.

《나는 서울 홍판서의 서자 홍길동이올소이다. 량반가문의 천대를 참을길 없어 집을 뛰쳐나와 뜻있는 사람들을 찾아 헤매던터에 오늘 여기 모인 호걸들과 뜻을 같이할것을 권고해주니 고맙기 그지없소이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례절바르고 름름해보이는 길동을 동정하고 감탄하면서 술을 권하며 그와 벗이 된것을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러면서 마당 한복판에 놓인 큰 바위돌을 가리키며 저것을 드는 사람을 두령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런 장수가 여기엔 아직 없다고 하면서

《새로 우리의 벗이 된 장수가 한번 들어봄이 어떠하오리까.》 하니 길동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하였다.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권고이라면 한번 들어보겠나이다.》 하고는 성큼성큼 걸어가서 그 바위돌을 한아름으로 그러안더니 끽소리도 없이 머리우까지 끌어올렸다. 그리고는 마당을 수십걸음이나 거닐다가 쾅하고 내던지니 그 돌무게 천근을 헤아렸다.

길동의 거동을 지켜보고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면서 환호와 칭찬의 목소리를 뒤섞어 울렸다.

이때 그들 머리우에 소리개 두어마리가 높이 날고있었다. 날쌔게 활을 찾아쥔 길동은 어느결에 공중을 향해 시위를 당겼다.

《핑》 하는 소리와 함께 살맞은 소리개가 큰 돌멩이처럼 그들앞에 떨어졌다.

《와—》하고 또다시 환성이 올랐다. 모두들 비범한 그 활솜씨에 혀를 내두르며 감탄하였다.

《과연 장수웨다. 명궁이웨다. 우리 수천명가운데 이런 재주와 힘을 가진 사람이 여직 없더니 하늘이 도와서 오늘 우리에게 장군을 보내주셨소이다.》 하면서 길동을 다시 맨 웃자리에 앉히였다.

그리고는 큰 소를 잡아놓고 모두가 차례로 길동에게 술을 올리면서 새 두령에게 충성할것을 맹세하니 잔치는 종일토록 흥성거렸다.

그로부터 길동은 모든 사람들에게 병법과 무술을 배워주며 절도있는 훈련을 시켰다. 이렇게 몇달을 지내니 군률이 바로 서고 모두들 장수힘을 지니게 되였다.

이때 합천 해인사 중놈들의 행패질이 혹심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여간 크지 않았다. 중놈들이 관가의 세력을 끼고 농군들에게 강제로 재물을 바치게 하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고발하여 잡아다 가두거나 매질을 하였다.

이렇게 행악질을 하여도 농군들은 어쩌는수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형편이였다. 이런 억울한 사정을 알고있으면서도 여기에 모인 무리들은 신통한 꾀가 생기지 않아서 벼르기만 하고있던 참이였다.

《저희들은 벌써부터 해인사를 쳐서 중놈들의 버릇을 떼놓으려고 하였으나 지략이 모자라 주춤거리고있었더니 이제 두령님의 의향이 어떠하시나이까.》 하고 한 사나이가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길동은 껄껄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사정이 그렇다면 출동합시다. 내 먼저 그 절에 가서 동정을 살피고 올테니 그대들은 나의 지휘대로 하오.》

길동은 검은 띠 두른 푸른 도포차림으로 하늘소에 몸을 싣고 하인들까지 량옆에 거느리니 틀림없는 큰 대감네 도련님의 행차였다.

해인사에 다달은 길동은 그 절에 들어가 먼저 우두머리중을 불러내여《나는 서울 홍판서댁의 아들인데 이 절에 글공부를 하러 왔소이다. 앞으로 여러 대사님들의 신세를 져야겠기에 래일 흰쌀과 음식물을 보내여 잔치를 차리고 대사님들을 대접할가 하오이다.》 하고 깍듯이 인사치레를 하였다.

우두머리중은 뜻하지 않던 서울대감댁 도련님이 와서 잔치를 차려주겠다는 말에 속으로 여간 기쁘지 않았다. 길동의 본색을 알리 없는 그는 길동을 친절히 맞이하여 온 절간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 구경시켰다.

길동은 자기대로 절간동정을 살살이 여겨보고나서 후날 다시 올것을 약속하고 절문을 벗어났다.

길동이 본거지에 돌아오자 그 이튿날 많은 흰쌀과 음식들을 해인사로 보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 길동이 량반댁 하인으로 변복한 수십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해인사에 이르니 숱한 중들이 깍듯이 례절을 갖추어 일행을 맞아들였다.

길동은 우두머리중을 불러 물었다.

《내가 보낸 쌀과 음식이 모자라지 않터니이까?》

《어찌 모자랄리가 있겠소이까. 그저 황송할뿐이오이다.》

이윽고 진수성찬의 음식상이 차려졌다. 길동이 맨 웃자리에 앉은 다음 중들을 모두 청하였다. 그리고 제가끔 상을 받게 한 다음 길동이 먼저 술을 마시고 중들에게 차례로 권하니 그들은 너무 황송하여 어찌할바를 몰라하였다.

술잔이 뒤서너순배 돌았을 때 길동이 미리 준비했던 모래알을 슬며시 입안에 넣고 지끈 소리가 나게 깨물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요란했던지 중들이 모두 듣고 흠칠 놀라 벌벌 떨며 사죄하였다.

길동은 일부러 성을 내여 중들을 호되게 꾸짖었다.

《괘씸하다. 어찌 음식을 이다지도 부정하게 차렸는고. 사람을 업수이 여겨도 분수가 있는 법이니라. 이 고현놈들!》하고는 자기가 데리고 간 《하인》들에게 령을 내렸다.

《여봐라! 이 중놈들을 모조리 오라를 지워라.》

길동의 분부가 떨어지기 바쁘게 부하들이 달려들어 중놈들을 한줄에 묶어서 꿇어앉히니 모두들 벌벌 떨며 어찌할바를 몰라하였다.

바로 이때였다. 숱한 장정들이 일시에 달려들어 절간의 창고문을 마스고 안에 든 재물과 곡식들을 번개치듯 날라갔다.

그러나 중놈들은 모두가 묶이운 몸이라 입으로 고래고래 소리만 지를뿐이였다.

이때 마침 부엌데기중 하나가 바깥에 나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도망쳐 관가에 이 사실을 고발하였다.

합천고을 사또는 이 말을 듣고 곧 수백의 라졸을 풀어 그 도적무리를 모조리 잡아들이라는 령을 내렸다.

라졸들이 도적떼의 뒤를 쫓고있을 때 문득 갓 쓰고 장삼입은 중 하나가 산등성이우에서 라졸들을 보고 웨치고있었다.

《도적떼들이 저기 북쪽 소로길로 빠졌으니 빨리 가서 잡으소서.》

라졸들은 해인사의 중이 알려주는줄로만 알고 북쪽 소로길로 바람같이 달려갔으나 도적은 간데 없고 날이 점점 저물어 어둠이 휩싸이는 바람에 허탕치고 돌아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길동은 자기 사람들을 남쪽 큰길로 보내놓고 자기는 홀로 떨어져 중의 차림으로 라졸들을 감쪽같이 속여넘겼던것이다. 그리고 본거지로 돌아오니 부하들은 벌써 해인사의 재물들을 모두 날라다놓

고 두령이 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들은 길동을 보고 반겨맞으며 이번 일이 성공한것은 새 두령의 뛰여난 지혜로 이루어진 덕분이라고 감탄하면서 모두 좋아하였다.

길동은 부하들의 인사말을 받으면서 《사내대장부로 태여나 이만 재주도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의 두령이 되겠소이까.》하고 호탕하게 껄껄 웃어넘겼다.

그로부터 길동은 자기가 거느린 무리의 이름을 《활빈당》이라고 하였다.

활빈당이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무리라는 뜻이다. 그리하여 활빈당은 조선팔도를 두루 돌아다니며 고을 사또들이 나쁜짓을 하여 모아둔 재물이 있으면 기어코 빼앗아내여 가난한 집들에 나누어주군 하였다. 그리고 백성들의 물건은 일체 건드리지 않을뿐더러 나라에 속하는 재물에도 손을 대는 일이 없었다. 이렇게 하니 활빈당패들은 길동의 의로운 뜻에 탄복할뿐아니라 그의 명령에도 절대복종하였다.

칠칠야밤—매우 캄캄하고 어두운 밤.

첩첩산발—여러겹으로 겹쳐있는 산발.

팔도강산—전 조선을 가리키는 말. 당시 조선은 8도로 나뉘여져 있었다.

호걸—《도량이 넓고 기개가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

두령—(낡은 사회에서) 군대나 어떤 무리의 우두머리.

시위—활시위. 화살을 먹이여 당기는 줄.

명궁—활을 잘 쏘기로 이름난 사람.

군률—군사규률.

도포—(지난날에) 보통때 례복으로 입는 남자의 겉옷. 두루마기보다 소매가 넓고 길다.

도련님—도령. (지난날에) 량반귀족층, 부유한 집안의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높이여 이르던 말.

대사님—남자중을 높이여 이르는 말.

진수성찬—맛이 좋고 진귀한 음식물을 많이 잘 차린것 또는 그런 음식.

오라—(낡은 사회에서) 《죄인》을 잡아 묶는데 쓰는 노끈.

사또—(봉건사회에서) 고을원들을 높이여 이르는 말.

라졸—(봉건사회에서) 관청이나 군대에 딸린 군로(군대에서 죄인을 다루는 병졸)나 사령을 통털어 이르는 말.

장삼—(불교에서) 중의 웃옷. 대개 검은 베로 만드는데 길이가 길고 소매가 넓다.

문학작품의 소재

문학작품은 작가가 아무것도 없는데서 순전히 생각하여 쓰는것이 아니라 현실생활에 기초하여 창작한다. 감이 좋아야 좋은 물건을 만들수 있듯이 문학작품도 좋은 자료가 있어야 좋은 작품으로 완성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소재는 생활에 있는 사실자료이다. 소재는 언제나 구체적인 실체를 가지고있다. 사람에 대한 자료라면 그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물음에 대답을 줄수 있는것이여야 하며 사건이라면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떤 원인에 의하여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물음에 대답을 줄수 있는것이여야 한다.》

문학작품의 소재는 형상의 바탕으로 되는 구체적인 생활자료이다. 그것은 생활에 있는 사실자료로서 작품에 그려질 개별적인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생동한 밑천으로 된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고전소설 《임진록》은 임진조국전쟁시기의 리순신, 곽재우와 같은 애국명장들에 대한 감동적인 생활자료를 소재로 하고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이 작품이 인민의 사랑을 받는 좋은 작품으로서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애국심을 북돋아주는데 어느 정도 이바지할수 있는것은 소재가 좋은데 중요한 요인이 있다.

소재는 일련의 표징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로, 문학작품의 소재는 당정책적으로 의의있는 문제를 안고있는 감동적인 생활자료여야 한다.

현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있고 생활은 쉬임없이 흐르고있

다. 그러나 그 모든것이 다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뜻깊은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사람들에게 별로 큰 감동을 주지 못하며 당정책적으로 큰 의의가 없는 생활자료를 가지고서는 아무리 애써도 좋은 작품을 창작할수 없다.

지금 우리 당은 사회주의를 없애버리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책동에 대처하여 인민대중이 주인이 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모든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사회주의를 지켜 견결히 싸울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의 현실속에는 이런 문제를 밝혀낼수 있는 좋은 이야기감이 얼마든지 있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구호밑에 사회주의건설의 가장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하여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는 청년들, 전쟁시기도 아닌 평화로운 시기에 전우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류탄을 한몸으로 막고 희생된 김광철소대장과 같은 영웅들, 온 가족 또는 전체 학급이 낡은 사회에서는 천한 직업으로 여겨지는 구두수리공이나 도로관리원이 되여 만사람의 축복을 받는 선군시대의 공로자들이 수없이 나오고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자체만 가지고도 독자들을 감동시키는 의의있는 생활소재로 된다.

둘째로, 문학작품의 소재는 생동하고 참신한 생활자료여야 한다.

문학작품의 소재는 그 무슨 력사저술이나 해설제강을 쓰기 위한 사실자료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산 사람의 생동한 형상을 창조하기 위한 생활자료이다. 그러므로 문학작품의 소재는 산 사람의 생활모습을 눈앞에 방불히 그려볼수 있는 생동한 생활자료여야 한다.

가령 우리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있었던 여러가지 사건과 인물들에 대한 서술자료를 읽고 소설이나 영화문학을 쓴다고 하자. 그저 막막해질뿐 작품을 만들수 있는 아무런 구상도 떠오르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쓰신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읽어보면 실지 그 인물, 그 사건을 방금 눈앞에서 보는듯 한 생동한 생활자료를 많이 알게 된다. 회고록의 임의의 대목을 가지고도 소설이나 시, 영화문학을 쓰려는 열렬한 충동과 함께 구체적인 형상적화폭을 그려볼수 있다.

문학작품의 소재는 생동할뿐아니라 참신해야 한다. 즉 새롭고 특색있는것이여야 한다. 아무리 의의있고 생동한 생활자료라고 하여도 남이 한번 써먹은 자료라면 문학작품의 소재로서의 가치가 적다.

문학작품의 소재는 창작을 위한 자료이며 형상의 생활바탕인것만큼 그것은 반드시 예술적가공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시말하여 현실에 있는 생활자료를 그대로 복사한 기록식문학을 만들어내서는 안된다.

생활소재에서 중요한것은 원형이다. 원형이란 작가가 작품을 창작할 때 작중인물의 기초로 된 실재한 인물을 말한다.

혁명가극《당의 참된 딸》에서 강연옥의 원형은 공화국영웅 안영애이고 영화문학《민족과 운명》에서 주인공들인 최현덕, 차홍기, 리정모, 윤상민 등의 원형은 최덕신, 최홍희, 리인모, 윤이상 등이다.

문학작품을 창작할 때 원형에 의거하여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형상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그것은 원형이 문학작품의 소재가 갖추어야 할 기본표징을 가장 뚜렷이 체현하고 있기때문이다. 원형의 성격과 생활은 그자체가 당정책적으로 의의있는 문제를 안고있으며 생동하고 참신한 생활자료를 담고있는 법이다.

현실속에서 문학작품을 쓸수 있는 좋은 소재를 찾아내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당정책학습을 잘하여 당이 지금 무엇을 바라고있는가, 그 실현방도가 무엇인가 하는것을 알아야 한다.

제일 좋은 소재는 당이 인민들앞에 제기한 새로운 요구와 과업에 대답을 줄수 있는 소재이다. 례를 들어 당이 라남의 봉화를 높이 들고 나갈데 대한 요구를 내놓았을 때에는 이 투쟁의 앞장에 선 선구자들의 생활속에서 소재를 찾아야 하며 또한 당이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더욱 높이 발양할데 대한 요구를 내놓았을 때에는 인민군대원호에 떨쳐나선 학생들의 생활속에서 소재를 찾아야 한다.

둘째로, 늘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풍부한 생활체험을 쌓아야 한다.

현실을 떠나 책상머리에 앉아서는 좋은 생활소재를 찾을수 없다. 책상머리에서 꾸며낸 이야기를 가지고《탁상문학》이나 해가지고서는 시대의 요구에 맞는 감동적인 작품을 만들수 없다. 언제나 공장과 기업소, 농촌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장에 들어가 로동자, 농민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생활을 연구하여야 한다.

생활체험은 현실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방법도 있지만 책이나

문헌자료를 연구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방법도 있다. 아무튼 우리 인민의 생활과 력사에 대한 풍부한 체험을 쌓아두어야 좋은 생활소재를 련이어 찾아낼수 있다.

춘 향 전

《춘향전》은 그 창작년대와 작가는 알려져있지 않으나 소설에 반영된 내용으로 보아 18세기에 나온것으로 짐작되는 우리 나라 중세의 대표적인 국문소설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춘향전〉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 작품은 봉건사회에서 량반과 상민사이의 신분적불평등을 비판하고 남녀청년들이 재산과 신분의 차이에 관계없이 서로 사랑할수 있고 같이 살수 있다는것을 보여준것만큼 그 당시에는 물론 진보적인것이였습니다.》

소설은 주인공들인 춘향과 리몽룡의 관계를 통하여 봉건사회에서 량반과 상민사이의 신분적불평등을 없애고 재산과 신분의 차이에 관계없이 청춘남녀들이 서로 사랑할수 있다는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소설의 사건줄거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어느해 5월 단오날 전라도 남원에 있는 부사의 아들 리몽룡이 광한루에 나갔다가 춘향이를 만난것이 인연이 되여 둘은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리몽룡은 지난날 기생이였던 춘향의 어머니를 찾아가 춘향을 안해로 맞을데 대한 승낙을 받는다.

얼마후 리몽룡의 아버지가 벼슬자리를 옮겨 서울로 가게 된다. 리몽룡은 어머니에게 자기와 춘향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를 데리고 서울로 가겠다고 한다. 그러나 몽룡의 어머니는 춘향이가 천한 기생의 딸이라고 하여 승인하지 않는다. 량반의 자식이 기생의 딸과 백년가약을 맺으면 봉건도덕에 어긋나고 집안을 망친다는것이였다.

리몽룡은 자기가 서울에 가서 글공부를 하여 벼슬길에 오른 다음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고 춘향과 헤여진다.

새로 남원부사로 온 변학도놈은 부임하자마자 춘향에게 자기

시중을 들것을 강요한다. 그러나 춘향은 완강히 항거한다. 그러자 변학도는 춘향의 목에 큰칼을 씌워 옥에 가둔다.

한편 서울에 올라간 리몽룡은 열심히 글공부를 하여 과거시험에 으뜸으로 합격하고 암행어사로 되여 남원지방에 내려오게 된다.

내려오는 길에 그는 춘향의 편지를 가지고 서울로 가는 방자를 만나 춘향의 억울한 사정과 변학도의 폭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

리몽룡은 춘향의 집에 가서 장모를 만난다. 장모는 거지(리몽룡은 자기가 암행어사라는것을 숨기기 위해 거지차림을 하고 왔던것이다.)신세가 되여 나타난 사위를 보고 이젠 춘향이가 올데갈데없이 죽게 되였다고 한숨만 쉰다.

그날 밤 리몽룡은 장모와 향단이를 앞세우고 춘향이 갇히운 옥방으로 간다.

춘향은 몽룡에게 래일 변학도의 생일잔치끝에 자기의 목을 치겠다고 하니 어디 멀리 가지 말고 삼문밖에서 기다리다가 자기를 죽여 내치면 다른 사람들이 손을 대기 전에 안아다가 고이 묻어달라고 당부한다.

리몽룡은 춘향에게 자기를 다시 보려거든 다른 생각 말고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고 일깨워주고 옥을 떠난다.

그다음부분이 선문교재로 되여있다.

…

한편 본관사또 변학도는 주인으로서 각 청의 책임들을 불러 단속하고 하인들을 불러 분부하였는데 잡일 맡은 승방을 불러 백설같이 흰 천막을 높다랗게 치도록 하고 례방을 불러 풍악을 울릴 악사들과 광대들을 대령시키고 소고기 맡아보는 하인 불러 살진 암소를 더 잡으라 하고 음식을 맡아보는 아전을 불러 손님의 음식상들을 볼품 좋게 차려올리라 하고 사령들을 불러 잡인을 엄금하도록 요란스럽게 잔치차비를 하였던것이다.

잔치마당엔 각색 병장기와 기발들이 호사롭게 바람에 펄럭이며 삼현륙각(삼현; 거문고, 가야금, 비파, 륙각; 북, 장고, 해금, 대평소 한쌍, 피리)의 풍악소리 반공중에 떠있고 초록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떨쳐입은 고운 기생들이 색동소매 흰 손길을 높이 들어 춤을 추니 《지화자 둥덩실》 하는 소리 본관사또 마음에 흡족하다.

여러 고을 원들과 관장들이 동헌대청당우에 또는 당아래 직품에 따라 벌려앉아 음식상들을 받았는데 어찌나 많이 차렸는지 상다리가 부러질 지경이다.

좋은 술 어찌 그냥 마시랴. 본관이 권주가를 부르라 하니 《한잔 드사이다. 이 한잔 드사이다.》하는 노래소리 풍악에 맞추어 울리고 웃음소리 한데 어우러지며 취흥이 높아진다.

이때 리도령이 동헌마당으로 썩 들어선다.

《여봐라 사령들아, 너의 원님앞에 여쭈어라. 먼길 가던 나그네가 좋은 잔치를 만났으니 안주 한점, 술 한잔 얻어먹잔다고 여쭈어라.》

《어디 량반이간데, 우리 사또님께선 거렁뱅인 얼씬 못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 말은 내도 말고 썩 나가오.》

등을 밀쳐내니 이런 분부를 내린 본관사또야말로 어찌 아니 명관이냐.

《나를 쫓아내라는 놈도 내 아들이고 쫓겨가는 놈도 인사를 모르는 놈이다. 다시 여쭈어라!》하며 사령에게 호령하니 사령은 못들어간다 밀어내고 도령은 들어가자 하며 서로 옥신각신할 때 대청우에서 운봉영장이 이 광경을 보고 본관에게 청하여 말한다.

《저 량반이 비록 옷은 허줄하나 량반의 후손이 분명하니 저 자리끝에 앉히고 술잔이나 먹여 대접해보냄이 어떠하오?》

본관사또는 운봉의 말이 매우 못마땅히 생각되여 잔뜩 얼굴을 찌프리고 리도령을 노려보다가 본관의 체면도 있고 하여 마지 못해

《운봉의 소견대로 하오마는…》 하고 대답을 한다.

역시 《마는…》하고 말끝을 맺지 못하는것은 입맛이 쓰거워서 그런것이 틀림이 없다.

《여봐라, 저 량반 이리로 듭시래라.》

운봉이 분부를 하니 통인이 층층층 내려가 그 말을 전한다.

도령은 허허 웃으며

《안다 안다 운봉이 아는구나.》 하며 대상으로 올라가 자리끝에 앉는다.

본관사또는 역시 입맛이 써서 고개를 내저으며 말을 한다.

《운봉은 오늘따라 망녕이요. 저런것들을 가까이 하면 담배대나 부채나 도적맞히기가 일쑤인데 대접을 하라니… 허허 참.》

(오냐. 도적질은 내가 하고 오라(포승)는 네가 질줄 알어라.)

리도령은 이렇게 생각하며 좌우를 살펴보니 대상의 모든 관장이나 원들이 음식상을 앞에 놓고 기생들이 부르는 느릿한 《진양조》소리에 한창 흥에 겨웠는데 리도령앞에도 음식상이 나왔다. 한데 음식상을 보니 참으로 괘씸하기 짝이 없다. 모 떨어진 개다리소반에 닥나무로 만든 저가락 한매 놓고 콩나물 한접시, 떡부스레기 한접시, 막걸리 한사발 놓였을뿐이다. 발길로 탁 차던지려 하다가 운봉이 앉은 옆으로 가서 그의 갈비대를 꾹 찔렀다.

《갈비 한대 먹읍시다.》

《이 량반 갈비를 달라면 그저 달라지 생사람의 갈비를 먹으려오?》

운봉이 이렇게 말하며 속으로 생각되는바가 있어 통인을 불렀다.

《여봐라, 이 량반에게 갈비 한접시 갖다드려라.》

《아니 그럴게 없소. 얻어먹는 사람이 제 손으로 갖다먹지.》

리도령은 상에 놓인 갈비접시를 번쩍 들어 제 상에 갖다놓고 이리저리 다니며 맛있는 음식들을 걷어모으니 장내가 소란해졌다.

《허 이럴 법이 있나.》

《고약하군.》

《어른을 몰라보는군.》

《어 남의 떡함지에 엎어져 죽을 놈이로군.》

이렇게 관장들이 떠들며 욕을 하거나말거나 리도령은 걷어모은 음식을 개다리소반에 갖다놓는다.

《이거 티끌모아 큰 산이로구나!》하며 갈비를 뜯는체 하다가 운봉에게 청을 또 하였다.

《저기 앉은 기생이 아마도 행수기생 같은데 이런 잔치에 와서 저런 고운 손에 술 한잔 마시며 권주가 한마디 들읍시다.》

운봉은 리도령의 이 청도 거절하지 않고 행수를 부른다.

《여봐라, 네 이 량반께 술 한잔 붓고 권주가 하여라.》 하니 관장들 세상에 별일을 다 본다 하며 본관사또는 운봉이 미쳤다 하고 행수기생은 고개를 외로 꼬고 앉았을뿐이다.

운봉이 행수기생을 잠시 보다가 커다란 두눈을 부릅뜨며 호령

을 한다.

《이년 고약한 년, 어떤 량반이든지 내가 시키면 그대로 할 일이지 앉아만 있어?》

운봉영장이 그처럼 호령을 하는데는 심상치 않은 점도 있어 행수기생은 할수없이 리도령앞으로 와서 술 한잔을 부었다.

도령은 술잔을 들고 권주가를 기다리는데 행수기생은 목이 아파 못하겠다고 한다. 하라거니 못하겠다거니 하는 바람에 술이 쏟아진다.

《허 이렇게 좋고 아까운 술 쏟아져 쓰겠느냐.》하며 리도령은 쏟아진 술을 도포자락에 묻혀 휘휘 뿌리니 술방울이 아무데나 떨어지고 본관사또 갓머리에까지 날아가서 장내가 소란해진다.

《허 이런 변 보겠나.》

《저놈이 정녕 미친 놈이로군.》

《저놈을 당장…》 하면서 쫓아내자는 말까지 나온다. 하나 적지 않은 관장들은 암행어사가 났다는 소문도 떠돌아 속으로 켕기고 저리는데도 있어 그저 눈치만 보는판이였다. 당장 쫓아내자고 하던 순창군수가 본관사또에게 무엇인가 수군거리더니 본관이 손님들을 향해 말을 한다.

《우리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운을 달아 글 한수씩 짓는 것이 어떠하오니까?》

《거 참 좋은 말씀이외다.》

관장들이 호응을 하는데 순창군수가 한마디 덧붙인다.

《만일에 글을 짓지 못하는자 있으면 큰 벌을 주기로 합시다.》

《거 또한 옳은 말씀이외다. 운자는 내가 내겠소.》 하며 본관사또가 운자를 낸다.

《기름 고— 높을 고—》

관장들은 운자가 좋다고 하면서 글귀를 생각하여 웅얼거리기 시작한다.

이때 리도령이 나앉으며

《이 사람도 부모님 덕으로 책권이나 읽었은즉 운을 달아 글 한수 지을가 하오이다.》 하니 운봉이 반가이 듣고 붓과 벼루를 내준다.

누구도 아직 글을 짓지 못하고있는데 리도령이 글 한수를 먼저 지었다.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천사람의 피요
옥소반의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초불눈물 떨어질 때 백성눈물 떨어지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도다

이렇게 지은 글을 운봉옆에 던져주고

《사령아 듣거라. 먼길 가던 나그네가 본관사또의 큰 잔치를 만나 술과 안주를 배불리 먹었으니 이 은혜 백골이 된다한들 어찌 잊으리까 여쭈어라.》

한마디 인사를 남기고 동헌대청을 내려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본관이며 순창이며

《거 배우지 못한 후레아들놈이로군.》

《좌우간 쫓아냈으니 시원하외다.》

《자 술 다시 들고 춘향이를 올려 좀 봅시다.》하니 장내는 잠시 술 마시는 소리, 춘향의 이야기로 술렁거리였다.

이럴 때 운봉이 리도령이 던지고 간 글을 보니 심상치 않은 글이였다.

《아뿔싸, 일이 났구나.》

그 글씨와 문체가 며칠전에 자기에게로 가지고 왔던 총각놈의 편지의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뿐만아니라 그 글이 부패한 관장들의 목에 떨어지는 시퍼런 칼날과 같은 글이다. 간이 털렁 떨어지고 가슴이 떨린다.

운봉은 그 글을 임실에게 보이고 임실은 그것을 구례에게 보이였다. 글을 보는 손들은 사시나무처럼 떨리였다.

《허허, 이거 하늘이 무너지는구나.》

운봉이 먼저 일어섰다.

《본관장, 나는 일이 있어 먼저 좀 가겠소이다.》

임실이 뒤따라 일어섰다.

《나는 오늘이 백성들에게 환자 줄 날이 돼서…》

술 취한 본관 변학도의 눈이 휘둥그렇게 떠졌다.

《아니 왜들 이러시오?》

구례가 임실을 따라 일어섰다.

《나는 대부인께서 락상을 해서 아무래도 가봐야겠기에…》

《허허 왜들 이러시오. 이제 절세미인 춘향을 올려 매치는 구경을 하시겠는데… 여봐라 춘향을 급히 올려라!》

《예이, 사령 춘향을 급히 올리랍신다!》

《예이!》

군노사령들이 옥으로 달려나간다.

동헌에서 나온 리도령어사또가 삼문앞에서 잠시 서성거리다가 군호를 하니 서리와 중방이 재빠르게 행동을 시작하였다. 역졸들을 불러 단속하는데 이리 가며 수군, 저리 가며 수군수군 서리역졸들은 공단으로 싼 외올망건에 새 패랭이를 눌러쓰고 석자천으로 감발을 하고 새 짚신에 한산고의를 입고 륙모방망이를 노루가죽끈으로 손목에 걸어쥐고 예서 번뜻 저기서 번뜻 하니 남원고을이 우군우군 뒤흔들리듯 하는데 어사또의 역졸이 달같은 마패를 해별같이 번쩍 들며

《암행어사 출도야!》

큰소리로 웨치니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얼눌리는듯 산천의 풀과 나무, 날짐승, 길버러지들 그 어이 떨지 않으랴.

남문에서《출도야!》, 북문에서《출도야!》, 동서문에서《출도야!》소리 푸른 하늘에 진동한다.

…

이윽고《수의사또 듭시오.》하는 소리 요란스럽게 울린다. 온 동헌이 삽시에 조용해진다. 기패관을 따라 각색 기발들이 들어서고 숙정패(정숙하라는 기패)가 꽂혀지고 륙방관속들이 대청아래 좌우로 늘어서서 벌벌 떤다. 어사또가 어사의 관복을 입고 대상에 나와 자리를 정하고 높이 앉으니 그 위엄이 온 남원땅을 누르는듯 하였다.

어사또는 우선 리방, 호장, 수형리들의 죄상을 심문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본관사또 변학도는 남원부사의 관직에서 파면시키되 관가의 창고들은 모두 봉쇄하도록 분부하니 본관은 봉고파직이라는 방이 사대문에 나붙게 되였다.

그리하여 변학도를 거적에 둘둘 말아서 남원고을 지경밖으로 내쳐버렸다.

어사또는 다음으로 옥형리를 불러 분부하였다.

《너의 고을 옥에 갇힌 죄수들을 다 올리라.》

옥형리가 죄인들을 옥에서 풀어올리니 어사또는 한사람한사람

그 죄상을 물어 다시 옥에 가둘 놈은 가두고 풀어줄자들은 놓아주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춘향이 옥에서 나와 동헌마당으로 비틀비틀 걸어들어와서 어사또에게 절을 한 다음 그 자리에 기절하듯 쓰러졌다.

춘향은 삼문께를 들어오면서 길 좌우에 모여서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속에 간밤에 오셨던 서방님이 계시지나 않은가 눈여겨보고 돌아보고 다시 보고 하였으나 서방님의 그 초췌한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어찌된 일인가? 무정도 하지… 이제 형장아래 죽을 목숨으로 마지막 서방님의 그 얼굴 한번 더 보지도 못한단 말인가. 밝은 날에 나를 볼 면목이 없고 사람들앞에 나설 얼굴이 없어 차라리 먼데로 가자 하고 가셨는가. 옮기는 걸음마다 눈물이 쏟아지고 땅이 꺼지는듯, 하늘이 도는듯 하여 동헌마당에 들어오자 기절하고만것이다.

문초가 시작되였다.

《저 계집은 무슨 죄로 갇혔느냐?》

형리가 허리를 굽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여쭈었다.

《저의 고을 월매라 하는 기생의 딸이온데 관장의 분부를 듣지 않고 항거한 죄로 옥중에 갇힌 춘향이라는 계집이로소이다.》

《그래 무슨 분부를 듣지 않았느냐?》

《본관사또의 몸가까이에서 시중을 들라는 분부로 불렀더니 수절이라 정절이라 하면서 관청마당에서 발악을 하였소이다.》

《관장의 분부를 거역하고 관청마당에서 발악을 하였으니 그 죄 어찌 살기를 바랄소냐. 그래 너의 마지막소원이 무엇이냐?》

춘향은 정신을 차리여 대답하였다.

《내려오는 관장마다 어찌 그리 명관이시오니까. 억울히 죽는 몸에 무슨 소원이 있으리오마는 간밤에 꿈결같이 잠간 만난 저의 랑군, 저 죽은 시체라도 받아안고 가겠노라 거렁뱅이모습으로 삼문밖에 기다릴지 모르오니 죽기 전에 마지막 한번 더 만나보오면 소원이 없겠소이다.》

말을 마치며 땅우에 다시 쓰러져 흐느낀다.

이때 남원읍안의 부인네들이 몰려들어온다.

《어사님께 발원이요.》

《어사님께 소원이요.》

군노사령들이 그들을 쫓아내자 하였으나 어사또가 내려다보고 부인네들을 들게 하였다.

부인네들은 모두 울며 여쭈었다.

《살려주오, 살려주오, 우리 고을 춘향이를 살려주사이다. 수절이면 이런 수절이 어데 있고 정절이면 이런 정절이 어데 있으리까. 진흙에 묻힌 옥인들 춘향의 마음에 비기오며 가시속에 피인 꽃인들 춘향의 곧은 뜻에 비기오리까. 층암절벽 높은 바위 바람 분들 무너지며 청송록죽 푸른 나무 눈이 온들 변하리까. 춘향의 높은 절개 세상에 비길데 없사오니 어사님의 넓으신 처분으로 살려주시기 바라오이다.》

어사또는《알겠노라.》고 대답을 하고 품에서 옥가락지 꺼내 통인에게 준다.

《이것을 춘향이 갖다주어라.》

통인이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 춘향의 손바닥우에 놓아준다.

춘향이 울던 울음을 멈추고 손바닥에 놓인것을 자세히 보며 놀랜다.

《아니 이 옥가락지, 서방님께 드린 이 옥가락지 어찌된 일인가?》

춘향은 혹시 도령님이 여기 어디 오지나 않았는가 하여 마당둘레도 살펴보고 문간쪽도 살펴보았건만 도령님의 그 초췌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 옥가락지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솟았는가, 옥가락지만 남겨주고 도령님은 어데 가셨는가?》

춘향의 눈에서는 눈물이 또 비오듯 하였다.

이때 어사또의 음성이 울리였다.

《춘향은 얼굴을 들어 나를 보라!》

춘향이 고개를 들어 대상을 살펴보니 거렁뱅이형색으로 간밤에 오셨던 서방님이 어사또로 뚜렷이 앉아있지 않는가.

《서방님! 서방님!》

웃음절반, 울음절반으로 서방님을 불렀다.

《우리 서방님이 어사랑군이 되셨구나.

남원읍안에 때아닌 가을이 들어 속절없이 떨어져 죽을 목숨 되였더니 객사에 봄이 들어 오얏꽃 피는 봄바람이 날 살리였구나, 꿈

인가 생시인가 꿈이라면 깨지 말아.》

어사또 대상에서 내려와 춘향의 손을 잡아일으키여 함께 대상으로 오르니 이 아니 기쁜 일이랴.

이럴 때 춘향의 어머니 향단이와 방자와 함께 들어온다.

《내 사위가 어사라니 어사장모 되였구나. 뻗세고 아니꼽고 살기등등하던 륙방두목들아 인제도 날 괄세할가. 어사또가 내 사윈줄 모르고서 눈치없이 욕도 하고 화를 냈다구 알지 말게. 나도 눈치가 있어. 남이 알가 두려워 욕도 더 하고 화를 낸거라네. 고생끝에 락이 온다 옛말로 들었더니 딸을 길러 오늘같은 이런 경사 보는구나. …》

이렇듯 즐거워하는 말을 어찌 다 이야기하랴.

춘향의 높은 절개가 빛나게 되였으니 어찌 아름답고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어사또가 남원의 공사를 본 후에 춘향의 모녀와 향단이, 방자를 모두 서울로 행장을 차려 올려보낼제 그 행차가 찬란하고 호사로우니 세상사람들이 모두가 칭찬하고 부러워하였다.

춘향이 남원을 떠나게 되니 영화를 누리여가는 길이지만 정들고 못 잊을 사연많은 고향이라 한편 기쁘면서도 한편 서글픈 생각을 금할길 없었다.

《내가 놀고 자던 부용당아, 너 부디 잘 있거라. 못 잊을 봄날의 이야기 깃든 광한루 오작교야 잘 있거라. 봄풀은 해마다 푸르건만 정든 사람 한번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옛말을 내 이제 듣겠구나.》

이렇게 애석한 마음을 가지고 춘향은 고향사람들과 작별하였다.

광대—(지난날에) 《민간극, 창극, 민족교예 같은데 출연하는 배우》를 이르던 말.

영장—진영장. 군사를 말아보는 지방관청의 우두머리.

진양조—민족음악장단의 한가지 또는 이 장단으로 된 악곡.

운—시행의 첫머리 또는 가운데와 끝에서 같은 말소리를 규칙적으로 되풀이하여 시의 운률을 이루는 시짓는 법의 하나.

서리—아전.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 딸린 낮은 신분의 관리들을 통털어 이르는 말.

중방—(봉건사회에서) 원을 따라다니며 시중을 드는 사람.

역졸—(봉건사회에서) 공문을 중계하여 전하거나 공무로 다니는 일정한 관리들에게 말을 제공하는 역에서 심부름하는 사람.

마패—(봉건사회에서) 벼슬아치들이 공적인 일로 지방에 나갈 때 역마를 동원하는 표로 쓰며 왕의 특별임무를 맡고 가는 사신의 도장을 대신하는 패쪽. 직경이 10㎝쯤의 둥근 구리쇠로 되여있다.

암행어사—(봉건사회에서) 임금의 비밀명령을 받고 몰래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인민들의 움직임과 지방관리들의 행동을 알아내며 이 과정에서 나서는 문제를 현지에서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 직책 또는 그런 특권을 가진 봉건관리.

륙방—(봉건사회에서) 승정원과 각 지방의 관아에 두는 《리방, 호방, 례방, 형방, 공방, 병방》의 여섯 부서.

리방—(봉건사회에서) 승정원이나 지방관아의 륙방의 하나. 관리 선발, 평가 같은것을 맡아보는 부서.

호장—(봉건사회에서) 각 고을 아전의 맨 웃자리 또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봉고파직—(봉건사회에서) 어사와 감사가 못된짓을 하는 원을 떼고 관청의 창고들을 봉쇄하는것.

옥형리—(봉건사회에서) 옥에서 심부름하는 관리.

삼문—(봉건사회에서) 대궐이나 관가, 건물의 앞문, 동쪽문, 서쪽문을 가리킴.

문초—죄나 잘못을 따져 물어서 심문하는것.

발원—(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생각을 냄.

청송록죽—푸른 소나무와 푸른 대.

량 반 전

《량반전》은 연암 박지원의 대표적인 소설의 하나이다.

박지원(1737—1805)은 18세기에 활동한 사람으로서 실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며 여러가지 문학작품을 남긴 작가이다.

박지원은 서울에서 출생하여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형과 할아

버지의 슬하에서 자라났다.

박지원은 청년시절부터 이 시기 진보적사상조류였던 실학사상의 영향을 받아 실학자로 성장하였으며 점차 당시의 현실을 비판적 안목으로 보면서 인민들의 평범한 생활에 대해서도 관심을 돌리게 되였다.

박지원은 이러한 안목으로 많은 글을 쓰면서 한편으로는 문학작품을 창작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박연암과 정다산의 사회개혁리론과 문학작품은 지금으로부터 200년전에 나온것이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것이며 세상에 자랑할만 한것이다.》

박지원은 실학파로서 《실사구시》의 구호밑에 사회적진보와 문명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면서 우수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여 우리나라 근대문학의 려명기를 개척하는데 기여한 사람의 하나이다.

박지원은 시작품도 썼지만 그의 창작에서 대표적인것은 소설이다. 박지원의 소설작품들은 《방경각외전》과 《열하일기》에 실려있다.

《방경각외전》은 박지원이 젊은 시절에 서울에서 창작한 9편의 단편소설을 묶은 작품집인데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소설이 《량반전》이다. 《량반전》은 량반계급의 몰락과정을 그린 작품으로서 당시의 계급투쟁을 형상한 작품이다.

박지원은 30살이후 보수적인 반동통치배들의 눈을 피하여 황해도 금천군에 자리를 옮기고 숨어살면서 자기가 리상하던 영농법도 시험하여보았다. 그후 박지원은 중국을 려행하고 돌아와서 유명한 장편려행기 《열하일기》를 썼다. 이 려행기는 봉건시기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려행기로서 여기에는 《허생전》, 《범의 꾸중》과 같은 소설도 들어있고 수필, 정론 등 여러가지 형태의 산문들도 들어있다.

박지원의 이러한 작품들에는 실학자로서의 그의 사상적립장이 반영되여있고 부패무능한 량반계급을 비판하고 가난한 인민들을 동정하는 인도주의적감정도 반영되여있다.

그러나 박지원의 창작에는 본질적인 제한성이 있다. 그는 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부패변질된 개별적인 량반과 악질관료를 비판하

는데 머물고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적인 리해관계를 대변하지 못하였으며 철저한 개혁사상을 주장하지 못하였다.

☆

량반이란것은 선비의 집안을 높이여 부르는 말이다. 정선군에 한 량반이 있어서 사람이 어질고도 글읽기를 좋아했으니 군수가 새로 도임할 때마다 반드시 그 집으로 찾아와서 존경하는 뜻을 표시하던것이다.

그러나 그 량반은 집이 구차해서 몇해를 두고 고을의 환자쌀을 꾸어먹은것이 도합 천석에 이르렀다. 감사가 각 고을을 순행하면서 환자쌀에 대한 문서를 검열하다가 크게 화를 내여 말하기를

《이 어떤 량반명색이 이렇게 군량을 축내고있단 말이냐?》하고 곧 잡아가두라고 명령하였다. 군수는 그 량반이 구차해서 갚을 도리가 없을줄 알기때문에 차마 가두지를 못하나 그렇다고 무작정 보아주기만 할수도 없었다. 그 량반은 어떻게 할줄을 몰라서 밤낮 울고있는데 그 안해가 푸념하기를

《당신이 평생 글읽기를 좋아하고 원님에게 환자쌀이나 타러 다니더니… 체, 량반? 량반이 한푼값도 못되는구려!》라고 하였다.

그 마을의 부자가 저의 식구끼리 의논하기를

《량반은 구차하다고 해도 언제나 존귀하고 영예스러운데 우리는 아무리 부자라고 하지만 낮고 천해서 감히 말도 타고 다니지 못한다. 량반을 만나면 공연히 굽실거리고 쩔쩔매며 기여들어가서 뜰아래서 절을 해야 하며 코를 끌고 무릎으로 다녀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있구나! 이제 저 량반이 구차해서 환자를 갚을수가 없을것이요 종당 그 형편은 량반도 보존해가지 못할것인즉 우리가 그것을 사기로 하자.》고 하였다.

그래서 그 량반의 집을 찾아가서 환자쌀을 갚아주마고 제의했더니 그 량반도 크게 기뻐서 곧 승낙하였다. 그 자리에서 부자는 쌀을 실어 고을로 들여보냈다. 군수가 크게 놀라고 또 신기하게 여기여 위로도 할겸 환자를 갚은 래력도 물어보려고 그 량반의 집을 찾아 나왔다. 그 량반은 털벙거지를 쓰고 짧은 옷을 입고 길가에 엎드리여 문안을 드리면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련해 소인을 올리였다.

군수가 크게 놀라서 붙들어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어째 이렇게 자신을 욕되게 하는것이요?》라고 하였다.

그 량반이 더욱 공손히 땅에 엎드리면서 말하기를

《황송하옵니다. 소인이 감히 자신을 욕되게 하는것이 아니오라 이미 량반을 팔아서 환자를 갚았사오니 이제부터는 저 부자가 량반이옵니다. 소인이 어떻게 옛 칭호를 그대로 가지고 앉아 틀을 빼겠사오니까?》고 하였다.

군수가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점잖구나, 저 부자야말로. 부자로서 린색치 않은것은 의리요, 남의 급한 일을 보아주는것은 어진 성품이요, 낮은데를 싫어하고 높은데를 사모하는것은 지혜다. 이야말로 참 량반이다. 그러나 개인끼리 매매를 하고서 문서를 만들지 않아서는 나중에 말썽이 생기기 쉽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을안 사람들을 불러다가 증인을 세우고 문서를 만들어서 증거로 남기되 군수가 직접 서명을 해주마.》라고 하였다.

군수가 동헌으로 돌아온 뒤 전 고을을 통해서 선비집안의 사람들과 농사군, 공장바치, 장사치들을 불러서 모두 뜨락에 모아놓았다. 그 부자는 좌수별감의 바른편에 앉히고 그 량반은 아전들의 아래 세우고 드디여 문서를 작성하였으니

《건륭 10년 9월 ×일 상기 사람간에 문서를 만드는것은 량반을 팔아서 관가의 곡식을 갚는것인데 그 값은 천석이다. 대체 량반이란것은 이름부터 여러가지라 글을 읽으면 선비라고 하고 벼슬을 살면 관리라고 하고 도덕이 높으면 군자라고 한다. 무관들은 서쪽에 벌려서고 문관들은 동쪽에 자리를 잡기때문에 량반이라고 하는것인데 어느쪽이나 그것은 제 소원에 맡기는것이다. 비천한 일은 일체로 하지 말며 옛사람을 본받고 지조를 숭상해야 하는것이라 언제나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서 류황에 불을 다려 기름불을 켜놓고는 두발꿈치로 꽁무니를 괴고 앉아 눈으로 코끝을 내려다보고있어야 한다. 얼음판에 박통을 밀듯이 동래박의는 죽죽 내려외야 한다. 배고픈것도 참고 추운것도 견디여 가난한 사정을 입밖에 내지 말아야 한다. 우아래의 이를 마주쳐서 소리를 내며 손을 들어 골통을 튕겨야 한다. 옷소매로 갓을 쓸어서 먼지가 깨끗이 떨리고 옻칠이 얼른거려야 한다. 세수할 때 주먹을 쥐고 비비지 말며 양치질할 때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소리를 길게 뽑아 계집종을 부르며 신을 끌면서 천천히 걸어야 한다. 고문진보와 당시품휘를 깨알만큼 베껴쓰되 한줄에 백자씩은 써야 한다. 손으로 돈을 만지지 말며 쌀값을 묻지 말며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며 상투바람으로 밥상을 받지 말며 국을 마시지 않고는 밥을 떠먹지 말며 무엇을 마실때는 훌쩍거리지 말며 저가락을 들고 방아를 찧지 말며 날파를 먹지 말아야 한다. 막걸리를 마시다가 수염에 묻은것을 빨지 말며 담배를 빨더라도 두볼따구니를 오물어뜨리지 말며 분하다고 안해를 치지 말며 골난다고 그릇을 발길로 차지 말며 주먹으로 아들딸을 때리지 말며 종들을 꾸짖을 때 죽으라고까지 꾸짖지 말며 마소를 욕할 때 기르는 주인까지 욕하지 말아야 한다. 병을 앓는다고 해서 무당을 불러 굿은 하지 말며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중을 불러 재는 올리지 말며 화로불에 손을 쬐지 말며 이사이로 침을 뱉지 말며 소를 몰래 도살하지 말며 노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상의 온갖 행실이 량반과 틀리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가에 들어와서 따질 일이다. 성주 정선군수 서명. 좌수와 별감도 확증을 위해서 서명.》

그다음 통인이 관인을 꺼내서 덜컥덜컥 소리를 내가면서 가로도 찍고 세로도 찍었다. 맨 나중에 호장이 그 문서를 들고 죽 내려읽었다. 그 부자는 한참동안이나 서운해하더니 마침내 말하기를

《그래 량반이 겨우 이런 정도입니까? 내가 듣기에는 량반이 신선 부럽지 않다더니 이런 정도라면 너무나 국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좀 리속이 나오도록 고치여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래서 문서를 고쳐서 만들었으니

《하늘에서 사람을 낼제 그 종류가 네가지인데 네 종류중에서도 선비란게 가장 귀하다. 선비는 량반이라고도 일컬으니 리속이 그보담 더 큰것은 없다. 밭도 갈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고 책권이나 약간 훑으면 크게는 문과에 급제하고 적어도 진사를 떼놓았다. 문과의 홍패로 말하면 길이가 두자에 지나지 못하지마는 온갖 물건이 전부 갖추어있는만큼 그야말로 돈더미다. 진사만 해도 서른쯤에 이르러는 첫 벼슬을 하게 되는데 남행에도 훌륭한 벼슬자리가 있고 더구나 남쪽 큰 고을의 원자리도 있다. 일산바람에 귀밑이 희여지고 설렁줄에 응하는 긴 대답소리에 배가죽이 부예지며 집안에는 고운 기생을 두고 보고 뜰아래에는 우는 두루미를 기른다. 궁한 선비

로 떨어져서 시골서 지낼망정 오히려 판을 치게 된다. 먼저 이웃집 소를 끌어다가 밭을 갈리고 나중에는 동리 백성을 붙들어다가 김을 매일것이다. 누가 감히 나를 괄시하겠는가? 그 코에 재를 부며 상투를 풀고 살쩍을 허트러서 잡아들이더라도 감히 원망하지 못할것이다.》

그 부자는 문서가 채 끝나기도 전에 혀를 빼물고 말하기를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맹랑스럽구려! 그래 나더러 도적질을 하란 말이요?》하고 고만 고개를 흔들고 가버린 다음 종생토록 다시는 량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환자쌀—(봉건사회에서) 국가가 인민들에게 꾸어주었던 곡식을 가을에 리자를 붙이여 받아들이던 쌀.

숭상하다—어떤 대상을 정도이상으로 굉장히 우러르며 더없이 소중하게 여기다.

감사—관찰사. (리조봉건사회에서) 각 도의 모든 권한을 틀어쥔 높은 벼슬 또는 그 벼슬에 있는 사람.

동헌—(봉건사회에서) 지방관청에서 지방장관들이 사무를 처리하는 집.

공장바치—(봉건사회에서) 어떤 물품을 손로동으로 만드는 사람, 수공업자.

좌수—(리조봉건사회에서) 고을원의 고문역을 하던 지방관청의 우두머리.

별감—좌수의 다음자리에 있는 사람.

아전—(봉건사회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 딸린 낮은 신분의 관리들을 통털어 이르는 말.

군자—(봉건유교사상에서) 《덕망이 높은 사람》을 이르는 말.

동래박의—(리조봉건사회에서) 량반들이 의무적으로 읽고 외워야 했던 유교도덕에 관한 책이름.

고문진보—(리조봉건사회에서) 산문으로 된 옛날 작품을 모은 책.

당시품휘—한시의 여러 형식의 작품을 묶은 책으로서 봉건량반들이 널리 읽던 책.

무당—(낡은 사회에서) 굿하고 점치는것 같은 미신적인 일을 업으

로 하면서 인민들을 속여 착취하며 기생충적인 생활을 하는자.

원—(봉건사회에서) 지금의 《군》과 비슷한 지역적단위의 지방행정을 맡은 벼슬아치. 곧《부윤, 목사, 군수, 현감, 현령》등을 가리켜 이르던 말.

진사—(봉건사회에서) 과거를 이틀 또는 사흘에 나누어 보일 때의 첫날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이르던 말.

재—(불교에서) 이른바 《죽은 뒤에 차례지는 복》을 빈다고 하면서 부처에게 음식물을 내는것.

통인—(봉건사회에서) 관가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사람.

홍패—(봉건사회에서) 문과의 과거시험에 급제한 사람에게 그의 성적의 등급 및 이름을 써서 내주는 붉은 종이의 합격증.

일산바람—부채질하여 일으키는 바람.

설렁줄—설렁(방울)을 달아맨 줄. (지난날에) 처마끝에 설렁을 달아놓고 거기에 맨 줄을 방으로 끌어들여 사람을 부를 때 잡아당기면 소리가 나게 되여있다.

채봉감별곡

고전소설 《채봉감별곡》은 19세기경에 창작된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작가는 알려지지 않고있다.

소설 《채봉감별곡》은 사랑에 대한 봉건적구속에서 벗어나려는 청춘남녀들의 개성해방의 지향을 보여주면서 탐욕과 출세와 매관매직에 눈이 어두운 봉건통치배들의 썩어빠진 생활을 폭로하고있다.

작품의 사건은 평양에 사는 김진사의 딸 채봉과 그의 집 담장밖을 지나가던 젊은 청년 장필성과의 우연한 상봉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들은 남몰래 약혼까지 하였으나 벼슬에 눈이 어두운 김진사가 서울에 올라가 딸 채봉이까지 허판서에게 첩으로 주기로 약속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나 온 가족이 이사짐을 꾸려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는 도중 장필성과 맺은 사랑을 잊을수 없었던 채봉은 마침내 밤중에 주막집

에서 도망쳐 다시 평양으로 돌아온다.

그후 그는 아버지가 이사짐을 도적맞히고 허판서와의 약속을 어긴 죄로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어머니에게서 전해듣는다. 이에 채봉은 부모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생으로 몸을 팔아 돈을 장만하여 서울에 보낸다.

채봉은 몸은 비록 기생이 되였으나 마음은 변함없이 오직 장필성만을 사랑한다. 이러던 채봉은 시련끝에 마침내 장필성과 다시 만나 결혼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도중에서 달아온 채봉

신새벽에 떠난 길이 이것저것 앞뒤로 보살피다나니 얼마를 못오고 정낮때가 되고말았다. 기왕 늦은바엔 이튿날 떠나도 좋으련만 조바심치는 김진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떠난터이라 냅다 길재촉을 했다. 중화땅에 들어서자 만리교에서 해가 저무는 바람에 마침 조용한 주막을 만나 거기에 들었다.

리씨와 채봉은 안채로 들어가고 김참봉은 바깥방에서 쉬였다. 그런데 정밤중에 별안간 사방에서 요란한 소리가 일어났다. 그 소리에 놀라 깨여난 김참봉은 하늘에 치솟는 난데없는 불빛을 보고 부랴부랴 잠자리에서 일어나 허겁지겁 밖으로 뛰여나왔다. 그의 눈앞엔 형용키 어려운 참상이 벌어지고있었다. 난데없는 불한당떼가 물밀듯이 사면에서 밀려들면서 사람들을 만나는족족 베여죽이고 찔러죽이고 하며 돌아갔다.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달아났는지 집은 집마다 텅 비고 근처엔 어리친 강아지 한마리 볼수 없었다.

금시 눈앞이 새뽀얘진 김참봉은 허둥지둥 주막 안채로 뛰쳐들어갔다. 마누라도 채봉이도 벌써 거기엔 없었다. 사방엔 들리느니 목놓아우는 통곡소리뿐이였다.

《채봉아, 채봉아!》

김참봉은 어찌할줄을 모르고 그저 정신없이 딸의 이름만 부르고있는데 불한당떼는 이미 주막앞으로 들이닥쳤다. 그 바람에 방안

에 둔 짐 같은것은 미처 꺼낼념도 못하고 그대로 담을 뛰여넘어 곡성이 나는쪽을 바라고 한참 줄달음을 쳤다. 돌아보니 마을집들은 온통 불길에 휩싸였다. 그 불속엔 김참봉의 짐보따리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그는 집속에 든 돈생각도 할 경황이 없이 애오라지 마누라와 채봉을 목이 터지도록 부르며 쫓아갔다.

한편 리씨는 채봉을 데리고 안방에서 자다가 주인마누라가 황급히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소스라쳐 깨여났다. 보니 옆에 누웠던 채봉은 온데간데 없고 사면엔 하늘을 뒤덮은 불빛이 대낮같이 밝고 그저 울부짖는 아우성소리가 귀청을 때리였다. 얼이 빠진 리씨는 주인마누라를 따라 얼결에 뒤문으로 빠져나와 정신없이 내달렸다. 앞길엔 피난하는 남녀가 마구 뒤섞이여 갈팡질팡 달리고있었다. 령감과 채봉도 분명 저속에 섞이여 달아나려니만 생각한 리씨는 숨이 턱에 닿아 목구멍에서 쇠비린내가 올라오건만 기를 쓰고 쫓아가며 채봉을 연거퍼 불렀다. 그러나 대답이 없다. 리씨는 채봉을 불러 대답이 없으면 참봉을 부르며 달려가는판인데 문득 뒤에서 채봉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리씨는 문득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리면서 채봉을 불렀다.

앞에서 마주 부르는 리씨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숨이 하늘에 닿은 김참봉이 헐레벌떡 달려들어 리씨의 어깨를 와락 붙들더니 소영각하는듯 한 소리를 냈다.

《채봉이가 어데 갔소?》

《애고, 이 일을 어떡하면 좋단 말이요?! 나도 령감과 채봉일 찾느라고 예까지 달려오는 길인데, 글쎄, 채봉이가 어데 갔단 말이웨까?… 이 사람들가운데 섞였나 어서 찾아봅세다!》

두 내외는 손을 마주잡고 눈앞을 가릴수 없는 캄캄한 밤길을 허둥지둥 더듬어가며 연방 채봉을 불렀으나 여전히 대답은 들을수 없었다.

이때 채봉은 평양 가는 길을 바라고 십리나 가있었다.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부른들 누가 대답하랴. 사람들의 자취도 점점 드물어가고 인젠 두 내외의 부르는 소리마저 기진했다. 둘은 그만 땅에 펄썩 주저앉고말았다.

《애고, 애고, 이 일을 어떡하노?! 우리 채봉인 이 란통에 죽었구나! 죽지 않았으문 도적한테 잡혀갔을테니 이런 변이 어디

있단 말요!》

리씨는 슬프고 아픈 가슴을 쥐여짰다. 그러는 동안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어둠속에서 문득 주막집주인로파가 나타났다.

《손님네들, 도적놈들이 로략질을 다 해가지고 도망을 갔쉐다. 동리에서도 피난군들이 돌아와서 인젠 불을 다 껐다우. 어서 집으로 갑세다.》

김참봉내외를 찾은 주인로파는 그들을 데리고 주막집으로 돌아왔다. 리씨는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고 안방으로 들어가 행여나 하고 다시 채봉을 찾았으나 역시 있을리 없었다.

김참봉은 김참봉대로 급히 바깥방으로 들어갔다. 짐을 풀어 헤쳐보니 짐속에 넣었던 돈이 없었다. 김참봉은 눈앞이 캄캄해서 쓰러지듯 방바닥에 주저앉아 짐짝을 안고 창자가 끊어지는듯 한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구, 아이구!》

리씨는 안에서 령감의 울음소리를 듣노라니 더욱 설음이 북받쳐 채봉의 짐보따리를 안고 목놓아울었다.

《채봉아, 채봉아, 넌 어델 가고 네 몸세간만 남았단 말이냐? 죽었니 살았니? 죽었으문 잊어나버리련만 도적들한테 붙들려갔으문 네 고생이 오죽하겠느냐!》

리씨는 뼈가 녹는듯이 울어대고 그 울음소리를 듣고 어청어청 다가온 김참봉도 리씨를 붙들고 흑흑 흐느꼈다. 그 울음소리며 흐느낌소리가 방에 차 옆에서 듣기에도 측은하기 그지없었다.

듣다못해선지 주인로파가 옆으로 다가와 앉으며

《우지들 마우. 가엾은 말이야 어떻게 다 하겠소만 이곳이 워낙 도적이 심해놔서 재물잃고 자식잃은 사람이 하나둘뿐이라구요. 운수가 사나와서 그런걸 울기만 하문 뭘 하겠소.》

위로하는 말에 김참봉내외는 점차 마음을 진정하고 자리에 누웠다. 리씨는 서러운 생각으로 밤을 새웠고 김참봉은 또한 생각이 많아 밤을 뜬눈으로 밝히였다. 지금 당장 같아서는 제 목숨을 제 손으로 끊고말 심사이기도 했으나 한편 눈뜨기 시작한 헛된 욕심이 이런 지경에서도 다시 머리를 쳐들고 그를 유혹하는것이였다. 서울에 돈 오천냥을 맡긴 생각이며 올라만 가면 과천현감자리가 있을 생각이 갈마들어 그로 하여금 차라리 서울로 올라가서 벼슬부터 해

놓고 차차 채봉이를 수소문해서 찾고 재물도 봉창하리란 불같은 욕망이 솟아나는것이였다.

두 내외는 도적맞히고 남은 짐들을 이것저것 팔아서 로자를 삼고 이튿날 걸어서 서울길을 떠났다.

서울에 당도한 두 내외는 참봉이 이왕에 묵었던 객주집에 들었다.

김참봉은 이튿날 허판서를 찾아갔다. 허판서는 김참봉을 보자 몹시 반겨맞으며

《아, 김과천 오시나. 그래, 먼길에 올라오느라고 로독이 났겠군. 자, 우선 급할테니 과천현감이 어떤것인가 구경을 하게!》 하고 문갑에서 칙지(왕의 벼슬임명장)를 꺼내놓았다. 그것을 보는 김참봉은 그만 가슴이 물러앉는듯 하여 얼빠진 사람모양 눈물만 흘리며 칙지는 받을 엄두도 못내고있었다.

그속을 알리없는 허판서는 김참봉이 너무 황송해서 눈물을 흘리나보다고만 생각하며 껄껄 웃었다.

《왜 그러나, 응? 하기야 너무 반가와서 그러겠지!》

김참봉은 그제서야 일어나 절을 하고 칙지를 받아 앞에 놨다.

《대감 혜택으로 이렇게 나라의 은혜를 입었습네다마는 저는 운수가 나빠서 그만 죽을번 하고 올라오다보니 대감 뵈올 낯이 없습네다.》

허판서는 깜짝 놀라 덮치듯 다우쳐 물었다.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죽을번 하다니?!》

김참봉은 죄송한 낯빛을 하고 자기들이 서울로 올라오던 도중에 불한당을 만났던 그 끔찍하고 슬픈 사연을 낱낱이 아뢨다.

김참봉의 말을 다 듣고난 허판서는 실쭉해진 눈길로 김참봉의 얼굴을 훑어보며 짐짓 놀란체를 했다.

《대단히 놀라운 말일세. 그래, 재물은 도적이 가져갔더라도 딸이야 왜 못 찾아가지고 온단 말인가?》

김참봉은 허판서가 그럴수록 더욱 죄송하여 그저 굽신거리기만 했다.

《아무리 찾았으나 찾을수가 없었습네다. 대감의 힘이나 빌어가지고 찾아볼 생각으로 우선 올라오기부터 했습네다.》

그 말을 듣자 허판서는 노기가 등등해서 벼락같이 호통을 쳤다.

《뭐뭐, 이런 맹랑한 놈 봤나! 아무튼 과천현감은 떼논 당상

이니까 내려갈 땐 허락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선 딴소릴 쳐? 그리구 이놈, 소위 부모가 되구서 란중에 제 딸을 잃고두 찾을 생각은 않고 남의 힘을 빌어서 찾자구 내버리고왔어? 이 고약한 놈!》

성이 꼭두까지 난 허판서는 이어 하인을 불렀다.

《이놈을 당장 가두어넣으라!》

그러고도 성이 삭지 않은듯 허판서는 김참봉을 노려보며 으름장을 놓았다.

《이놈, 네 딸을 데려오든지 그러찮으면 돈 오천냥을 마자 바치든지 해라! 그래야 무사하리라! 글쎄 이놈아, 그따위 소릴 뉘 앞에서 하느냐?! 시골 내려간 동안에 주선은 다 해주마고 했더니 현감자리는 떼여논 벼슬이라고 이제 와선 그따위 소리를 해?!》

김참봉은 더 말을 해보자고 했으나 그럴 경황이 없었다. 허판서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그는 달려든 하인놈들에게 끌려나가 찍소리도 못하고 외진 방에 갇히우고말았다.

한편 리씨는 객주집에 홀로 앉아 딸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참봉이 나오기만 기다렸다. 그러나 령감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리씨는 그제서야 불길한 생각이 들어 사람을 시켜 알아보았다. 령감은 허판서네 집에 갇혀있었던것이다. 리씨는 그만 가슴이 장마철에 토담 무너앉듯 내리앉는것만 같았다.

《에그머니 이 일을 어찌하노!》

이제 와서는 채봉의 소식도 못 알아보고 홀로 낯선 객지에서 속절없이 죽게 됐구나 생각하니 그는 앞이 캄캄해서 방바닥을 치며 또 목놓아울었다.

《아니, 왜 그러우?》

객주집주인이 다가와 차근히 묻는 말이였다. 리씨는 그간에 겪은 곡경을 죽 내리엮었다. 놀랍고도 측은한 사연이였다. 그래서 주인은 입을 벌린채 혀를 홰홰 내둘렀다.

《정말 가엾은 일이요. 돈 주고 병을 산셈이구려. 바깥량반은 좀해 나오실수 없소. 이런 일이 한두번이라구요. 아주 어렵소. 아무러나 돈을 변통해놓든지 따님을 찾아다 바치든지 해야 나오지 그러기 전엔 가망이 없소. 댁 일이 정말 꾀였소.》

《돈 변통할수도 없고 딸 찾을수도 없으니 볼장은 다 본거웨다.》

그는 아무 궁냥도 나지 않고 그저 막막하여 애오라지 애꿎은

눈물만을 흘리고있었다.

《그것 참 안됐구만요. 하지만 세상일을 알수가 있소. 혹 따님이 밤중에 피난을 해서 평양으로 도망을 쳤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니 평양으로 내려가 찾아보우. 여기에야 오만날을 있은들 소용이 있을라구요.》

그럴법 한 말이기도 했다. 하긴 다른 도리가 없기도 했다.

《주인 말씀이 옳아요. 그런데 로비가 없으니 어떻게 오백여리를 내려가나요? 어렵지만 이걸 좀 팔아다주슈!》

리씨는 머리에서 비녀를 빼주었다. 집주인은 비녀를 팔고 이윽해서 돌아왔다. 리씨는 비녀값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로비삼아 평양으로 내려갔다.

채봉을 찾아 평양으로 다시 온 리씨

대체로 세상의 근심과 고생은 공교로운 기회에 생기는 법이다.

그때 채봉은 취향이와 단단히 약속했던대로 불한당이 만리교에 들이닥치기 퍼그나 앞서 리씨가 잠든 틈을 타서 주막을 빠져나왔었다. 그리하여 약속한 장소에서 취향이와 취향 어미를 만나 평양으로 도로 내려왔었다. 그런만큼 채봉은 그날 밤에 만리교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도적을 만나 그 지경이 된줄은 꿈에도 모르고 다만 취향의 집에 눌러앉아 아버지의 기별을 기다렸다. 그러면서 차차 장필성이와도 만나리라는 속셈을 하고 글쓰기와 그림그리기에 재미를 붙이고있었다.

이때 리씨는 밤낮을 줄창 걸어서 열흘만에야 평양에 닿았다. 막상 오고보니 갈데라고는 막연했다. 리씨는 딸이 이리로 왔다면 의례 취향이네 집으로 갔으리란 짐작이 가서 그리로 갈 작정을 하고 대번에 대동문으로 들어섰다. 좌우를 돌아보니 전과 다른것이란 하나도 없는데 변한것은 다만 먼길에 지친 자기와 초라해진 옷주제뿐이였다.

《불과 한달동안에 내 꼴이 어쩌면 이렇게 됐단 말인가!》 하고 한탄하면서 애련당골로 접어든 리씨는 곧바로 취향이네 집을 찾아갔다.

안뜰에 들어서자 취향이를 불렀다.

《취향아, 취향아!》

이때 취향과 채봉은 마주앉아 앞으로 헤쳐나갈 일을 의논하고 있는 참이였다. 그들이 오매에도 잊지 못한 리씨의 목소리를 어찌 모르랴.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은 한달음에 우르르 뛰여나왔다. 채봉을 미처 보지 못한 리씨는 앞선 취향을 먼저 보고 달려들었다.

《얘야, 취향아, 우리 집 아기 여기 안 왔니?!》

채봉은 얼른 앞으로 나서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나 여기에 있어요!》

리씨는 채봉을 얼싸안았다. 목소리는 벌써 눈물에 젖었다.

《네가 살았구나! 근데 이 일을 어떡하면 좋단 말이냐? 우리 집이 이렇게 불시에 망할줄 꿈에나 생각했겠니?!》

채봉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소스라쳐 놀라며

《망하다니요?! 이 못난 계집애땜에 무슨 풍파가 생겼나요?!》 하고 다우쳐 묻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였다.

리씨는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고 채봉을 붙들고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앉았다.

《그래, 네가 어떻게 돼서 여기 왔니?》

어머니의 옷주제를 보는 채봉은 그 물음에 대답은 고사하고 어머니걱정이 앞섰다.

《어머니, 나 여기 온 말은 나중에 할테니 어머니말부터 하세요. 아버지는 어데 계시고 어머니는 무슨 일로 이렇게 혼자 오셨어요?》

리씨는 새삼스레 억이 막혀 한동안 덤덤히 앉아만 있다가 이윽해서야 만리교에서 도적떼를 만난 이야기며 서울의 허판서가 령감을 가두고 을러멘다는 이야기를 죄다 하였다.

《이 일을 어떡하면 좋겠니. 돈 5천냥을 해놓든지 널 데려오든지 하라는데 네가 아버지를 살리려면 나하고 함께 서울로 올라가자!》

채봉은 채봉대로 눈물을 머금고 그날 밤중에 취향과 약속하고 만리교에서 도망쳐온 말을 대충 하고나서 어머니앞에 제 심정을 터놓았다.

《어머니, 전 죽어도 서울은 못 올라가겠어요, 자식 하나 죽은 셈 치세요!》

리씨의 얼굴엔 금시 애걸하는상싶은 빛이 구름처럼 서렸다.

《네가 안 가면 아버지는 죽어도 좋단 말이냐? 돈마련을 해놓든지 널 데려오든지 하라는데 네라도 가얄게 아니냐.》

덤덤히 앉아있는 채봉의 가슴에는 오만가지 생각이 갈마들었다.

(가엾은 부모는 있던 재산을 다 날려버리여 인젠 범아가리에 들어간셈이지. 그렇다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먹은 마음을 바꿀수는 없지. 한몸을 쪼갤수도 없는노릇이니 이 일을 어떡허면 좋단 말인가.… 부모를 위해 서울로 올라가자니 장필성에게 죄가 될것이고 그렇다고 돈 변통도 못하고 나마저 올라가지 않는 날엔 부모는 그 변을 면치 못할게 아닌가. 차라리 이 몸이 죽으면 이것도 저것도 다 잊어버릴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나는 죽어 깨끗한 몸이 될지 모르나 늙고 병든 부모는 속절없이 죽을것이 분명하니 참, 죽자 해도 죽을수 없고 살자 해도 살수 없구나! 넓고넓은 세상에 가엾은 녀자의 몸 하나 둘 곳이 과연 이다지 없단 말인가! 세상에 그 누구든 나에게 돈을 주어 부모를 구원하게 하는 사람만 있다면 이 몸을 데려다가 종노릇을 시키면 종노릇을 하고 기생노릇을 시키면 기생노릇도 서슴지 않으련만…)

그러나 막상 마음을 그렇게 먹고나니 마치 간장이 녹아내리여 뜨거운 눈물로 된듯 하염없이 흐르고 흐르는 눈물만이 옷자락을 적시였다.

이윽하여 마음을 다잡은 채봉은 낯빛을 고치고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어머니, 그럼 돈을 구해드릴테니 어떠세요?》

리씨는 눈에 생기를 띠였으나 그것은 극히 짧은 순간이였다.

《오천냥이나 되는 돈을 네가 어떻게 변통한단 말이냐?》

《어머니, 념려마시고 며칠만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가슴은 아프고 쓰리였다. 그러나 딸의 속내를 모르는 리씨는 일변 반갑기도 하고 일변 의혹이 구름처럼 가슴에 서리기도 하여 딸의 눈치만 보고있었다.

채봉은 샘물처럼 눈시울에 솟아흐르는 제힘으로도 어찌 못할 눈물을 치마자락에 훔치고나서 취향에게 넌지시 눈길을 돌렸다.

《취향아, 너의 어머니가 어디 갔는지 좀 불러오렴.》

《어머닌 봉선네 집에 갔어요.》

《어서 가서 좀 오라고 해라!》

밖으로 나간 취향은 한식경이나 실히 되여서야 어머니와 함께 돌아왔다. 취향 어미는 리씨를 보자 깜짝 놀라며 와락 달려들었다.

《에그머니, 마님이 웬일이십니까?!》

리씨는 나오느니 한숨뿐이였다.

《아이고, 우리 집은 기둥뿌리 하나 남기지 않고 별안간 이 지경이 됐으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네.》

《아니, 왜 그렇게 되셨수? 벼슬하러 올라가신다더니… 아무러나 그간 아가씨를 못 봐 오죽하셨겠수!》

《취향 어머니.》

채봉은 취향 어미에게 눈길을 돌렸다.

《내가 부탁할 말이 있는데 힘을 좀 써주려오?》

《무슨 부탁이신데요?》

《부끄러워 말이 잘 안 나와요.》

채봉은 어줍은 표정을 하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뗐다.

《내 몸을 팔아주세요!》

《아이구! 그게 무슨 말씀이웨까? 괜히 망녕된 말씀을 하시는구려!》

취향 어미는 펄쩍 뛰였다.

《정말이요!》

채봉의 올찬 대답이였다. 그러나 그 말을 누가 믿겠는가.… 채봉은 취향 어미에게 앞뒤 사연을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다 듣고 나서야 취향 어미는 진정 딱한듯 눈물을 흘리며 남의 일 같지 않은 정상에 꺼질듯이 한숨을 쉰다.

《에그머니나, 딱하기도 해라! 어떻게 됐으면 댁에서 이런 변이 생겼수. 그런데 몸을 팔면 어떤데다 팔게요?》

《이런 형편에 자리를 고르겠어요. 쉽사리 돈 나올데만 주선해주세요.》

《글쎄, 기생이나 되시려문 돈이 쉽사리 나오지만…》

《복없는 팔자니 아무거면 상관있겠어요. 기생이라도 좋으니 적당한 곳은 있겠나요?》

《아무러니 기생노릇이야 어떻게 하시겠수? 한자리가 있긴 하지만…》

《어덴데요?》

《지금 봉선네 집엘 갔더니 봉선 어미가 봉선이를 팔아서 서울로 올려보내고 방금 집이 비여서 기생 하나를 사지 못해서 하던데요.》

《그렇다면 좀 주선을 해주세요.》

리씨는 옆에 앉아서 채봉이 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도 한심하고 분하여 가만히 있을수 없었다.

《얘 채봉아, 난 네 일을 알수 없다. 그래 재상의 소실은 싫고 기생노릇하기가 원이란 말이냐? 내가 널 길러서 마땅한 사위는 얻어주지 못할망정 기생노릇을 시킨단 말이냐? 네가 정말 애비를 살릴 생각이거든 나하고 함께 서울로 올라가자!》

《전 기생이 될망정 재상의 첩은 바라지 않아요.》

《아가씨, 무슨 마음을 그렇게 가지시우? 그러지 마시고 마님과 함께 올라가시구려.》

취향 어미의 진정어린 권고였다. 그러나 채봉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난 살아도 평양, 죽어도 평양, 여기서 떠날 다른 생각은 없으니 부질없이 권하지 마세요.》

리씨도 취향 어미도 채봉의 속마음을 알리는 도저히 없었다. 그들은 채봉의 고집이 천만 못마땅했으나 이제 와서 채봉의 그런 의지를 꺾을 방도가 없었다.

그리하여 취향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별수없이 봉선 어미를 찾아갔다.

봉선 어미는 채봉의 인물이 잘나고 재주가 뛰여난줄을 이미 아는만큼 취향 어미한테서 그 말을 듣고 호박이 넝쿨채 떨어진듯이 기뻐했다.

《취향 어머니, 그게 정말이요?》

《그럼 정말이구말구. 어떤 소리라구 거짓말하겠소.》

《정말이라문야 게서 더 좋을데가 어데 있겠소. 근데 돈은 얼마나 달라고 합데까?》

《그건 만나서 의논하우다. 봉선인 얼마에 팔았는지 그 가량이문 되겠지.》

《칠천냥 내고 데려갔소.》

《아무튼 같이 가서 의논합세다.》

얼마뒤에 취향 어미가 봉선 어미를 데리고 돌아오니 채봉은 일어나 봉선 어미를 반가이 맞이하였다.

《봉선 어머니 오세요? 부탁은 다른게 아니라 내가 기생이 되려는데 마음에 드실는지?》

《마음엔 들지만 정말인지 그게 알수 없구나.》

《정말이지요. 취향 어머니에게 대강이나마 들으셨겠는데요.》

《그래, 들었다. 한데 돈은 얼마나 쓰려니?》

《륙천냥만 주세요.》

륙천냥만?! 봉선 어미는 어깨에서 짐이나 부리운 때처럼 속이 개운해서 그냥 깔깔 웃었다.

《그럽세! … 봉선이가 가더니 채봉이가 오는걸 보니 내가 〈봉〉자하고는 인연이 깊은 모양일세.》

계약은 끝난셈이다.

리씨는 봉선 어미가 집에서 갖다주는 돈 륙천냥을 받았다는 증표를 써주고도 채봉이 한짓이 하 어이가 없어 좀체로 가슴에서 내려가지 않았다.…

(저런 복찰 년이 어디 있나. 오냐,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도 리씨는 어미된 도리와 피줄의 정을 어찌 못해 채봉의 손을 꼭 잡고

《아가, 정말 네 맘이 그러냐? 네가 네 입으로 한평생 장서방을 따르겠다더니 오늘 너 하는짓을 보매 어디 그러냐?》하며 한숨을 쉬였다.

《어머니, 제 걱정일랑 마세요. 서울 가셔서 아버지나 빼내오시고 전 만리교에서 불에 타죽었더라고 말씀하세요.》

채봉은 받은 돈에서 오천오백냥을 어머니한테 주었다.

《오천냥으론 아버지 나오시게 하고 오백냥으론 아버지 나오시거든 로자를 쓰시면서 내려오세요. 오백냥은 제가 쓰겠어요.》

딴 도리가 없었다. 령감이나 구해내고 차차 일을 처리하리라고 마음먹은 리씨는 눈물을 씻고 돈을 받았다.

이튿날 리씨는 서울길로 타박타박 올라가는데 애처로운 딸의 모습이 눈에 밟혀 좀체로 걸음이 걸리지 않았다.

계몽기문학

우리 나라 력사에서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까지는 애국문화운동으로 특징지어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문학분야에서는 계몽기문학작품들이 창작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계몽기문학작품에는 일제를 비롯하여 외래침략자에게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우리 나라를 〈독립자주〉적이고 〈문명개화〉된 나라로 발전시키려는 애국적인 지향과 봉건의 질곡으로부터 인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을 계몽하여 각성시키려는 개화사상이 반영되여 있다.》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에는 일제를 비롯하여 외래침략자들에게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를《독립자주》적이고《문명개화》된 나라로 발전시키려는 애국적인 지향과 봉건의 질곡으로부터 인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을 계몽하여 각성시키려는 개화사상이 반영되여있다. 이러한 문학작품의 창작은 봉건을 타파하고 나라의 자주성을 고수하려는 인민들의 근대적지향과 관련되여있다.

나라의 자주권을 고수하려는 반침략애국문학은 계몽기문학의 중요한 주제분야이다. 류린석, 최익현을 비롯한 의병장들의 애국적시가,《독립가》,《애국가》,《상봉유사》와 같은 창가,《몽조》,《설중매》,《자유종》과 같은 신소설은 이러한 주제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봉건을 타파하려는 반봉건주제의 문학도 계몽기문학의 중요한 주제분야의 하나이다.《귀의 성》,《현미경》,《구마검》,《빈상설》 등 신소설들은 이러한 주제에 해당한다.

계몽기에는 문명개화에 대한 시대적지향을 반영한 주제의 작품이 또한 많이 창작되였다.《권학가》,《학도가》,《신문가》등 창가나《치악산》과 같은 신소설은 문명개화하여 사람들을 각성시키려는 주제의 작품들이다.

이와 같이 계몽기문학에는 중세문학과는 다른 새로운 주제의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계몽기에는 주제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문학작품들이 창작되였다. 창가, 신체시와 자유시, 신소설, 희곡은 계몽기에 발생한 새로운 문학형태이다.

창가는 19세기 말엽에 발생한 근대적악곡과 결합된 노래의 가사이다. 창가는 초기에는 4·4조가 위주로 되였으나 점차 자유롭고 다양한 률조로 발전하였다. 《학도가》, 《권학가》, 《상봉유사》 등은 널리 알려진 창가작품들이다.

계몽기에는 신시운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신체시와 자유시가 발생하였다. 신체시는 1908년경부터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중세시가 형식으로부터 자유시에로 이행하는 과도단계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해에게서 소년에게》, 《우리의 운동장》, 《신조선소년》 등은 신체시의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그리고 1914년경부터 점차 자유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자유시는 중세시가의 률조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는 자유로운 시가형식이다. 이런 자유시는 새 세대 시인들에 의하여 여러 출판물들에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신소설은 계몽기에 나온 소설형식이다.

신소설이라는 말은 중세소설보다 새로운 소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후에 계몽기소설을 이름짓는것으로 고착되였다. 신소설은 중세기적인 환상이 완전히 극복되였으며 어려운 한자어휘도 현저히 없어지고 언문일치의 지향이 강화되였다. 또한 묘사나 등장인물의 대화에서도 한걸음 전진하였다.

신소설은 1906년 《혈의 루》가 발표된 다음부터 많은 작가들에 의하여 창작되기 시작하였는데 《귀의 성》, 《치악산》, 《현미경》, 《설중매》, 《구마검》, 《자유종》 등은 그 대표적작품들이다.

신소설의 뒤를 이어 1910년대 중엽부터는 현대소설의 맹아적인 요소로 볼수 있는 단편소설과 중장편소설들이 창작되기 시작하였다. 《한의 일생》, 《절교의 서한》, 《슬픈 모순》과 같은 단편소설들, 《꿈하늘》이나 《개척자》와 같은 중장편소설의 창작은 이것을 말하여준다.

이 시기 희곡은 우리 나라에 점차 근대적인 극단체가 조직되여 활동하는 과정에 창작되기 시작하였다. 다시말하면 희곡은 신극운동의 산물이다. 《수전노》, 《선빈후개》, 《눈물》 등은 당시에 공

연된 희곡작품인데 지금 전하는 대표적인 작품은 1912년에 나온 《병자3인》이다.

이와 같이 계몽기에는 내용과 형식에서 근대적인 새로운 경향의 문학작품들이 창작되였다.

계몽기문학은 시대력사적인 제한성, 창작가들의 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일정한 부족점을 발로시켰다.

계몽기문학은 인민대중의 반봉건, 반침략투쟁을 원만히 형상하지 못하였으며 인민대중을 사회계급적으로 각성시키는것도 미약하였다. 또한 문학의 형식에서도 중세문학의 틀을 많이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현대문학의 틀을 완전히 갖추지는 못하였다.

이런 부족점은 있으나 계몽기문학은 우리 나라 문학발전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상봉유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날에 서로 만나니
반가운 뜻이 은근한중에
나라생각 더욱 깊었네
언제나 언제나
독립연에 다시 만날가

청년들아 참 분하고나
저 원쑤가 참 분하고나
저 원쑤를 다 몰아내고
자유천하 소원이로세
언제나 언제나
개선가를 높이 부를가

청년들아 참 괴롭고나
남의 속박 참 괴롭고나
이 속박을 벗어버리고

국권선양 소원이로세
언제나 언제나
자유종을 크게 울릴가

청년들아 참 슬프고나
무국의 민이 참 슬프고나
우리 국권 회복하고서
국위진동 소원이로세
언제나 언제나
독립기를 높이 날릴가

청년들아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함도 내 책임이요
흥하게 함도 내 직분이라
락심말고 분발합시다
소원을 소원을
성취할 날이 멀지 않네

현 미 경

《현미경》은 김교제가 1912년에 쓴 신소설로서 계몽기문학의 대표적작품의 하나이다.

김교제는 호를 아속이라고 하였다.

소설의 시대적배경은 《한일합병》직전이며 기본사상은 개화사상의 립장에서 특권계급과 그들의 횡포, 탐욕을 무자비하게 비판한 것이다.

소설의 주인공은 빙주라는 처녀이다.

빙주의 아버지 김감역(감역이란 지난날 길, 하천, 다리 등을 건설하거나 수리하는 일을 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은 보은 북실촌에서 생활형편이 비교적 괜찮은 수준에 있었기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부자라고 하였다. 그는 가난한 이웃사람들을 늘 동정하고 힘있는껏 도와도 주었다.

그런데 이 고을의 정승지(승지란 왕과 신하들사이에서 중계자적역할을 하는 높은 벼슬을 말한다.)란 놈은 백성의 등을 긁어먹기로 유명한 놈인데 김감역에게서 돈 10만냥을 빼앗아내려다가 제대로 되지 않자 법부대신으로 있는 제 삼촌의 힘을 빌어 김감역을 동학여당으로 몰아 그의 집안을 몰살시키고 문건을 위조하여 그의 재산을 전부 자기의것으로 만든다. 이때 김감역의 가족은 다 죽고 16살 나는 그의 외딸 빙주만이 간신히 살아남는다.

빙주는 노비로 가장하고 정승지의 집에 들어가 그놈을 죽이고 목을 베다가 아버지의 제상에 올려놓는다.

관가에서는 곧 빙주에 대한 체포령을 내린다. 그러나 의리심이 있는 지방대장 박참위가 빙주에게 편지를 보내여 도망치게 한다. (이 부분이 선문교재로 되여있다.)

빙주는 피신도주하는 길에서 이웃마을에 사는 녀자 옥희를 만났는데 그는 김감역과 교제가 깊던 리진사의 딸이다. 옥희는 그때 아버지를 잃고 서울에서 법부협판으로 있는 삼촌을 찾아가는 길이였다. 그런데 도중에서 《화적》(봉건통치배들이 의로운 투쟁에 일떠선 농민봉기군을 얕잡아 부르는 말)을 《토벌》하러 나선 지방대의 추격에 들게 된다. 옥희는 총에 맞아 쓰러지고 빙주는 놈들에게 체포된다. 빙주는 위험한 자리를 모면하기 위하여 자기는 법부협판의 조카 옥희라고 둘러댄다. 지방대를 책임지고 왔던 대장인 박참위는(그는 빙주의 이름만 알고 얼굴은 모른다.) 빙주를 옥희로 알고 그를 리협판의 집으로 보내준다.

리협판은 외국에 오래동안 가있었기때문에 조카를 본지가 오래서 얼굴을 잘 모른다. 그는 빙주를 자기 조카인 옥희로 알고 그를 반갑게 맞아주며 극진히 대해준다.

총에 맞았던 옥희는 권봉규라는 이름난 의원을 만나서 다시 살아나 그의 아들과 결혼까지 하고 삼촌인 리협판을 찾아온다.

리협판은 빙주의 이야기를 통하여 사실을 다 알게 되였지만 그를 내보내지 않고 친딸처럼 여기면서 그냥 있게 한다. 그러나 삼촌의 집에 온 옥희는 빙주가 자기 삼촌의 사랑을 독차지한것 같아 그를 아니꼽게 생각하면서 해치려고 한다. 원래 옥희는 인정이 없고 속이 좁은 녀자였다.

그런데 법부대신이 빙주가 서울로 왔다는 통보를 받고 그를 잡

으라는 령을 내린다. 리협판은 빙주를 림시 딴집으로 옮겨놓는다. 이것을 안 옥희는 빙주가 숨어있는 곳을 몰래 대준다. 그리하여 법부대신은 부하들을 풀어 빙주를 잡아들이게 한다. 그런데 잡혀온것은 빙주가 아니라 그와 얼굴모색, 키, 나이가 비슷한 빙심이라는 처녀였다.

법부대신은 자기가 일처리를 잘못한것을 리협판이 알고 걸고들면 재미가 없을것 같아서 흔적을 없애느라고 빙심이를 죽여버린다. 그러나 빙심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상소하는 바람에 법부대신은 교형을 언도받는다.

소설의 앞부분과 뒤부분은 전해지지 않고있다.

…

《상처를 하고 미처 속현을 못하였더니 천만의외에 너갈이 세상에 썩 드문 일색을 얻었으니 인제 후취는 해서 무엇하게. 네게 양첩장가나 바로 들어서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게 살아보자.

허허 내가 참 대단히 취하였군. 내 말만 하노라고 미처 네 말을 들어보지 못했구나. 그래, 너는 뉘 집 딸이며 뉘 계집이며 가변을 어떻게 만나서 섬섬약질이 저 모양으로 피란을 나왔어. 바로 말을 하여라. 웨 시어머니가 심히 굴어서 나왔느냐, 서방이 몹시 볶아서 나왔느냐?

어 가이없은 소리도 다 많지. 저만큼 생긴것이 남의 집 종으로 팔리려고 나오다니. 에구 그런 말은 두번도 말어라. 사람 살릴 곳은 골골마다 있단다. 인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너를 차마 종으로 부리려고 할리가 있나. 글쎄 말이나 좀 똑똑히 해라. 세상천하에 (탈락) 제할 사람이 다시 없고 또 나 아니면 네 남편 재목이 없으리라. 압다, 걱정을 말고 진작 대답이나 해라. 네가 아무리 서방이 있는 유부녀라도 내 집에 들어온 이상은 너를 도로 보낼리도 만무하고 또 어디 어떤 놈이 감히 내앞에 와서 끔을 하겠느냐.》

그 녀자가 만첩시름을 설이 담고 초연히 앉았다가 참담한 옥안에 화기를 강작해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령감, 제 래력은 차차 아실것을 무엇이 그리 바쁘십니까. 에그 이년의 팔자가 오죽 사나와야 돌에도 나무에도 붙이지를 못하옵

고 헐수할수없이 남의 집 종으로 팔리기를 자원했을라구요. 뺨을 맞어도 은가락지 낀 손에 맞는다고 이왕 종노릇을 할바에는 차라리 량반 좋으시고 세력 많으신 령감댁문하에 의탁을 할가 하와 댁에를 왔삽더니 천행으로 령감께서 이처럼 사랑을 합시니 제게는 오히려 과분해서 손복이 될가 겁이 납니다. 저 지낸 고초야 창졸에 어찌 이루 여쭙겠습니까. 오늘 밤은 술이나 잡수시고 제 래력은 래일 식전에 들으십시오.》

(정)《허허, 그 말 좋다. 오냐, 그리하지. 허허허 어서 술 부어라. 허허허 이 애 술 한잔 다오. 어서어서 한잔 다오.》

이 모양으로 너털웃음을 내놓으며 팔을 늘여 그 녀자의 손목을 잡으려 하는데 그 녀자가 기급질색을 해서 술상으로 간을 막아 백단으로 방색을 한다.

《에그 령감, 이게 무슨 망녕이십니까?》

하면서 섬섬옥수로 술을 가득 부어 한잔 권하고 두잔 권하고 쉴새없이 퍼부어 권하는데 정승지는 취흥이 도도하여 안절부절을 못하다가 혀 굳은 소리로

《이 애 이 애 오늘 밤같이 좋은 밤은 없다. 이 애 좋은 밤이 가지를 말고 우리 둘이 이대로 살다가 죽었으면, 이 애 이 애.》하면서 술이 잔뜩 취하더니 그제는 권하기도 미처 기다리지를 못하고 보시기가 되나 탕기가 되나 손에 잡히는대로 술을 무작정 퍼먹더니 종말은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자리에 푹 곯아떨어지는데 자연 밤은 들어 만뢰가 구적하고 정승지 집 상하식구들은 새벽잠이 깊이 들어서 코 구으는 소리만 우뢰같더라. 그 녀자가 앞뒤 미닫이를 가만히 열고 사면팔방을 휘휘 둘러보더니 별안간에 벌떡 일어나며 품속에서 서리같은 칼 한자루를 내여 손에 들고 술상옆에서 정신을 모르고 엎드러진 정승지를 가리키며 입속으로 악을 쓴다.

《이놈 원쑤의 놈아. 우리 아버지 찰원쑤를 인제야 갚는다. 에그에그 네 머리를 베여다가 우리 아버지 제연에 받들어드려서 구천에 슬피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원혼을 위로해드리지 아니면 내 가슴에 쌓이고쌓인 원한을 어찌 풀겠느냐. 에구에구 재물은 우리 집의 큰 원쑤라 우리가 벼 백추수나 한다고 네가 엽전 십만냥만 취하여달라는것을 아니 주었다고 거기 감정이 나서 날불한당같은 네 삼촌 정대신놈과 흉계를 꾸며 백지에 부처님같으신 우리 아버지를

〈동학여당〉으로 몰아 죽였으니 에그 이 몹쓸 놈아 너도 사람이지 아무리 재물도 중하거니와 남의 재물에 탐을 내여 그런 적악을 시킨단 말이냐?

에그에그 이런 지원극통한 사정을 어디 가서 호소할데는 없고 너 하나 붙잡자고 어느 무슨 궁리를 아니하였겠니. 심지어 허다못해서 내가 도망군의 행색으로 짐짓 네게 붙들렸더니라. 에라 너 하나 죽이면 나 하나밖에 더 죽겠느냐.》 하면서 샛별같은 두눈에 악기살기가 잔뜩 어리여 퍡 달려드는데 부지중에 쇠 잘 먹고 사람 잘 죽이고 흉독하기 사갈같은 정승지는 삼혼이 유유하고 칠백이 탕탕하여 이생에 못 받은 죄악을 염라국으로 받으러 가고 그 녀자는 사고무인한 깊은 밤에 보은 북실동리를 향하고 황황급급히 달아나더라.

북실은 보은서 부촌으로 이름난 동리라, 부촌이라 하니 남들이 듣게 되면 그곳 사람들은 사람마다 벼천벼만이나 하는줄로 알터이나 말이 부자이지 그 부자가 오죽한 부자리오. 춘궁하곤에 나물죽, 보리죽으로 겨우 연명을 하여가며 동의하갈로 제법 철을 찾아 입지를 못하고 길쌈하고 기직매여 손톱발톱이 다 닳도록 근근히 벌어 논마지기 밭날갈이를 개미 금탑 모으듯이 두고두고 사서 모아 봄에 보리섬, 가을에 벼섬이나 앞뒤 로적으로 쌓아두고 일년만 동을 대여 먹으면 시골서는 큰 부자로 지목을 받는터이라 부자로 지목을 받고 사는것이 가난뱅이칭호보다는 좀 나을법 하나 시골구석서 가지각색 도적놈의 등쌀에 부자칭호가 제일 질색이라.

…

적수기가로 치부한 사람은 백이면 백, 천이면 천 한결같이 굳고 린색하여 이마를 뚫어야 보얀 진물 한점이 아니 날터이나 김감역은 도저히 그런 위인이 아니라 자기가 적수로 기가는 했을망정 활수하고 관후하며 원근친소를 무론하고 굶는 사람 밥먹이기, 헐벗은 사람 옷입히기, 그런 자선사업은 자기 힘 자라는대로 지극히 구제를 하는고로 자연 인심을 흡득하여 지어 부지간에 입둔이마다 《김감역, 김감역》하며 김감역 바라기를 적자의 자모 바라듯 하던 터이라, 갑오을미년동학통에 시골 사는 사람치고 작으나크나 그 독해를 입지 아니한 사람이 없으나 그때 그 동학군들은 평일에 김감역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면 모두 그 사람들의 일족이라 서로 일러가며 북실동리에는 일호침범을 아니하였더라.

그때 동학란리에 욕을 보아도 참혹히 보고 집을 망해도 더럽게 망한 집은 모두 굵직굵직하고 세력있는 사람들이라 동학란리가 평정되고 정치가 개혁된 후에도 그 사람들이 다시 정부일판을 차지하고 좌지우지를 하는고로 그때 동학에게 욕보던 생각을 하고 설치를 한번 해볼 계획인지 묵은 책장을 다시 일으집어 방방곡곡이 사출을 해서 《동학여당》을 깡그리 잡아죽이는데 정승지는 천재일시로 이런 기회를 만나 발을 벗고 나서서 유무죄간에 평일에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거역을 하던 사람이면 비록 백백무하한 사람도 모두 동학으로 몰아 죽이는판이라 손바닥만 한 보은구석에서 삼십리안팎일을 죽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 어찌 모르리요. 동학통에 유독히 김감역 집만 안연 무사하였단 말을 듣고 불한당같은 욕심이 불같이 일어나서 김감역을 넌지시 청하여 백방으로 위협을 하고 엽전 십만냥을 청구하는지라 김감역의 강직한 성질에 자기가 실상 죄가 있더라도 돈 바치고 모면을 아니할터이어늘 더구나 백백애매한터에 십만냥은 고사하고 피전 대푼인들 어찌 줄 마음이 있으리오. 도리여 정승지를 향하여 일장론박을 통쾌히 하고 돌아왔더니 정승지는 분한이 철골을 하여 이발을 북북 갈며 앞뒤 빈틈이 없이 법부대신으로 있는 그 삼촌 정대신과 흉계를 꾸며 김감역을 동학군의 접주로 얽어서 항쇄족쇄를 하여 서울로 잡아올려다가 심문 한번, 재판 한번도 아니하고 즉각내로 때려죽였더라.

그후에 정승지가 김감역의 수표를 위조하여가지고 말하기를 김감역이 자기에게 리행할 채무가 몇십만냥이 된다 하고 김감역 집 동산, 부동산을 몰속히 집행을 하는지라 김감역이 근본번족하던 처지라도 정승지 그 서슬, 그 세력에 감히 끔쩍을 못하려든 하물며 무밀둥같은 김감역 집일을 방관지인이 되여 어느 누가 힘을 써서주리요. 논을 빼어도 탄하는 사람이 없고 밭을 빼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 요부하기로 유명하던 김감역 집이 일조일석에 탕패무여가 되고 덕시글덕시글하던 집안식구들은 먹을것, 입을것, 바랄것, 볼것이 다시 없으니까 한사람 두사람 뿔뿔이 달아나기 시작을 하더니 추풍락엽같이 뚝뚝 떨어져나가고 다만 혈혈단신의 무부모한 김감역의 딸 하나만 동고마니 남았더라.

그 딸의 이름은 빙주니 이때 꽃다운 넌기는 십륙세라 달같고 옥같은 태도와 빙설같고 철석같은 지조는 더 할 말이 없거니와 그

특이한 사상과 출류한 지식은 말이 계집아이이지 치마폭 두른 장부라고 할만도 하나 그러나 졸지에 공전절후한 화란을 참혹히 만나서 삼오이팔이 겨우 된 혈혈처녀의 그때 정경이 장차 어떠하리요. 밤낮없이 울음으로 세월을 보내며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어 그 부친을 지하에 하종을 하려고 하더니 무슨 생각을 하였던지 그후는 울도 아니하고 말도 아니하고 그 부친 죽은지 장근일삭을 두문불출하고 들어앉았더니 수일전부터 부지거처로 종적이 없더라.

이날은 그 동리사람들이 하나 모이고 둘이 모여 구석구석 코빼기를 마주 대고 앉아서 받고 차기로 탄식을 하는데 그중에 한사람이 한숨을 길게 내쉬며 하는 말이라.

《여보게 리직강, 들으니까 수일전에 빙주가 그림자도 없이 어디로 나갔다지?》

(리)《그게 무슨 말이요. 집안에 꼭 들어앉았던 계집애가 나가기는 어디로 나갔단 말이요? 흥, 정녕 그러면 중간에 무슨 곡절이 있나보오. 빙주의 위인을 듣든지 보든지 결단코 음분도주를 하거나 기한을 못 이겨 얻어먹으러 나갔을리는 없고 평일에 비록 말은 아니해도 그 눈치는 일편단심이 그 부친 원쑤를 갚고 그 부친 신체를 찾아 선산에 안장할 궁리라더니 이번 길은 의심없이 그 두가지 목적으로 나간게지. 두고보오. 내 말이 뒤에지나.》

(그 사람)《흥, 나라는 꼭… 우리네 무세한 사람은 돈푼이 모이는 날은 그날이 집 망하고 몸 죽는 날인줄만 아오. 글쎄 생각해서보오. 김감역 같은 사람도 그렇게 죽었거든 하물며 그 지차되는 우리네야 더 할 말이 있겠소. 으응, 세상이 그리되고야 응.》

이와 같이 여러 사람의 얼굴에 불평기색이 가득하여 무슨 말이 연줄대서 나오려 하더니 그 동리 양지말 기와집속으로 좇아 울음소리가 나오는데

《에구에구 아버지, 에구에구 아버지, 에구에구 제가 어디를 갔다가 며칠만에 와도 저를 보시고 웨 아무 말씀이 없으셔요. 애고애고 아버지, 아버지.》

이 모양으로 목이 턱턱 막히고 오장이 푹푹 끓어나오는 울음소리는 구소에 사무쳐 천일이 수참하고 산천이 설어하는듯 가고오고 오고가는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우두커니 서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이 없더라.

여러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한참을 듣다가 일제히 하는 말이

《허 저것 좀 들어보아, 저게 빙주의 울음소리가 아닌가! 리직강, 저 로형 말씀과 같이 빙주가 홀연히 나갔다가 들어왔을적은 무슨 까닭이 있는듯 하니 자, 김감역 집으로 가서 그 동정을 좀 살펴봅시다.》

그 말을 꾹 그치고 우— 몰려 김감역 집 울밖에 모여서서 울타리틈으로 국국이 들여다보는데 대청 정중에다가 김감역의 령연을 새로 배설하고 피가 뚝뚝 듣는 사람의 머리 하나를 장반에 받쳐서 제상우에다 올려놓고 그앞에 빙주가 푹 엎드러져서 두손으로 마루바닥을 쾅쾅 치며 정신없이 한참을 울다가 사설이 겹쳐나온다.

《애고애고 아버지, 이것이 주주야야에 절치부심하고 벼르고벼르던 불공대천지수 정승지놈의 머리올시다. 에구에구 지원극통한지구, 년부령강하시고 근력이 창대같으시던 아버지께서 저놈의 독수를 만나셔서 비명에 돌아가실줄을 누가 알았을가.

아버지, 아버지 저는 어떻게 혼자 살라고 아버지 혼자만 돌아가셨습니까. 아버지 혼령이 계시거든 하루바삐 데려가십시오.

애고애고 혈혈무의한 규중처녀가 하루 살면 하루 욕이요 이틀 살면 이틀 욕이니 제발 덕분 데려가십시오. 어서어서 데려가십시오.》

하며 당장에 세상을 리별하려고 하더니 홀연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번연히 깨닫는 빛이 있어 울음끝을 뚝 그치고 혼자 말이라.

《에그 내가 내 설음에 너무 겨워서 미처 생각을 못하였군. 내가 죽고보면 우리 아버지 신체는 누가 찾아 감장을 하게. 오냐 좀 더 살아를 보자. 물결치는대로, 바람부는대로 욕은 보든지 말든지 우리 아버지 신체나 찾아 장사나 지내드리고 차차 할 일이지.》

이렇듯이 자문자답을 하는데 울밖에서 들이밀어보던 사람들이 그 거동을 목도하고 혀를 홰홰 내두르며 등골에 찬 땀이 쭉 내흘러 끽소리를 못하고 섰다가 서로 돌아보며 수군수군한다.

《허 저 노릇을 어찌하면 좋은가? 인제는 우리 동리가 아주 망하였네그려. 저것이 어린 계집애의 할짓이란 말인가? 여간 사람을 죽였드래도 대살은 톡톡히 당할터인데 더군다나 보은일경에 거갑가는 정승지 머리를 외꼭지 도리듯 도려왔으니 이런 말이 터지고 보면 우리들은 살인의 결인으로 무사할듯싶은가? 우리가 집을 떠

가지고 도망하잔 말도 못되고 제일 상책은 빙주를 잡아가지고 읍내로 들어가서 고발을 하였으면 우리 발뺌은 되겠지만 우리도 사람이지 김감역의 은혜를 생각든지 빙주의 정상을 목도하든지 차마 그리야 할수가 있나. 자, 두말말고 우리 입에서 말이 아니 나면 다시 알 사람이 없으니 차라리 우리가 이대 말을 입밖에 내지 말세.》

이 모양으로 서로 약속을 정하고 제가끔 흩어져가더라.

세상에 제일 무서운것이 무엇이냐 하면 야만시대의 참독한 압제라, 재산가로 유명하여 남 부러울것이 없이 살던 김감역의 집이 정승지 독한 수단에 경가파산이 되여 쌀 한톨, 돈 한푼 출처가 없어서 빙주 한몸일지라도 하루 두때 죽물도 끓여먹지를 못하는데 그 동리에서는 그전 지내던 정분을 생각하든지 어디를 보든지 차마 괄시는 못할 사세라 여러 집이 삥삥 돌려가며 며칠 걸러 한번씩 쌀되가 되나 벼말이 되나 꾸준히 구제를 하지마는 가난구원은 나라도 못한다고 어찌 이루 지당을 하리요. 빙주는 그런 구차한 사정을 모르고 자라던터에 이런 곤경을 당하여 망극한중에 더욱 망창해서 울며불며 굶으며 먹으며 그럭저럭 세월을 보내더니 하루는 난데없는 언문편지 한장이 들어오는데 결봉에《북실 김감역댁입납, 충청북도 보은읍내 류하는 지방대 박참위》라 하였는지라, 빙주가 그 편지를 손에 들고 이리 뒤적 저리 뒤적 보고 또 보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의심없는 자기가 접수할 편지인데 사고무친하여 자기와 서신왕래할 사람이 없는터에 졸지에 근지없는 편지가 들어오니 그 편지 사연에 무슨 비례지설이 적혔는지 의심이 나서 즉시 뜯어보지를 못하고 한참을 생각다가 혼자말로

《에그, 이 편지가 뉘게 온 편지인가. 평생에 듣도 보도 못하던 박참위가 내게 편지는 웨 하였누.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달라 지금 지방대 참위로 있다니까 자기 체모를 생각하더래도 남의 집 규수에게 비례지설은 했을리가 없지.》

주의를 이리 정하고 그 편지를 뜯어 종두지미로 한참을 내리보다가 별안간 깜짝 놀라더니 그 편지를 뚤뚤 말아 손에 쥐고 구슬같은 눈물이 도화 량협에 구을러내리며

(빙)《에그 감격해라, 박참위 그 량반이 벼슬몸으로 잠시 반때 여기를 왔다가 우리 아버지와 일면지분도 없는터에 이런 일을 통기해서 주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나. 이런 일이 날줄은 벌써 짐작한

일이지만 보은읍내서 관찰부 비훈을 드디여 당장에 나를 잡으러 나온다니 내가 잡히면 죽는것은 겁이 아니나 나나 그 몹쓸 놈들에게 욕인들 적게 당할라구. 에라, 죽기는 일반이니 그놈들에게 잡혀가서 더럽게 죽는것보다 차라리 집에 앉아 정히 죽겠다. 그도 안될 말이지. 김감역가문에 유무가 불관한 내 목숨 하나 끊기 어려운것이 아니라 박참위 말과 같이 내가 경솔히 죽고보면 땅바닥에 떼굴떼굴 구을러 단기시는 우리 아버지 백골을 누가 찾누? 어떻게 하든지 아무쪼록 생명을 보존하여 십전구도를 하며 여드레 팔십리를 가는 한정이 있더라도 서울로 올라가서 아버지 백골이나 찾아보겠다. 그러나 내가 그 모양으로 길에를 나섰다가는 서울도 가지를 못하고 단 십리를 못 가서 잡힐터이니 대관절 내 형용을 변해야 하지.》

이와 같이 작정을 하고 당장에 길 떠날 제구를 수습하는데 구름같은 머리를 허트러 산발을 하여 먼지와 북데기를 하얗게 뒤집어 쓰고 옥같은 얼굴에 솥밑검댕을 득득 긁어다가 초벌 성적을 한 뒤에 진흙개흙으로 연지곤지를 군데군데 꾹꾹 찍으며 천조각 만조각이나 붙여서 조각보모듯 누덕누덕 기운 치마에 때국이 뚝뚝 듣는 적삼을 입고서 인절미 고물 묻히듯 땅바닥에 가서 한번 떼굴떼굴 뒹굴으니 머리로 좇아 발등까지 새로이 취색을 하여 검고 누르고 붉고 푸른 그 모양은 흉악망측하여 세상에 뛰여나게 어여쁘던 색태는 어디로 가고 괴형기형한 귀것이 아니면 전전걸식하며 류리개걸해서 다니는 미친것이 되였더라.

…

상처—안해가 죽음.

속현—또다시 안해를 맞는것.

후취—안해가 죽은 다음 다시 안해를 맞는것.

양첩장가—《양첩》이란 첩을 데리고 산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첩처럼 여긴다는 뜻으로 쓰임.

가변—집안에서 당하는 봉변.

섬섬약질—가냘프고 약한 체질.

만첩시름—겹겹이 쌓인 시름.

강작하다—억지로 기운을 내다.

손복—자기의 복을 덜어 남에게 줌으로써 손해를 봄.

방색—막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함.
섬섬옥수—가냘프고 곱게 생긴 녀자의 손.
만뢰—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만가지 소리.
찰원쑤—극악한 원쑤.
적악—악한짓.
동학여당—《동학도들의 무리》라는 뜻.
동학이란 19세기 후반기에 조선에서 나온 종교로서 서양에서 나온 종교인 카톨릭교를 반대하였다. 봉건정부에서는 동학도들을 나라의 정사를 어지럽히는 무리들이라고 하면서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지원극통—지극히 억울하고 아주 원통함.
악기살기—사람을 죽일 악한 기운.
사갈—뱀과 전갈.(전갈은 독있는 벌레의 한가지)
삼혼칠백—사람의 몸에 있다는 혼백.
사고무인—사방에 사람이 하나도 없음.
동의하갈—겨울옷과 여름옷.
기직매다—왕골껍질이나 부들잎으로 짚을 짜서 자리를 엮다.
적수기가—가난한 집에서 태여난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살림을 크게 늘임.
활수하다—무엇이나 아끼지 않고 시원스럽게 쓰다.
관후하다—너그럽고 후하다.
원근친소—멀고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과 덜 친한 사람.
적자의 자모 바라듯—갓난애기가 사랑이 깊은 어머니를 바란다는 뜻.
갑오을미년동학—갑오는 1894년, 을미는 1895년을 말한다. 1894년에 전라도 고부지방농민들이 전봉준의 지휘밑에 봉건정부를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서 싸웠는데 이 투쟁은 1895년까지 계속되였다. 이 투쟁을 갑오을미년동학란이라고 한다.
사출하다—조사하여 찾아내다.
천재일시—좀처럼 만나기 힘든 좋은 기회.
접주—조직의 우두머리.
항쇄족쇄—(봉건사회에서) 죄인을 단단히 묶기 위하여 목에는 칼을 씌우고 발에는 족쇄를 채우는것.

동산, 부동산—동산은 기계, 설비를 비롯하여 움직일수 있는 재산을 말하고 부동산은 공장건물, 토지, 산림, 다리 등과 같이 움직일수 없는 재산을 말함.

요부하다—요사스럽다.

탕패무여—집재산이 다 거덜이 나서 남는것이 없음.

공전절후—대가 끊어짐.

삼오이팔—삼오(3·5)는 15, 이팔(2·8)은 16이라는 뜻으로서 매우 젊은 나이를 말함.

음분도주—녀자가 나쁜짓을 하고 도망침.

지차—다음순서나 차례.

주주야야—낮과 밤을 강조하는 말.

절치부심—이를 갈며 속을 썩임.

년부령강—나이가 젊고 건강함.

경가파산—재산을 다 없애고 집안이 망함.

언문편지—한문이 아니라 우리 글로 쓴 편지.

입납—옛날에 편지를 쓸 때 누구에게 보낸다는 뜻을 나타내던 말로서 지금의 《…앞》 하는 말과 같다.

참위—위급군관의 맨 아래벼슬.

비례지설—례절없는 이야기.

종두지미—머리로부터 꼬리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면지분—한번 만나본 정도로 아는것.

비훈—비밀명령.

십전구도—열번 엎드러지고 아홉번 넘어진다는 뜻으로서 온갖 실패와 고초를 말함.

귀것—귀신의 모양.

해방전 진보적문학

19세기 후반기부터 20세기초에 우리 나라 근대문학은 반봉건적이며 반침략적인 애국문학유산을 이어받으면서 새롭게 형성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인멸되였거나 파묻혀있는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찾아내야 하며 작가와 작품을 우리 나라 문학사와 예술사발전의 견지에서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해방전 진보적문학은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침략자들과 지주, 자본가놈들을 비롯한 착취계급의 침략적본질과 악랄한 착취상을 비판폭로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인민대중을 불러일으키는데서 일정한 역할을 놀았다.

해방전 진보적문학은 그 사상적내용과 창작수법상 특성으로 보아 크게 두가지로 갈라볼수 있다.

하나는 착취사회의 최하층에서 천대받고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면서 그들에게 불행을 들씌운 착취제도와 억압자들의 반동성을 폭로규탄한 진보적문학이다. 이 문학을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일제를 비롯한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인민들을 불러일으킨 진보적문학이다. 이 문학을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이라고 한다.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썩어빠진 봉건사회와 자본주의사회가 빚어낸 온갖 사회악을 날카롭게 폭로비판한 진보적인 문학사조로서 생활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그리는 사실주의창작방법을 토대로 하고있다.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가난한 사람들의 불행과 비극적처지를 뜨겁게 동정하고 그들에게 빈궁과 죽음을 강요한 착취자들과 착취사회의 부정면에 대하여 전면적인 비판을 가하였으나 비판자체에

그치고말았으며 사회악의 근원과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방도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못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1920년대에 들어와 활발하게 창작되였는데 대표적인 작가들로서는 라도향, 현진건, 채만식, 김소월 등을 들수 있다.

라도향의 소설을 비롯하여 현진건의 단편소설 《빈처》(1920), 《술 권하는 사회》(1921), 《운수좋은 날》(1924), 채만식의 장편소설 《탁류》(1937), 김소월의 시 《삭주구성》(1923), 《접동새》, 《초혼》(1929) 등은 비판적사실주의의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단편소설 《운수좋은 날》은 현진건의 창작경향을 엿볼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이다.

작품의 주인공인 막벌이로동자 김첨지는 서울거리에서 인력거를 끌며 하루하루를 고달프게 살아가는 가난한 최하층 로동자이다.

그는 앓아누운 안해와 어린 자식을 먹여살리기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림없이 거리를 달린다. 어느날 김첨지는 요행 운수가 좋아 여러 손님을 치른 값으로 생각지 못했던 돈을 벌게 된다. 기쁨에 설레는 가슴을 안고 안해에게 줄 설렁탕 한그릇을 사가지고 집으로 달려온 김첨지는 너무나 뜻밖의 광경에 부닥치게 된다.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며 신고하던 안해는 그사이 그만 숨을 거두었던 것이다. 어머니젖을 빨며 매달려 울던 세살짜리 아이는 힘에 지쳐서인지 울음소리도 내지 못한다. 김첨지는 슬피 통곡하며 안해를 소리쳐 불렀지만 안해는 대답이 없다.

소설에서는 가난한 인력거군인 김첨지의 불우한 운명의 한토막을 통하여 일제식민지통치사회는 가난한 근로인민들에게 불행과 재난밖에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생활의 진리를 밝혀주고있다. 이는 곧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극적운명을 강요하는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된다.

이와 같이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착취사회의 최하층에서 허덕이는 가난한 사람들의 비극적처지와 운명을 보여주면서 그들에 대한 깊은 동정을 표시하고있으며 착취사회와 착취계급을 날카롭게 비판하고있다.

1920년대부터 해방전까지 창작된 계몽기가요문학은 우리 인민의 정신적창조물의 하나로서 조선시가문학유산의 한 분야를 이룬다.

우리 나라에서 력사적시기로서의 계몽기는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까지의 기간에 경과하였지만 일제의 강점으로 말미암아 계몽기에 수행해야 할 력사적과업이 제대로 수행될수 없었다.

이러한 시대력사적인 환경속에서 진보적작가들은 일제통치시기에도 계몽적인 성격을 띠는 가요창작을 계속하게 되였다.

이 시기 계몽기가요는 동요, 예술가요, 신민요, 대중가요(류행가)로 발전하게 되였다.

동요는 1920년대초부터 윤복진, 홍란파를 비롯한 일련의 창작가들에 의하여 널리 창작되였는데《고향하늘》,《고향의 봄》,《그리운 강남》, 《반달》 등이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이와 같은 동요들에서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조선의 정신, 조선의 넋을 심어주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이러한 동요들은 당시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속에서도 널리 불리웠다.

예술가요는 1920년대초부터 창작보급되기 시작하였는데 《사우》(동무생각)나 《조선찬가》가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예술가요라는 말이 생기게 된것은 계몽기에 불러야 할 노래들을 보다 더 예술적으로 완성하여 서정적인 노래로 만든데서 생겨난 이름이다.

신민요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민요를 바탕으로 하여 창작되여 널리 보급된 가요를 말하는데 1920년대말부터 창작되였다.《노들강변》, 《조선팔경가》, 《개나리》 등은 신민요의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1920년대 중엽부터 통속성을 띠고 사람들속에 널리 보급된 대중가요(류행가)가 창작되기 시작하였다.《눈물젖은 두만강》, 《락화류수》, 《진주라 천리길》, 《황성옛터》, 《홍도야 울지 말아》 등은 해방전에 불리우던 대중가요의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이 시기 계몽기가요들은 대부분이 나라없는 설음, 수난당한 망국민의 고통을 노래하고있으며 또한 아름다운 조국강산을 사랑하고 자랑하려는 지향을 반영하고있다.

특히 이 시기 계몽기가요에서 중요한것은《감격시대》,《바다의 교향시》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소식을 듣고 기쁨에 겨워 노래한것들도 있고 《저 별을 보라》에서와 같이 위대한 령도자의 출현을 갈망한 작품들도 있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은 1920년대에 들어와 로동계급이 력사무대에 등장하고 그들의 선진사상이 새로운 시대사조로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던 시기와 때를 같이하여 나온 프로레타리아문학이였다.

따라서 무산대중의 계급적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사명을 지니고 출현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은 사상적기초에서나 경향성에서 비판적사실주의문학과는 뚜렷이 구별되였다.

1920년대 전반기문학은 아직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지 못한 미숙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당대의 다른 문학사조에 비해 새로운 경향을 띠고 나타났으므로 《신경향파》문학이라고 불렀다. 《신경향파》문학은 프로레타리아문학의 출발점을 장식한 계급문학으로서 비판적사실주의문학보다는 앞서고있었으나 1920년대 후반기이후 급속히 발전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에 있었다. 이런 점에서 《신경향파》문학은 비판적사실주의로부터 사회주의적사실주의로 넘어가는 과도적인 위치에 놓여있던 하나의 독자적인 문학사조였다.

《신경향파》문학은 일제식민지통치하의 무산자들의 비극적처지를 계급적으로 자각시키면서 당대 사회악의 근원을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간의 계급적대립관계로 보았으며 추상적이나마 계급투쟁의 방법으로 사회악의 근원을 없애야 한다는 사상을 내놓았다. 《신경향파》문학의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들로서는 최서해의 단편소설《탈출기》(1925)를 비롯하여 조명희의《농촌사람들》,《저기압》(1926), 리기영의《가난한 사람들》(1924), 《민촌》(1925), 리익상의《쫓겨가는이들》(1926), 송영의 《석공조합대표》(1925)와 같은 단편소설들과 리상화의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1926) 등을 들수 있다.

이 작품들에서는 일제식민지통치사회의 모순을 민족적 및 계급적대립관계속에서 묘사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극적운명을 강요하는 착취제도와 지주, 자본가계급의 착취적본질을 폭로규탄하고 있으며 계급투쟁의 방법으로 사회악의 근원을 해결할 방도를 일정하게 제기하고있다.

단편소설 《민촌》에서는 장리벼 두섬을 갚지 못한탓으로 지주놈에게 사랑하는 딸을 빼앗긴 김첨지일가의 원한에 찬 비극적인 처지를 보여주면서 인간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힌채 가난속에서 온갖

고통과 불행을 강요당하는것이 농민들의《게으름》때문이 아니라 일제와 지주, 자본가놈들의 착취때문이라는것을 생활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소설에서 창순은 점순이, 점동이, 순영이와 같은 가난한 농촌청년들을 깨우쳐주면서 이렇게 말한다.

《…이게 모두 몇놈의 악한 놈들이 돈을 모두 독차지해가지고 착하게 부지런히 일하는 많은 사람을 가난의 구렁으로 잡아 치는 까닭이다.》

리익상의《쫓겨가는이들》에서는 간악한 지주놈의 착취에 시달리다못해 정든 고향을 등지고 살길을 찾아 떠돌아다니면서 갖은 천대와 멸시를 당하던 빈농민 득춘의 형상을 통해 농민들의 반항정신을 보여주고있다.

그는 지난날 돈이 없고 권세없는탓으로 부자놈들에게 굴종하며 살아온 과거를 부끄럽게 돌이키면서 자기 안해를 주막집 노리개로 모욕하는 부자집 아들놈을 장작개비로 휘둘러 통쾌하게 복수한다.

이처럼《신경향파》문학은 리성적인 눈으로 당대의 사회악을 밝혀내고 비판하는데 그친 비판적사실주의문학과는 달리 계급적안목으로 당대의 모순을 해부하고 사회악의 근원과 그 해결방도에 대하여 밝히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추상적으로 미약하게 주어지고있었으며 많은 경우 사회적관계에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혁명투쟁의 혁명적영향하에 1920년대 후반기부터 1930년대에로 넘어가면서 로동자, 농민들의 대중적인 반일투쟁이 확대강화되는 가운데 이 시기 진보적인 문학도 급속히 발전하게 되였다.

《신경향파》문학의 제한성을 극복하면서 상대적인 발전을 이룩한《카프》문학(1920년대 후반기이후 프로레타리아문학)은 일제와 지주, 자본가놈들을 반대하는 로동자, 농민들의 조직적인 대중투쟁을 직접 반영하면서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였다.《카프》문학은 사회악의 근원과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방도를 혁명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나《신경향파》문학의 본질적약점을 극복한 토대우에서 새롭게 출발한 문학이라는 의미에서 또하나의 독자적인 문학사조를 이루었다.

《카프》문학에서는 시대의 선구자, 직업적인 사회운동자의 형상을 창조하면서 낡은 사회를 쳐부시고 새 사회를 세울데 대한 리상을 표현하였으며 로동자, 농민의 단합된 힘으로 일제와 착취계급을 반대하여 싸워야 한다는 사상을 구체적인 형상세계를 통하여 강조하였다.

조명희의 《락동강》(1927), 리기영의 《원보》(1928), 엄흥섭의《흘러간 마을》(1929), 리북명의《질소비료공장》(1931) 등 단편소설들과 박팔양의 시 《진달래》(1930), 박세영의 시 《산제비》(1936)를 비롯하여 장편소설들인 리기영의 《고향》(1933), 한설야의 《황혼》(1936), 강경애의 《인간문제》(1934) 등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들이다.

단편소설 《락동강》에서는 주인공 박성운의 형상을 통하여 민족해방운동이 새로운 앙양기에 들어서던 1920년대 후반기 력사적 환경을 펼쳐보여주면서 근로대중의 단합된 힘과 투쟁에 의하여 일제의 식민지통치는 끝장나고 이 땅우에 반드시 새날이 오고야만다는 필승의 사상을 표현하고있다.

장편소설 《고향》은 주인공 김희준의 지도밑에 농촌의 착취계급인 마름 안승학을 반대하는 원터마을농민들의 계급투쟁을 형상하고있으며 장편소설 《황혼》은 주인공 준식의 영향하에 공장주놈의 악착한 착취행위를 반대하는 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을 형상하고있다.

박팔양은 시《진달래》에서 시련을 헤치며 새날을 앞장에서 개척해나가는 시대의 선구자의 형상을 창조하였다.

시에서는 백일홍처럼 붉게 피지도 못하고 국화처럼 오래 피지도 못하는 꽃이지만 진달래는 찬바람 오고가는 산허리에 먼저 피여나 봄철을 알리는 꽃이여서 정말 꽃이라고 노래하고있다.

시 《산제비》는 1930년대 일제식민지통치하의 우리 인민의 비극적처지에 대한 깊은 체험에 기초하여 자유와 해방에 대한 불타는 열망을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그러나 이 시기 진보적문학은《신경향파》문학이 가지고있던 본질적약점을 극복하고 상대적인 발전을 이룩하긴 하였으나 확고한 로동계급적선에서 조선혁명수행을 위한 과학적방도와 전략전술적문제들을 혁명적으로 밝히지는 못하였다.

벙어리 삼룡이

《벙어리 삼룡이》는 우리 나라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적작가의 한 사람인 라도향이 1925년에 창작한 단편소설이다.

라도향(1902—1927)은 (그의 어릴 때 이름은 라경손이고 본명은 라빈이였다.) 서울의 한 고려의사의 가정에서 태여나 배재학당을 졸업하고 의학전문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는 학비를 대기 어려운데다가 문학에 대한 열망을 버릴수 없어 1년만에 뛰쳐나와 방랑생활을 하였다. 이 과정에 그는 가난하고 짓밟힌 사람들의 처지와 운명을 적지 않게 보고 체험하였다. 그는 도꾜에까지 건너갔다가 학비난으로 1921년에 돌아와 잡지사, 신문사에서 기자생활을 하면서 소설을 창작하였다.

부르죠아문학잡지 《백조》의 동인으로서 첫걸음을 뗀 그의 초기창작에서는 소시민적이며 감상적인 요소가 적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1923년에 들어서면서 사실주의적경향에로 창작적전환을 이룩하여 일제식민지통치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비판하는 립장이 뚜렷해졌다.

라도향은 4～5년의 짧은 창작기간에 3편의 장편소설과 20여편의 단편소설을 창작하였다. 대표작으로는 단편소설 《행랑자식》, 《벙어리 삼룡이》, 《물레방아》, 《지형근》 등을 들수 있다.

그의 창작은 우리 나라 비판적사실주의문학발전에 일정하게 이바지하였다.

1

내가 열살이 될락말락할 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십사오년전 일이다. 지금은 그곳을 청엽정이라 부르지마는 그때는 련화봉이라 이름하였다. 즉 남대문에서 바로 내다보면 오정포가 놓여있는 산등성이가 있으니 그 산등성이 이쪽이 련화봉이요 그새에 있는 동네가 역시 련화동이다.

지금은 그곳에 빈민굴이라고 할수밖에 없이 지저분한 촌락이 생기고 로동자들밖에 살지 않는 곳이 되여버리였으나 그때에는 자

기네딴은 행세한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집이라고는 십여호밖에 있지 않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과목밭을 하고 또는 남새를 심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콩나물을 길러서 생활을 하여갔었다.

여기에 그중 큰 과목밭을 갖고 그중 여유있는 생활을 하여가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잊어버렸으나 동네사람들이 부르기를 오생원이라고 불렀다.

얼굴이 동탕하고 목소리가 마치 여름에 버드나무에 앉아서 길게 목늘여 우는 매미의 소리같이 저르렁저르렁하였다. 그는 몹시 부지런한 중년늙은이로 아침이면 새벽 일찌기 일어나서 앞뒤로 뒤짐을 지고 돌아다니며 집안일을 보살피는데 그 동네에는 그가 마치 시계와 같아서 그가 일어나는 때가 동네사람이 일어나는 때였다. 만일 그가 아침에 돌아다니며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동네사람들이 이상하여 그의 집으로 가보면 그가 반드시 몸이 불편하여 누웠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때는 일년 삼백륙십일에 한번 있기가 어려운 일이요 이태나 삼년에 한번 있거나말거나 하였다.

그가 이곳으로 이사를 온지는 얼마 되지 아니하나 그가 언제든지 감투를 쓰고 다니므로 동네사람들은 량반이라고 불렀다. 또 그 사람도 동네사람들에게 그리 인심을 잃지 않으려고 섣달이면 북어쾌씩이나 동네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통사에 쓰는 연장도 넉넉히 장만한 후 아무 때나 동네사람들이 쓰게 하므로 그 동네에서는 가장 인심 후하고 존경을 받는 집인 동시에 세력있는 집이다. 그 집에는 삼룡이라는 벙어리하인 하나가 있으니 키가 본시 크지 못하여 땅딸보로 되였고 얼굴이 몹시 얽고 입이 몹시 크다. 머리는 새끄리같이 달린것을 주인의 명령으로 깎기는 깎았으나 불밤송이모양으로 언제든지 푸하고 일어섰다. 그래서 걸어다니는것을 보면 마치 옴두꺼비가 서서 다니는것 같이 숨차보이고 더디여보인다. 동네사람들이 부르기를 삼룡이라고 부르는 법이 없고 언제든지《벙어리》,《벙어리》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앵모》, 《앵모》 한다. 그렇지만 삼룡이는 그 소리를 알지 못한다.

그는 이 집 주인이 이리로 이사를 올 때에 데리고왔으니 진실하고 충성스러우며 부지런하고 세차다. 눈치로만 지내가는 벙어리지만 말하고 듣는 사람보다 슬기로운 점이 있고 평생 조심성이 있

어서 결코 실수할적이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을 쓸고 소여물과 돼지물을 먹이며 여름이면 밭의 풀을 뽑고 나무를 실어들이고 장작을 패며 겨울이면 눈을 쓸고 잔심부름이며 진일 마른일 할것없이 못하는 일이 없다. 그럴수록 이 집 주인은 벙어리를 위해주며 사랑한다. 혹시 몸이 불편한 기색이 있으면 쉬게 해주고 먹고싶어하는듯 한것은 먹이고 입을 때 입히고 잘 때 재운다.

그런데 이 집에는 삼대독자로 내려오는 그 집 아들이 있다. 나이는 열일곱살이나 아직 열네살도 되여보이지 않고 너무 귀엽게 기르기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버릇이 없고 어리광을 부리며 사람에게나 짐승에게 잔인포악한짓을 많이 한다.

동네사람들은 그를《후레자식!》,《애비 속상하게 할 자식!》,《저런 자식은 없는것만 못해!》 하고 욕들을 한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잘못할 때마다 그의 령감을 보고 《그 자식을 좀 때려주구료. 왜 그런것을 보고 가만두?》하고 자기가 대신 때려주려고 나서면 《안요. 아직 철이 없어 그렇지, 저도 지각이 나면 그렇지 않을것이 안요.》 하고 너그럽게 타이른다. 그러면 마누라는 왜가리처럼 소리지르며

《철이 없긴 지금 나이가 몇이요, 낼모레면 스무살이 되는데 또 며칠 아니면 장가를 들어서 자식까지 날것이 그래가지고 무엇을 한단 말이요.》 하고 들이대며

《자식은 꼭 아버지가 버려놓았습니다. 자식 귀여운것만 알았지 버릇 가르칠줄은 모르니까…》 하고 싸움이 시작만 되면 령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버린다.

그 아들은 더구나 이 벙어리를 사람으로 알지도 않는다. 말 못하는 벙어리라고 오고가며 주먹으로 옆구리를 찌르기도 하고 발길로 엉뎅이도 찬다. 그러면 그 벙어리는 어린것이 철없이 그러는것이 도리여 귀엽기도 하고 또는 그 힘없는 팔과 힘없는 다리로 자기 무쇠같은 몸을 건드리는것이 우습기도 하고 앙증하기도 하여 돌아서서 빙그레 웃으면서 툭툭 털고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해버린다.

어떤 때는 낮잠자는 벙어리입에다 똥을 먹이는 때도 있었다. 또 어떤 때는 벙어리 두팔, 두다리를 살며시 동여매고 손가락과 발가락사이에 화승불을 붙여놓아 질겁을 하고 일어나다가 발버둥을 치며 죽으려는 사람처럼 괴로와하는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러할 때마다 벙어리의 가슴은 비분한 마음이 꽉 들어찼다. 그러나 그는 주인의 아들을 원망하는것보다는 자기가 병신인것을 원망하였으며 주인의 아들을 저주한다는것보다 이 세상을 저주하였다.

그러나 그는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에게는 눈물이 없었다. 그의 눈물은 나오려 할 때 아주 말라붙어버린 샘물과 같이 나오려 하나 나오지를 아니하였다. 그는 주인의 집을 버릴줄 모르는 개모양으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밖에 없고 자기가 믿을 곳도 여기 있는 사람들밖에 없는줄 알았다.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는것이 자기 운명인줄밖에 알지 못하였다. 자기의 주인아들이 때리고 찌르고 꼬집어뜯고 모든 방법으로 학대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의례 있을줄밖에 알지 못하였다. 아픈것도 그 아픈것이 의례 자기에게 돌아올것이요 쓰린것도 자기가 받지 않아서 안될것으로 알았다. 그는 이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할것을 어떻게 해야 면할가 하는 생각을 한번도 하여본 일이 없었다.

그가 이 집에서 떠나가려 하거나 또는 그의 생활환경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은 한번도 해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언제든지 그 주인아들이 자기를 학대하고 또는 자기를 못살게 굴 때 그는 자기의 주먹과 또는 자기의 힘을 생각하여보았다.

주인아들이 자기를 때릴 때 그는 주인아들 하나쯤은 넉넉히 제지할 힘이 있는것을 알았다. 어떠한 때는 아픔과 쓰림이 자기의 몸으로 스며들 때면 그의 주먹은 떨리면서 어린 주인의 몸을 치려 하다가는 그것을 무서운 고통과 함께 꽉 참았다.

그는 속으로

《아니다. 그는 나의 주인의 아들이다. 그는 나의 어린 주인이다.》하고 꾹 참았다. 그리고는 그것을 얼른 잊어버렸다. 그러다가도 동네집아이들과 혹시 장난을 하다가 주인아들이 울고들어올 때에는 그는 황소같이 날뛰면서 주인을 위하여 싸웠다. 그래서 동네에서도 어린애들이나 장난군들이 벙어리를 무서워하여 감히 덤비지를 못하였다. 그리고 주인아들도 위급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벙어리를 찾았다. 벙어리는 얻어맞으면서도 기여드는 충견모양으로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싫어하지 않고 힘을 다하였다.

2

벙어리가 스물세살이 될 때까지 그는 물론 이성과 접촉할 기회가 없었다. 동네처녀들에게서 《벙어리》 하면서 괴상한 손짓과 몸짓으로 놀려먹음을 받을적에 분하고 골나는중에도 누긋한 즐거움을 느껴본 일이 있었으나 그가 결코 사랑으로써 어떠한 녀자를 대해본 일은 없었다.

그러나 정욕을 가진 사람인 이상 벙어리라도 그의 피가 차디찰리가 없었다. 혹 그의 피는 더욱 뜨거웠을는지도 알수 없었다.

뜨겁다뜨겁다 못하여 굳어버린 엿과 같을는지 알수 없었다. 만일 그에게 빛을 주었거나 다시 뜨거운 열을 준다면 그의 피는 다시 녹을는지 알수 없었다. 그가 깜박깜박하는 기름등잔아래서 밤이 깊도록 짚신을 삼을 때면 남모르는 한숨을 아니 쉬는것도 아니지마는 그는 그것을 곧 억제할수 있을만큼 정욕에 대하여 벌써부터 단념을 하고있었다.

마치 언제 폭발이 될는지 알지 못하는 휴화산모양으로 그의 가슴속에는 충분한 정열이 깊이 감추어져있었으나 그것이 아직 폭발될 시기가 이르지 못한것이였다. 비록 폭발이 되려고 무섭게 격동을 일으키는것을 벙어리자신도 느끼지 않는바 아니지만 자기가 여태까지 능동적으로 그것을 나타낼수가 없을만큼 외계의 압축을 받았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리지가 너무 그에게 자제력을 강대하게 하여주는 동시에 또한 너무 그것을 단념만 하게 하여주었다.

속으로《나는 벙어리다》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그는 몹시 원통함을 느끼는 동시에 자기는 말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자유와 똑같은 권리가 없는줄 알았다. 그는 이와 같이 언제든지 단념하지 않을수 없는 그 단념이 쌓이고쌓이여 지금에는 다만 한개의 기계와 같이 이 집에 노예가 되여있으면서도 그것이 자기의 친척으로 알고있을뿐이요 다시는 자기가 살아갈 세상이 없는것 같이밖에 알지 못하게 된것이다.

3

그해 가을이다. 주인의 아들이 장가를 들었다. 신부는 신랑보다 두살이 우인 열아홉살이다. 주인이 본시 자기가 언제든지 문벌

이 얕은것을 한탄하여 신부를 구할 때에 첫째 조건이 문벌이 높아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문벌있는 집에서는 그리 쉽게 딸을 내놀리가 없었다. 그러므로 하는수없이 그 어떠한 령락한 량반의 딸을 돈을 주고 사오다싶이 하였으니 무남독녀 외딸을 둔 남촌 어떤 과부를 꿀을 발라서 약혼을 하고 혹시나 무슨 딴소리가 있을가 하여 부랴부랴 성례를 시켜버렸다.

혼인할 때의 비용도 그때 돈으로 삼만냥을 썼다. 그리고 아들의 처가집에 며느리 뒤보아주는 바느질삯, 빨래삯이라는 명목으로 한달에 이천오백냥씩을 대여주었다.

신부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까지 상당히 견디기도 하고 또는 금지옥엽같이 기른터이라 구식가정에서 배울것, 익힐것들을 못해낼것이 없고 또는 본래 인물이라든지 행동거지에 조금도 구김이 있지 않았다.

신부가 오자 신랑의 험구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신부에게다 대면 두루미와 까마귀지.》

《아직도 철딱서니가 없어.》

《색시에게 쥐여지내겠어.》

《신랑에게 과하지.》

동네집 말 좋아하는 녀편네들이 모여앉으면 이렇게 비평들을 한다. 어떠한 남의 걱정 잘하는 마누라님은 간혹 신랑을 보고는 그대로 세워놓고

《글쎄 이제는 어른이 되였으니 셈이 좀 나요. 저러구야 어떻게 색시를 거느려가누.》 하고 들여대다싶이 하는 일이 있다.

이럴 때마다 신랑의 마음은 그 말하는이들이 미웠다. 일부러 자기를 부끄럽게 하려 하는것 같아서 그후에 그를 만나면 말도 안하고 인사도 하지 않는다. 또 그의 고모되는이가 와서 자기 조카를 보고

《이제는 어른이야. 너도 그만하면 지각이 날 때가 되지 않았니? 네 처가 부끄럽지 아니하냐?》하고 타이를 때마다 그의 마음은 그 말하는 사람이 부끄럽다는것보다도 자기를 이렇게 하게 한 자기 안해가 더욱 밉살스러웠다.

《녀편네가 다 무엇이냐? 저 빌어먹을 년이 들어오더니 나를 이렇게 못살게들 굴지.》

혼인한지 며칠이 못되여 그는 신부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집안에서는 야단이 났다. 어떻게든지 신랑을 신부방으로 집어넣으려 하나 막무가내였다.

그럴 때마다 신랑은 손에 닥치는대로 집어 때려서 자기 외사촌누이의 이마를 뚫어서 피까지 나게 한 일이 있었다. 집안식구들은 하는수없이 맨 나중으로 아버지에게 밀었다. 그러나 그것도 소용이 없을뿐더러 풍파를 더 일으키게 하였다. 아버지께 꾸지람을 듣고 들어와서는 다짜고짜로 신부의 머리채를 쥐여 마루 한복판에 태질을 쳤다. 그리고는

《이년! 네 집으로 가거라. 보기 싫다. 내 눈앞에는 보이지도 말아라.》 하였다.

밥상을 가져오면 그 밥상이 마당 한복판에서 재주를 넘고 옷을 가져오면 그 옷이 쓰레기통으로 나간다.

이리하여 색시는 시집오던 날부터 팔자한탄을 하고서 날마다 밤마다 우는 사람이 되였다.

울면 요란스럽다고 때린다. 또 말이 없으면 빙충맞다고 친다. 그 집에서는 평화스러운 날이 하루도 없었다.

이것을 날마다 보는 사람가운데 알수 없는 의혹을 품게 된 사람이 하나 있으니 그는 곧 벙어리 삼룡이였다.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유순하고 그렇게 얌전한, 벙어리의 눈으로 보아서는 감히 손도 대지 못할만큼 선녀같은 색시를 때리는것은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풀수 없는 의심이다.

보기에도 황홀하고 건드리기에도 황송할만큼 숭고한 녀자를 그렇게 학대한다는것은 너무나 세상에 있지 못할 일이다. 자기는 주인새서방님에게 개나 돼지같이 얻어맞는것이 마땅한 이상으로 마땅하지마는 선녀와 짐승의 차이가 있는 색시와 자기가 똑같이 얻어맞는다는것은 너무 무서운 일이다.

이런 주인이 천벌이나 받지 않을가 두렵기까지 하였다.

어떠한 달밤 사면은 고요적막하고 별들은 드문드문 눈들만 깜박이며 반달은 공중에 뚜렷이 달려있어 ○○으로 세상 깨끗하게 닦아낸듯이 청명한데 삼룡이는 검둥개 등을 쓰다듬으며 밤마당멍석우에 비슷이 드러누워 하늘을 쳐다보며 생각하여보았다.

주인색시를 생각하매 공중에 있는 달보다 더 곱고 별들보다도

더 깨끗하였다. 주인색시를 생각하면 달이 보이고 별이 보였다. 삼라만상을 씻어내는 은빛보다도 달이나 별의 광채보다도 그의 마음이 아름답고 부드러운듯 하였다.

마치 달이나 별이 땅에 떨어져 주인색시가 된것도 같고 주인색시가 하늘에 올라가면 달이 되고 별이 될것 같았다. 더구나 자기를 어린 주인이 때리고 꼬집을 때 감히 입 벌려 말은 하지 못하나 측은하고 불쌍히 여기는 정이 그의 두눈에 나타나는것을 다시 생각할 때 그는 부들부들 개등을 어루만지면서 감격에 느끼였다. 개는 꼬리를 치며 자기를 귀여워하는줄 알고 벙어리의 손을 핥았다.

삼룡이의 가슴은 주인새아씨를 동정하는 마음으로 가득찼다. 또는 그를 위하여서는 자기의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겠다는 의분이 넘쳤었다. 그것이 마치 살구를 보면 입속에 침이 도는것 같이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였다.

4

새댁이 온 뒤에 다른 사람들은 자위로 안출입을 금하였으나 벙어리는 마치 개가 마음대로 안에 출입할수 있는것 같이 아무 의심없이 출입할수가 있었다. 하루는 어린 주인이 먹지 않던 술에 잔뜩 취하여 무지한 놈에게 맞아서 길에 자빠진것을 업어다가 안으로 데려다 뉘운 일이 있었다. 그때에 아무도 안에 있지 않았고 다만 새아씨 혼자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있다가 이 꼴을 보고 벙어리의 충성된 마음이 고마와서 그후에 쓰던 비단헝겊자배기로 부시쌈지 하나를 하여준 일이 있었다.

이것이 새서방의 눈에 띄였다. 그래서 새아씨는 어떤 날 밤에 자던 몸으로 마당복판에 머리를 푼채 내동댕이쳐졌다. 그리고 온몸이 피가 맺히도록 얻어맞았다.

이것을 본 벙어리는 또다시 의분의 마음이 뻗쳐올랐다. 그래서 미친 사자와 같이 뛰여들어가 새서방님을 밀어던지고 새아씨를 둘러메였다. 그리고는 수리와 같이 바깥사랑 주인령감 있는 곳으로 뛰여가 그앞에 내려놓고 손짓과 몸짓을 열번 스무번 거퍼하며 하소연을 하였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는 주인새서방님에게 물푸레로 얼굴을 몹

시 얻어맞아서 한쪽 볼이 터져 피가 나고 주먹같이 부었다. 때릴 때에 새서방은

《이 흉칙한 벙어리 같으니 내 녀편네를 건드려!》 하고 부시쌈지를 빼앗아 갈가리 찢어 뒤간에 던졌다.

《그리고 이놈아! 인제는 주인도 몰라보고 망친다! 이런것은 죽여야 해!》하고 채찍으로 그의 뒤덜미를 갈겨서 그 자리에 쓰러지게 하였다. 벙어리는 다만 두손으로 빌뿐이였다. 말도 못하고 몇백번 코가 땅에 닿도록 그저 용서해달라고 빌기만 하였다. 그러나 그의 가슴에는 비로소 숨겨있던 정의감이 머리를 들기 시작하였다. 그는 그 아픈것을 참아가면서 북받치는 분노를 억제하였다.

그때부터 벙어리는 안방출입을 못하였다. 들어가지 못하는것은 더욱 벙어리로 하여금 궁금증이 나게 하였다. 그 궁금증이라는것이 묘하게 빛이 변하여 주인아씨를 뵈옵고싶은 감정으로 변하였다. 뵈옵지 못하므로 가슴이 타올랐다. 몹시 애상의 정서가 그의 가슴을 저리게 하였다. 한번이라도 아씨를 뵈올수가 있으면 하는 마음이 나더니 그의 마음의 엿은 늘기를 시작하였다. 쎈찌멘탈한 가운데서 느끼는 그 무슨 정서는 그에게 생명같은 희열을 주었다. 그것과 자기의 목숨이라도 바꿀수 있는것 같았다. 어떤 때는 그대로 머리로 담을 뚫고들어가고싶도록 주인아씨를 뵈옵고싶은것을 꾹 참을 때도 있었다.

그후부터는 밥을 잘 먹을수가 없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틈만 있으면 안으로만 들어가고싶었다.

주인이 전보다 많이 밥과 음식을 주고 더 편하게 하여주었으나 그것이 싫었다. 그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집가장자리로 돌아다녔다.

5

하루는 주인새서방이 술에 취하여 들어오더니 집안이 수선수선하여지며 계집하인이 약을 사러 갔다 들어오는것을 보고 벙어리는 그 계집하인을 붙잡았다. 그리고 무엇이냐고 물었다.

계집하인은 한 주먹을 뒤통수에 대고 얼굴을 젊다는 뜻으로 쓰다듬으며 둘째손가락을 내밀었다. 그것은 그 집 주인은 엄지손가락이요 둘째손가락은 새서방이라는 뜻이요 주먹을 뒤통수에 대는것은

녀편네라는 뜻이요 얼굴을 문지르는것은 예쁘다는 뜻으로 벙어리에게 쓰는 암호다. 그런 뒤에 다시 턱을 내밀고 눈을 뒤집어쓰는 형상을 하고 두팔을 짝 벌리고 뒤로 자빠지는 꼴을 보니 그것은 사람이 죽게 되였거나 앓을 때에 하는 말대신의 손짓이다.

벙어리는 눈을 크게 뜨고 계집하인에게로 한발자국 가까이 들어서며 놀라는듯이 멀거니 한참이나 있었다.

그의 가슴은 무섭게 격동하였다. 자기의 그리운 아씨가 죽었다는 말이나 아닌가. 그는 두주먹을 마주치며 한숨을 쉬였다. 그리고는 자기 방에 들어가 무엇을 생각하는것처럼 두어시간이나 두눈만 껌벅껌벅하고 앉았었다. 그는 밤이 깊어갈수록 궁금증이 나는 사람처럼 일어섰다앉았다하더니 두시나 되여 바깥으로 나가서 뒤로 돌아갔다.

그는 도적놈처럼 조심스럽게 바로 건넌방 뒤미닫이 앞담에 서서 주저주저하더니 담을 넘었다. 가까이 창앞에 가서서 문틈으로 안을 살피다가 그는 진저리를 치며 물러섰다.

그의 손과 발이 마치 그뒤에 서있는 감나무잎같이 떨리더니 그대로 문을 박차고 어두운 방에 뛰여들어갔을 때 그의 팔에는 주인아씨가 한손에 기다란 명주수건을 들고서 한팔로 벙어리의 가슴을 밀치며 뻗당기였다. 벙어리는 다만 눈이 둥그래서《에헤》소리만 지르고 그 수건을 빼앗으려고 애쓸뿐이다.

집안에 소동이 났다.

《집안이 망했군!》

《어디 사내가 없어서 벙어리를!》

《어떻든 알수 없는 일이야!》 하는 소리가 이구석저구석에서 수군거린다.

6

그 이튿날 아침에 벙어리는 온몸이 짓이기운듯 하게 되여 마당에 거꾸러져 입에서 피를 토하며 신음하고있었다. 그곁에서는 새서방이 쇠몽둥이를 들고서 문초를 한다.

《이놈!》하고는 음란한 흉내는 모조리 하여가며 건넌방을 가리킨다. 그러나 벙어리는 손을 내저을뿐이다. 또 몽둥이에는 살점

이 붙어나왔다. 그리고는 피를 흘렸다.

벙어리는 타들어가는 목으로 소리도 못하며 고개만 내젓는다. 그는 피를 토하고 거꾸러지며 이마를 땅에 비비며 고개를 내흔든다. 땅에는 피가 스며든다. 새서방은 채찍끝에 납뭉치를 달아서 가슴을 후려갈겼다가 힘껏 집어 뽑았다. 벙어리는 그대로 거꾸러지며 말이 없었다.

새서방은 그래도 시원하지 못하였다. 그는 어제 벙어리가 새로 갈아놓은 낫을 들고 달려왔다. 그는 시퍼렇게 드는 날을 번쩍 들었다. 그래서 벙어리를 찌르려 할 때 벙어리는 한팔로 그것을 받아 낫을 뿌리쳐 빼앗아 저리로 던지고 그대로 까무러쳤다.

주인은 집안이 망하였다고 사랑에 누워서 모든 일을 들은체만체 문을 닫고 나오지를 아니하며 집안에서는 색시를 쫓는다고 야단이다.

그날 저녁때 벙어리는 다시 끌려나왔다. 그때에는 주인새서방이 그에게 입던 옷과 신짝을 주며 눈을 부릅뜨고 손으로 멀리 가리키며

《가! 인제는 우리 집에 있지 못한다!》 하였다.

이 소리를 짐작한 벙어리는 기가 막혔다. 그에게는 다른 집이 없었다. 이 집외에는 살 곳이 없었다. 자기는 언제든지 이 집에서 살고 이 집에서 죽을밖에 없다는외에는 몰랐다. 그는 새서방님의 다리를 끼여안고 애걸하였다. 말도 못하는것을 몸짓과 표정으로 간곡한 뜻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새서방은 발길로 차며 사람을 불렀다.

《이놈을 내쫓아라!》

벙어리는 죽은 개모양으로 끌려나갔다. 벙어리가 머리를 개천구석에 들어박히면서 나가 곤드라졌다가 일어서서 다시 들어오려 할 때에는 벌써 문이 닫히였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그의 마음으로는 주인령감을 찾았으나 부를수가 없었다.

그가 날마다 열고 날마다 닫던 문이 자기가 지금은 열려 하나 자기를 내쫓고 열리지를 않는다. 자기가 건사하고 자기가 거두던 모든것이 오늘에는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일한 값이 오늘의 이것이다.

그는 비로소 믿고 바라던 모든것이 자기의 원쑤가 된것을 알았

다. 그는 모든것을 없애버리고 자기도 또한 없어지는것이 나은것을 알았다.

7

그날 저녁 밤은 깊었는데 멀리서 닭이 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만이 들렸다.

난데없는 화염이 벙어리 있던 오생원집을 에워쌌다. 그 불은 미리 놓으려고 준비하여놓았는지 집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모조리 돌아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집의 륜곽이 선명하게 보일듯이 불이 타오른다.

불은 마치 피묻은 살을 맛있게 잘라 먹는 요마의 혀바닥처럼 날름날름 집 한채를 삽시간에 먹어버렸다.

이와 같은 화염속으로 뛰여들어가는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낮에 이 집을 쫓겨난 삼룡이다.

그는 먼저 사랑에 가서 문을 깨뜨리고 주인을 업어다가 발가운데 놓고 다시 들어가려 할 때 그의 얼굴과 등과 다리가 불에 데여 아픈것도 알지 못하였다.

그는 건넌방으로 뛰여들었다. 그러나 아씨는 없었다. 다시 안방으로 뛰여들었다. 그러나 또 없고 새서방이 그의 팔에 매달리며 구원해주기를 애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뿌리쳤다. 다시 서까래가 불이 시뻘겋게 그의 머리에 떨어졌다. 그의 머리는 홀랑 벗어졌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몰랐다. 부엌으로 가보았다. 거기서 나오다가 문설주가 떨어지며 왼팔이 부러졌다. 그러나 그것도 몰랐다. 그는 다시 광으로 가보았다. 거기도 없었다. 그는 다시 건넌방으로 들어갔다. 그때야 그는 새아씨가 불에 타죽으려고 이불을 쓰고 누워있는것을 보았다. 그는 새아씨를 안았다. 그리고는 길을 찾았다. 그러나 나갈 곳이 없었다. 그는 하는수없이 지붕으로 올라갔다. 그는 비로소 자기 몸이 자유롭지 못한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여태까지 맛보지 못한 즐거움, 쾌감을 자기의 가슴에 느끼는것을 알았다.

새아씨를 자기 가슴에 안았을 때 그는 이제 처음으로 살아난듯하였다. 그는 자기 목숨이 다한줄 알았을 때 그 새아씨를 자기 가

슴에 힘껏 끼여안았다. 다시 그를 안고 불가운데를 헤치고 바깥으로 나와 새아씨를 내려놓았을 때에는 그는 벌써 목숨이 끊어진 뒤였다.

집은 모조리 타고 벙어리는 새아씨무릎에 누워있었다.

그의 울분은 그 불과 함께 사라졌는지!

평화롭고 행복스러운 웃음이 그의 입가장자리에 열게 나타났을 뿐이다.

북어쾌—《북어》는 《마른 명태》, 《쾌》는 《스무마리》를 나타내는 말.

앙증하다—작으면서도 귀엽고 깜찍스럽다.

휴화산—쉬고있는 화산 즉 한때 내뿜던 일이 있었으나 지금은 내뿜지 않는 화산.

금지옥엽—《금같은 가지와 구슬같은 잎》이라는 뜻으로서 《귀여운 자손》을 이르는 말.

험구—험한 말, 뒤에서 시비질하는 말.

쎈찌멘탈한—감상적인.

요마—요사스러운 마귀.

초 혼

《초혼》은 우리 나라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적작가의 한 사람인 김소월이 1929년에 창작한 서정시이다.

김소월(1903—1935)은 평안북도 곽산군 남산동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본래이름은 김정식이였다.

그는 봉건적인 농가에서 태여나 한문학자였던 할아버지한테서 한문을 배운 다음 정주 오산학교 중학부를 거쳐 서울배재학당을 졸업하고 고향에 내려와 소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일하였다.

김소월은 1923년에 일본에 건너가 도꾜상과대학에 입학하였으나 관동대지진으로 도중에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와 농사를 짓는 한편 시창작에 열중하였다.

그는 1925년부터 《동아일보》지국을 경영하면서 시창작을 계

속하였다.

그의 대표작으로는《진달래꽃》,《접동새》,《삭주구성》,《금잔디》,《산유화》,《초혼》등이 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중에 헤여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였다
사슴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앉은 산우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설음에 겹도록 부르노라
설음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여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명언〕

탈 출 기

《탈출기》는 우리 나라 《신경향파》문학의 대표적작가의 한 사람인 최서해가 1925년에 창작한 단편소설이다.

최서해(1901—1932)는 1901년 1월 함경북도 성진(지금의 김책시)에서 가난한 고려의사의 가정에서 태여났다. 그의 본래이름은 최학송이였다.

최서해는 태여나서 한해도 못되여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의 슬하에서 온갖 고생을 다 겪으며 어려서부터 농사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는 집이 가난하여 서당에서 한문을 좀 배우고 학교교육이라고는 보통학교 3학년까지 겨우 다니다가 중퇴한것밖에 없다. 그는 독학으로 문학수업을 시작하였다.

1917년에 가족들과 함께 만저우(만주)의 지엔다오(간도)로 들어가서 온돌쟁이, 도배쟁이, 두부장사 등 인생의 최하층에서 별의별 고생을 다 겪었다. 이러한 생활체험이 바로 그의 대표작인 《탈출기》에 반영되였다.

그는 1923년에 조국으로 돌아온 후 서울에서 《조선지광》을 비롯한 여러 잡지와 신문의 기자생활을 하면서 프로레타리아문학운동에 적극 참가하였다. 1925년 8월에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카프)창립사업에 참가하였으며 작품창작과 평론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는 약 10년간의 창작기간에 대표작들인《탈출기》, 《담요》, 《13원》, 《박돌의 죽음》, 《기아와 살륙》, 《홍염》 등을 비롯하여 수십편의 단편소설과 수필, 평론들을 창작하였다.

비록 후기에 들어와서 전반기에 비하여 사상적경향에서 뒤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의 창작은 우리 나라 《신경향파》문학발전에 이바지하였다.

1

김군！ 수삼차 편지는 반갑게 받았다. 그러나 나는 한번도 회답지 못하였다. 물론 군의 충정에는 나도 감사를 드리지만 그 충정을 나는 받을수 없다.

박군！ 나는 군의 탈가를 찬성할수 없다. 음험한 이역에 늙은 어머니와 어린 처자를 버리고 나선 군의 행동을 나는 찬성할수 없다.

박군！ 돌아가라.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 군의 부모와 처자가 이역 로두에서 방황하는것을 나는 눈앞에 보는듯싶다. 그네들의 의지할 곳은 오직 군의 품밖에 없다. 군은 그네들을 구하여야 할것이다.

군은 군의 가정에서 동량이다. 동량이 없는 집이 어디 있으랴?

조그마한 고통으로 집을 버리고 나선다는것이 의지가 굳다는 박군으로서는 너무도 박약한 소위이다.

군은 ××단에 몸을 던져 ×선에 섰다는 말을 일전 황군에게서 듣기는 하였으나 그렇다 하여도 나는 그것을 시인할수 없다. 가족을 못살리는 힘으로 어찌 사회를 건지랴.

박군！ 나는 군이 돌아가기를 충정으로 바란다. 군의 가족이 사람들 발아래서 짓밟히는것을 생각할 때 군의 가슴인들 어찌 편하랴.

김군！ 군은 이러한 말을 편지마다 썼었지. 나는 군의 뜻을 잘 알았다. 내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하여 동정하여주는 군에게 내 어찌 감사치 않으랴. 정다운 벗의 충고에 나는 늘 울었다. 그러나 그 충고를 들을수 없다. 듣지 않는것이 군에게 고통이 될는지 분노가 될는지 나에게 있어서는 행복일는지도 알수 없는 까닭이다.

김군, 나도 사람이다. 정애가 있는 사람이다. 나의 목숨같은 내 가족이 유린받는것을 내 어찌 생각지 않으랴? 나의 고통을 제3자로서는 만분의 일이라도 느낄수 없을것이다.

나는 이제 나의 탈가한 리유를 군에게 말코저 한다. 여기 대하여 동정과 비난은 군의 자유이다. 나는 다만 이러하다는것을 군에게 알릴뿐이다. 나는 이것을 군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라도 알리지 않고는 견딜수 없는 충동을 받는 까닭이다.

그러나 나는 단언한다. 군도 사람이어니 나의 말하는것을 부인치는 못하리라.

2

김군! 내가 고향을 떠난것은 5년전이다. 이것은 군도 아는 사실이다. 나는 그때에 어머니와 안해를 데리고 떠났다. 내가 고향을 떠나 지엔다오로 간것은 너무도 절박한 생활에 시들은 몸이 새 힘을 얻을가 하여 새 희망을 품고 새 세계를 동경하여 떠난것도 군이 아는 사실이다.

—지엔다오는 천부금탕이다. 기름진 땅이 흔하여 어디를 가든지 농사를 지을수 있고 농사를 잘 지으면 쌀도 흔할것이다. 산림이 많으니 나무걱정도 될것이 없다.

농사를 지어서 배불리 먹고 뜨뜻이 지내자. 그리고 깨끗한 초가나 지어놓고 글도 읽고 무지한 농민들을 가르쳐서 리상촌을 건설하리라. 이렇게 하면 지엔다오의 황무지를 개척할수도 있다. …

이것이 지엔다오 갈 때의 내 머리속에 그리였던 리상이였다. 이때에 나는 얼마나 기뻤으랴. 두만강을 건너고 오랑캐령을 넘어서 망망한 평야와 산천을 바라볼 때 청춘의 내 가슴은 리상의 불길에 탔다. 구수한 내 소리와 헌헌한 내 동정에 어머니와 안해도 기뻐하였다.

오랑캐령을 올라서니 서북으로 쏠려오는 봄새 찬 바람이 어떻게 뺨을 갈기는지

《에그 칩구나! 여기는 아직도 겨울이로구나.》

어머니는 수레우에서 이불을 뒤집어썼다.

《무얼요. 이 바람을 많이 마셔야 성공이 올것입니다.》

나는 가장 씩씩하게 말하였다. 이처럼 나는 기쁘고 활기로왔다.

3

김군! 그러나 나의 《리상》은 물거품에 돌아갔다. 지엔다오에 들어서서 한달이 못되여서부터 거칠은 물결은 우리 세 생령의 앞에 기탄없이 몰려왔다.

나는 농사를 지으려고 밭을 구하였다. 빈땅은 없었다. 돈을 주고 사기 전에는 1평의 땅이나마 손에 넣을수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인의 밭을 도조나 타조로 얻어야 한다. 1년내 중국사람에게서 량식을 꾸어먹고 도조나 타조를 지으면 가을추수는 빚으로 다 들어가고 또 처음꼴이 된다. 그러나 농사라고 못 지어본 내가 도조

나 타조를 얻는대야 일년량식 빚도 못될것이고 또 나같은 《시로도》에게는 밭을 주지 않았다.

생소한 산천이요 생소한 사람이니 어디 가 어찌면 좋을는지? 의논할 사람도 없었다. H라는 촌거리에 세방을 얻어가지고 어름어름하는 새에 보름이 지나고 한달이 넘었다. 그새에 몇푼 남았던 돈은 다 불어먹고 밭은 고사하고 일자리도 못 얻었다.

나는 팔을 걷고 나섰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구들도 고쳐주고 가마도 붙여주었다. 이리하여 호구하게 되였다. 이때 시장에서는 나를 《온돌쟁이》, 《구들 고치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갈아입을 의복이 없는 나는 늘 숯검댕이 꺼멓게 묻은 의복을 벗을 새가 없었다.

H장은 좁은 곳이다. 구들 고치는 일도 늘 있지 않았다. 그것으로 밥먹기는 어려웠다. 나는 여름불볕에 삯김도 매고 꼴도 베여 팔았다. 그리고 어머니와 안해는 삯방아 찧고 강가에 나가서 부스러진 나무개비를 주어서 겨우 연명하였다.

김군! 나는 이때부터 비로소 무서운 인간고를 느꼈다. 아아 인생이란 과연 이렇게도 괴로운것인가 하는것을 나는 생각하게 되였다. 나는 나에게 닥치는 풍파때문에 눈물 흘린 일은 이때까지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나무를 줏고 젊은 안해가 삯방아를 찧을 때 나의 피는 끓었으며 나의 눈은 눈물에 흐려졌다.

《에구 차라리 내가 드러누워 앓고있지 네 괴로와하는 꼴은 차마 못 보겠다.》

이것은 언제 내가 병들어 신음할 때에 어머니가 울면서 하신 말씀이다. 이것을 무심히 들었던 나는 이때에야 이 말의 참뜻을 느꼈다.

《아아 차라리 나의 고기가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는것은 참을 수 있으나 내 눈앞에서 사랑하는 늙은 어머니나 안해가 배를 주리고 남의 멸시를 받는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구나.》 나는 이렇게 여러번 가슴을 쳤다. 나는 낮이나 밤이나 비오나 바람이 치나 헤아리지 않고 삯김, 삯심부름, 삯나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았다.

《오늘도 배 고프겠구나. 아침도 변변히 못 먹고 나는 너 배 줄잖는것을 보았으면 죽어도 눈을 감겠다.》

내가 삯일을 하다가 늦게 돌아오면 어머니는 우실듯 하게 말씀

하셨다. 그러나 나는 흔연하게

《배가 무슨 배가 고파요.》 하고 대답하였다.

내 안해는 늘 별말이 없었다.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대로 소곳하고 아무 소리없이 순종하였다. 나는 그것이 더욱 불쌍하게 생각되였다. 나는 어머니보다도 안해 보기가 퍽 부끄러웠다.

《경제의 자립도 못하는 내가 왜 장가를 들었누?》

이것이 부모의 한 일이언만 나는 이렇게 탄식하였다. 그럴수록 안해에게 대하여 황공하였고 존경하였다.

어떻게 하면 살수 있을가?… 이러한 생각은 이때 내 머리를 몹시 때렸다. 이때 나에게는 부지런한자에게 복이 온다 하는 말이 거짓말로 생각되였다. 그 말을 지상의 격언으로 굳게 믿어온 나는 그 말에 도리여 일종의 의심을 품게 되였고 나중은 부인까지 하게 되였다.

부지런하다면 이때 우리처럼 부지런함이 어디 있으며 정직하다면 이때 우리 식구같이 정직함이 어디 있으랴? 그러나 빈곤은 날로 심하였다. 이틀, 사흘 굶은적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한번은 이틀이나 굶고 일자리를 찾다가 집으로 들어가니 안해가(안해는 이때에 아이를 배여서 배가 남산만 하였다.) 무엇을 먹다가 깜짝 놀란다. 그리고 손에 쥐였던것을 얼른 아궁지에 집어넣는다. 이때 불쾌한 감정이 내 가슴에 떠올랐다.

(무얼 먹을가? 어디서 무엇을 얻었을가? 무엇이길래 어머니와 나 몰래 먹누? 아! 녀편네란 그런것이로구나! 아니 그러나 설마… 그래도 무엇을 먹던데…)

나는 이렇게 안해를 의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밉게도 생각하였다. 안해는 아무 말없이 어색하게 머리를 숙이고 앉아서 씩씩하다가 밖으로 나갔다. 그 얼굴은 좀 붉었다.

안해가 나간 뒤에 나는 안해가 먹다가 던진것을 찾으려고 아궁지를 뒤지였다. 싸늘하게 식은 재를 막대기로 뒤져내니 벌건것이 눈에 띄였다. 나는 그것을 집었다. 그것은 귤껍질이다. 거기는 베먹은 이자국이 났다. 귤껍질을 쥔 나의 손은 떨리고 이자국을 보는 내 눈에는 눈물이 괴였다.

김군! 이때 나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면 적당할가?

—오죽 먹고싶었으면 오죽 배가 고팠으면 길바닥에 내던진 귤

껍질을 주어먹을가. 더욱 몸 비잖은 그가, 아아,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한 안해를 나는 의심하였구나! 이 몸이 어찌하여 그러한 안해에게 불평을 품었던가. 나같은 간악한 놈이 어디 있으랴. 내가 량심이 부끄러워서 무슨 면목으로 안해를 볼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느껴가며 눈물을 흘렸다. 귤껍질을 쥔채로 이를 악물고 울었다.

《야 어째 우느냐? 일어나거라. 우리도 살 때 있겠지 늘 이렇겠느냐.》 하면서 누가 어깨를 친다. 나는 그것이 어머니인것을 알았다. 나는

《아이구 어머니 나는 불효외다.》 하면서 어머니의 발을 안고 자꾸자꾸 울고싶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 소리없이 가슴을 부둥켜안고 밖으로 나왔다.

《내가 왜 우누? 울기만 하면 무엇하나? 살자! 어떻게든지 살아보자! 내 어머니와 내 안해도 살아야 하겠다. 이 목숨이 있는 때까지는 벌어보자.》

나는 이를 갈고 주먹을 쥐였다. 그러나 눈물은 여전히 흘렀다. 안해는 말없이 울고 섰는 내곁에 와서 손으로 치마끈을 만지작거리며 눈물을 떨어뜨린다. 농사집에서 자라난 안해는 지금도 어찌 수집은지 내가 울면 같이 울기는 하여도 어떻게 말로 위로할줄은 모른다.

4

김군! 세월은 우리를 위하여 여름을 항상 주지 않았다.

서풍이 불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찬 기운은 헐벗은 우리를 위협하였다.

가을부터 나는 대구장사를 하였다. 3원을 주고 대구 열마리를 사서 등에 지고 산골로 다니면서 콩과 바꾸었다. 그러나 대구 열마리를 주고 받은 콩 열말은 질수 없었다. 나는 하는수없이 30～40리나 되는 곳에서 두말씩 사흘동안이나 지여왔다. 우리는 열말되는 콩을 자본삼아 두부장사를 시작하였다.

안해와 나는 진종일 매돌질을 하였다. 무거운 매돌을 돌리고나면 팔이 뚝 떨어지는듯 하였다. 내가 이렇게 괴로울적에 해산한지

며칠 안되는 안해의 괴롬이야 어떠하였으랴? 그는 늘 낯이 부석부석하였다. 그래도 나는 무슨 불평이 있는 때면 안해를 욕하였다. 그러나 욕한 뒤에는 곧 후회하였다. 코구멍만 한 부엌방에 가마를 걸고 매돌을 놓고 나무를 들이고 의복가지를 걸고 하면 사람은 겨우 비비고 들앉게 된다. 뜬 김에 문창은 떨어지고 벽은 눅눅하다. 모든것이 후질근하여 의복을 입은채 미지근한 물속에 들어앉은듯하였다. 어떤 때는 애써 갈아놓은 비지가 이 뜬 김속에서 쉬여버린다. 두부물이 가마에서 끓어번질 때에 우유빛같은 두부물우에 빠다빛같은 노란 기름이 엉키면(그것은 두부가 잘될 징조다.) 우리는 안심한다. 그러나 두부물이 희멀끔해지고 기름기가 돌지 않으면 거기만 시선을 쓰고있는 안해의 낯빛부터 글러가기 시작한다. 초를 쳐보아서 두부발이 서지 않고 메케지근하게 풀려질 때에는 우리의 가슴은 덜컥한다.

《또 쉰게로구나? 저를 어찌누?》

젖을 달라고 빽빽 우는 어린 아이를 안고 서서 두부물만 들여다보시는 어머니는 목메인 말씀을 하시면서 우신다. 이렇게 되면 온 집안은 신산하여 말할수 없는 음울, 비통, 처참, 초조한 분위기에 싸인다.

《너 고생한게 애닯구나! 팔이 부러지게 갈아서… 그거(두부)를 팔아서 장을 보려고 태산같이 바랬더니…》

어머니는 그저 가슴을 뜯으면서 운다.

안해도 울듯울듯이 머리를 숙인다. 그 두부를 판대야 큰 돈은 못된다. 기껏 남는대야 20전이나 30전이다. 그것으로 우리는 호구를 한다. 20전이나 30전에 어머니는 운다. 안해도 기운이 준다. 나까지 가슴이 바짝바짝 죄인다. 그날은 하는수없이 쉰 두부물로 때를 에우고 지낸다. 아이는 젖을 달라고 밤새껏 빽빽거린다. 우리의 살림에 어린것도 귀치는 않았다.

5

울면서 겨자먹기로 괴로운대로 또 두부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땔나무가 없다. 나는 낫을 들고 떠난다. 내가 낫을 들고 떠나면 산후여독으로 신음하는 안해도 낫을 들고 말없이 나를

따라 나선다. 어머니와 나는 굳이 만류하나 안해는 듣지 않는다.

내 손으로 하는 나무언만 마음놓고는 못한다. 산임자에게 들키면 여간한 경을 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황혼이면 산에 가서 도적나무를 하여 지고 밤이 깊어서 돌아온다. 안해는 이고 나는 지고 캄캄한 밤에 산비탈로 내려오다가 발이 미끄러지거나 돌에 채이면 나는 곤두박질을 하여 나무짐속에 든다. 안해는 소리없이 이였던 나무를 내려놓고 나무짐에 눌려서 버둑거리는 나를 겨우 끄집어 일으킨다. 그러나 내가 나무짐을 지고 일어나면 안해는 혼자 나무단을 이지 못한다. 또 내가 나무짐을 벗고 안해에게 이워주면 나는 추워주는이 없이는 나의 짐을 질수 없다. 하는수없이 나는 어떤 높은 바위우에 벗어놓고 안해에게 이워준다. 이리하여 산비탈을 내려오면 언제 왔는지 어머니는 애를 업고 우들우들 떨면서 산아래서 기다리시다가도 《인제 오니? 나는 너 또 붙들리지나 않는가 하여 혼이 났다.》 하신다.

이때마다 내 가슴은 저렸다. 나는 이렇게 나무도적질을 하다가 중국경찰서까지 잡혀가서 여러번 맞았다.

이때 이웃에서는 우리를 조소하고 경찰서에서는 우리를 의심하였다.

—흥 신수가 멀쩡한 년놈들이 그 꼴이야. 어디 가 일자리도 구하지 않고 그 눈이 누래서 두부장사하는 꼬락서니는 참 더러워서 못 보겠네.…

이것은 이웃 남녀가 비웃는 소리였다. 그리고 어떤 산임자가 나무 잃은 고발을 하면 경찰서에서는 불문곡직하고 우리 집부터 수색하고 질문하면서 나를 때린다. 그러나 나는 호소할 곳이 없었다.

6

김군! 이러구러 겨울은 점점 깊어가고 기한은 점점 박도하였다. 일자리는 없고… 그렇다고 손을 털고 앉았을수는 없었다. 모든 식구가 퍼래서 굶고 앉은 꼴을 나는 그저 볼수 없었다. 시퍼런 칼이라도 들고 하루라도 괴로운 생을 모면하도록 쿡쿡 찔러 없애고 나까지 없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칼을 들고 나서서 강도질이라도 하여서 기한을 면하든지 하는수밖에는 더 도리가 없게 절박하였다.

나는 일이 없으면 없으니만큼, 고통이 닥치느니만큼 내 번민은 컸다. 나는 어떤 날은 거의 얼빠진 사람처럼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긴 일도 있었다. 이때 내 머리속에서는 머리를 움실움실 드는 사상이 있었다. (오늘날에 생각하면 그것은 나의 전 운명을 결정할 사상이였다.) 그 생각은 누구의 가르침에 일어난것도 아니어니와 일부러 일으키려고 애써서 일어난것도 아니다. 봄풀싹같이 내 머리속에서 점점 머리를 들었다.

—나는 여태까지 세상에 대하여 충실하였다. 어디까지든지 충실하려고 하였다. 내 어머니, 내 안해까지도… 뼈가 부서지고 고기가 찢기더라도 충실한 로력으로 살려고 하였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속였다. 우리의 충실을 받지 않았다. 도리여 충실한 우리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학대하였다. 우리는 여태까지 속아 살았다. 포학하고 허위스럽고 요사한 무리를 용납하고 옹호하는 세상인것을 참으로 몰랐다. 우리뿐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의식치 못하였을것이다. 그네들은 그러한 세상의 분위기에 취하였었다. 나도 이때까지 취하였었다. 우리는 우리로서 살아온것이 아니라 어떤 험악한 제도의 희생자로서 살아왔었다.

김군! 나는 사람들을 원망치 않는다. 그러나 마주에 취하여 자기의 피를 짜바치면서도 깨지 못하는 사람을 그저 볼수 없다. 허위와 요사와 표독과 게으른자를 옹호하고 용납하는 이 제도는 더욱 그저 둘수 없다.

—이 분위기속에서는 아무리 로력하여도 우리는 우리의 생의 만족을 느낄 날이 없을것이다. 어찌하여 겨우 연명을 한다 하더라도 죽지 못하는 삶이 될것이요, 그 영향은 자식에게까지 미칠것이다. 나는 어미품속에서 빽빽하는 어린것의 장래를 생각할 때면 애잡짤한 감정과 분한을 금할수 없다. 내가 늘 이 상태면 (그것은 거의 정한 리치다.) 그에게는 상당한 교양은 고사하고 다리밑이나 남의 집 문간에 버리게 될터이니 아! 삶을 받을만 한 생령을 죄없이 찌그러지게 하는것이 어찌 애달프지 않으며 분하지 않으랴? 그렇다 하면 그것을 나의 죄라 할가?

김군! 나는 더 참을수 없었다. 나는 나부터 살리려고 한다. 이때까지는 최면술에 걸린 송장이였다. 제가 죽은 송장으로 남(식구)들을 어찌 살리랴. 그리려면 나는 나에게 최면술을 걸려는 무리

를, 험악한 이 공기의 원류를 쳐부시려고 하는것이다.

나는 이것을 인간의 생의 충동이며 확충이라고 본다. 나는 여기서 무상의 법열을 느끼려고 한다. 아니 벌써부터 느껴진다. 이 사상이 나로 하여금 집을 탈출케 하였으며 ××단에 가입케 하였으며 비바람 밤낮을 헤아리지 않고 벼랑끝보다 더 험한 ×선에 서게 한것이다.

김군! 거듭 말한다. 나도 사람이다. 량심을 가진 사람이다. 애정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떠나는 날부터 식구들은 더욱 곤경에 들줄도 나는 알았다. 자칫하면 눈속이나 어느 구렁에서 죽는줄도 모르게 굶어죽을줄도 나는 잘 안다. 그러므로 나는 이곳에서도 남의 집 행랑어멈이나 아범이며 로두에 방황하는 거지를 무심히 보지 않는다. 아! 나의 식구도 그럴것을 생각할 때면 자연히 흐르는 눈물과 뿌직뿌직 찢기는 가슴을 덮쳐 잡는다. 그러나 나는 이를 갈고 주먹을 쥔다. 눈물을 아니 흘리려고 하며 비애에 상하지 않으려고 한다. 울기에는 너무도 때가 늦었으며 비애에 상하는것은 우리의 박약을 너무도 표시하는듯싶다. 어떠한 고통이든지 참고 분투하려고 한다.

김군! 이것이 나의 탈가한 리유를 대략 적은것이다. 나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전에는 내 식구에게 편지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네가 죽어도 내가 또 죽어도…

나는 이러다가 성공없이 죽는다 하더라도 원한이 없겠다. 이 시대, 이 민중의 의무를 리행한 까닭이다. 아아 김군아! 말은 다 하였으나 정은 그저 가슴에 넘치누나!

군—(지난날에) 상대방을 부를 때 성 또는 이름뒤에 쓰던 말.
이역—남의 나라 땅.
로두—길거리.
동량—기둥과 대들보.
박약한 소위—의지가 약한 행동.
충정—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정.
유린—침해하여 짓밟는것.
시인하다—옳다고 인정하거나 긍정하다.
정애—인정과 사랑.

천부금탕—많은 지하자원과 기름진 땅.
헌헌하다—생기있고 기세차다.
오랑캐령—두만강너머 중국동북지방의 연길현에 있는 고개이름. 《오랑캐》란 《외래침략자》를 증오하여 이르는 말이다.
도조, 타조—《소작료》라는 구실로 지주가 농민에게서 곡식을 빼앗아가는것. 《도조》는 그해의 생산량에 관계없이 소작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비률로 빼앗아가는것을 말하며 《타조》는 마당질한 장소에서 생산량에 따라 도조의 량을 정하고 빼앗아가는것을 말한다.
시로도—(들어온 말) 해보지 못하여 일솜씨가 서툰 사람을 이르는 말.
기한—굶주림과 추위.
불문곡직—옳고그른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번민—마음속으로 모대기며 괴로와하는것 또는 그 괴로움.
포학하다—모질고 악독하다.
마주—사람의 정신을 홀리게 하는 술.
생령—생명.
최면술—인공적으로 잠이 들게 하거나 정신을 흐리게 하는 기술.
요사—사람을 홀리게 하는 간사한 태도나 짓.
무상의 법열—더없는 기쁨.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시인 리상화가 1926년에 창작한 서정시로서 그의 대표작일뿐아니라 해방전 시문학의 대표작이기도 하다.

리상화(1901—1943)는 경상북도 대구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 《신경향파》문학의 대표적인 시인이다.

리상화는 일찌기 아버지를 여의고 삼촌의 집에서 자랐다. 지방에서 학교를 세우고 젊은이들을 애국사상으로 교육한 삼촌과 역시 후대교육에 힘쓰다가 조국의 독립을 위한 포부를 안고 독립군에 가담한 형의 영향은 미래의 시인 리상화에게 조국에 대한 사랑과 일제에 대한 항거정신을 키우는데 좋은 작용을 하였다.

그러나 사상적으로 아직 확고한 립장에 서지 못했던 그는 창작초기에 부르죠아시문학단체의 하나였던 《백조》파에 들어 현실과는 동떨어진 시작품들도 좀 썼다.

리상화는 서울중동학교시절에 3.1인민봉기에 참가하였다가 퇴학당한 후 앙양되는 로동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의 영향밑에 《백조》파에서 뛰쳐나와 진보적인 문학단체인 《파스큐라》를 거쳐 《카프》(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에 망라되여 창작활동을 벌리였다. 이 과정에 그는 불합리한 당대 사회제도를 반대하고 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해방을 지향하는 작품들을 활발히 창작하였다.

그러나 리상화는 로동운동과 농민운동의 앙양되는 투쟁세계에 뿌리박지 못하였을뿐아니라 일제의 탄압이 혹심하여짐에 따라 1930년대부터는 문단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1925—1926년을 전후하여 많이 창작한 그의 시들은 초기프로레타리아시문학을 풍부히 한 가치있는 유산의 하나로서 문학사적으로 의의가 있다.

지금은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해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리마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
내 마음에는 내 혼자 온것 같지를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해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자국도 섰지 말아 옷자락을 흔들고
종조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구름뒤에서 반가웁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기쁘게 나아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말아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기름을 바른이가 김매던 그들이라 다 보고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여다오
살진 젖가슴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닫는 내 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습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음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신령이 접혔나보다
그러나 지금은—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가리마—머리털을 량쪽으로 갈라붙일 때 생기는 골.
종조리—《종달새》의 옛말.
깝치다—까불다.
봄신령—《봄의 신령》즉 봄귀신이라는 뜻으로서《봄의 싱싱한 정경》을 이르는 말.
빼앗기겠네—빼앗기지 않겠는가? 빼앗길것 같다.

〔명언〕

사람에게 있어서 보람없이 보낸 백날, 천날보다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며 산 하루가 더 값높고 귀중하며 빛나는것이다.

김 정 일

락 동 강

《락동강》은 해방전 진보적작가의 한 사람인 조명희가 1927년에 쓴 사회주의적사실주의작품이다.

조명희(1892—1942)는 충청북도 진천군의 가난한 선비의 가정에서 태여났다. 그는 필명을 포석이라고 하였다.

조명희는 1919년 3.1인민봉기가 있은 뒤 일본 도꾜에 건너가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학비난으로 중퇴하고 고향에 돌아와 문학창작에 힘썼다. 창작초기에 그는 주로 희곡과 시를 썼다. 그는 서울에서 신문기자생활을 하면서 무산계급계렬의 동료작가들과 함께 프로레타리아문학운동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1925년 8월에는《카프》창건에 이바지하였다. 그는 이때부터 소설창작으로 넘어가 《땅속으로》, 《농촌사람들》 등 많은 단편소설들을 발표하였다.

1928년에 그는 이전 쏘련으로 들어가 창작을 계속하였다. 이 시기의 작품들로서는 《짓밟힌 고려》, 《10월의 노래》 등을 들수 있다.

☆

락동강 7백리 길이길이 흐르는 물은 이곳에 이르러 곁가지 강물을 한몸에 뭉쳐서 바다로 향하여 나간다. 강을 따라 바둑판같은 들이 바다를 향하여 아득하게 열려있고 그 넓은 들 품안에는 무덤무덤의 마을이 여기저기 안겨있다.

이 강과 이 들과 저기에 사는 인간—강은 길이길이 흘렀으며 인간도 길이길이 살아왔었다. 이 강과 이 인간, 지금 그는 서로 **비통하게** **떨어지지** 않으면 아니될것인가?

봄마다 봄마다
불어내리는 락동강물
구포벌에 이르러
넘쳐넘쳐 흐르네
흐르네— 에—헤—야

철렁철렁 넘친 물
들로 벌로 퍼지면
만 목숨 만만 목숨의
젖이 된다네—
젖이 된다네— 에—헤—야

이 벌이 열리고
이 강물이 흐를제
그 시절부터
이 젖 먹고 자라왔네
자라왔네— 에—헤—야

천년을 산 만년을 산
락동강! 락동강!
하늘가에 간들
꿈에나 잊을소냐—
잊힐소냐— 아—하—야

어느해 이른봄에 이 땅을 하직하고 멀리 시베이지엔다오(서북간도)로 몰려가는 한떼의 무리가 마지막 이 강을 건늘제 그네들 틈에 같이 끼여가는 한 청년이 있어 배전을 두드리며 구슬프게 이 노래를 불러서 가뜩이나 슬퍼하는 이사군들로 하여금 눈물을 자아내게 하였다 한다.

과연 그네는 뭇강아지떼같이 이 땅 어머니의 젖꼭지에 매달려 오래오래동안 살아왔다. 그러나 그 젖꼭지는 벌써 자기네것이 아니기 시작한지도 오래였다. 그러던터에 왜놈 이민들마저 잔뜩 나와서 자리를 차지했으니 더 말할것이 무어랴.

인제는 한모금의 젖이라도 입으로 들어가기 어렵게 되였다. 하는수없이 이 땅에서 표박하여 나가게 되였다. 이렇게 된것을 우리는 잠간 생각하여보자.

이네의 조상이 처음으로 이 강에 고기를 낚고 이 벌에 곡식과 열매를 딸 때부터 세이지도 못할 긴 세월을 오래오래 두고 그네는 참으로 자유로왔었다. 서로서로 노래부르며 서로서로 일하였을것이다. 남쪽벌도 자기네것이요 북쪽벌도 자기네것이였었다. 동쪽도 자기네것이요 서쪽도 자기네것이였다.

그러나 력사는 한바퀴 굴렀었다. 놀고먹는 계급이 생기고 일하여 먹여주는 계급이 생기였다. 지배하는 계급이 생기고 착취당하는 계급이 생겼다. 그러므로부터 임자없던 벌판에 임자가 생기고 주림을 모르던 백성이 굶주려가기 시작하였다. 하늘에 해빛도 고운줄을 몰라가게 되고 락동강의 맑은 물도 맑은줄을 몰라가게 되였다. 천년이다, 5천년이다, 이 기나긴 세월을 불평의 평화속에서 아무 소리도 없이 내려왔었다. 그네는 이 고장을 고향으로 생각지 아니하게까지 되였다. 흐린 날씨를 참으로 맑은 날씨인줄 알듯이. 그러나 력사는 또다시 새로이 전환한다. 로씨야혁명의 바람이다. 농민폭동이였다. 갑오폭동이다. 3.1운동이다. 그뒤에 이 땅에는 아니 이 반도에는 한 괴물이 배회한다. 마치 나래치고 다니는 독수리같이. 그 괴물은 곧 공산주의다. 그것이 지나치는 곳마다 기여가는 암나비궁둥이에 수없는 알이 쏟아지는셈으로 또한 알을 쏟아놓고 간다. 청년운동, 농민운동, 형평운동, 로동운동, 녀성운동…. 5천년을 두고 흘러가는 날씨가 흐렸다. 비다, 거센 바람이 분다. 우뢰다, 폭풍우가 휘몰아친다. 그 비뒤에는 어떠한 날씨가 올것은 뻔히 알노릇이다.

×

이른 겨울의 어두운 밤, 멀리 바다로 통한 락동강어구에는 고기잡이불이 근심스러이 졸고있고 강기슭에는 찬 물결이 울리는 소리가 높아질 때다. 방금 차에서 내린 일행은 배를 기다리느라고 강언덕

우에 웅기중기 등불에 얼비쳐 모여섰다. 그가운데는 청년회원, 형평사원, 녀성동맹원, ○○○○○ 사람, 로동운동단체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동저고리바람에 헌 모자 비스듬히 쓰고 보따리든 촌사람이 검정두루마기, 흰두루마기, 구지레한 양복 혹은 루바쉬까 입은 사람, 쟈켈깃우에 짧은 머리털이 다팔다팔하는 단발랑 혹은 그대로 틀어얹은 신녀성, 인력거우에 앉은 병인, 그들은 대구감옥의 미결수로 있다가 병이 위중한 까닭으로 보석출옥하는 박성운이라는 사람을 고대 차에서 받아서 인력거에 실어가지고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다.

《과연 들리는 말과 같이 못살겠구만. 그같이 억대호같던 사람이 저리 죽을 상야 고문을 당한 자국들이 있다. 저것 좀 봐.》

이 정거장에 마중을 나가서야 비로소 병인을 본듯 한 사람의 말이다.

《그래가주고도 살겠나, 놈들은 보석했딱 하겠지.》

누가 받는 말이다.

《그러면 와 바로 병원을 갈 일이지 곧장 이리 온단 말고?》

《내사 모른다. 병인 당자가 한사락고 이리 온닥 하니…》

《이거 와 이리 배가 더디노?》

《아, 인자 저기 배머리 돌렸다. 곧 올락 한다.》

한사람이 저쪽 강기슭을 바라보며 지껄인다. 인력거우의 병인을 치여다보며

《늬, 춥지 않나?》

《괜찮다. 내 안 춥다.》

《아니, 늬 춥거든 외투 하나 더 주까?》

《언제. 아니다. 괜찮다.》

병인의 병든 목소리의 대답이다.

《보소, 배 좀 빨리 저오소.》

강 저편에서 배머리를 인제 겨우 돌려서 저어오는 배사공을 보고 소리를 친다.

《예—》

사이뜨게 울려오는 소리다. 배를 저어오다가 다시 멈추고 섰다.

《저 뭘 하고있노?》

《각중에 담배를 피워 무는 모양이락구나. 에라 이 문둥아.》

여러 사람의 웃음은 와그르 쏟아졌다.

배는 왔다. 인력거 탄 사람이 먼저다.

《보소, 늬 인력거 사람 탄채 그대로 배에 오를수 있능가?》

한사람이 인력거군 보고 묻는 말이다.

《어찌 그럴수 있능기요.》

《아니다. 내사 내리겠다.》

병인은 인력거에서 내리며 부축되여 배에 올랐다. 일행이 오르자 배는 삐꺽삐꺽하는 노젓 맞히는 소리와 수라수라하는 물 젓는 소리를 내며 저쪽 기슭을 바라보고 나아간다. 배전에 앉은 병인은 등불빛에 보아도 얼굴이 참혹하게도 여위여졌음을 알수 있다.

《보소, 배 부리는 량반, 배소리나 한마디 하소, 예.》

《각중에 이 사람, 소리는 왜 하락고?》

옆에 앉은 친구의 말이다.

《내 듣고싶다. …내 살아서 마지막으로 이 강을 건느게 될는지도 모를 일이다.…》

《에라 이 백주 짬없는 소리만 팅팅…》

《아니다. 내 참 듣고싶다. 보소, 배 부리는 량반, 한마디 아니 하겠소?》

《언제 내사 소리할줄 아능기요.》

《아, 누가 소리해줄 사람이 없능가?… 아, 로사! 참 소리하소, 의 … 내가 지은 노래하소.》 옆에 앉은 단발랑을 조른다.

《노래하락고?》

《응, 〈봄마다 봄마다〉 해라 의.》

봄마다 봄마다
불어내리는 락동강물
구포벌에 이르러
넘쳐넘쳐 흐르네—
흐르네— 에—헤—야
……

경상도의 독특한 지방색을 띤 민요《닐리리조》에다가 약간 창가조를 섞은 그 노래는 강개하고 굳센 맛이 띠여있다. 녀성의 음색으로서는 피기가 과하고 음률로서는 선이 좀 굵다고 할만 한 그러나 맑은 로사의 육성은 바람에 흔들리는 강물결의 소리를 누르고 밤하늘에 구슬프게 떠돌았다. 하늘의 별들도 무엇을 느낀듯이 눈을 끔벅끔벅하는것 같았다. 지금 이 배에 오른 사람들이 비록 시베이지엔다오 이사군들은 아니언마는 새삼스러이 가슴이 울리지 아니할수는 없었다.

그 노래 제3절을 마칠 때에 박성운은 몹시 히스테리칼하여진 모양으로 피대를 올려가지고 합창을 한다.

천년을 산 만년을 산
락동강！ 락동강！
하늘가에 간들
꿈에나 잊을소냐—
잊힐소냐— 아—하—야

노래는 끝났다. 성운은 거진 미친 사람 모양으로 날뛰며 바른팔소매를 걷어들고 강물에다 잠그며 팔에 물을 적셔보기도 하며 손으로 물을 만지기도 하고 끼얹어보기도 한다. 옆사람이 보기에 딱하던지

《이 사람, 큰일났구만. 이 병인이 지금 이 모양에 팔을 찬물에다 정구고 하니, 어찌잔 말고.》

《내사 이래 죽어도 좋다. 늬 너머 걱정말아.》

《늬 미쳤구나, …백죄…》

그럴수록에 병인은 더 날뛰며 옆에 앉은 녀자에게 고개를 돌려

《로사！ 늬 팔 걷어라. 내 팔하고 같이 이 물에 정궈보자. 의.》

녀자의 손을 잡아다가 잡은채 그대로 물에다 잠그며 물을 저어본다.

《내가 해외에 다섯해동안을 떠돌아다니는 동안에도 강이라는것이 생각날 때마다 락동강을 잊어본적은 없었다. …락동강이 생각날 때마다 내가 이 락동강의 어부의 손자요, 농부의 아들임을 잊어본적도 없었다. …따라서 조선이란것도.》

두사람의 손이 힘없이 그대로 배전너머 물우에 축 처져있을뿐이다. 그는 다시 눈앞의 수면을 바라다보며 혼자말로

《그 언제인가 가을에 내가 송화강을 건늘적에 이 락동강을 생각하고 울은적도 있었다. …좋은 마음으로 나간 사람 같고보면 비록 만리밖을 나가 산다 하더라도 그같이 상심이 될리 없으련마는…》

이 말이 떨어지자 좌중은 호흡조차 은근히 끊어지는듯이 정숙하였다. 로사는 들었던 고개가 아래로 떨어지며 저편의 손이 얼굴로 올라갔다. 성운의 눈에서도 한방울의 굵은 눈물이 뚝 떨어졌다.

한동안 물소리만 높았다. 로사는 배전에 늘어져있던 바른손으로 사나이의 언 손을 꽉 잡아당기며

《인제 그만둡시대, 의.》

이 말끝 악센트의 감칠맛이란것은 경상도녀자의 쓰는 말가운데에도 가장 귀염성이 드는 말투였다. 그는 그의 손에 묻은 물을 손수건으로 씻어주며 걷었던 소매를 내려준다.

배는 저쪽 언덕에 가닿았다. 일행은 배에서 내리자 먼저 병인을 인력거우에다 싣고는 건넌마을을 향하여 어둠을 뚫고 움직이여 나갔다.

그의 말과 같이 박성운은 과연 락동강어부의 손자요, 농부의 아들이였다. 그의 할아버지는 고기잡이로 일생을 보내였고 그의 아버지는 농사군으로 일생을 보내였었다. 자기네 무식이 한이 되여 그 아들이나 발전을 시켜볼양으로 그리하였던지 남하는 시세에 좇아 그대로 해보느라고 그리하였던지 남의 논밭을 빌어 농사를 지어 구차한 살림을 하여나가면서도 어쨌든 그 아들을 가르쳐놓았다. 서당으로, 보통학교로, 도립간이농업학교로…

그가 농업학교를 마치고나서 군청농업조수로도 한두해를 있었다. 그럴 때에 자기 집에서는 자기 아들이 무슨 큰 벼슬이나 한것같이 여기며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아들 자랑하기가 일이였었다. 그러할것 같으면 동네사람들은 또한 못내 부러워하며 자기네 아들들도 하루바삐 어서 가르쳐 내놀 마음을 먹게 된다.

그러다가 마침 3.1운동이 발발하였다. 그는 단연히 결심하고 다니던것을 헌신짝같이 집어던지고는 3.1운동에 참가하였다. 일마당에 나서고보니 그는 열렬한 투사였다. 그때쯤은 누구나 례사이지

마는 그도 또한 1년반동안이나 철창생활을 하게 되였다.

그것을 치르고 집이라고 나와보니 그 동안에 자기 모친은 돌아가고 늙은 아버지는 집도 없게 되여 자기 딸(성운의 자씨)에게 가서 얹혀있게 되였다. 마침 그해에도 이곳에서 살수가 없게 되여 시베이지엔다오로 떠나가는 이사군이 부쩍 늘판이다. 그들의 부자도 그 이사군들 틈에 끼여 멀리 고향을 등지고 떠나게 되였었다. (아까 부르던 그 락동강노래란것도 그때 성운이가 지어서 읊던것이였다.)

시지엔다오(서간도)로 가보니 거기도 또한 편안히 살수가 없는 곳이였다. 그 나라의 관헌의 압박, 횡포는 여간이 아니였다. 그의 부자도 남과 한가지로 이리저리 떠돌았다. 떠돌다가 그야말로 이역타향에서 늙은 아버지조차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였었다.

그뒤에 그는 난베이만저우(남북만주), 라오령(로령), 베이징, 상하이(상해) 등지로 돌아다니며 시종이 여일하게 혁명운동에 가담하였었다. 그러는 동안에 다섯해의 세월은 갔었다. 모든 운동이 다 침체하고 쇠퇴하여갈판이다. 그는 다시 발길을 돌려 고국으로 향하게 되였다. 그가 조선으로 들어올무렵에 그의 사상상에는 큰 전환이 생기였다. 그것은 다른것이 아니라 이때껏 신봉하던 민족주의자가 변하여 사회주의자로 되였다는 말이다.

×

그가 갓 서울로 와서 일을 하여보려 하였으나 그도 뜻과 같지 못하였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공산주의자이란것이 일에는 힘을 아니 쓰고 아무 주의주장에 틀림도 없이 공연히 파벌을 만들어가지고 동지끼리 다투기만 일삼는판이다. 그는 자기와 뜻이 같은 사람끼리 얼리여 량방의 타협운동도 일으켰으나 아무 효과도 없었고 여론을 일으켜보기도 하였으나 파쟁에 눈이 벨건 사람들의 귀에는 그도 크게 울리지 못하였다. 그는 분연히 떨치고 일어서며

《이 파벌이란 시기가 오면 자연히 괴멸될 때가 있으리라.》고 예언같이 말을 하여 던지고서는 자기 출생지인 경상도로 와서 남조선운동을 통일하여 더욱 높은 사회주의혁명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론문을 쓰게 되였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고향인 락동강하류 연안지방의 ○○○○○○○ 히서 ○○○○○○○다.

그리고 그는 이 땅의 사정을 보아 《대중속으로!》 하고 부르짖었다.

그가 처음으로 자기 살던 옛 마을을 찾아와볼 때에 그의 심사는 서글프기 가이 없었다. 다섯해전 떠날 때에는 백여호 대촌이던 마을이 그 동안에 인가가 엄청나게 줄었다. 그 대신에 예전에는 보지도 못하던 크나큰 함석지붕집이 쓰러져가는 초가집들을 멸시하고 위압하는듯이 둥두렷이 가로 길게 놓여있다. 그것은 묻지 않아도 동척창고임을 알수 있다. 예전에 중농이던 사람은 소농으로 떨어지고 소농이던 사람은 소작농으로 떨어지고 예전에 소작농이던 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 풍지박산하여 나가게 되고 어렸을 때부터 정들었던 동무들도 하나도 볼수 없었다. 그들은 모두 도회로, 시베이지엔다오로, 일본으로 산지사방 흩어져갔었다. 대대로 살아오던 자기네 집터에는 옛날의 흔적이라고는 주추돌 하나 볼수 없었고(그 터는 지금 창고앞마당이 되였으므로) 다만 그 시절에 사립문앞에 있던 해묵은 느티나무만이 지금도 그저 그 넓은 마당터에 홀로 우뚝 서있을뿐이다. 그는 쫓아가서 어린 아이모양으로 그 나무밑둥을 껴안고 맴을 돌아보았다, 뺨을 대여보았다 하며 좋아서 또는 슬퍼서 어찌할줄을 몰랐다. 그는 나무를 안은채 눈을 감았다. 지나간 날의 생각이 실마리같이 풀려나간다. 어렸을 때에 지금 하듯이 껴안고 맴돌기, 여름철에 꼭대기까지 기여올라가 매미 잡다가 대머리 벗어진 할아버지에게 꾸지람 당하던 일, 마을의 젊은이들이 그네를 매고 놀 때엔 자기도 그네를 뛰겠다고 성화 바치던 일, 앞집에 살던 순이란 계집아이와 같이 나무그늘밑에서 소꿉질하고 놀제 자기는 신랑이 되고 순이는 새아가씨가 되여 시집 가고 장가 가는 흉내를 내던 일, 그러다가 과연 소년때에 이르러 그 순이란 처녀와 서로 사모하게 되던 일, 그뒤에 또 그 순이가 팔려서 평양인가 서울로 가게 될제 어두운 밤 남모르게 이 나무뒤에 숨어서 서로 붙들고 울던 일, 이 모든 일이 다 생각에서 떠돌아 지나가자 그는 흐르륵 느껴지는 숨을 길게 한번 내여쉬고는 눈을 딱 떴다.

《내가 이까짓것을 지금 다 생각할 때가 아니다. …에잇…쩨…》하고 혼자 중얼거리고는 이때껏 하던 생각을 떨어없애려는듯이

획 발길을 돌려 걸어나갔다. 그는 원래 정의 사람이였다. 그러나 그는 근래에 그 감정을 의지로 누르려는 노력이 많은터이다.

《혁명가는 생무쇠쪽같은 시퍼런 의지의 마음씨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그의 생활의 지표이다. 그러나 그의 감정은 가끔 의지의 굴레를 벗어나서 날뛸 때가 많았다.

그는 먼저 운동프로그람을 세웠다. 계몽, 조직, 투쟁—이 세가지로. 그리하여 그는 먼저 농촌야학을 설치하여가지고 농민교양에 힘을 썼었다. 그네와 감정을 같이할양으로 벗어부치고 들어덤비여 그네들 틈에 끼여 생일도 하고 농사일터나 사랑구석에 모인 좌석에서나 야학시간에서나 기회가 있는대로 교화에 전력을 썼었다.

그다음에는 농민조합을 조직하고 빈농민들을 지주와 왜놈들과의 싸움에로 일어서게 하였다.

첫해 투쟁에는 다소간 ○○○○○○마는 ○○이다.

그다음해에는 아주 실패다. 농민조합도 직접 탄압을 받았다. 야학도 해산이다. 탄압과 검거의 선풍, 투옥, 이루 말할수가 없었다. 아무리 열성이 있으나, 아무리 참을성이 있으나 경찰테로는 어찌할수 없었다. 모든것이 침체되고말뿐이였다. 그리하여 작년 가을에 그의 친구 하나는 분연히 떨치고 일어서며

《내 구마밖으로 갈는다. 여기서야 살아낼수 있는가? 하자면 잡히지 망명밖에는 더 없다.》

《아니다. 그래도 여기 있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 계급의 일을 하기 위하여는 중국에 가서 해도 좋고 인디아에 가서 해도 좋고 세계의 어느 나라에 가서 해도 마찬가지다. 하지마는 우리 경우에는 여기 있어 일하는편이 가장 편리하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이 땅 사람들과 같이 죽어야 할 책임감과 애착을 가지고있다.》

이같이 권유도 하였으나 필경에 그는 그의 가장 신뢰하던 동무 하나를 떠나보내게 되고만 일도 있었다.

잊을수 없는 이 땅, 아니 몇백년 살고있는 이 땅, 그는 그들에게 생명의 젖줄이다. 그것은 다른것이 아니다. 이 마을앞 락동강기슭에 여러 만평되는 갈밭이 하나 있었다. 이 갈밭이란것도 락동강

이 흐르고 이 마을이 생긴 뒤로부터 그 갈을 베여 자리를 치고 그 갈을 털어 삿갓을 만들고 그 갈을 팔아 옷을 구하고 밥을 구하였었다.

《기러기 떴다 락동강우에
가을바람 부누나 갈꽃이 나붓긴다》

이 노래도 지금은 부를 경황이 없게 되였다. 그 갈밭은 벌써 남의 물건이 되고말았다. 그것은 이 촌민의 무지로 말미암아 소위 《국유재산》이 되였다가 ○○○○○○○○○○에게 ○○○○○○○○○○라는 명의로 넘어가고말았다. 이 가을부터는 갈도 벨수가 없었다.

총독부에 몇번이나 진정을 하였으나 아무 효과가 없었다. 촌민끼리 어린 아이까지 규합하여서 항거하려 하였다. 필경에는 모두가 다 실패뿐이다. 자기네 목숨이나 다름없이 알던 촌민들은 모든 힘들을 모아가지고 덮어놓고 갈을 베여 제쳤다. 저편의 수직군하고 시비가 생겼다. 서로 란투를 하였다. 그끝에 성운이가 주모자라는 혐의로 붙들려가서 군소재지 경찰서에서 몇달동안이나 심한 고문을 받다가 검사국으로 넘어가서 두어달동안이나 있다가 병이 급하게 되여 나온터이다.

그런데 여기에 한 에피소드가 있다. 그것은 이해 여름 어느 장날이다. 장거리에서 형평사원들과 장군—그중에도 장거리사람들과 큰 싸움이 일어났다. 싸움시초는 장거리사람 하나이 이곳 형평사지부앞을 지나면서 모욕하는 말을 한 까닭으로 피차에 말이 오락가락하다가 싸움이 되고 또 떼싸움이 되여서 란포한 장거리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형평사원촌락을 습격한다는 급보를 듣고 성운이가 앞장을 서서 청년회원, 소작인 조합원, 심지어 녀성동맹원까지 총출동을 하여가지고 형평사원편을 응원하러 달려갔었다. 싸움이 진정된 후

《늬도 이놈들, 새 백정이로구나.》하는 저편 사람들의 조소와 만매를 무릅쓰고도 그는

《백정이나 우리나 다 같은 사람이다. …다만 직업의 구별만

있을따름이다. …무릇 무슨 직업이든지 직업이 다르다고 사람이 귀천이 있는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옛날 봉건시대사람들의 하는 말이다. …더구나 우리 무산계급은 형평사원과 같이 손을 맞붙잡고 일을 하여 나가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러므로 형평사원을 우리 무산계급은 한형제요, 동무로 알고 나가야 한다.》 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열렬히 부르짖은 일이 있었다.

이뒤에 이곳 녀성동맹에는 동맹원 하나가 더 늘었다. 그것이 곧 형평사원의 딸인 로사다. 로사가 동맹원이 된 뒤에는 자연히 성운과도 상종이 잦아졌다. 그럴수록에 두사람의 사이는 점점 가까와지며 필경에는 남다른 정이 가슴속에 깊이 들어배게까지 되였다.

로사의 부모는 형평사원으로서 그도 또한 성운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딸일망정 발전을 시켜볼양으로 그리하였던지 서울을 보내여 녀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시키고 사범과까지 마친 뒤에 녀훈도가 되여 멀리 함경도땅에 있는 보통학교에 가서 있다가 하기방학에 고향에 왔던터이다. 그의 부모는 그 딸이 판임관이라는 벼슬을 한것이 천지개벽후에 처음 당하는 영광으로 알았었다. 그리하여 그는 《내 딸이 판임관벼슬을 하였는데 나도 이노릇을 더 할수 있는가?》 하고는 하여오던 수육업이라는 직업도 그만두고 인제 그 딸이 가있는 곳으로 살러 가서 새 량반노릇을 좀 하여볼 배심이였다. 이번에 딸이 집에 온 뒤에도 서로 의논하고 작정하여놓은노릇이다. 그러나 천만뜻밖에 그 몹쓸 큰 싸움이 난 뒤부터 그 딸이 무슨 녀자청년회 동맹이니 하는데 푸뗙푸뗙 드나들며 주의자니 무엇이니 하는 사나이 틈바구니에 가서 끼여놀고하더니 그만 가있던 곳도 아니 가겠다, 다니던 벼슬도 내여놓겠다 하고 야단이다. 그리하여 이네의 집안에는 제일 큰 걱정거리가 생으로 하나 생기였다. 달래다, 구스르다, 별별 소리로 다 타일러야 그 딸이 좀처럼 듣지를 않는다.

필경에는 큰소리까지 나가게 되였다.

《이년의 가시내야! 늬 백정놈의 딸로 벼슬까지 했으면 무던하지 그보다 무엇이 더 나은것이 있더노?…》 하고 그의 아버지가 야단을 칠 때에

《아배는 몇백년이나 몇천년이나 조상때부터 그 몹쓸 놈들에게 온갖 학대를 다 받아왔으며 그래도 그 몹쓸 놈들의 썩어자빠진 생각을 그저 그대로 가지고있구만, 내사 그까지 더러운 벼슬이고 무엇이고 싫소구

마… 인자 참사람노릇을 좀 할란다.》 하고 딸이 대거리를 할것 같으면

《아따 그년의 가시내, 건방지게…늬 뭐락 했노? 뭐락 해?…》

그의 어머니는 옆에서 남편의 말을 거드느라고

《야, 늬 생각해보아라, 우리가 그노릇을 해가며 늬 공부시키느락고 얼마나 애를 먹었노. 늬 부모를 생각키로 그럴수가 있는가?… 자식이라고 딸자식형제에서 늬만 공부를 시킨것도 다 늬 덕을 보작고 한노릇이 아니냐?》

《그러면 어매 아배는 날 사람노릇 시킬락고 공부시킨것이 아니라 돼지 키워서 리 보듯이 날 무슨 덕 볼락고 키워논 물건으로 알았는게오?》

《늬 다 그 무슨 쏘리고? 내사 한마디 못 알아듣겠다.… 아나, 늬 와 이라노? 와?》

《구마, 내 듣기 싫소, …내 맘대로 할라오.》

할 때에 그 아버지는 화가 버럭 나서

《에라 이…늬 이년의 가시내, 내 눈앞에 뵈지 말아. 내사 딱 보기 싫다구마.》 하고는 벌떡 일어나 나가버린다.

이리하고난 뒤에 로사는 그 자리에 폭 어푸러져서 흑흑 느껴가며 울기도 하였다.

그것은 그 부친에게 야단을 만나고나서 분한 생각을 참지 못하여 그러는것만도 아니였다. 그의 부모가 아무리 무지해서 그렇게 굴지마는 그 무지함이 밉다가도 도리여 불쌍한 생각이 난 까닭이였다.

이러할 때도 로사는 의례같이 성운에게로 달려가서 하소연한다. 그럴것 같으면 성운은

《당신은 최하층에서 터져나오는 분화산같어야 합니다. 가정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 같은 녀성에 대하여, 남성에게 대하여, 모든것에 대하여 반항하여야 합니다.》하고 격려하는 말도 하여준다. 그럴것 같으면 로사는 그만 감격에 떠는듯이 성운의 무릎우에 쓰러져 얼굴을 파묻고 운다.

그러면 성운은 또

《당신은 또 당신자신에 대하여서도 반항하여야 되오. …우리

는 다갈이 굳센 사람이 되여야 합니다.》

이갈이 로사는 사랑의 힘, 사랑의 힘으로 급격히 변화되여가는 사람이 되였다. 그의 본성명도 로사가 아니였다.

어느때 우연히 로사 룩센뿌르크의 이야기가 나올 때에 성운이가 웃는 말로

《당신 성도 로가고 하니 아주 로사라고 지읍시다. 의.》 그리고 ○○○○○○○ 하고난 뒤에 롱이 참된다고 성명을 아주 로사라고 고쳐버린 일이 있었다.

×

병든 성운을 둘러싼 일행이 락동강을 건너 어둠을 뚫고 건너마을로 향하여 가던 며칠뒤 낮결이였다. 갈 때보다도 더 몇배 긴긴 행렬이 마을어구에서부터 강언덕을 향하고 뻗쳐나온다.

수많은 기발이 날린다. 량렬로 늘어선 사람의 손에는 긴 외올베자락이 잡혀있다. 맨앞에 선 검정테 두른 기폭에는

《고 박성운동무의 령구》라고 써있다.

그다음에는 가지각색의 기다. 무슨 《동맹》, 무슨 《회》, 무슨《조합》, 무슨《사》, 각 단체 련합장임을 알수 있다. 또 그다음에는 수많은 만장이다.

《성운은 갔다. 그러나 그의 더운 피는 우리의 가슴에서 뛴다.》

《갔구나, 너는! 혁명투사인 너는 갔구나! 밝는 날 해맞이춤에는 네 손목을 잡아볼수 없구나.》

《…》

《…》

이루 다 세일수가 없다. 그가운데에는 긴 시구갈이 이렇게 벌려서 쓴것도 있었다.

《그대는 평시에 날더러 너는 최하층에서 터져나오는 분화산이 되라 하였나이다. 옳소이다. 나는 분화산이 되겠나이다. 그대는 죽을 때에도 날더러 너는 참으로 분화산이 되라 하였나이다.

옳소이다. 나는 분화산이 되겠나이다.》

이것은 묻지 않아도 로사의 만장임을 알수 있었다.

×

이해의 첫눈이 푸뜩푸뜩 날리는 어느날 늦은 아침, 구포역에서 차가 떠나서 북으로 움직여나갈 때이다. 기차가 들녘을 다 지나갈 때까지 객차안 들창으로 하염없이 바깥을 내여다보고앉은 녀성이 하나 있었다. 그는 로사이다. 아마 그는 돌아간 애인이 밟던 길을 자기도 한번 밟아보려는 뜻인가보다. 그러나 필경에는 그도 멀지 않아서 다시 잊지 못할 이 땅으로 돌아올 날이 있겠지.

표박하다—정처없이 떠다니다.
루바쉬까—로씨야사람들이 겉에 입는 적삼과 같은 옷.
병인—앓는 사람, 환자. 《병자》라고도 한다.
단발랑—단발머리를 한 처녀.
억대호—《억대호》는 《억대우》를 잘못 쓴것으로서 《몸집이 크고 뼈가 굵으며 힘꼴이 센 사람》을 이르는 말.
히스테리칼하다—《정신이 나간것 같다》또는《미침증에 걸린것 같다》는 뜻.
악센트—말을 하거나 글을 읽을 때의 력점.
자씨—남의 《손우의 누이》를 높이여 이르는 말.
동척—《동양척식주식회사》의 준말. 1908년 일제가 우리 나라의 토지와 자연부원들을 략탈하기 위하여 설치한 식민지적착취기관.
에피소드—일화.
판임관—일제때 가장 낮은 급의 관리.
수육업—짐승의 고기를 파는 일.
가시내—《가시내》는 《가시나》의 사투리발음으로서 《처녀애》라는 경상도방언.
로사 룩센뿌르크—《 로사 룩센뿌르크 》는 《 로자 룩셈부르그 (1871—1919)》를 당시의 표기법에 맞추어 쓴것이다. 로자 룩셈부르그는 뽈스까에서 태여나 도이칠란드와 뽈스까의 로동운동에 참가한 녀성혁명가이며 도이칠란드공산당창건자의 한 사람이다.

산 제 비

《산제비》는 시인 박세영이 1936년에 창작한 서정시로서 우리나라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적작품의 하나이다.

박세영(1902—1989)은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 두모리에서 태여났다. 그는 서울배재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다음 1922년에 중국의 상하이에 들어가 전문학교에서 공부하였다. 조국에 돌아온 박세영은 진보적문학단체인 《염군사》의 동인으로 되였고 1925년 《카프》창립과 더불어 그 맹원으로서 창작활동을 벌리기 시작하였다.

1926년부터 1934년까지 잡지 《별나라》를 책임지고 편집하면서 많은 시를 창작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강화되는 파쑈적인 탄압책동으로 하여 그는 1937년부터 해방될 때까지 일시 붓을 놓고 창작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박세영에게 있어서 진정한 창작의 길이 열린것은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찾아 평양으로 온 이후부터였다. 그는 이 시기에 가사 《애국가》를 창작하였다. 박세영은 1947년부터 북조선문학동맹 서기장을 거쳐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종군작가로서 창작활동을 활발히 벌리였다.

박세영은 고령에 이르러서도 붓을 놓지 않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성,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 우리 인민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노래하는데 있는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쳤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가사 《애국가》, 《승리의 5월》, 《인민군행진곡》, 서정시 《산제비》, 《나팔수》, 장편서사시 《밀림의 력사》 등을 들수 있다.

남국에서 왔나
북국에서 왔나
산상에도 상상봉
더 오를수 없는 곳에
깃들인 제비

너희야말로 자유의 화신 같구나
너희 몸을 붙들자 누구냐?

너희 몸에 알은체 할자 누구냐?
너희야말로 하늘이 네것이요
대지가 네것 갈구나

녹두만 한 눈알로
천하를 내려다보고
주먹만 한 네 몸으로
화살같이 하늘을 꿰여
마술사의 채찍같이
가로세로 휘도는
산꼭대기 제비야
너희는 장하구나

하루아침 하루낮을
허덕이고 올라와
천하를 내려다보고 느끼는
나를 웃어다오

나는 차라리 너희들같이
날개라도 펴보고싶구나
한숨에 내닫고 단숨에 솟치여
더 날을수 없이 신비한
너희같이 돼보고싶구나

창들을 꽂은듯 희디흰 바위에
아침 붉은 해발이 비칠제
너희는 그 꼭대기에 앉아
깃을 가다듬을것이요

산의 정기가 뭉게뭉게 피여오를제
너희는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휘정거리며 씻을것이요

원시림에서 흘러나오는
세상의 비밀을 모조리 들을것이다

메돼지가 붉은 흙을 파헤칠제
너희는 별에 날아볼 생각을 할것이요
갈범이 배를 채우려
약한 짐승을 노리며 어슬렁거릴제
너희는 인간의 서글픈 소식을 전하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알려주는
천리조일것이다

산제비야 날아라
화살같이 날아라
구름을 휘정거리고 안개를 헤쳐라

땅이 거북등같이 갈라졌다
날아라 너희는 날아라
그리하여 가난한 농민을 위하여
구름을 모아는 못 올가!
날아라 빙빙 가로세로 솟치고 내닫고
구름을 꼬리에 달고 오라

산제비야 날아라
화살같이 날아라
구름을 헤치고 안개를 헤쳐라

고 향

《고향》은 작가 리기영(필명 민촌)이 1933년에 창작한 장편소설로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적작품의 하나이다.

리기영(1895—1984)은 충청남도 아산군의 한 빈농가의 가정에서 태여났다. 그는 집이 몹시 가난하여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농사일을 도왔다. 그는 일하는 여가에 고전소설과 신소설을 탐독하면서 문학적소양을 키웠다. 그러다가 11살이 되던 1906년에 겨우 천안사립녕진학교에 입학하여 4년동안 다니고 15살에 졸업한 다음 1910년부터 10여년간 남부조선 각지를 방랑하면서 여러가지 로동에 시달리는 과정에 착취사회의 반동적본질에 대하여 깨닫게 되고 일제통치의 야만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였다.

리기영의 창작활동은 그가 1922년 4월에 일본으로 건너가 공부하다가 1923년에 귀국한 이후 조명희, 최서해 등과 함께 프로레타리아문학건설을 위한 운동에 뛰여든 때로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그는 《카프》가 처음 창립될 때(1925년)와 다시 조직될 때(1927년) 중심인물로 활동하였으며 1930년부터는 《카프》의 문학동맹 위원장으로 사업하였다.

그의 첫 작품은 1924년에 발표된 《오빠의 비밀편지》인데 이것은 잡지 《개벽》 현상모집에 당선된것이다.

그는 그후부터 《가난한 사람들》(1924), 《쥐이야기》(1925), 《민촌》(1925), 《원보》(1928), 《제지공장촌》(1930) 등 일제식민지통치아래에서의 조선인민의 비참한 생활과 불합리한 사회현상을 폭로한 작품들을 많이 내놓았다. 그는 해방전 1940년대초까지 계속 작품을 창작하였다.

해방후에는 문예총의 중요한 위치에서 사업하면서 창작을 계속하였다. 그는 《개벽》(1946)을 쓴데 이어서 장편소설 《땅》(제1부)(1948—1949)을 내놓았다. 《땅》은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창작된 첫 장편소설이다.

리기영은 전후시기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교양을 강화할 시대적요구에 따라 력사물주제의 장편소설《두만강》(1—3부)을 내놓았다. 《두만강》은 19세기말부터 1930년대에 이르는 우리인민의 반일투쟁을 폭넓게 반영한 큰 규모의 장편소설로서 제1부

(1954)는 19세기말부터 1910년 전후시기, 제2부(1957)는 그 이후로부터 3.1인민봉기까지의 시기, 제3부(1961)는 1920—1930년대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력사를 취급하고있다.

장편소설《고향》의 이야기는 일본 도꾜에서 류학을 한 김희준이 5년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로부터 시작된다.

희준이가 5년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 원터마을은 그를 마중하느라 별안간 발칵 뒤집힌다. 그런데 굉장하리라고 믿었던 희준이의 행색은 너무나도 초라하였다. 시꺼먼 학생양복에 오글쪼글한 중절모, 자그마한 손가방 하나… 이것이 전부였다. 사람들은 입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기웃거렸다.

고향에 돌아온 희준이는 가정일에 파묻히거나 월급자리를 얻어 호사롭게 살려는것이 아니라 원터마을사람들이 다 잘살수 있는《밝은 날》을 위해 몸바칠 결심을 하고 마을사람들과 다름없이 농사일에 몸을 잠근다.

춘궁기(햇곡식이 나기 전 봄에 집집마다 식량이 떨어져 굶주림을 겪는 시기)가 닥쳐오자 원칠이네도 술지게미를 사다 먹는 한편 딸 인순이를 눈물속에 제사공장으로 보낸다. 그런가 하면 마름 안승학은 한푼이라도 더 긁어모을 타산으로 원두막을 짓는다.

이러한 때 희준이는 자기 집 사랑방을 치우고 원터마을의 야학을 시작한다. 초저녁은 녀자반, 다음은 남자반 이렇게 저녁마다 세시간씩 가르친다.

또한 희준이는 마을에 두레를 조직한다. 그러자 이웃간에 다투던 일도 없어지고 마을의 기분이 통일되여간다. 희준이는 읍내의 청년회와 야학회도 지도한다. 이런 과정에 원터마을농민들이 점차 계급적으로 눈떠간다.

한편 안승학은 본처의 몸에서 난 딸 갑숙이를 미끼로 고리대금업자 권상철에게서 위자료 5천원을 받아낼 꿍꿍이를 꾸민다.

어느덧 원터마을에도 가을이 왔다. 풍년은 들었으나 소작료를 물고나니 농민들은 당장 먹을것이 떨어질 형편이다. 농민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 공장로동자로 떠나간다.

이듬해도 두레를 잘 운영해서 풍년이 든다. 그런데 가을을 앞두고 큰물이 나는통에 농민들은 더욱 곤난하게 된다. 희준이는 동회를 열고 마을사람들을 휘동하여 안승학을 찾아가 소작료를 면제

해달라고 요구한다.

안승학은 대번에 거절해버린다.

격분한 농민들은 립도투쟁(요구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벼를 베지 않고 세워둔채로 투쟁하는것)에 들어간다. 그러나 먹을것이 다 떨어진 조건에서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두해동안 두레를 내서 서로 단합된 농민들이여서 한두되박 쌀도 나누어먹으면서 견디여나간다. 이러한 때에 제사공장로동자들이 동정파업(자본주의사회에서 한곳에서 일어난 파업에 계급적련대성을 보내주기 위하여 일으키는 파업)을 일으키고 동정금을 모아 농민들을 지원해준다. 그 앞장에는 원칠의 딸 인순이, 희준의 교양으로 제사공장로동자로 된 안승학의 딸 갑숙이, 시집을 갔다가 제사공장로동자로 된 방개 등이 서있다. 인동이도 쟁의의 앞장에 선다.

그러나 립도투쟁을 무한정 오래 끌수는 없었다. 너무도 참을수 없어 남몰래 벼를 베여들이는 집들이 생겨나는것이였다.

희준이는 안승학이와의 최후담판을 결심하고 농민대표들을 이끌고 나선다. 더 끌다가는 도리여 랑패를 보게 될 우려가 있었기때문이다.

안승학은 그들이 마루에 앉아 용건을 들이대자 불안을 느끼면서도 이렇게 말한다.

《…괜히 그러지들 말고 일찌기 나락을 베는것이 어때? 그게 당신들에게 유익할것이야…》

김희준은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한다. 그는 자취를 감추었다는 갑숙이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경호(고리대금업자 권상철의 양아들)와 관계가 있다는것과 딸을 미끼로 5천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사실을 까밝히면서 만약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신문에 내서 안승학의 사회적위신을 허물어버리겠다고 위협한다.

안승학은 당황한다. 드디여 그는 굽혀들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안승학은 소작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한다.

김희준은 투쟁에서 승리한 기쁨으로 흥분되여있는 마을사람들에게 모두가 단결하여 싸운 결과라고 하면서 그러나 하나의 위협자료로 상대를 이긴것은 큰 승리가 못된다는것, 앞으로 더욱 단결해서 싸워나가야 한다는것을 말한다.

8

인동이네 타작날에는 김선달네, 수동이네 서너 집도 마당질을 하였다.

인동이는 새벽부터 벼를 실어나르고 김첨지는 집에서 마당질할 차비를 차리고있었다.

마을에는 첫새벽부터 사람들이 움직였다. 새벽을 잦추는 닭 우는 소리가 이 집 저 집에서 요란히 들리는데 어둠속으로 반디불같은 등잔불이 하나둘씩 켜진다. 녀자들은 아침준비를 시작하고 사내들은 오늘 할 일거리를 붙들었다. 뒤미처 집집마다 연기가 났다. 일군들은 제각기 논으로, 밭으로 헤여진다.

서리새벽의 쌀랑한 가을해가 뜰라면 아직도 멀었다.

차차 빛을 잃어가는 새벽별이 개인 하늘속으로 자취를 감추려고 한다. 먼동이 훤해지며 하늘갓은 차차 불그레하게 물들어진다.

넓은 들판에 깔아놓은 벼단은 마치 산병진을 친 군대처럼 논뚝에 벌려있다. 이 광경을 참으로 무엇이라 할가? 생산의 위대한 힘! 그것은 과연 장엄하였다.

엊그제까지 온 들안이 황금색으로 가득찼던 벼를 일제히 베여서 단으로 묶어놓았다.

그것을 인제는 다시 거둬들인다. 그러나 며칠 안 있으면 들안에 벼라고는 씨도 없이 빈 들만 남을것이다.

그리고 래년에는 다시 모를 심어서 이 들안을 온통 푸르게 꽉 채웠다가 가을에는 황금같은 곡식바다를 만들어놓을것 아닌가.

인동이는 새삼스레 이런 생각이 났다. 그것은 해마다 하는 일이요, 무시로 하는것인데 왜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났던가? 지금은 도리여 그것이 이상하다 할만큼 절실히 느껴진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자고있었다. 그리고 밤새도록 가위를 눌렸다. 별안간 악몽을 깨나보니 세상은 딴세상이 된것 같다.…)

인동이는 자기의 변해진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러면 자기의 깊이 든 잠을 깨워준 사람은 누구던가?

어쩐지 인동이는 이상스러운 느낌이 났다. 그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수 있었던가싶도록…

희준이는 확실히 자기보다 눈을 먼저 떴다. 그는 개명한 지식을 배워서 남먼저 눈을 떴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찮은것에 눈이 가려서 오래도록 늦잠을 자지 않았던가?

그렇다! 그들은 하찮은 일에 눈이 어두웠었다. 한쪼각 땅덩이에 목을 매고 죽여라, 살려라 하고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던가? 땅은 암만 파도 그턱이다.

농사를 잘못 지어서 가난하더냐? 사람이 오직 땅만을 믿고 산다는것이 틀렸다. …그러면 누구를 믿고 살것이냐? 흘러가는 내물은 우선 목마른 사람에게 더욱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다! 기갈든 사람은 남먼저 물을 먹어야 할것이다. 그것은 그들에게 더욱 물이 필요하기때문이다.

한데 그들은 그저 자고있지 않는가! 모두 손톱만 한 제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막동이 그 자식은 계집한테 눈이 어둡고 학삼이 그 자식은 막걸리에 눈이 어둡고 쇠득이 못난이는 엿방망이(투전)에 눈이 어둡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새 정신이 펄쩍 나게 깨워놓을수 있을가?

인동이는 이런 갈피없는 생각에 홀로 헤매며 길이 차는 벼단을 들어서 소달구지에 줾었다.…

9

이날 안승학은 식전부터 분주하였다. 서울에서 내려온 타작관은 촌으로 나갔다. 그는 타작마당으로 돌아다니며 일일이 감독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하긴 하루에 한집씩 타작을 시켜야만 가장 잘 밝힐것 같이 생각되였으나 시각을 다투는 가을일을 꼭 그렇게 계획적으로만 할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할수없이 서너집을 시킨것이다.

그는 이 집 저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벼를 잘 털라고 잔소리를 하였다. 그래도 못 미더워서 털어놓은 짚단을 헤쳐보다가 만일 벼알이 더러 붙었으면 눈을 부라리고 호령을 하는것이였다.

안승학은 정작 타작관보다도 작인들에게 더욱 심하게 굴었다. 그는 이렇게 지주에게 충성을 다해야 《마름》의 성적을 올릴수 있

다고 생각하였던것이다.

《이게 자리개질을 한겐가 무엔가? 어서 다시 털라구!》

안승학은 김선달 집 마당에서 쇠득이가 지금 털어던진 짚단을 보더니만 눈을 곱지 않게 뜨며 다시 털라고 호령을 한다.

쇠득이는 그 짚단을 집어다가 네댓번 다시 후려쳤다. 안승학은 그제야 마음이 놓였던지 한참동안 우두커니 서서 보다가 수동이 집 마당으로 뒤짐을 지고 슬슬 올라간다.

《흥— 참 너무 그라지 말라구 제—기랄것.》

쇠득이는 참았던 분을 쏟아놓는다.

《아따 실컷 할퀘다가 지주댁에 바치라게— 그까짓 한톨 더 먹는다고 얼마나 살찌겠나.》

김선달도 심정이 나서 부르짖는다. 그는 짚단을 쌓고있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뉘년이 더 밉다는 격으로 이건 타작관보다 더 심할게야 무에람!》

《흥… 그래야만 지주의 눈에 잘 보여서 마름을 오래하지.》

희준이가 어느 틈에 왔는지 별안간 그의 목소리에 여러 사람들이 일제히 쳐다본다. 그들은 금시에 어떤 힘을 얻은것처럼 제각기 든든한 마음을 가지게 하였다.

《아니 선달아저씬 마당질술두 좀 안 주시유?》

《웨 안 줘, 지금 그라지 않아도 자네를 부르러 보냈는데 마침 잘 왔네.》

김선달은 짚단을 동이면서 대답한다. 타작은 짚단도 절반씩 나누기때문에 타작마당에서 아예 그것도 동으로 묶어서 나누기에 편리하도록 만드는것이다.

《아니 그렇게 일호차착이 없이 평균히 노느고싶거든 벼이삭을 한개씩 들고 훑으라지. 그렇게 해야만 쭉정이까지 죄다 훑어질것이 아니여?》

《하기에 도급기를 쓰라고 하지 않는가베.》

《그럴진대 도급기를 한대씩 사줄것이지.》

《허허… 그 사람 참, 미련한 소리도 다 하네. 도급기는 누가 거저 준다나!》

김선달은 허구픈 웃음을 웃으며 침을 탁 뱉는다.

《앞으로 두고보시오. 전부 벼훑이기계를 사용하게 되지 않나.

그리고 벼도 정조식으로 심으고 타작마당에서는 벼를 풍구질로 까불러서 다시 사름통으로 쳐서는 돌을 골라가지고 그것을 앉은뱅이저울로 달아서 정평 200근 한섬씩 달아갈겐데 뭐, 벌써 큰 들에서는 그렇게들 하는 곳도 많답니다.》

《참 그렇다니말이지 작년에 저 한들에를 가보니까 거기에서는 모두 쌀도지로 받는데 쌀을 되는데도 협잡이 붙을가봐서 공중에다가 홈통을 만들어놓고는 쌀을 그우에서 내려쏟겠지. 하니까 그밑에 둔 빈 말로 쌀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다시 방망이질로 싹 밀지 않던가. 그렇게 해서 기계로 꾠 나사끈으로 한가마니씩 묶어놓는데 허허 참! 그놈을 검사만 맡으면 정거장으로 나가서 인천이나 군산으로 척척 실리도록 만들었데그려. 몇해전만 해도 어디 그런 일이 있었나?》

《그것은 아주 공평하게 하는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니. 아니 공주 사는 김부자는 저울속에다 납봉을 박아서 여러해동안 근량을 속이여 도지를 받아먹은 일도 있지 않았수. 그런걸로 본다면 있는 사람이 더 무서웁던데요.》

《참 그때 신문에도 크게 떠들었지.》

김선달은 덕칠이의 말에 그럴듯이 대답한다. 그것은 지주들이 할수 있는대로 공평무사하게 한다는것은 실상인즉 자기네가 한톨이라도 벼를 더 가져가려는 심사라는것을 의미해서 말하는것 같았다.

김선달은 침통한 웃음을 웃는다.

…

11

세집 마당질터에는 서로 약속이나 한듯이 점심전에 죄다 털어서 벼를 긁어모았다. 그들은 점심을 먹고나서 한참동안을 쉬는판이다. 봉분우에는 죽가래를 얹어놓았다. 인제는 저녁바람에 벼를 드려서 다시 몽글러가지고 섬피에 처담으면 그만이다. 마당가에는 싸리비와 키, 죽가래, 가마니, 새끼, 낫, 삼태기 등의 도구가 벌려있다.

안승학은 마치 공장감독이 작업중의 로동자를 감시하듯이 그들이 오후의 일손을 붙들게 되자 도적고양이처럼 살고미 왔다. 그는 벼를 잘 드리는가? 못 드리는가? 보아서 잡동사니 하나라도 안

들게 하려는 생각뿐이였다.

일군들은 그가 나타나자 금시로 기분이 달라지며 하던 이야기를 뚝 그쳤다. 그들은 차차 어떤 공통한 불안을 느끼였다. 그것은 이 벼를 이렇게 몽글러서 몇섬이나 날것이며 또 거기서 소작료와 모든 부채를 제하면 얼마나 남을것인가? 모자랄것인가? 하는 념려에서였다. — 과연 저녁때에 벼를 되기 시작할 때부터 낯선 사람들이 푸떡푸떡 나타났다. 개는 그들을 보고 자지러지게 짖고 마을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가슴을 두근거렸다. …권상철이도 점심때에 나와서 안승학의 사랑에 있다가 마당질터로 슬슬 내려왔다.

고리대금업자로 유명한자인만큼 이 동네사람들중에도 그의 돈을 쓴 사람이 더러 있었다. 그는 이 가을 타작마당에서 본전을 받지 못하면 래년을 다시 기다리기가 념려되였던것이다. 재산이 넉넉한 사람이라면 몇해씩이라도 참아주고 리자와 본전을 추켜매면 되겠지만 삼간두옥에서 소작농으로 연명하는 사람들은 그해 농사에 받지 않으면 량패보기가 십상팔구였다.

원칠이도 인동이의 혼사때문에 희준이의 소개로 그 집 돈을 5푼변으로 15원을 얻어썼다.

그것은 음력으로 시월그믐까지 석달한을 하고 쓴것인데 희준이를 보증 세운때문에 특별히 5푼변을 받는다는것이였다.

인동이네 부자는 권상철이가 오는것을 보고 마치 뱀을 만난 때와 같이 몸서리를 쳤다.

《김첨지, 올해에 농사를 잘 지셨구려! 참 잘되였는데요.》

《아, 권주사 나오십시오. 진작 오신줄 알았더면 약주나 한잔 대접할걸.》

원칠은 겉으로는 어쩔수없이 부드러운 말을 꺼냈다.

다른 일군들은 머리를 굽신거린다.

《어디 내가 술 먹을줄 아나요. 어서 일 보시우.》

권상철은 마치 그런 말은 그만두고 저한테 줄것이나 내라는 표정같다.

원칠이는 불안한 공기속에서 가마니에 벼를 말로 되여 퍼붓기 시작하였다. 십여개의 가마니들은 나도 나도 하고 차례로 입을 벌리였다.

맨 나중 섬까지 퍼담고서 가마니를 묶을 때는 마치 죽은 사람

을 하관하고 칠성판을 덮을 때처럼 애달픈 생각을 갖게 한다. 파연이 벼는 죽은 사람이 땅속으로 영구히 파묻히듯이 자기네 앞을 영구히 떠나갈것이 아닌가?

원칠이네 벼는 거진 열닷섬이나 났다. 그러나 거기서 2백근한섬씩인 소작료(일천근)를 제하고 권상철의 돈 15원의 본전과 변리를 합한 근 20원돈과 마름의 색조니 배집값이니, 구장과 동장의 거둠새니 그리고 비료값, 새우젓값, 반찬장사의 외상값과 술값, 잔빚 등을 요새 벼금으로 5～6원을 치고 제하여보니 겨우 4～5석도 남지 못할것 같았다.

그는 소작료와 권상철의 돈빚외에 서너섬을 갈라놓았다. 이런 예산을 속으로 쳐보니 그만 눈이 핵 돌아가고 고개가 천근같이 숙어졌다.

일군들은 그 눈치를 채고 모두 풀기가 하나도 없이 굼벵이처럼 몸을 놀린다. 곽첨지는 비록 남의 집을 살을망정 원칠이의 심통해하는 꼴을 보고 동정의 한숨을 지었다.

그는 권상철이가 웃마당으로 돈빚을 받으러 가는것을 우두커니 눈을 흘기고 보더니만 곰방대에 담배를 담아서 붙여 물고는 마당 한가운데에 쪼그리고앉으며

《흥! 백주에 헛농사 지었구나! 이런 놈의 농사를 뭐할라고 짓는가? 김첨지— 허허.》

《잘 지었으니 저만치 남지 않았수.》

《아이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안 짓도 못하겠고 넨장할 놈의것!》

《그래도 농사를 지어야 빚이라도 얻어먹지 뭐!》

《암, 그래서 짓는것이 아닌가베.》

그들은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타작—마당질하여 털어낸것.

선달—(봉건사회에서)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아직 벼슬을 하지 못한 사람.

첨지—(낡은 사회에서) (주로 성과 함께 쓰이여) 《늙었거나 나이 지숙한 남자》를 이르던 말.

잦추다—동작을 잦게 하여 빨리 되도록 재촉하다.

산병진—군대들이 전투상태로 벌린 진.

가위를 눌리다—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여 답답증을 느끼다.

악몽—꿈자리가 사나운 못된 꿈.

타작관—(낡은 사회에서) 지주가 소작료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하여 소작인들이 마당질하는것을 감독하도록 내려보내는자.

일호차착—조금도 어긋남이 없음.

자리개질—(지난날에) 자리개(무엇을 옭아매거나 묶는데 쓰는 굵은 줄)를 가지고 곡식단을 동여매고서 낟알을 터는 일.

봉분—흙을 둥글게 쌓아올려서 만든 무덤. (교재에서는 높이 쌓아올린 벼무지를 말함.)

고리대금업자—(낡은 사회에서) 비싼 리자로 돈을 꾸어주어 남을 착취하는것을 업으로 하는 놈.

삼간두옥—몇간 안되는 작은 오막살이집.

주사—(낡은 사회에서) 그리 낮지 않은 관리자리의 하나.

색조—(봉건사회에서) 지주나 마름놈들이 쌀을 꾸어주었다가 받을 때 덧붙여 받는 곡식.

목구멍이 포도청—(낡은 사회에서) 먹고 살아가기 위하여 차마 하지 못할 일까지도 하지 않을수 없음을 이르는 말. (속담)

〔명언〕

자기를 믿는 사람은 강자가 되고 남을 믿는 사람은 약자가 된다.
김 정 일

인간문제

《인간문제》는 《카프》의 조직밖에서 창작활동을 벌린 녀류작가 강경애가 1934년에 창작한 장편소설로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의 대표작의 하나이다.

강경애(1906—1944)는 황해남도 장연군에서 가난한 농민의 딸로 태여나 4살에 아버지를 잃고 10살이 지나서야 겨우 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18살부터 평양숭의녀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였으나 동맹휴학에 참가한 관계로 학교에서 쫓겨났다. 고향에 돌아와 창작수업을 진행하던 그는 1929년에 지엔다오에 들어갔다가 1931년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 이듬해에 또다시 중국 룽징(룡정)으로 들어간 그는 1939년까지 그곳에서 가정생활을 하면서《인간문제》를 비롯하여 적지 않은 소설을 창작하였다. 그의 창작기간은 불과 7～8년밖에 안되지만 이 기간에 3편의 장편소설과 여러편의 단편소설, 한편의 중편소설을 창작하였다.

강경애의 창작에서 가장 대표적인것은 《인간문제》이다.

이 소설은 크게 두개의 생활무대를 보여준다. 하나는 룡연동네라는 농촌이고 하나는 인천이라는 도시이다.

소설의 첫머리에는 룡연마을의 원소라는 못의 전설이 소개되고 있다.

먼 옛날 룡연마을에는 수많은 땅을 가지고있는 장자첨지라는 지주가 살았는데 어느해에 흉년이 들어서 농민들이 쌀을 좀 꾸어달래도 모르쇠를 하였다. 이에 격분한 농민들이 달려들어 고간을 부시고 낟알을 나누어 먹었다가 장자첨지의 고자질로 숱한 농민들이 끌려가 악형을 당하고 죽고 하였다. 부모형제를 잃은 이 동네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장자첨지의 마당에서 통곡을 하였는데 그 눈물이 고이고고여 장자첨지네 고래등같은 기와집은 떠

내려가고 그 자리에 깊이를 알수 없는 못이 생겼다 한다. 이 못이 바로 원소이다.

이렇듯 기막힌 원소의 전설을 안고있는 룡연마을농민들은 지주 정덕호의 가혹한 착취밑에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다. 선비도 이 정덕호때문에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마저 중병에 누웠으나 약 한첩 못 써보고있다. 선비를 마음속으로 사랑해오는 첫째가 소태나무뿌리를 한다래끼나 약으로 쓰라고 캐다주었지만 어머니는 며칠 못가서 숨지고만다.

고아가 된 선비를 정덕호놈은 부엌데기로 끌어간다. 소작인의 딸인 간난이라는 처녀를 데려다가 인간적으로 유린해오던 끝에 이번에는 선비에게 눈독을 들인것이다.

한편 일년내내 농민들이 피땀흘려 지은 곡식을 지주 정덕호놈이 와서 소작료요, 비료값이요, 리자요 하면서 몽땅 빼앗아간다. 이것을 보고있던 첫째는 울분을 참을수 없어 소달구지에 뛰여올라 벼섬을 와락와락 끌어내린다. 이것이 죄가 되여 첫째는 순사놈에게 붙잡혀 류치장에 끌려가며 이틀동안 매만 맞고 나온다. 뿐만아니라 정덕호놈한테 소작으로 부치던 땅마저 떼운다. 비로소 첫째는 왜놈들의 법밑에서 자기같은 사람들은 도저히 살아나갈수 없다는것을 깨닫는다. 땅을 떼운 첫째는 살길을 찾아 도회지로 나간다. 그는 인천에 가서 부두로동자로 된다.

한편 선비는 정덕호네 집에서 종처럼 부리운다. 정덕호의 녀편네와 그의 딸 옥점이도 선비를 더욱 구박하고 천대한다. 더는 견딜수 없게 된 선비는 덕호네 집을 뛰쳐나와 먼저 떠나간 간난이를 찾아 서울로 간다.

결국 덕호놈의 착취와 압박으로 말미암아 첫째, 간난이, 선비와 같은 소작인의 아들딸들이 살길을 찾아 도시의 로동판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이다.

소설은 이어 인천을 무대로 하여 이야기를 펼쳐보이고있다.

다만 서적을 통하여 선진사상에 공감된 신철이는 부유한 자기 가정과 인연을 끊겠다고 뛰쳐나와 로동자들속으로 들어간다. 그리하여 인천부두에서 힘겹게 일하면서 첫째와 알게 되고 그에게 착취사회의 《법》의 반동적본질에 대하여서도 깨우쳐준다.

첫째는 피땀을 짜내는 로동생활체험과 선진적인 로동자인 태수

와 철수의 사상적영향을 받으면서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조직의 지시밑에 놈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대동방적공장(간난이와 선비가 일하는 공장이다.)로동자들에게 삐라를 날라다준다.

어느날 낮에 첫째는 지나가는 인천대동방적공장녀공들의 대렬과 마주치게 되였는데 선비와 꼭같은 녀자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 상대녀자도 놀라운 빛을 띄운다. 그는 다름아닌 바로 그 선비였던것이다. 그들은 만나지 못하고 헤여지고만다.

그날 밤에도 첫째는 신철이가 주는 삐라뭉치를 받아가지고 대동방적공장까지 와서 비밀통로로 들이민다. 그러면서 그는 낮에 본 그 녀자가 틀림없는 선비일것이라 생각하며 선비도 이 삐라를 보고 온순하고 예쁘기만 한 선비가 아니라 자기가 가장 믿을수 있는 꿋꿋한 선비가 되여주기를 바란다.

사실 선비는 간난이와 함께 일하면서 계급적으로 빠르게 눈떠간다. 마침내 그는 간난이를 따라 투쟁대오에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감독놈의 무서운 감시와 사나운 채찍에 신음하면서 고치 삶는 가마앞에서 온종일 실을 켜는 고된 로동은 끝내 선비의 육체를 꺼꾸러뜨리고만다. (이 부분부터 선문으로 되여있다.)

한편 인천부두로동자들이 총파업을 일으킨다. 회사측이 당황망조해하는것을 보며 첫째는 로동자들의 단결된 힘에 대하여 크게 느낀다.

경찰이 검거를 시작한다. 첫째도 몸을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때에 신철이가 전향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이런 속에서도 대동방적공장의 로동자가 고된 로동끝에 쓰러졌다는 소식을 받고 첫째는 동지들과 함께 그곳으로 달려간다. 가보니 선비였다. 그렇게도 잊지 못해 마음속깊이 그리던 선비였다. 그것도 이미 숨이 진 선비였다.

첫째는 이 엄혹한 현실앞에서 수천년을 내려오면서도 아직 해결을 보지 못한 인간문제 즉 착취받고 압박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낼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된다.

…

인천의 새벽.

검푸른 회색빛을 띠우고 산뜻하고도 향기로운 공기가 무엇에 봄소식을 전해주는 그 어느날 새벽이다.

부두에는 벌써 몇천명의 로동자가 빽빽하니 모여들어섰다. 그들은 장차 새여오려는 동편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굳은 결심을 하였다.

백동테안경은 붉은 끈을 가지고 머리를 휘두르며 여전히 눈알을 굴리여 로동자들을 바라보고있다. 전같으면 저마끔 붉은 끈을 얻으려고 대가리싸움을 하고 덤벼들것이나 오늘은 백동테안경이 붉은 끈을 보란듯이 팔에다 걸고 그들의 앞으로 왔다갔다하여도 그들은 눈 한번 깜빡하지 않는듯 하였다.

백동테안경은 이상스럽게 생각이 드는 동시에 뭐라고 형용할수 없는 무서운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그는 시치미를 떼고 그중 낯익은 로동자를 불렀다.

《이리 와! 일끈을 줄테니.》

그때 전기불이 꺼풋하고 꺼져버렸다.

《일 안하겠수!》

백동테는 머리를 벅적벅적 긁으며 갑판으로 올라갔다.

축항에는 기선이 죽 들어와서 부두에 대였다. 그러나 로동자들은 손발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바라만 볼뿐이다. 그때 로동자 몇사람은 그들의 대표로 요구조건을 제출하려고 해륙운수조합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들은 그들의 대표 로동자들이 무슨 소식을 전하기까지 깜짝하지 않고 사무실만 바라보고 서있었다. 축항의 기선들은 연기만 풀풀 토하고있다. 그리고 선원들이 죽 나와서 이상한듯이 그들을 바라본다. 전같으면 지금쯤은 짐을 푸느라고 벌떼같이 덤빌터인데 오늘은 이 축항이 쓸쓸하였다. 눈을 달구지바퀴 굴리듯 잠시도 제대로 두지 못하던 백동테안경도 오늘만은 날개 부러진 새모양으로 머리를 푹 숙이고 한편모퉁이에 서있었다. 해가 벌겋게 타올랐다. 그들은 저 해를 바라보면서 단결의 힘이란 얼마나 위대함을 깨달았다. 오늘의 저 해발은 그들의 이 단결을 보기 위하여 저렇게 씩씩하게 솟아오르는듯 하였다. 그들은 저 해발에 비치여 빛나는 저 바다물결을 온 가슴에 안은듯 하였다. 그들의 눈에 비치는 모든

만물은 새로움을 가지고 그들을 맞는듯싶었다. 동시에 무력하고 성명없던 자기들이 오늘 이 순간에는 이 우주를 지배하는 모든 권리란 권리는 다 가진듯이 생각되였다. 자기들이 단결함으로써 기세를 부리던 백동테안경을 위시하여 기선의 기중기며 선원들까지 아주 동작을 잃게 하고 깜짝하지 못하게 하였다.

《얘, 지금 정미소녀공들은 무섭다더라, 저희들끼리 싸이렌을 울리고 막 대항하여 싸우는데 야단이더래!》

한 로동자가 이렇게 말하며 첫째를 돌아보았다. 첫째는 상대를 바라보며 싱긋이 웃었다.

《그런데 우리두 말이다. 우리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저 이게거든, 알아있어?》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첫째를 향하여 겨눈다. 첫째는 그를 바라보며 눈을 껌쩍하였다. 그때 저리로부터 정복순사들이 우르르 밀려왔다. 그래서 한패는 해륙운수조합 사무실을 에워싸고 한패는 이리로 달려와서 군중을 경계한다. 그들은 경관들을 보자 어떤 반항의 불길이 욱하고 치밀었다. 그러나 아직도 사무실에 들어간 동무들이 무슨 소식을 가지고 나오기까지 답답한대로 참아야 될것 같아 꾹 참고있었다. 경관들은 눈을 밝히고 군중틈을 뚫으며 행여나 선동자를 발견할가 하여 주의를 게을리지 아니하였다. 인천의 시민들은 부두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을 구경하기 위하여 골목골목에 나와섰다. 경관들은 끊임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온다. 기마순사들도 달려온다. 그래서 축항을 둘러싸고 무서운 대치로 공기가 팽팽히 긴장되여가는것을 누구나 느낄수가 있었다. 짐실은 기선은 하나, 둘 자꾸 몰려들어와서 우두커니 맹랑하게 서있었다. 그때 요구조건을 제출하려고 해륙운수조합으로 들어갔던 로동자들이 경관들에게 포위되여 나왔다.

《우리들의 요구조건은 틀렸소!》

《해산!》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금줄을 많이 두른 경관의 입에서 해산의 명령이 떨어졌다. 그때 욱하는 무서운 움직임이 들려왔다.

군중들은 분기하여 인천시가를 시위행진까지 하려다가 다수한 검속자를 내였다.

첫째가 집에 돌아오니 주인할멈이 맞받아나왔다.

《저 누가 아까 찾아왔소！》

첫째는 아직까지도 숨이 가쁘게 뛰였다. 그래서 숨을 돌려 쉬인 후에

《누가？ 어떻게 옷을 입은 사람이유？》

첫째는 얼핏 형사？ 신철이를 번갈아 생각하였다. 할멈은 빙긋이 웃었다.

《글쎄 어떻게 옷을 입었던가？… 자세히 생각나지 않어.… 하여튼 곰방 또 오겠다구 어데 가지 말구 기다리라구 하두먼！》

《기다리라고？…》

첫째는 때가 때니만큼 퍼그나 불안한 생각을 하며 눈살을 찌프렸다. 할멈보고 무슨 말을 더 물어보려다가 그만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누가 왔댔을가？ 신철이가 무슨 급한 일이 있어 오지 않았나？ 하며 망설일 때 문이 버쩍 열린다. 첫째는 깜짝 놀라 바라보았다. 부두에서 낯익히 본 사나이였다. 더욱 신철의 집에서 몇번 보기도 하였다.

《동무가 첫째동무요？》

그는 방안으로 들어오며 이렇게 물었다. 첫째는 어떤 영문인지 몰라 두리번두리번하다가

《예…？》

첫째가 그의 내미는 손에 악수를 건네자

《동무 큰일났소！》

첫째는 무슨 말인가 하여 그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아까 새로 한시쯤 해서 신철동무가 잡혔수.…》

첫째는 그제야 눈을 크게 떴다.

《잡혔어유？ 어디서？》

《집에서 잡혔는데 지금 그 집 주위에는 경계가 심하오. 동무도 이 집을 곧 옮겨야겠수. 우선 내가 집 하나를 얻어놨으니 그리 옮겼다가 다시 또 적당한데로 옮기오. 어서 빨리 일어나시유.》

방안을 휘둘러보며 일어났다. 첫째는 신철이가 잡혔다니 앞이 아뜩하였다.

물론 신철이 아니라도 자기들의 배후에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동무들이 있을것을 뻔히 아나 그러나 신철의 지도를 받아오던 첫째는 마치 어린애가 어머니를 떨어진듯 한 형용할수 없는 감

정에 안타까왔다. 더구나 저 일이 끝도 나기 전에 잡혔으니… 하며 첫째는 머리를 숙였다. 그는 첫째의 귀에다 입을 대고 뭐라고 수군수군하고 나가버렸다. 첫째도 그뒤를 따라 동무가 얻어놨다는 집으로 옮아오고말았다. 낯선 방안에 홀로 앉아있는 첫째는 일만가지 생각에 가슴이 뒤설레였다. 어느덧 날도 저물어진 모양이다.

첫째는 벌렁 누워버렸다. 부두로동자들의 움직임이 자꾸 눈에 어른거리고 신철의 결박당한 모양이 떠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바라보니 벌써 밤이 이 방안을 찾아왔다. 첫째는 일어났다. 그때 문이 부시시 열리며

《웨? 불도 안 켜시우?》

《동무요…》

첫째는 딴놈이면 한개를 붙이려다가 주저앉았다. 웬일인지 누구와 실컷 몸부림을 쳐가며 싸웠으면 이 안타까운 맘이 풀어질것 같았다.

《어찌되였수? 부두로동자들은?》

첫째는 가만히 말하였다. 동무는 전등을 켜놓고나서 사온 빵을 가지고 첫째곁으로 왔다.

《자시우— 그런데 부두로동쟁의는 딴 동무들이 맡아보기로 했으니 곧 련락이 있을게요!》

첫째는 빵을 들어 무질러 먹으며 끄덕이였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뜨거운 사랑이 무언중에 알리여진다.

《어서 다 자시우.》

동무는 일어난다. 첫째는 인사도 없이 동무를 보낸 뒤에 전등불을 죽이고 빵을 다 먹었다. 그리고 우두커니 앉아서 부두로동자들의 장래 승리를 생각하며 빙긋이 웃었다. 대동방적공장을 눈앞에 그리며 그것들은 왜 가만히 있어? 답답해서 원! 선비가 정말 그 선비인가? 하였다. 그도 눈이 떠지였으면… 할 때 신철이 잡힌 생각이 다시 떠오르며 가슴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화끈 달기 시작했다.

×

공장에서 야간교대를 마치고 나오는 선비는 얼핏 그의 손에 무엇인가 쥐여지기에 돌아보니 간난이가 시치미를 뚝 따고 옆으로 지나친다. 그는 간난이를 보고야 그의 손에 쥐여진것이 무엇이라는것

을 짐작하며 꾹 쥐였다.

그들은 함께 밀려나오는 효애의 눈치를 살피였다. 효애는 여전히 뭐라고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였다. 선비는 그의 말은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고도

《응응 그래…》 하였다.

효애는 그의 방으로 들어가며 이른다.

《그럼 래일 꼭 그래?》

선비는 무슨 말끝인지 알아듣지 못하였으나 다시 묻지는 못하고 돌아섰다. 선비는 상층으로 부리나케 달아올라서 그의 방으로 들어왔다. 마침 동무들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 그는 가슴을 울렁거리며 줌안의 조그만 종이를 펴보았다.

《밤 세시쯤 해서 밖의 변소로 나와다고.》

선비는 누가 볼세라 하여 얼른 종이를 입속에 넣어 씹었다. 그때 웃층으로 올라오는 신발소리가 요란스레 들리였다. 선비는 자리를 펴기 시작하였다.…

숙직실시계가 세시를 치는것을 듣고 어렴풋이 잠들었던 선비는 놀라 일어났다. 그리고 베개를 자리속에 집어넣어서 마치 사람이 누운것처럼 꾸미고 그는 문밖을 벗어났다.

그는 2층에서 내려와서 큰 문을 소리나지 않게 비틀어 열고 나왔다.

기숙사 큰 문우에 환하게 켜놓은 전등불빛이 그의 온몸을 분명히 나타내준다. 그는 깜짝 놀라 어둠속으로 얼른 몸을 피하였다. 그는 다시 사방을 둘러보며 혹시 감독이 나와있지나 않았는가? 하는 불안에 한참이나 머뭇거렸다. 그러나 아무것도 눈에 비치지 않으니 그는 발길을 옮겼다. 그가 변소까지 오니 간난이는 벌써 와서 있었다.

《기다렸니?》

변소간으로 들어가며 선비는 소곤거렸다.

간난이는 선비 귀에다 입을 대고

《이제 방금 감독이 이앞을 지나갔다.》

선비는 흠칫하며 뒤를 흘끔 돌아보았다. 그들은 마주앉고 한참이나 말을 건네지 않았다. 간난이는

《내 잠간 가서 동정을 보고 올것이니 여기 있거라.》

이렇게 말하며 그는 변소밖으로 나갔다. 선비는 우두커니 서서 귀를 기울였다. 한참후에 간난이가 돌아왔다. 그는 숨이 차서 헐떡헐떡하면서

《감독이 기숙사로 들어가는것을 보고 왔다. … 그런데 선비야, 지령에 의하여 모든것을 네게 인계하고 나는 오늘 밤 이 공장을 벗어나야 하겠다!》하며 선비의 손을 꽉 쥐며 희미한 변소간 전등불에 비치는 선비의 얼굴을 뚫어져라 하고 바라보았다. 선비는 너무나 뜻밖의 말에 멍하니 간난이를 보며 어깨가 무거워지는것을 그는 깨달았다.

《그렇게 갑자기… 오늘 밤으로 뭐?》

이때 우수수하는 소리에 그들은 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바람소리다.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소음은 더욱 요란하다.

《아무렇고 긴급한 지령이다. 밖에서 무슨 일이 생겼나보다.…》

선비는 두다리가 후루루 떨리며 가슴이 무섭게 울렁거린다. 더구나 언니 겸 동무이던 간난이가 그의 앞을 떠나갈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하였다.

《선비야, 우리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싸워야 한다! 너도 맹세하였지?》

간난이 눈은 흥분으로 빛났다. 선비의 볼에 볼을 맞대였다.

《념려말라. 나가서 몸조심해라!》

선비는 간난이를 쓸어안았다. 간난이는 선비의 눈물을 씻어주었다.

《선비야!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락심말고 싸워야 한다. 이렇게 눈물을 흘려서는 못쓴다. 대답해라. 어서 난 가야겠다.…》

그들은 변소밖을 나왔다.

간난이와 선비는 살살 기여서 담밑까지 왔다. 간난이는 바지가랭이속에서 바줄을 꺼내들었다.

《네 어깨에 올라설테니 단단히 힘을 써라. 그리고 이 바줄을 꽉 붙들어다오.》

그때 바람이 휙 몰아온다. 그들은 사람의 신발소린가싶어 휘끈 돌아보았다. 바람은 점점 기세를 더하여 불었다. 그들은 바람소리로 알았을 때 겨우 안심은 하였으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숨이 차왔다. 번번이 바람소리인줄을 알면서도 바람이 불 때마다 뒤에서 감

독이 칵 내닫는듯 하였고 그들의 몸에 어떤 손이 감기는듯 하여 등어리에 땀이 삐쩍 나군 하였다.

…

선비는 언제부터인지는 알수 없으나 이렇게 맥을 놓으면 몸이 오실오실 추우면서 이마에는 땀이 척척하게 흐르군 하였다. 이런 때마다 그는 따뜻한 온돌방이 그리웠다. 그의 어머니와 단 둘이서 살던 그 초가집—나무 반단만 넣으면 잘잘 끓던 그 아래목, 그 아래목에서 이불을 막 쓰고 땀을 푹 내였으면 그의 몸은 가뿐해질것 같았다.

그가 한잠 자고 어느때인가 눈을 번쩍 뜨니 유리창에 달이 둥글하였다. 그는 이마에 척척하게 흐른 땀을 씻으며 달을 향하여 누웠다. 아까 감독이 묻던 말을 다시금 생각하니 그는 감독이 그를 의심하지 않는것을 짐작할수가 있었다. 그러니 그 일때문에 졸이던 맘은 좀 풀리나 그러나 어깨가 무겁도록 짊어진 이 임무를 어떻게 하여야 잘 리행할것인가가 난처하고도 답답하였다. 간난이가 가르쳐주던 공장내부의 조직상황, 밖의 동지들과 민활하게 련락을 취하는 방도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는 문서며 삐라 등을 교묘하게 배포할것들이 그의 머리에 번갈아 떠오른다. 한참이나 생각하던 선비는 좀 더 있다가 간난이가 안 나갔으면 내 이렇게 답답하지 않을것을… 하며 그가 무사히 나갔는가 하였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렇게 갑자기 간난이를 불러냈는가? 그들이 혹 잡히지나 않았는지? 할 때 적지 않은 불안이 일었다. 동시에 미지의 동지들이 모두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와 같은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지?…혹 …첫째도 그들중의 한 사람인것을 자기가 모르는가… 하였다.

그러나 그때 월미도 가는 길에서 첫째를 만났을 때 일을 미루어 생각하니 첫째는 어떤 공장내에 있지 않고 그날그날 품팔이를 하는것 같았다. 그러니 웬걸 지도자를 만났으리… 아직도 그는 암흑한 생활속에서 그의 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동분서주만 하는것 같았다. 이렇게 생각하고난 선비는 첫째를 꼭 만나보고싶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먼저 계급의식을 전해주고싶었다. 그러면 그는 누구보다도 튼튼한 그리고 용감한 투사가 될것 같았다. 그것은 선비가 확실하게는 모르나 그의 과거생활이 자신의 과거에 비하여 못하지 않은 그런 쓰라린 현실에 부대끼였으리라는것이다.

…

선비는 이제야 자기의 병이 심상하지 않음을 알았다. 그리고 기침할 때마다 침에 섞여나오는 붉은 실 같은 피도 더욱더욱 관심되였다. 래일은 병원에를 가야지! 꼭 가야지! 하였다. 그리고 예금통장에 적혀있는 돈액수를 회계하여보았다. 선비가 이 공장에 들어온지가 벌써 거의 1년이 되여온다. 그 동안 식비를 제하고 그리고 구두값으로, 일용품값으로 제하고 겨우 3원 5전가량 남아있다. 이제 그것으로 병원에까지 가면 도리여 빚을 지게 될것이다. 무슨 병이기에 3원씩이나 들가! 그저 극상해야 1원어치 약 먹으면 낫겠지? 하였다.

그는 벽에 걸린 커다란 패종시계를 바라보았다. 새로 두시 십분을 가리키고있다. 선비는 그의 다는 가슴에나마 한줄기의 희망과 기쁨을 느끼고있었다.

실이 끊어져 너풀거리므로 선비는 얼른 실끝을 이으며 감독의 눈에 띄우지 않는가 하여 머리를 들 때 앞이 아뜩해지며 쓰러지려 하였다. 그 바람에 그의 바른손이 가마물속에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는

《아!》하고 비명을 내며 얼핏 손을 챘다. 그때 손은 이미 뜨거운 물에 담기였었으니 아픈지 어떤지 분명하지 않았으나 이윽고 손과 팔이 저리고 쓰리여서 죽을 지경이였다.

《어데 몹시 닿았수?》

선비는 머리를 들고 바라보았다. 그 순간에 자기에게 말을 던진것이 고치통을 들고온 남직공이라는것을 알자 첫째의 그 얼굴이 휙 떠오른다. 선비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머리를 돌렸다. 남직공은 멍하니 섰다가 돌아간다. 전같으면 부끄럼이 앞을 가리웠을터이나 오늘은 온몸이 아프고 팔목까지 데였으니 그런지 부끄럼도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저 남직공에게 무엇인가 호소하고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꼈다. 그리고 그가 첫째라면 선비는 서슴지 않고 그의 몸에 피로해진 자신의 몸뚱이를 맡기고싶었다. 선비는 못 견디게 쓰린 팔목을 혀끝으로 핥으며 돌아가는 남직공을 흘끔 바라보았다. 눈물이 앞을 가리워 그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인다. 선비는 아무래도 이 밤을 새워 일할것 같지가 않았다. 그는 시계를 바라보면서 감독이 이리로 오면 말하겠다 하고 생각하였다.

멀리 서있는 감독이 그림자같이 눈앞에 희미하게 어른거리므로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리였다. 그때 감독이 거의 앞을 지나치는듯 하여 입을 떼려 하였다. 그 순간 기침이 칵 나오며 가슴에서 가래가 끓어올라오므로 그는 얼핏 입에 손을 대였다. 선비는 기침이 뒤를 이어 자꾸 나오려는것을 참으려고 애를 쓸 때 마침내 그의 입에 댄 다섯손가락새로 붉은 피가 주르르 흐르며 그만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첫째는 어떤 토굴속같은 방안에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매일같이 로동하던 그가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있으려니 이 이상 더 안타깝고 괴로운 일은 또 없는것 같았다. 그러나 숨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므로 동무들이 전전푼푼을 갖다주는것을 가지고 요새 이렇게 들어앉고만 있었던것이다.

잡생각이라고는 해본적이 없는 그도 하루종일 하는 일이 없으니 별의별 생각이 다 일어나군 하였다. 그는 요새 신철이를 몹시 생각하였다. 철수를 통하여 신철의 소식을 가끔 들으나 언제나 시원치 않은 소식이였다. 어서 빨리 나가서 손에 손을 마주잡고 전날과 같이 일을 했으면 좋을터인데… 여기까지 생각한 첫째는 월미도를 향하여 가던 긴 행렬을 다시금 눈앞에 그려보았다. 그리고 선비의 놀라던 모양이 문득 생각난다. 참말 선비였던가? 그가 참말 선비라면 어느때든지 만나볼것 같았다. 그때 그는 어제 밤 철수에게로 나왔을 때 대동방적공장의 보고를 듣고싶은 생각이 부쩍 났다. 그리고 속이 달아 못 견디겠으므로 밖으로 나왔다.

그가 철수의 집까지 오니 마침 철수는 집에 있었다. 철수는 소리를 낮추어

《서울서 어떤 동무편에 신철의 소식을 알았소.…》

첫째는 머리를 번쩍 들었다. 그리고 그 커다란 눈을 둥그렇게 떴다.

《불기소가 되여서 나왔대유.… 리유는 사상전환이라우.》

《전환？》

첫째도 무의식간에 그의 말을 받고나서 이 말을 믿어야 할가？ 믿지 않아야 옳을가？ 갈피를 잡을수가 없었다. 그리고 갑자기 뭐라고 형용할수 없는 의혹이 그의 가슴을 꽉 채우고말았다. 철수는 첫째의 락심하는 모양을 살피고

《동무! 신철이가 전향했다는 일이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소위 지식분자란 그렇지요. 우리와는 처지가 다르니까! 신철이는 나오자 M국에 취직하고 더욱 돈많은 계집을 얻고 했다우.》

취직하고… 돈많은 계집을 얻고…? 이 새로운 말에 첫째는 무엇인가 번개같이 그의 머리를 찔러주는것이 있었다.

첫째는 그제야 신철에게 속은것을 깨달았다.

입으로는 계급이니 인간사회의 력사발전이니 하며 진리를 떠벌이다가 정작 원쑤앞에서는 그 진리를 헌신짝같이 내버리고 굴복해버리는 그런자를 믿었던것이 통분했다.

그때 밖에서 신발소리가 급하게 나더니 문이 홱 열리였다. 그들은 벌떡 일어났다.

그들은 뒤문편으로 다가서며 바라보았다.

간난이였다. 철수는 나무라듯이 간난이를 보았다. 간난이는 숨이 차서 한참이나 머뭇머뭇하다가

《지금 곧 와주셔야 하겠수. 네? 빨리…》

간난이는 겨우 이렇게 말하고 홱 돌아서 나가버렸다. 그들의 놀란 가슴은 아직도 벌렁거린다. 첫째는 간난이를 볼 때 몹시 낯이 익어보이는데도 얼핏 누구인지는 생각나지 않았다. 철수는 첫째를 돌아보았다.

《같이 갑시다. 아마 죽어가는 모양요.》

첫째는 철수의 눈치를 살피며 그의 뒤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철수는 급하게 걸으며 앞뒤를 흘끔흘끔 돌아본 후에 가만히 말을 꺼냈다.

《어제 밤 대동방적공장에서 녀성동무 하나가 병으로 인하여 해고되였는데…》

그때 자전거가 휙 지나치자 물고기비린내가 훅 끼친다. 첫째는 물고기장사를 눈결에 보고 철수의 말을 다시한번 속으로 되풀이하여보았다. 그때 그는 가슴이 묵직함을 느꼈다.

《병인즉 폐병인데… 후…》

철수는 그 조그만 눈을 쭉 찢어지게 뜨며 입술을 꾹 다물어보인다. 그때 첫째는 멀리 수림우로 보이는 대동방적공장의 굴뚝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시꺼먼 연기를 풀풀 토한다. 첫째는 선비도 그런 병에나 걸리지 않았는지? 하였다.

그들이 간난이의 집까지 왔을 때 간난이는 맞받아나왔다. 그리

고 입을 씰룩거리며 무슨 말을 하기는 하나 음성이 탁 갈리여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수가 없었다. 그들은 눈치를 채고 나는듯 방으로 뛰여들었다. 철수는 병자의 곁으로 와서 들여다보며 흔들었다.

《동무! 정신 좀 차리우, 동무!》

병자의 몸은 벌써 싸늘하게 식었으며 얼굴이 파랗게 되였다. 철수는 후— 하고 한숨을 쉬고 첫째를 돌아보았다. 가슴을 조이고 섰던 첫째가 한걸음 다가서며 들여다보는 순간

《선비!》

그도 모르게 그는 소리를 지르고나서 우뚝 섰다. 그의 앞은 아뜩해지며 어떤 암흑한 벼랑아래로 채여 떨어지는것 같이 느껴졌다. 그가 어려서부터 그리워하던 이 선비! 한번 만나보려니… 하던 이 선비! 이 선비가 인젠 저렇게 죽지 않았는가!

찰나에 그의 머리에는 아까 철수에게서 들었던 말이 번개같이 떠오른다. 《돈많은 계집을 얻구 취직을 하구…》 그렇다! 신철이는 그만한 여유가 있었다. 그 여유가 그로 하여금 전향을 하게 할게다. 그러나 자신은 어떤가? 과거와 같이 그리고 눈앞에 나타나는 현재와 같이 아무러한 여유도 없지 않는가! 그러나 신철이는 길이 많다. 신철이와 나와 다른것이란 여기에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첫째는 눈을 부릅뜨고 선비를 바라보았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사모하던 저 선비! 안해로 맞아 아들딸 낳고 살아보려던 선비! 한번 만나 이야기도 못해본 그가 결국은 시체가 되여 바로 눈앞에 놓이지 않았는가!

이제야 죽은 선비를 옛다 받아라! 하고 던져주지 않는가!

여기까지 생각한 첫째의 눈에서는 불덩이가 펄펄 나는듯 하였다.

그리고 불불 떨었다. 이렇게 무섭게 첫째앞에 나타나보이는 선비의 시체는 차츰 시꺼먼 뭉치가 되여 그의 앞에 칵 가로질리는 것을 그는 눈이 뚫어져라 하고 바라보았다.

이런 일이 왜 생기는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인간문제가 아니고 무엇일가!

이 인간문제! 무엇보다도 이 인간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인간은 이 인간문제를 위하여 몇천년을 두고 싸웠다. 그러나 아직 이 문제는 풀리지 않고있지 않는가! 그러면 앞으로 이 당면한 큰 문제를 풀어나갈 인간이 누굴가?

진 달 래

《진달래》는 시인 박팔양이 해방전에 창작한 대표적인 서정시이다.

박팔양(1905—1988)은 경기도 수원군 안룡면 곡반정리의 한 빈농가정에서 막내아들로 출생하였다.

박팔양은 서울재동보통학교를 거쳐 열일곱살에 서울배재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1921년에 서울법학전문학교에 입학한 박팔양은 졸업후 사법기관에 들어가 일할데 대한 권고를 거절하고 《동아일보》사에 기자로 들어갔다.

그는 1937년까지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외일보》 등 여러 신문사로 자리를 옮겨가며 많은 시작품들을 창작하였다.

박팔양에게서 진정한 시창작의 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이후에야 환히 열려지게 되였다.

박팔양은 해방후 당보인 《정로》의 편집국장, 《로동신문》 부주필, **김일성**종합대학 신문학강좌장 등 중요한 위치에서 사업하면서 많은 시작품들을 창작하였으며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종군작가로서 금강전투, 대전해방전투에 직접 참가하였다.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끝나자 그는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상무위원과 부위원장의 중책을 맡고 사업하였다.

해방후에 창작된 그의 대표적인 시작품들로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의 영웅적현실을 노래한 서사시《눈보라만리》,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어버이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려는 우리 인민들의 헌신적인 투쟁을 노래한 서정시들인 《해빛같이 눈부신 쇠물이 쏟아지네》, 《승리자들의 함성》, 《수령님께서 오시다》, 《노래는 강산에 울려퍼지네》, 조옥희영웅의 투쟁을 형상한 서사시 《황해의 노래》 등이다.

《진달래》는 박팔양이 1930년에 창작한 서정시이다.

☆

—봄의 선구자를 노래함—

날더러 진달래꽃을 노래하라 하십니까
이 가난한 시인더러 그 적막하고도 가냘픈 꽃을
이른봄 산골짜기에 소문도 없이 피였다가
하루아침 비바람에 속절없이 떨어지는 꽃을
무슨 말로 노래하라 하십니까？

노래하기에는 너무도 슬픈 사실이외다
백일홍처럼 붉게붉게 피지도 못하는 꽃을
국화처럼 오래오래 피지도 못하는 꽃을
노래하느니 차라리 붙들고 울것이외다

친구께서도 이미 그 꽃을 보셨으리다
화려한 꽃들이 하나도 피기 전에
찬바람 오고가는 산허리에 쓸쓸하게 피여있는
봄의 선구자 연분홍빛 진달래꽃을 보셨으리다

진달래꽃은 봄의 선구자외다
그는 봄소식 먼저 전하는 예언자이며
봄의 모양을 먼저 그리는 선구자외다
비바람에 속절없이 그 엷은 꽃잎이 짐은
선구자의 불행한 수난이외다

어찌하여 이 가난한 시인이
이같이도 그 꽃을 붙들고 우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선구자들 수난의 모양이
너무도 많이 나의 머리속에 있는 까닭이외다

노래하기에는 너무도 슬픈 사실이외다
백일홍처럼 붉게붉게 피지도 못하는 꽃을
국화처럼 오래오래 피지도 못하는 꽃을
모진 비바람 만나 흩어지는 가엾은 꽃을
노래하느니 차라리 붙들고 울것이외다

그러나 진달래꽃은
오려는 봄의 모양을 머리속에 그리면서
찬바람 오고가는 산허리에서
오히려 웃으며 말할것이외다
《오래오래 피는것이 꽃이 아니라
봄철을 먼저 아는것이 정말 꽃이라고》—

〔명언〕

황 금 산

《황금산》은 송영이 해방전에 창작한 희곡작품이다.

송영(1903—1979)은 해방전후를 통하여 많은 소설과 희곡을 창작한 소설가이며 극작가이다.

그는 서울시 서대문의 사무원가정에서 태여났는데 그의 본래이름은 송무현이였다.

송영은 서울배재고등보통학교를 다니다가 학비를 대기 어려워 도중에 학교를 그만두고 운송점, 우편국 등에서 사무원생활을 하다가 일본에 가서 로동생활을 하면서 문학수업을 하였다.

1922년말에 귀국한 송영은 1923년에 진보적인 작가들과 함께 프로레타리아문예단체인 《염군사》(《염군》이란 《불꽃들의 무리》라는 뜻)를 조직하고 1925년에는 《카프》를 조직하는데 참가하였으며 《카프》의 기관지들인 《조선문예》, 《별나라》 등의 편집을 하면서 작품창작에 정력을 기울였다. 그후《카프》사건으로 두차례에 걸쳐 일제경찰에 체포되여 감옥생활을 하였다.

송영은 처음에는 아동문학과 소설을 쓰다가 1920년대말부터 희곡을 창작하기 시작하였다. 해방전에 창작한 희곡작품들인《일체면회를 거절하라》,《신임리사장》,《황금산》등에서 그는 당시 사회의 모순을 폭로하고 친일적인 매판자본가들의 착취자적본성과 속물근성, 타락상을 풍자적으로 보여주었다.

송영은 해방후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와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북조선연극인동맹 위원장으로 사업하면서 작품창작을 계속하였다.

송영은 해방후 우리 인민들의 창조적로동과 새로운 정신도덕적풍모를 형상한 희곡 《자매》, 《나란히 선 두 집》, 남조선괴뢰도당의 반인민적본질을 폭로한 풍자극 《금산군수》를 창작하였다.

그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종군작가로 활동하면서 희곡 《그가 사랑하는 노래》, 력사극《강화도》를 창작하여 싸우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크게 고무하였다.

송영은 전후시기에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소설 《나는 다시 강을 건너간다》, 가극대본《밀림아 이야기하라》, 희곡《불사조》등을 창작하여 우리 인민들의 혁명교양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황금산》은 송영이 1937년에 창작한 희곡작품이다.

희곡의 사건은 서울근교에 있는 실업가(낡은 사회에서 상공업이나 금융업 등의 기업을 경영하는 자본가) 리문호의 별장에서 벌어진다.

리문호에게는 세 딸이 있는데 맏딸 금순이는 사회운동을 하는 청년을, 둘째딸 옥순이는 실업계의 청년을 남편으로 맞았다. 그런데 첫째사위는 해외로 망명하고 둘째사위는 사기죄에 걸려 감옥살이를 하는통에 두 딸모두가 과부가 되여 친정에 와있다.

둘 다 《똑똑한 청년》을 사위로 삼았다가 랑패를 보았다고 생각하게 된 리문호는 막내딸(경순)만은 《순박하고 정직해서 자기의 한 가정이나 원만하게 지탱해나갈만 한 청년》, 다시말하여 오히려 좀 모자랄사 한 청년을 사위로 삼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1년내내 물색하던 끝에 찾아낸 황금산이라는 청년을 그 아버지와 함께 오늘 집에 와주십사 하고 청해놓았다. 이를테면 경순이의 선을 보이고 아예 혼약을 맺자는것이다.

사실 황금산이란 어떤 청년인가? 보통학교(일제때의 소학교)를 열네해동안이나 다녔는데도 결국엔 졸업을 못하고 그만둔 바보이다. 그러면 리문호는 그것을 알면서도 어째서 시세에 밝고 대단히 똑똑한 경순이의 대상자로 그런 바보를 택하게 되였는가? 황금산이 바로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금융업자의 아들이라는데 있었다.

그런데 그 당자인 경순은 아버지의 명령을 귀등으로 흘려보낸다. 경순이는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고 손님맞을 차비를 하라는 아버지의 분부를 뿌리치고 어디론가 휙 나가버린다.

리문호는 바빠났다. 오늘 약혼식을 하겠다고 이미 오목사를 청해들였지, 한시간후에는 손님들이 와닿을테지.… 그래서 경순이를 무조건 찾아 데려오라고 비서와 식모를 사방으로 띄우는 한편 점심준비로 바삐 돌아가는 두 딸을 불러내온다. (그다음부터가 선문이다.)

리문호는 딸들에게 경순의 대역(대신하여 하는 역)을 하라고 했다가 거절을 당한다. 하는수없이 식모를 경순의 대역으로 내세운다.

드디여 뒤에 온다던 황금산의 아버지가 먼저 들어왔다가 《경순》이 례절이 없다면서 나가버린다. 그다음 황금산이 들어온다. 그때에는 경순이도 비서한테 이끌려와있었으므로 넷이나 되는 녀자를 상대하여 황금산이 어리벙벙해진다. 그는 먼저 금순이한테 《인사말》을 건넨다. 금순이가 자기는 아니라고 하자 다음에는 옥순에게, 그다음에는 경순에게, 그다음엔 또 식모에게 꼭 열흘동안이나 련습해가지고온 《인사말》을 외워댄다.

폭소가 터진다.

비로소 리문호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황금산을 돌려보낸다.

때 1937년 여름

곳 서울의 근교리의 별장

인물

리 반백의 실업가

금순 큰딸, 망명객의 처

옥순 둘째딸, 사기사의 처

경순 셋째딸, 녀고출신의 미혼녀

식모

비서 리의 심복

오목사 리의 지기

황 고리대금업자

황금산 백치, 황의 아들

제2장

무대

정면 조금 높은 곳은 조그마한 정자, 정자안에는 등나무원탁 한개와 그 두리에는 등의자가 3~4개, 우편은 별장, 본관과 통하는 길, 좌편은 조그마한 돌계단, 그아래로는 내가 흘러간다. 돌계

단우에는 각색의 화분, 정자앞에는 등나무덩굴, 그아래에는 길다란 의자 한개, 정자뒤는 록음, 정자의 왼편 옆 돌계단파의 사이에는 뒤산 록음속으로 올라가는 길, 그곳도 조그마한 돌계단. 삼복중. 1장보다 한시간 늦은 뒤

…

△ 금순이는 행주치마, 옥순이는 에프론을 두르고 등장, 모두 팔들을 걷었다.

금순 아버지, 부르셨어요?

옥순 아버지, 웨 그러세요?

리 응 거기들 앉아라.

금순 에구, 화로에다 뭘 놓고 나왔는데요.

옥순 저는 화채를 만들다가 왔는데요.

리 글쎄, 급히 의논할 일들이 있으니 거기들 좀 앉아라.

금순 별안간에 무슨 의논이세요?

옥순 지금 손님 오실 시간이 다 되질 않았습니까?

리 글쎄, 그러니까 말이지.

△ 금순, 옥순—그대로 주춤거린다.

리 어서들 앉아라. 글쎄 썩 급한 일이니.

금순 (앉는다.)

옥순 (앉으면서) 또 앉아야 말이 나오시나요.

리 엥히, 참, 말은 제기… (참으며 퍽 큰 목소리로) 얘들아, 정말이지 이거 큰일났다. 경순이 신랑될 사람의 부자가 오늘 나와 경순이와 넷이 만나자고 약속을 했는데 정작 경순이가 없으니 이걸 어떡하니.

옥순 이왕 그런걸 어떡합니까. 다음으로 연기를 해보시죠.

금순 참, 그러시는수밖에 없으시죠.

리 그 참, 너희들은 속시원한 소리들만 하는구나. 그이들은 신용이라면 생명같이 아는 인격자들인데 될번 한 소리냐.

금순 그럼 어떡합니까?

리 어떡하는게 뭐야. 괜히 한번 신용을 잃으면 그만 성이 날터이니 그렇게 좋은 자리를 놓칠것이 아니냐.

옥순 그래두 할수 없죠. 하필 신랑감이 그 사람밖에 없나요?

리 허, 그 참, 너희들 괜히 늙은 애비 복장 터지는 꼴이 보고싶으

냐. 에구 참 답답해.
옥순 그럼 무슨 별도리가 있어요?
리 (화를 내다가 참으며) 그러니까 말야, 무슨 좋은 방법을 생각해봐야지. (시계를 보며) 허, 이거 시간이 다 되여가는걸…
금순 아니 무슨 방법에요?
리 저어, 저어…그런데 말야, 너희들중에 누구든지 이번 청을 좀 들어줘야겠다.
금순 그게 뭐 어렵습니까.
옥순 청하실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이며는 응당히 저희들이 복종을 해야죠.
리 (만면 희색) 암 그렇지, 그렇구말구. 그래야 하지—그런데 말야, 지금 꼭 한가지 묘안을 생각해보았는데 말야…
금순 네.
리 저, 너희들중에 누구든지 경순이 대역을 좀 해라.
금순 네?
옥순 아니 어떻게요?
리 너나 너나 말야, 오늘만 경순이 행세를 해달란 말야.
금순 아이 망측해라.
옥순 (발끈 성을 내며) 아이구 아버지두.
리 안야 그런게 아니다. 워낙 그 신랑될 청년이 대단 천치라더라. 그러니까 한번쯤 봐가지고는 다음에 또 봐도 누가 누군질 구별을 못할게 아니냐.
옥순 (일어나며) 아버지는 망녕이 나셨어요. 아니 그따위 바보녀석에게 딸을 내주려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두 아니고 둘씩 셋씩 다 망신을 시켜가면서요. 아니 아버지는 체면도 없으시고 렴치도 없으세요. 아니 그리고 저희들은 오장도 없고 정신도 없는 제웅인줄 아세요. 아니 웨 저희가 물건야요. 견본노릇을 다 하라시게. 참 아버지두… (울듯이) 뭐 아버지는 우리들을 업신여기셔서 그리시지. 난 이 집에 아니 있을테야요. 인제는… (퇴장)
리 허 그 애는, 얘얘 악아… 허 저건 남 속도 모르고 조렇게 팔팔 뛰나. 엥히 참.
금순 (정색을 하고 그러나 침착하고 간절하게) 아버지, 이번 일만은 그만

두세요.

리 (반동적으로 화를 내며) 뭐?

금순 글쎄 뭣때문에 그따위 바보에게 경순이를 주시렵니까?

리 바보? 참 바보가 좋다. 지금세상에 바보아닌 젊은 녀석들은 하나도 살림을 못할 녀석들야. 달아나지 않으면 잡혀가기밖에 더하니. 난 바보가 좋더라. 젊은 계집의 눈물만 안 내주고 살면 그만이지 뭐냐? 난 참 바보가 좋더라.

금순 아버지, 그런게 아니예요. 아버지, 잘 생각해 하세요. (수연히 퇴장)

리 허 이것 큰일났군.… (사이) 음, 별수 없군. (안을 향하여) 여보게 식모!

식모 (등장) 네?

리 여보게, 오늘 잠간 작은아씨노릇 좀 하게.

식모 (놀라며) 아니 어떻게요.

리 어떻겐 뭐이 어떻게야. 아씨의 옷을 입고 아씨같이 트레머리를 하면 그만이지.

식모 아이구 령감님두 별안간에 망녕이십니까.

리 망녕은 무슨 망녕야. 어서 아주 급하니.

식모 글쎄 제가 어떻게…

리 뭘 어떻게야. 그럼 지금 작은아씨가 안 계신걸 어떡하나. 뭐 그리 어려울것이 없네. 잠간동안이니까.

식모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작은아씨를 따라가오.

리 그게 다 문제가 안야.

식모 그런데 아씨를 대신하란 말씀이예요?

리 글쎄 그건 내 차차 알으켜줄게. 자 어서 작은아씨 옷이나 한벌 입고 머리를 좀 틀어올리구.

식모 어떻게요.…

리 들어가서 큰아씨나 둘째아씨께 머리를 좀 고쳐줍시사고, 그리고 옷하고 구두나 신고 나와, 얼른!

식모 (어름어름하다가) 네. (퇴장)

리 (시계를 보고) 허 이거 큰일났군. (초조해한다.)

식모 (울듯이 달음박질해나온다.)

리 아니 웨 그냥 나오나?

식모 아씨들께 야단만 만났어요.
리 뭐? 이런 버릇없는 년들 봤나. 가만있게, 내 얼른 다녀 나올게 … (분연히 퇴장)
식모 아니 이건 별안간에 무슨 일야. 아니 어떻게 내가 그 신식아씨의 흉내를 내누!
리 (옷, 구두, 빗 등속을 가지고 분연히 나오며) 엥히 건방진 년들 같으니, 저희들이 뭣들을 안다구들 그 모양야. 아니 그럼 또 우리 경순이를 저희들같이 생과부를 만들어달란 말인가. 엥히 여보게, 자 어서 바꿔입게 어서…
식모 글쎄 어떻게요.
리 잡말말고 어서 입어.
식모 (옷을 집어보며) 아이구 저는 조끼치마는 입어보지를 못했는데요.
리 입으면 입는거지. 어서 자, 얼른 입어. (돌아선다.)
식모 (정자속으로 들어가서 돌아서서 치마와 적삼을 입는다. 몇번 다시 입는다.)
리 다 입었나?
식모 네, 에구 거북해요. 정갱이가 어떻게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똑 옷 안 입은것 같애요.
리 어, 잡말 그만두구 얼른 구두를 신어.
식모 (양말을 신는다.) 아이구 퍽도 길다. (억지로 신고 구두를 신다가) 아이구 령감마님!
리 웅.
식모 구두만은 못 신겠어요. 볼이 좁아서요.
리 그래도 참고 신어. 허 그 참 잡말두 심하이. 자 어서!
식모 (신고서) 아이구…
리 얼른 내려와.
식모 (내려오다가 넘어진다.) 아이구 뒤뚱거리면서 걸음이 걸려야지요.
리 그 참 자네야말로 바볼세. 자 얼른.
식모 (층층대를 앉아서 기여내려와서 억지로 선다. 등나무탁자를 붙잡고 겨우 선다.) 아이구 발야. 령감마님, 아씨노릇을 아주 한참 합니까? 아이구.
리 허, 안야. 자 어서 머리를 틀어야지.
식모 아이구 그건 정말 할줄 모르는데요.
리 뭐 아무케나 못하나.

식모 아이구 어떻게요. (돌아서 몇번 매본다.) 이걸 어떡하나. 이럭하나 저럭하나…
리 옳지 됐네. 허 자네도 그렇게 차리니까 아주 아씨 같은데.
식모 뭘요. 괜히 숭보시느라고 그러시죠. 아이구 발야.
리 응, 괜찮으니 좀 아파두 참으면 괜찮다네. 그런데 그리 앉게.
식모 어떻게요.
리 괜찮어 오늘만은…
식모 아이구 참. (앉는다.)
리 다른게아니라 오늘 셋째아씨와 약혼하실 신랑이 오시는데 말야.
식모 에그머니나, 그건 저는 싫어요.
리 그런게 안야.
식모 (울듯이) 뭘 안야요. 제가 비록 집안이 가난해서 이런 댁에 와서 고공은 할지언정…
리 이거 봐 식모, 그런게 안야, 별다른 일은 없고 신랑되는이가, 아니 신랑은 장차 신랑이 될이지. 그이가 말야 만약 오거던 인사나 한마디 하고나면 그만야.
식모 그렇지만…
리 안야 그 이상은 아무 일도 없는 일이니까 아주 안심을 하게. 그런데 말야! 자네 처음 보는 사람과 인사하는 법은 대강 아나!
식모 저는 해보진 않았어도 남 하는것은 많이 봐서 대강 짐작은 허죠.
리 응 그럼 됐네. 먼저 서로 나는 누구요, 나는 누구요 하고 인사를 바꾼 뒤에 말야, 그때그때 계제 봐서 몇마디 말만 하면 그만일세.
식모 그렇지만 저 셋째아씨처럼 일본말도 영어도 모르는데요.
리 괜찮으니 (시계를 보고) 허 그럼 나는 안으로 들어가있을테니 먼저 혼자 있다가 손님들이 오거든 응접을 한 뒤에 나를 부르러 들어오란 말야.
식모 네— 그렇지만 부끄러워서 어떡하나요.
리 괜찮으이. 그런데 말야, 참 더 한가지 부탁할것은 그 사람들이 아주 감심을 할만치 착착 달라붙으란 말야.
식모 네.
리 그럼 단단히 부탁일세. 점잖고 싹싹하고 친절하고 영악하게.
식모 네, 네.

리 그리고 걸음걸이도 고개짓도…(퇴장)

식모 네… 이건 무슨 팔자람. 엥히 어제 밤 꿈이 어쩐지 사납더라니… 가만있자. 제일 첫째 걸음을 걸을수가 있어야지. 어디 련습 좀 해볼가… (걸어보며) 에구, 아이 이런걸 어떻게들 신고 다닐가… 뭐니뭐니해도 신은 고무신 윗길치는것이 없거던… (또 걷는다. 좀 나으나 비틀거린다.) 아이구 아이구 발야…

황 (정자 뒤길로 등장하여 돌층계우에 섰다.) 허 어떻게 내가 이리 들어왔나… (식모를 보고) 실례합니다.

식모 네 누구세요?

황 여기가 리사장 별장이시죠?

식모 네, 그렇습니다.

황 허 이건 아주 실례가 됐습니다. 공연히 알지도 못하는 산길을 가까움에 취해서 왔다가 그만 이렇게 댁의 뜰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그려.

식모 아이구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이왕 들어오신 뜰인데 아무데로 들어오신들 상관이 있겠습니까.

황 (좀 불쾌하여한다.)

식모 하여간 이리 내려오시죠.

황 (내려오며)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쥔어른은 어디 가셨나요?

식모 네, 쥔어른은 저의 아버지입니다.

황 (더 새삼스러이 례를 하며) 네 그렇습니까. 참 처음 뵙습니다.

식모 네, 저도 처음 뵙습니다.

황 저는 금융회사 취체역으로 있는 황달성입니다.

식모 네, 저는 리사장령감마님의 셋째딸로 있는 리경순입니다.

황 성화는 퍽 익히 들었습니다. (훑어본다.)

식모 저두 성화는 퍽 익히 들었습니다. (흘겨본다.)

황 그런데 제 아들놈은 만나보셨나요?

식모 실례의 말씀이올시다마는 장가도 드시기 전에 아들부터 찾으십니까.

황 네?

식모 웨 지금 장가들러 오시질 않았습니까?

황 (입맛을 다신다.) 어 참, 아니 누가 장가를 들러 와요?

식모 듣던바보다는 그리 큰 바보는 아니십니다그려.

황 뭐요? 그게 무슨, 실례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식모 아니 뭬 실례예요. 이렇게 수염이 허옇게 된 량반이 약혼을 하러 온것보담은 낫죠.

황 뭐요? 내 아들이 약혼을 하러 왔어요.

식모 네, 그러세요. 그럼 실례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 령감마님을 모시고 나올가요.

황 그만두슈. 엥히 참 별일이 다 많군. 아니 장안에서 일류 가시는 신사의 따님으로서 이렇게 례모를 몰라서야…

식모 례모는 누가 몰라요. 강아지처럼 앞문 두고 뒤울타리로 들어와서 실례했습니다.— 하는것보다는 낫지.

황 뭐요? 엥히 참 괴악하군.

식모 아니 누가 괴악해. 이런 늙은이 말따위 봤담.

황 그 참, 신부가 얌전하다더니 그야말로 명불허전이로군!

식모 흥, 그 참 바보라고 하더니 그냥 바보도 아니구 개차반 바보로군!

황 엥히 인제는 혼담은 그만이다. 이 집과는 절교요.

식모 에구 누가 겁내는줄 알고…

황 엥히, 이 자식은 어딜 가구 입때 아니 왔누, 그 참 잘 안 왔군. (퇴장)

식모 그 참 별 망할 늙은이도 다 많으이, 엥히 이 빌어먹을 작은아씨노릇을 하다가는 욕타구가 되겠는걸.

리 (궁금해서 나오며) 아니 웨 왁자지껄했나?

식모 (성이 나서) 아니 그런 늙은이가 어디 있어요.

리 (놀라며) 응 아니 누가?

식모 글쎄 령감마님, 황말성인가 누군가…

리 응? 그이가 오셨었나?

식모 글쎄 아주 소리도 없이 뒤문으로 쑥 들어오길래 저는 신랑인줄 알았더니 자기는 신랑 아버지라고 하더니만 그만 다짜고짜로 사장의 딸이 웨 그 모양이니, 일류인사의 집의 례모가 없느니 하고 막욕을 하겠죠. 그래서 저두 몇마디 좀 했죠. 아니 령감마님 그따위 집하고 사돈이 되세요. 제발 좀 그만두세요.

리 뭐? 그럼 아주 성이 나서 가셨겠네그려?

식모 그럼요. 뭐 겁납니까.

리 에끼, 허 이것 다 틀렸군. 보기 싫어. 들어가. 시키는대로 하지

는 않고.

식모 그러시지 않아두 인제는 작은아씨노릇 같은것은 아니할터이예요.

리 음, 죄 틀렸는걸…

목사 (내려오며) 령감, 어디 가셨습니까? 나는 공연히 령감을 찾아서 저 꼭대기정자로, 또 그 위길로 아주 큰 행길목까지 갔다가 오는 길인데요.

리 참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거 또 문제가 괴상하게 됐습니다.

목사 아니 웨요?

리 허 참, 이 황씨가 잔뜩 노해서 갔습니다그려.

목사 아니 웨요?

리 (말을 하려고 할 때)

옥순 (흥분이 돼서 나오며) 아버지, 인제는 속이 시원하세요. 그렇게 망신을 당하시구?

금순 아버지, 인제는 그만 단념을 하세요. 외려 잘됐습니다.

목사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옥순 아버지께서 식모를 경순이 대신으로 시키셔서 황씨와 면회를 했다가 쌈만 났답니다.

목사 허, 원 참 령감두.

비서 (희색을 띠우고 들어오며) 령감, 따님을 만나서 같이 왔습니다.

리 응 어디서?

비서 막 전차종점에를 가니 전차에서 내리셔서 집으로 오시겠죠.

리 응.

경순 (들어오며) 아니 누가 도망갔습니까, 사람을 늘어놓시구 야단이게?

리 (기가 막혀서) 뭐야? 흥, 참 애비 망신을 실컷 시켜놓고 외려—

경순 외련 무슨 외려에요. 다 아버지께서 자취해 하신걸요.

리 (화가 나나 참고서) 그 참.

식모 (식모의 옷을 입고) 령감마님, 정말 왔습니다.

리 누가?

식모 황금산이라나요.

리 응, 어서 모시고 들어와. 그 참 잘됐군. 혼자?

식모 네.

리 당자가 제일이지. 신랑 아버지쯤야 관계있나.

경순 아버지. 정말 당자가 젤이죠?
리 (대답을 못하고 식모에게) 어서 모시고 들어와.
식모 네.(퇴장)
리 허 그것 참 이상합니다. 황씨 전보는 아들이 먼점 온다더니…
목사 그것 참 그런걸요.
식모 (금산을 데리고 들어오며) 이리 들어오세요.
금산 (모양을 냈으나 바보) 네.
리 어서 오십쇼.
목사 어서 오십쇼.
금산 괜찮습니다.
리 오느라고 얼마나 더우셨습니까?
금산 피차일반이올시다.

△ 비서, 식모 웃는다. 외 일동 주시.

금산 (어리둥절하며) 처음 뵙습니다. 나는 황금산이올시다.
리 네. 나는 리문호입니다.
목사 네. 나는 오칠복입니다.
리 다들 안녕하십니까?
금산 네, 어머니만 빼놓고는 모두 무병들입니다. (모두 웃으려고 한다.) 참 집의 가친께서는 좀 바쁘신 일이 계시다고 해서 좀 있다가 오시기로 했습니다.
리 (영문을 모르며 식모를 본다.)
식모 지금 다녀가셨는데요.
금산 아닙니다. 지금 우편국앞에 서서 기다립니다. 한시간동안만 거기 셨다가 오실테니 너 먼점 가라고 해서 이렇게 온것입니다. 아마 곧 오실겁니다.
식모 그래도 벌써 다녀가신걸요.
금산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먼저 가서 가친께서는 바쁘셔서 한시간뒤에 오신다고 하라고 하시고 지금 우편국아래 서서 계십니다. (목사를 보고) 이만한 사람을 사랑하사 금옥같이 귀하시고 백합같이 고상하시고 그리고 또 덕이 높으신 따님의 배필을 정하려 하시니.
목사 나는 아닙니다. 저 량반입니다.
금산 네 그러십니까. (리를 보고) 이만한 사람을 사랑하사 금옥같이

귀하시고 백합같이 고상하시고 또 (생각을 하다가) 그리고 덕이 높으신 따님의 배필을 정하려 하시니.

리 (기가 막혀서 그저 기계적으로) 네—

금산 (금순이를 보고) 참, 저는 당신의 꽃다운 이름을 우러러 듣잡는—

금순 나는 아닙니다.

금산 네 그러세요. (옥순이를 보고) 참 저는—

옥순 (툭 쏜다.) 사람을 자세히 보세요.

금산 (어리둥절해서 돌아보며) 이건 워낙 많아서 누가 누군질 알수가 있어야지…(경순이를 보며) 참 저는 당신의 아릿다운—

경순 아니 누구를 보고 하는 말씀이세요.

금산 그럼 또 아니셔요. (돌아보다가 식모를 보고) 어 참, 이 어른이시구먼. (사이) 아 참 저는 당신의—

식모 인제 나도 작은아씨노릇은 안해요.

금산 응, 그럼 없게. (리를 보고) 그럼 따님은 안 계십니까?

리 (잠잠)

비서 (참다 못해서) 여보슈 금산씨.

금산 네?

비서 (무슨 말을 하려다가 차마 못하고 리를 보고) 령감, 생각을 잘하시죠?

리 (기가 막혀서 잠잠하다.)

목사 령감, 생각을 고쳐하시죠?

리 네, 나두 단념했습니다. (경순이를 보고) 얘 결혼문제는 인제 네게다 말겼다. 네 자유다. (한숨을 쉬고 앉는다.)

금산 여보세요 그럼 따님한테 할 말을 공연히 련습을 해뒀게요. 꼭 열흘하고 또 낼 아침까지 했는데요.

비서 여보슈 얼른 가보슈. 아버지가 기다리실테니.

금산 그럼 가두 괜찮아요.

비서 네 괜찮아요.

금산 그럼 가만있자— (뭣을 생각하다가) 그럼 안녕히 겝쇼. 이만 사람을 이만치 사랑하사 이같은 기약까지 맺어주시니 참으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례하고 퇴장)

△ 일동 공소

옥순 아니 갈 때 할 인사까지 련습을 해가지고 왔군 그래.

금순 에구 참.

목사 령감, 인제는 그런 생각을 버리십쇼.

리 (한참만에) 허허허 참 그야말로 내가 바보였군. 역시 사람은 똑똑해야겠군.

비서 그럼요. 고생하고 쫓겨가는것은 시대의 병입니다.

리 얘 경순아, 너는 네 마음대로다. 그러나 행여 바보남편은 얻지 말아라. 그리고 (금순, 옥순을 보고) 얘들아, 너희들도 결코 불행한 안해들이 아니다. …역시 바보는 못쓰겠군!

—막—

사기사—사기군.

지기—자기의 속마음을 알뜰하게 알아주는 사람.

백치—정신이 똑똑치 못한 사람, 머저리.

에프론—앞치마.

천치—날 때부터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

제웅—짚으로 만든 사람.

반동적으로—《반발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라는 뜻.

고공—머슴 또는 품팔이하는 사람.

윗길치다—웃자리를 차지하다.

금융회사—돈을 융통하고 통제하는 일을 하는 회사.

성화—훌륭한 명성.

명불허전—명성이나 명예가 헛되이 퍼진것이 아님.

개차반—《개의 밥》이란 뜻으로서 《똥》을 이르는 말. 성격이 거칠고 못된 사람을 욕할 때 쓰는 말.

욕타구—《타구》는 침을 뱉는 그릇으로서 《욕타구》라고 하면 《욕을 마구 퍼붓는 대상》을 말함.

가친—《자기 아버지》를 다른 사람들앞에서 높이여 이르는 말.

공소하다—함께 웃다.

항일혁명문학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과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강반석어머님의 혁명적시가문학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세상에 널리 자랑할만 한 문화적재부를 창조하였다. 우리의 문학유산은 우리 인민이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마련해놓은 문화적재부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우리 문학의 력사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새형의 참다운 문학의 력사로 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의 영광스러운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조하신 그때부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항일의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조하심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의 영광스러운 혁명적문예전통을 마련하시였다. 항일의 혁명적문예전통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과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강반석어머님께서 조국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 나서시여 혁명적인 시가문학을 창작하시고 그것을 혁명의 후대를 키우는 사업에 적극 리용하신 문예활동을 자기의 터전으로 하여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어렸을 때 어머님에게서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그 노래들은 후에 나로 하여금 락천적으로 생활하고 투쟁하도록 고무하여주었습니다.

나의 어머님은 나에게 늘 나라를 사랑하고 인민의 충복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며 애국주의사상을 심어주시였습니다.》

항일혁명문학의 빛나는 터전을 마련하신 김형직선생님께서와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조국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한 고리로서 혁명적인 문예활동을 적극 벌리시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일찌기 지원의 원대

한 사상을 내놓으시고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는 혁명정신으로 후대들과 인민들을 교양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혁명활동의 전기간에 몸소 수많은 시가작품들을 지으시고 그것으로써 청소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시였다.

일찌기 만경대 순화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자라나는 후대들을 불타는 반일애국사상으로 교육교양하시는 한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자장가》를 비롯한 가요들을 지어 들려주시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그후 강동군 명신학교에서 국어, 력사, 지리, 산수 등을 가르치시는 한편 청소년학생들을 반일애국사상으로 교양하시기 위하여 수많은 가요들을 지으시여 배워주시였다.

가요 《전진가》, 《명신학교교가》는 이 시기 선생님께서 몸소 지으신 대표적인 시가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에는 이전시기 우리 시가문학작품들에서는 볼수 없었던 일심단합과 민족자주의 혁명사상이 노래되고있으며 간고분투와 조국해방의 애국주의사상이 담겨져있다.

선생님께서는 가요 《전진가》에서 단결의 위력을 강조하시면서 어떠한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조국을 되찾기 위하여 그것을 용감하게 뚫고나가야 한다는 투쟁정신을 힘있게 호소하시였다.

태평양과 대서양의 무한한 물은
산곡간의 적은 물이 회합함이요
우리들의 적은 지식 발달하기는
천신만고 지난 후에 능히 하리라

(후렴)
청년들이 가는 앞길 태산과 같이 험하다
고생함을 락심말고 나아갈 때에
청년들아 용감력을 더욱 분발해
용진용진 나아가세 문명부강케

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사건으로 일제경찰놈들에게 체포되시여 감옥에 계실 때 강반석어머님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께 가요 《만경대에 봄이 와도》를 지어 불러주시였다. 가요는 어리신 대원수님의 가슴속에 봄이 와도 아버님을 돌려보내지 않는 일제경찰놈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심을 불러일으키였으며 빼앗긴 나라를 도로 찾고야 말리라는 크나큰 뜻을 심어주었고 놈들을 반드시 복수하고야말겠다는 불타는 투지를 안겨주었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감옥에서 나오신 후 투쟁무대를 넓혀나가시기 위하여 고향 만경대를 떠나시였다. 이때 눈덮인 남산에 꿋꿋이 솟아있는 푸른 소나무를 보시고 그와 같이 억년 변함없을 자신의 투쟁결의를 굳게 다지시며 가요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지으시였다.

만경대를 떠나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온 나라의 여러 지역에로 활동무대를 넓혀나가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이 시기 가요《짓밟힌 동포야 일어나거라》를 지으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이 가요에서 일제놈들에게 짓밟혀 신음하는 동포들에게 힘을 돋구어주시며 무산대중의 새 사회를 세우기 위해 판가리싸움에 떨쳐나설것을 힘있게 호소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그후 압록강연안과 중국 동북지방에서 활동하실 때에도 가난한 집 청소년들에게 글을 배워주시면서 혁명사업을 줄기차게 벌리시는 한편 혁명가요를 지어 들려주시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시였다.

이렇듯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과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조국해방을 위한 크나큰 위업을 이룩해나가시면서 몸소 수많은 혁명적인 시가작품들을 창작하시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와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강반석어머님께서 지으신 혁명적시가작품들은 조국해방을 위한 반일애국사상과 투철한 민족자주정신, 근로인민대중

의 자주위업에 대한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랑만, 풍부한 민족적정서와 깊은 뜻이 담긴 표현적시어들로 하여 우리 문학의 력사에서 혁명적시가문학의 참다운 본보기로 되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과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강반석어머님의 혁명적시가문학작품들과 정력적인 문예활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을 벌리시면서 창조하신 항일혁명문학예술의 고귀한 터전으로 되였다.

남산의 푸른 소나무

1. 남산의 저 푸른 소나무가
   눈서리에 파묻혀서
   천신만고 괴롬받다가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할줄을
   동무야 알겠느냐

2. 나라의 독립을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리
   몸이 찢겨 가루되여도
   광복의 한길에서 굴함없을줄
   동포야 믿어다오

3. 이 한몸 싸우다 쓰러지면
   대를 이어 싸워서도
   금수강산 삼천리에
   양춘을 찾아올제 독립만세를
   조선아 불러다오

짓밟힌 동포야 일어나거라

달밝은 완월루에 높이 올라서
동주성 바라보니 감개 깊어라
북변강 배사공의 구슬픈 저 노래
구봉산기슭에 메아리치네

네 모습 예로부터 아름다와서
길손의 시흥을 불러줬건만
왜놈의 학정아래 눈물 지으니
달빛도 산천도 빛을 잃었네

굶주리는 민중아 슬퍼말아라
짓밟힌 동포야 일어나거라
판가리싸움에 이 몸 바치니
사나이 총검이 분노에 운다

무도한 왜적들을 쳐물리치고
동주성 완월루에 다시 올라서
목청껏 독립만세 높이 부르자
무산민중 새 사회 세워나가자

만경대에 봄이 와도

만경대에 봄이 와도
울 아버지 안 오시네
푸른 하늘 뭉게구름
훨훨 높이 잘도 난다

무얼 실러 어디 가나
별나라로 찾아가나
아기별도 실어오소
장수별도 실어오소

대동강이 다 풀려도
울 아버지 안 오시네
푸른 물에 돛 단 배는
바람 타고 물결 차며

어기여차 잘도 간다
한산도로 찾아가나
아기별도 실어오소
장수별도 실어오소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작된 혁명적문학예술

항일혁명문학과 그 특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하신 영광스러운 전통이다.》

항일혁명문학예술은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의 력사적뿌리이고 빛나는 전통이며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의 가장 고귀한 보물고이다.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시된 혁명적문예전통은 우리 민족문화유산의 핵이고 중추이며 그 질적내용에서 민족문화유산의 최고봉이다.

항일혁명투쟁의 현실적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항일혁명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과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강반석어머님의 혁명적시가문학을 터전으로 하여 창조되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할것을 근본사명으로 하여 창작된 항일혁명문학은 주체시대의 새로운 문학이다. 항일혁명문학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주체의 인간학의 시원을 열어놓은 문학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을 문학예술분야에 구현하시여 혁명적문학은 사람을 중심에 내세우고 사람의 본성을 형상하여 그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여주는데 이바지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는 새로운 인간학에 대한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인간학으로서의 항일혁명문학은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해야 하며 우리 인민의 감정과 비위에 맞는 민족적인 문학으로 되여야 한다고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인간학으로서의 항일혁명문학은 당조직의 의도와 로동계급의 리해관계 그리고 인민대중의 취미에 맞아야 하며 근로인민대중자신이 창조하고 그들모두가 즐기는 문학

으로 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듯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문학예술사업에 구현하시여 항일혁명문학을 성과적으로 창조할수 있는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문학의 지도적원칙을 밝히시였을뿐아니라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령도해나가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친필하시여 혁명적문학예술의 고전적본보기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고귀한 고전적명작들로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교양하시였으며 그를 본보기로 하여 유격대원들자신이 많은 작품을 창작하도록 이끄시였다. 그리하여 항일무장투쟁의 영웅적현실속에서 항일유격대원들의 집체적지혜에 의하여 수많은 혁명적작품들이 창작되였다.

이 시기에는 항일유격대원들뿐아니라 인민들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을 열렬히 칭송한 수많은 시가작품들이 널리 창작보급되였다. 인민들속에서 구전으로 보급되였던 이 시가작품들에는 조국해방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일제원쑤놈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던 조선인민혁명군의 정치군사적위력이 생동하게 반영되여있으며 전설적위인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민족의 태양, 항일의 명장으로 높이 모신 전인민적감정이 진실하게 표현되여있다. 《조선에 **김일성** 나타났네》, 《조선민중의 해님》, 《**김일성** 기발드니》 등은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이렇듯 항일혁명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수령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혁명적문학예술의 참다운 본보기로, 우리 문학예술의 고귀한 전통으로, 그의 발전을 위한 만년초석으로 되였다.

그러면 항일혁명문학이 이전시기의 문학과 구별되는 본질적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수령님의 육친적인 사랑과 보살피심속에서 창조된 주체의 인간학이라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문학예술분야에 구현하시여 항일혁명문학이 의거해야 할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시였으며 전투와 행군으로 이어지는 간고한 항일의 나날 언제나 혁명적

문예작품의 창작과 보급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그 사업을 몸소 지도하시였다.

그리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혁명문학이 탄생하게 되였다.

그것은 둘째로, 조선문학사상 처음으로 주체성과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주체형의 혁명가의 전형을 빛나게 창조한 문학이라는데 있다.

항일혁명문학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았기때문에 주체성과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장 철저히 구현할수 있었으며 항일무장투쟁의 벅찬 현실을 당적, 로동계급적립장에서 진실하게 묘사함으로써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선 주체형의 혁명가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할수 있었다.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선 주체형의 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한것은 항일혁명문학이 이전시기는 물론 그 시기의 다른 문학과도 구별되는 주되는 특징이다.

그것은 셋째로, 사회주의적내용과 민족적형식,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을 완벽하게 결합시킨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을 구현한 문학이라는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새시대의 문학예술실천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는 처음으로 우리 식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 주체사실주의로 발전하게 되였다.》

주체사실주의는 주체사상을 세계관적기초로 하고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는 주체시대의 새로운 창작방법이다. 주체사실주의는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진 작품을 창작할수 있게 하는 현대의 유일하게 옳은 창작방법이다.

우리 나라에서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전반적조선혁명을 령도하시면서 친필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과 수령님의 지도밑에 유격대원들에 의하여 창조된 항일혁명문학에서 비로소 우리 식의

창작방법으로 발생하여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주체사실주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세계관적기초로 하고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람들의 창조적인 생활과 투쟁을 가장 과학적으로 정당하게 반영함으로써 자주위업수행에로 인민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새형의 혁명적인 창작방법이다.

그것은 투사이자 창작가인 항일유격대원들에 의하여 창조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의 무한한 충실성, 조국에 대한 사랑과 일제원쑤놈들에 대한 증오심,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 등을 진실하게 반영할수 있었으며 사람들을 계급해방, 민족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추동하는 수단으로 될수 있었기때문이다.

그리하여 항일혁명문학은 우리 문학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주체가 확고히 선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으로 되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시고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더욱 발전풍부화되고있는 우리 당의 혁명적문예전통을 옹호하고 계승하는 문제가 당과 혁명을 보위하며 주체문학예술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친필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혁명적문학예술이 노는 거대한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혁명문학의 창작과 보급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친히 불멸의 친필활동을 벌리시여 혁명문학창작의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도 학생시절에 공청활동을 하면서 청년들을 망라하여 각본도 쓰고 작곡도 하고 연극도 꾸며가지고 선전대를 만들어 군중앞에서 공연도 하고 연설도 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힘있게 벌리신 불멸의 친필활동은 인민들과 항일유격대원들을 교양하고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것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그 사상주제적내용이 각이하였으며 환경과 조건에 따라 그 형식도 매우 다양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필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로는 첫째로, 사람들이 혁명을 인식하고 투쟁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을 폭넓고 깊이있게 그린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와 같은 정극작품들이 있다.

둘째로, 일제와 지주, 자본가놈들을 비롯한 혁명의 원쑤들과 민족주의자들의 파벌싸움을 폭로하고 풍자한 《성황당》, 《경축대회》, 《3인1당》과 같은 희극작품들이 있다.

셋째로, 《딸에게서 온 편지》와 같이 정극적인것과 희극적인것이 결합된 작품들도 있다.

그리고 《단심줄》과 같이 가무형식으로 된 작품들과 《반일전가》, 《조국광복회10대강령가》, 《피바다가》를 비롯한 수많은 혁명시가들이 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필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그 내용도 여러가지였으며 형태들과 형식도 매우 다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친필활동은 항일혁명투쟁의 첫 시기부터 줄기차게 진행되였다.

이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무으시고 청소년학생들속에서 반일혁명교양을 강화하시는 한편 그들을 여러가지 투쟁단체에 묶어세우시여 혁명의 터전을 튼튼히 다져나가시였으며 카룬(카륜)과 구위수(고유수)를 비롯한 여러 농촌지역을 혁명화하시고 투쟁조직을 더욱 튼튼히 꾸리시면서 무장투쟁을 벌리기 위한 준비를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준비해나가시던 이 나날에 몸소 불후의 고전적명작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혈분만국회》, 《3인1당》, 《성황당》을 비롯하여 《지주와 머슴군》, 《딸에게서 온 편지》 등 혁명연극작품들을 친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이 시기에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를 비롯하여 혁명가요 《조선의 노래》, 혁명가무 《단심줄》과 같은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친필하시였다.

이 명작들은 일제와 그 주구들의 야수적본성을 폭로하며 조선인민모두가 단결하여 반일무장투쟁에 나서야 한다는것, 봉건적인

생활인습을 버리고 미신을 반대하며 자기의 앞길은 자기 힘으로 열어나가야 한다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할빈)역두에서 조선침략의 괴수 이등박문놈을 사살한 애국청년 안중근의 투쟁을 소재로 하고있다.

안중근은 일제침략자와 맞서 싸운 애국자이며 시대의 선각자이다. 그는 일제놈들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국채보상운동》(일제놈들에게 진 빚을 물어주기 위한 운동)에도 떨쳐나서고《만국평화회의》에 간 리준의 활동에 기대를 걸어보기도 한다. 이 모든것들이 실패만 가져오자 사랑하는 부모처자와 고향을 등지고 해외로 나가 의병투쟁에도 참가한다. 의병투쟁으로써도 나라를 찾을수 없게 되자 그는 일제의 두목들과 나라안의 역적들을 처단하는것이 나라를 구원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마침내 조선침략의 괴수 이등박문을 쏘아 죽인다.

그러나 이등박문은 죽었어도 침략자는 그냥 남아있었고 조선의 독립은 이룩되지 않았다.

명작은 안중근의 형상을 통하여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찾기 위한 투쟁은 개인복수나 테로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탁월한 수령의 령도밑에 단합된 인민대중의 조직적투쟁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혈분만국회》는 애국지사 리준의 형상을 통하여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조선의 독립은 큰 나라들의 도움이나《원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자주정신을 가지고 일제와 맞서 싸울 때에만 이룩될수 있다는것을 심각한 교훈으로 가르쳐주고있다.

리준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학교를 세우고 사람들을 계몽하는 사업도 활발히 벌리고 사회적개혁을 위한 연설도 목이 쉬도록 하였지만 일제놈들이 주인노릇을 하는 험악한 세상에서 그것은 어느 하나도 실현될수 없었다. 그러던 리준은《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황제의 밀서를 가지고 네데를란드의 수도 헤그로 간다. 본래부터 서양문명에 대한 기대가 컸던 리준은 이 회의가 큰 나라들의 도움과 《원조》로 국권을 회복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이라고 생각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일제와 결탁한 미제와 유럽

제국주의렬강들은 리준의 호소를 외면하였을뿐아니라 오히려 그를 가짜대표라고 하면서 경찰들을 동원하여 회의장밖으로 끌어내가려고 하였다.

리준은 그때에야 비로소 큰 나라들에 청원하고 호소하는 방법으로 나라를 구원하겠다고 하는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짓이였는가를 뼈저리게 느끼며 남의 힘을 믿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피의 절규를 남기고 배를 갈라 목숨을 끊는다. 명작은 남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면 애국심마저 무참히 롱락당하고 짓밟히게 되며 민족자주의식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생활의 진리를 주인공 리준의 형상을 통해 극적으로 밝히고있다. 남의 힘을 믿으면 나라가 망한다는것은 리준의 한생의 총화이고 피의 교훈이며 력사의 진리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는 주인공 꽃분이와 그 일가의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억압받고 천대받던 우리 인민들이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혁명화되여가는 과정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명작은 꽃을 팔아 병든 어머니를 구원하려는 꽃분이의 정성과 그 일가의 피눈물나는 생활을 통하여 일제의 식민지사회에서는 결코 그 어떤 정성이나 동정으로써는 꽃분이와 같은 불쌍한 사람들의 비극적운명을 구원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면서 착취사회에서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되는 근로인민들은 자기의 운명을 구원할 힘은 자기자신에게 있다는것을 자각하고 모두다 일어나 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달려나가야 한다는 사상을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0년대 전반기 발전하는 혁명정세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혁명투쟁을 더욱 적극적인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무장투쟁을 벌릴데 대한 새로운 혁명적인 로선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로선에 기초하시여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그를 조직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려나가시였다.

이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새로운 로선을 관철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는 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하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혁명가요 《반일전가》, 혁명연극 《아버지는 이겼다》, 《승냥이》 등은 이 시기 명작들가운데서 대표적인 자리

를 차지하는 작품들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아버지는 이겼다》는 주인공인 아버지(지하공작원)가 일제놈들의 철도부설공사장에 나타나 로동자들의 도움을 받아 공사장을 경비하고있던 일제경관 두놈과 이동감시대의 순찰경관놈을 처단하고 무기를 빼앗아내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으며 불후의 고전적명작 《승냥이》는 일제와 위만군놈들의 야수적인《토벌》만행으로부터 유격근거지를 튼튼히 지켜나가는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의 영웅적투쟁과 무비의 용감성, 필승의 신념을 잘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새롭게 달라진 정세의 요구에 맞게 항일무장투쟁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이끌어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기 위하여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점차 국경지대에로 진출시키며 우리의 투쟁무대를 점차 국내에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시기 친필활동은 새로운 투쟁방침의 요구를 구현하여 이미 있던 유격근거지를 없애고 국경지대의 넓은 곳으로 활동무대를 옮겨 조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혁명의 요구를 관철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이 시기 대표적인 의의를 가지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로서는 혁명가요 《조국광복회10대강령가》, 혁명연극 《피바다》, 《한자위단원의 운명》, 《경축대회》, 《게다짝이 운다》 등이다.

이 명작들은 인민들을 조국해방의 기치밑에 튼튼히 묶어세워 반일혁명투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떨쳐나서도록 고무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는 혁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한 어머니가 생활의 모진 시련속에서 점차 혁명을 인식하고 투쟁의 길에 나서는 과정을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

을남이네 다섯식구는 일제와 지주놈들의 모진 착취와 학대로 고향에서 더는 살수 없어 베이지엔다오땅에 옮겨왔으나 여기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아버지 윤섭이는 더는 참을수 없어 마을청년들과 함께 3,7제를 요구하는 투쟁에 나섰다가 일제의 《토벌》로 희

생되고 마을은 불바다에 휩싸인다. 남편과 집마저 잃은 어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먼 친척이 있다는 별재마을로 찾아갔으나 그 마을도 재더미로 되여버렸다. 어머니는 한 로인의 권고로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마을에 가서 살게 된다. 이곳에서 원남이와 갑순이는 혁명조직에 망라되여 투쟁하며 을남이는 야학에서 배우고 어머니도 점차 유격대공작원의 영향밑에 혁명가로 성장한다. 명작은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 나라를 피바다에 잠근 강도 일제의 침략성과 야수성을 폭로하고 인민대중의 계급적각성과 투쟁을 통하여 손에 무장을 잡고 일제를 반대하는 싸움에 떨쳐나서는 혁명의 길만이 인간의 참된 자주성을 찾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참된 길이라는것을 힘있게 밝히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일제놈들이 살판치는 험악한 세상에서 압박받고 천대받던 우리 인민의 눈물겨운 생활 그리고 일제와 그 주구《자위단》놈들의 야수적본성과 만행을 폭로하면서 혁명을 하지 않으면 살수 없다는 진리를 생활을 통하여 생동하게 밝히고있다.

주인공 갑룡이는 일찌기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슬하에서 외롭게 자란다. 그는 금순이와 단란한 가정을 꾸려 늙으신 아버지의 여생을 기쁘게 해드릴 오직 한가지 생각만 하면서 억척스럽게 일한다. 그러나 바로 잔치전날에 갑룡이는 반역적인《자위단》에 강제로 끌려가서 몸서리치는 강제훈련과 인민탄압에 내몰리운다. 공습훈련을 구실로 잔치집을 들이치고 덕산목재판 로동자들의 폭동진압을 위해 어제날의 동료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며《자위단》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도망치다가 붙잡혀 사형당하는 만식이를 보며 특히는 유일한 희망이며 기둥이던 아버지가 공사장에 끌려나왔다가 놈들에게 희생되는 참상을 목격하면서 갑룡이는 드디여 《자위단》의 반동적본질을 꿰뚫어보고 반변을 일으켜 유격대를 찾아 산으로 들어간다.

명작은 갑룡이가 굴욕적인《자위단》생활을 겪어오는 과정에 자신의 피눈물나는 체험을 거쳐《자위단》의 본질을 깨닫고 계급적으로 각성되여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혁명의 길만이 참된 삶의 길, 행복의 길이라는 사상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속히 달라지는 혁명정세를 깊이 헤아리시고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

데 대한 새로운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이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력량을 보존하고 축적하면서 작은 부대로 유격활동을 더욱 민활하게 벌리여 도처에서 놈들에게 련속적인 타격을 안기는것이 중요하였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먼저 대원들을 승리의 신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잘 싸우도록 교양하여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시기 혁명의 요구에 맞게 대원들을 락관주의정신으로 교양하시기 위하여 몸소 수많은 명작들을 친필하시였다. 이 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주며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잘 싸우도록 대원들을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에 몸소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친필하시였을뿐아니라 대원들에게 혁명가요의 곡조도 친히 배워주시고 연극작품들은 배역들을 정해주시고 무대에 올리기 위한 연기훈련까지 친히 지도해주시면서 공연 전 과정을 직접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진행하신 불멸의 친필활동과 그 위대한 모범을 실천에 구현해나가는 항일유격대원들의 문학예술창조과정을 통하여 우리 문학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이룩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우리 혁명적문학예술의 정수이며 주체의 문학예술을 대를 이어 끊임없이 떠밀어주는 영원한 생명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이 빛나는 혁명적문예전통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이바지할 새로운 주체문학건설과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가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할 끝없이 귀중한 재부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가진것은 우리 인민만이 누릴수 있는 더없는 영광이고 행복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

1.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앞에서 눈물 흘리며 잘 다녀오라
   하시던 말씀 아 귀에 쟁쟁해

2. 우리 집에서 멀지 않게 조금 나가면
   작은 시내 돌돌 흐르고 어린 동생들
   뛰노는 모양 아 눈에 삼삼해

3. 대동강물 아름다운 만경대의 봄
   꿈결에도 잊을수 없네 그리운 산천
   광복의 그날 아 돌아가리라

〔명언〕

사랑이 있어야 증오가 있다.

김 정 일

불후의 고전적명작

《반일전가》

1. 일제놈의 발굽소리는 더욱 요란다
   금수강산 우리 조국 짓밟으면서
   살인방화 착취략탈 도살의 만행
   수천만의 우리 군중을 유린하노나

2. 나의 부모 너의 동생 그대의 처자
   놈들의 총창끝에 피흘렸고나
   나의 집과 너의 밭은 놈들의 손에
   재더미와 황무지로 변하였고나

3. 우렁차게 들려오는 반일전소리
   곳곳에서 일어나는 민중의 고함
   반일하는 수천만의 웨침소리는
   놈들의 가슴을 서늘케 한다

4. 《왕도락토》 세우려는 놈들의 몽상
   반역자는 발버둥치며 쩔쩔들 맨다
   대포 땅크 비행기로 미쳐날뛰며
   일기 이기 《대토벌》을 진행하노나

5. 혁명세력 장성함을 보지 못하고
백색테로 겁에 질린 리기분자는
놈들의 포소리에 흔들리여서
혁명을 배신하고 투항을 한다

6. 일어나라 단결하라 로력대중아
굳은 결심 변치 말고 싸워나가자
붉은기아래 백색테로 뒤엎어놓고
승리의 개가높이 만세 부르자

자 장 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지으신 가사)

아가아가 자장자장 어서 자거라
어서 자라 속히 자라 총칼을 메고
조국해방 만세소리 활발한 곳에
너 앞서고 나 뒤에 나가 싸우자

아가아가 자장자장 어서 자거라
어서 자라 속히 자라 붉은기 들고
공산주의 새세상 떨치는 곳에
너 앞서고 나 뒤에 나가 싸우자

〔명언〕

수령이 없는 혁명의 승리를 생각한다는것은 태양이 없는 꽃을 바라는것과 마찬가지이다.

김 정 일

조선의 별

1. 조선의 밤하늘에 샛별이 솟아
   삼천리강산을 밝게도 비치네
   짓밟힌 조선에 동은 트리라
   이천만 우리 동포 샛별을 보네

2. 캄캄한 밤하늘 바라다보니
   신음하는 조국산천 어리여오네
   변치 말자 혁명에 다진 그 마음
   이천만 우리 동포 샛별을 보네

3. 간악한 강도 일제 쳐물리치고
   삼천리에 샛별이 더욱 빛날제
   조선아 자유의 노래 부르자
   이천만 우리 동포 샛별을 보네

(항일혁명투사 혁명시인 김혁)

적 기 가

1. 민중의 기 붉은기는
   전사의 시체를 싼다
   시체가 식어 굳기 전에
   혈조는 기발을 물들인다
   (후렴)

높이 들어라 붉은 기발을
그밑에서 굳게 맹세해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

2. 원쑤와의 혈전에서
붉은기를 버린 놈이 누구냐
돈과 직위에 꼬임을 받은
더럽고도 비겁한 그놈들이다
(후렴)

3. 붉은기를 높이 들고
우리는 나가길 맹세해
오너라 감옥아 단두대야
이것이 고별의 노래란다
(후렴)

자 유 가

1. 사람은 사람이라 이름 가질 때
자유권을 똑같이 가지고 났다
자유권 없이는 살아도 죽은것이니
목숨은 버리여도 자유 못 버려

2. 억눌린 아이들아 어서 자라서
우리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자
김장군 싸움법을 어서 빨리 배워서
악독한 원쑤들을 때려부시자

3. 차라리 다 죽어서 자유혼돼도
이내 몸이 종노릇할줄 아느냐
자유권 없이는 살아도 죽은것이니
목숨은 버리여도 자유 못 버려

문학작품의 사회적성격

문학작품은 반드시 사회적성격을 띤다. 문학작품의 사회적성격이란 그것이 언제나 일정한 민족, 일정한 계급, 일정한 시대의 생활을 그리며 바로 그 민족, 그 계급, 그 시대에 복무하는 특성을 말한다.

문학작품에 그려지는 사람은 다 일정한 민족과 계급, 시대에 속하여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탈출기》의 주인공 박군이나《락동강》의 주인공 박성운,《인간문제》의 주인공들인 첫째나 선비는 다같이 1920～1930년대 조선의 근로하는 인민대중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모습에는 그 시대 조선의 근로인민들이 지녔던 성격과 생활이 체현되여있다. 또 이 작품들을 쓴 작가들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나라에서 태여난 근로인민출신으로서 조선민족의 편, 근로인민의 편에 서서 조선민족과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여 창작활동을 벌렸다.

문학작품에는 바로 이렇게 일정한 민족과 계급, 시대의 인간과 생활이 반영되고 일정한 민족과 계급의 편에 선 작가들의 립장이 구현된것으로 하여 사회적성격을 띠게 되는것이다.

그러면 문학작품의 사회적성격과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징표들은 어떤것들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성과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혁명적문학의 기본특성이며 그 위력의 원천이다. 문학에서 주체성과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뗄수 없이 밀착되여있다. 주체성과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다같이 문학의 사회적성격과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징표이다.》

첫째로, 우리의 문학작품은 주체성을 가져야 한다. 주체성은 문학의 생명이다.

주체성이란 문학작품이 민족자주정신을 반영하며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 인민에게 복무하는 특성이다.

문학작품에서 민족자주정신은 두 측면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자기 나라 인민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담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민족의 고유한 생활감정과 미감에 맞게 형상을 창조하는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를 끝까지 옹호고수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할것을 지향하고있다. 그러자면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한마음한뜻으로 싸워나가야 한다. 이러한 지향과 요구를 담고 우리 인민의 심리와 정서, 언어와 풍습에 맞게 씌여진 작품은 주체성이 있는 작품으로 된다.

둘째로, 우리의 문학작품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져야 한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란 문학작품이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는 특성이다.

그런데 당에 대한 충실성, 로동계급에 대한 충실성, 인민에 대한 충실성은 서로 밀접히 통일되여있다.

인민대중의 생활과 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인민대중이 알기쉽게 창작된 작품은 인민성이 있다고 한다. 로동계급은 인민대중가운데서도 가장 혁명적이고 선진적인 계급으로서 자신뿐아니라 인민대중전체를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고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고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혁명정신과 립장이 담겨진 작품은 로동계급성이 있을뿐아니라 인민성도 있게 된다. 로동계급의 지향과 요구는 당이 대표하고있다. 당은 과학적인 로선과 정책을 내놓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때문에 당의 사상과 의도를 구현한 작품은 당성이 있을뿐아니라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다같이 체현하게 된다.

당의 리익, 로동계급의 리익, 인민의 리익을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한분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이다. 그러므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다같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최고표현을 이룬다. 수령께 충실하면 곧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실한것으로 된다. 따라서 문학작품에서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반영하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잘 그리면 곧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최고의 높이에서 구현하게 된다.

그러나 이 세가지 개념은 일련의 차이를 가진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단편소설 《벙어리 삼룡이》나 서정시 《초

혼》은 인민성이 있다고 할수 있으나 로동계급성이 있다고 할수는 없다. 단편소설 《락동강》, 장편소설 《고향》, 서정시 《산제비》는 로동계급성이 있다고 할수 있으나 아직 당성이 뚜렷이 구현되였다고 할수는 없다. 오로지 불후의 고전적명작 《반일전가》를 비롯한 항일혁명문학작품들만이 당성까지 완전히 체현한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셋째로, 우리의 문학작품은 현대성을 가져야 한다.

현대성이란 문학작품이 자기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고 자기 시대에 복무하는 특성이다.

문학작품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살고있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것이 특징이다. 먼 과거의 력사를 그리거나 미래에 대한 공상을 그리는 경우에도 다 지금 살고있는 사람이 본 과거와 미래이며 오늘의 생활과 투쟁에 복무하기 위한것이다.

때문에 문학작품은 자기 시대의 정신을 담고있다고 한다. 문학작품이 현대성을 더 잘 구현할수록 시대를 위하여 더 잘 복무할수 있는 가치있는 작품으로 된다.

현대성은 우선 자기 시대의 현실을 그리고 자기 시대의 절박한 문제를 밝혀주는데서 나타난다. 동시에 자기 시대의 사상감정과 정서를 표현하는데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잘된 작품을 읽어보면 그 시대 인민의 생활모습과 사상감정세계를 뚜렷이 느낄수 있다.

서정시《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읽으면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1920년대 우리 인민의 울분과 항거의 정신을 느낄수 있고 혁명가요《적기가》를 읽으면 항일무장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피어린 싸움에 떨쳐나선 1930년대 혁명투사들의 백절불굴의 신념과 투지를 느낄수 있다. 이런 작품들은 현대성이 잘 구현됨으로써 자기 시대 인민들에게 충실히 복무하였다고 할수 있다.

우리는 문학작품을 감상하고 분석하거나 창작할 때 늘 문학작품의 사회적성격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옳게 밝혀내도록 하여야 한다.

외국문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나라의 문학을 주체적인 립장에서 공정하게 대하여야 하며 좋은것은 허심하게 배울줄도 알아야 한다.》

다른 나라의 문학작품들가운데도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반영한 우수한 작품들이 많다. 이러한 문학작품들은 비록 거기에 담겨진 생활자료들이 다른 나라의것이라 하더라도 지배와 예속,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고 인간의 자주성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반영하고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 인민들에게 일정한 경험과 교훈을 안겨주고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문학유산이 얼마나 유구하며 내용에서 진보적인가 하는것을 정확히 리해하기 위해서도 다른 나라의 문학을 잘 알아야 한다.

인류의 가장 오랜 문학작품은 동방인민들속에서 창조되였다. 고대바빌로니아의 서사시 《길가메슈》, 고대인디아의 서사시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고대중국의 시가집 《시경》 등은 그 대표적작품들이다.

고대문학은 동방뿐만아니라 서방나라들에서도 활발히 창작되였다.

고대그리스에서는 아득한 옛날부터 신화와 전설들이 창조되였으며 B. C. 8세기부터 문자로 기록된 서사시, 서정시, 비극, 희극들이 창작되였다. 그 영향을 받아 고대로마에서도 서사시와 극, 서정시들이 창작되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서는 고대그리스의 서사시 《일리아스》, 《오듀쎄이아》, 비극《사슬에 묶이운 프로메테우스》, 고대로마의 서사시 《에네이즈》 등을 들수 있다.

비극《사슬에 묶이운 프로메테우스》는 비극작가 아이스퀼로스가 B. C. 5세기에 창작한것이다. 극은 신화에 기초하여 하늘의 최고신 제우스와 맞서 나선 거인 프로메테우스의 영웅적형상을 보여준다. 제우스는 지상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결심하였으나 프로메테우스가 사람들을 옹호하여나선다. 프로메테우스는 하늘에만 있는 불을 훔쳐내여 사람들에게 가져다주고 그 불을 리용하여 도자

기를 굽고 철을 녹여 수레를 만드는 등 자연을 정복하며 사는 법을 배워준다. 노한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깝까즈산정에 사슬로 비끄러매고 가슴에는 큰 쇠못을 박으며 매일 사나운 독수리가 날아와 그의 배가죽을 헤치고 간을 쪼아먹게 한다. 모진 고통을 겪으면서도 프로메테우스는 죽지 않는다. 그도 영생하는 신이기때문이다. 제우스는 그에게 전령병을 보내여 항복하라고 꼬이지만 그는 도도히 웨친다.《나는 슬픔을 굴종으로 바꾸지 않으리라.》제우스는 드디여 벼락을 쳐서 바위와 함께 프로메테우스를 지하에 처박는다.

비극에서 작가는 폭군에게 항거하는 불사신의 형상을 통하여 노예제도에 대한 항거의 정신을 보여주고있다. 또한 자연을 정복하고 보다 행복하게 살려는 옛사람들의 념원을 잘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작품의 형상은 신화적인것으로 하여 매우 추상적이고 결말에 가서 비극으로 끝남으로써 인류의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강하게 안겨주지 못하고있다.

노예제도가 무너지고 봉건사회로 넘어가면서 자주적인 삶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서 주되는 목표로 된것은 봉건적신분제도를 강요하는 귀족계급과 교회의 상층승려들이였다.

중세문학은 봉건적신분제도를 반대하고 인민대중의 리익의 견지에서 종교를 옳바로 인식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발전하였다.

중국은 B. C. 3세기부터 20세기초까지 봉건제도가 존재하였다. 중국봉건사회에서 지배적인 사상은 유교사상이였다. 중국의 중세문학은 유교사상을 바탕에 깔고 봉건통치계급의 리익을 옹호한 문학과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념원을 반영한 진보적문학의 대립속에 발전하였다.

8～9세기 당나라에서는 《당시》라고 불리운 시문학이 발전하였고 10～13세기 송나라때에는 《송사》라는 시문학이, 그뒤 원나라때에는 《원곡》이라는 극문학이 발전하였다.

중국중세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14～16세기에 창작된 장회체형식의 장편소설들이다. 그가운데서 《수호전》, 《삼국연의》, 《서유기》가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다.

《수호전》은 봉건통치배들의 압박과 착취에 견딜수 없어 량산박으로 모여든 108명의 용사들을 중심으로 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무장봉기를 그리고있다.

《서유기》는 주인공 손오공이 하늘나라에 올라가 천궁을 뒤흔들어놓은 이야기와 중인 당승의 제자가 되여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멀리 인디아에 가서 불경을 가져오는 이야기를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손오공은 인민의 힘과 지혜를 체현하고 옳고그른것을 정확히 가려보는 인물이며 백골귀신을 비롯하여 온갖 난관을 가져오는 신귀요마들은 모두 악독하고 교활한 악한들로서 당시 봉건사회의 부패하고 잔인한 착취자, 억압자들을 비유한것이다.

《홍루몽》은 청나라시기인 18세기에 나온 장편소설로서 큰 봉건귀족가문내부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생활을 해부하면서 봉건제도의 멸망의 불가피성과 참된 사랑과 인정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살려는 인민들의 지향을 보여주었다.

5세기 인디아의 시인 칼리다사가 쓴 희곡 《샤쿤달라》는 중세 인디아문학의 대표작으로서 지배계급의 감정에 맞게 극을 꾸민 제한성은 있으나 왕에 대한 일정한 비판과 인간생활에 대한 그리움 등 당시 인디아인민들의 지향을 잘 반영하고있다.

또한 아랍인민들이 창작한 야화《천하루밤이야기》는 거의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짓을 하는 사람은 망하고만다는 교훈적인 내용으로 일관되여있다.

서유럽에서 봉건제도는 5세기에 발생하여 18세기말 프랑스부르죠아혁명을 계기로 거의 모든 나라에서 허물어졌다. 이 지역 나라들은 호상간의 교류가 활발하고 거의 통일적인 그리스도교교회의 영향밑에 있었으므로 문학의 발전에서 공통성이 많았다. 한 나라에서 하나의 문학사조가 발생하면 다른 나라들에 빨리 전파되여 공통적인 경향을 이루었다.

그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것은 14～16세기에 이딸리아에서부터 시작된 문예부흥운동이였다.

당시의 귀족계급은 바보나 악한이라도 신분이 높으면 지체높은 사람으로 인정하였고 총명하고 선량한 사람들도 신분이 낮으면 비천한 사람으로 천대하였다. 또한 승려계층은 귀족의 편에 서서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고통과 불행을 꾹 참고 견디면 죽어서 《천당》에 갈수 있다고 속였다. 때문에 새로 자라난 부르죠아출신의 지식인들은 귀족과 승려가 없던 고대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내세우면서 그것을 다시 살리자는 구호밑에 반봉건적인 새 문화창조운동 즉

문예부흥운동을 벌렸던것이다.

문예부흥운동자들이 들고 나온 사상은 인문주의였다. 인문주의란 인간의 존엄과 인간성을 내세우는 사상이였다. 당시에 지배한 문화는 온통 신에 대한 이야기, 현실을 떠난 저승세계에 대한 이야기만 펼쳐놓는 신학이였으므로 그에 대비하여 자기들의 학문은 인간에 대한 학문이라는 뜻에서 인문주의라고 불렀다.

인문주의에 기초한 이 시기 문학에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은 다 같이 평등한 존재이므로 마땅히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며 그 어떤 압박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래세》에서의 행복을 설교하는 금욕주의를 반대하고《래세》가 아니라 지상의 현실세계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립장으로부터 신이 아니라 인간의 현실생활에 관심을 돌리고 그것을 사실주의적으로 그리였다.

이 문학은 계급적으로 볼 때 부르죠아의 리익을 옹호한 문학이였으므로 근로인민대중의 생활과 투쟁을 그리지는 못하였다. 그들은 초계급적인 선과 그 표현인 사랑, 우정, 인간성, 관대성, 진심, 순결성 같은것을 찬양하였다.

인문주의문학의 대표작들로는 이딸리아의 보까치오가 쓴 단편소설집《데카메론》, 프랑스의 라블레가 쓴 소설《가르강뛰아와 빵따그류엘》, 영국의 쉐익스피어가 쓴 희극들과 비극들, 에스빠냐의 쎄르반떼스가 쓴 소설 《돈 끼호떼》, 영국의 토마스 모어가 쓴 소설 《유토피어》 같은것을 들수 있다.

서방에서는 문예부흥기에 뒤이어 17세기에 고전주의문학이 출현하였다.

고전주의문학은 당시 지방에 있는 귀족들이 저마다 자기 지방에서 왕노릇을 하면서 갖은 악행을 제멋대로 감행하던 조건에서 권력을 왕 한사람에게 집중시키기 위한 운동이 벌어지는 환경속에서 발생하였다.

이 운동자들도 인문주의자들처럼 고대문학을 모범으로 내세웠기때문에 고전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였다.

고전주의문학에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적인것을 국가적인것에 복종시키며 나아가서 국가적인것을 대변하는 왕에게 복종시킬것을 주

장하였다. 그리하여 국가적인것을 위해 개인적인것을 희생하는 인간을 가장 아름다운 인간으로 내세우고 개인의 리기적인 감정을 내세우면서 국가에 해를 주는 인간을 더러운 인간으로 규탄하였다.

이 문학은 왕을 내세운다는 점에서는 나빴지만 나라와 인민은 아랑곳없이 저 혼자 잘먹고 잘살자고 하는 개별적인 귀족과 승려들을 비판한 점에서는 좋았다.

고전주의문학에서는 또한 문학은 제멋대로 창작해서는 안되며 엄격한 규범에 맞추어 현실을 진실하게 그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례를 들어 극문학에서 《3일치》규범을 들수 있다. 즉 극은 반드시 시간상으로 24시간안에 일어나는것, 공간상으로는 한장소에서 벌어지는것, 사건상으로는 하나의 줄거리만을 가진것, 다시말하여 시간, 장소, 사건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것이다.

이 문학은 문학예술형태들을 규범화한 좋은 점이 있으나 그 대신 귀족들의 취미에 따라 너무 틀에 맞추어 도식화한 약점을 나타냈다.

고전주의문학의 대표작들로서는 프랑스의 몰리에르가 쓴 희극 《수전노》, 영국의 밀턴이 쓴 서사시 《실락원》 등이 있다.

고전주의문학에 뒤이어 18세기에는 계몽주의문학이 출현하였다.

계몽주의문학은 부르죠아혁명이 눈앞에 다가온 환경속에서 벌어진 계몽운동의 한 고리로서 발생하였다.

계몽주의문학은 무엇보다도 봉건적인것을 반대하면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였다. 이로부터 주로 평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귀족에 비한 그의 우월성을 보여주었으며 귀족의 시대를 끝장내고 새로운 《리성의 왕국》을 세울것을 호소하였다.

이 문학이 내세운 자유와 평등은 로동자, 농민 등 근로인민대중의 자유와 평등이 아니라 부르죠아지들의 자유를 의미하였다. 때문에 귀족계급을 비판하고 봉건제도의 멸망을 선언한 점에서는 진보적이였지만 부르죠아의 계급적리익을 옹호한 점에서는 제한적이였다.

계몽주의문학은 또한 귀족계급의 취미에 맞는 고전주의문학의 엄격한 규범과 틀을 반대하고 문학형식의 자유를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소설에서도 일기체, 편지체, 대화체소설들과 참회록, 려행기형식의 작품들이 나왔으며 극에서도 종래의 비극과 희극만이 아니

라 정극이 새로 나왔다.

이 문학이 문학형식을 다양하게 발전시킨것은 좋았지만 그 대신 계몽주의사상선전에 지나치게 복종시켰기때문에 예술성보다 사상성에 치중하는 결함도 발로시키였다.

계몽주의문학의 대표작들로서는 프랑스의 디드로가 쓴 중편소설 《라모의 조카》, 루쏘가 쓴 장편소설 《신엘로이즈》, 보마르쉐가 쓴 희극《쎄빌랴의 리발사》, 도이췰란드의 괴테가 쓴 극시《파우스트》, 쉴러가 쓴 희곡 《윌헬름 텔》, 영국의 디포가 쓴 장편소설《로빈슨 크루소우》, 스위프트가 쓴 장편소설《갈리버려행기》등이 있다.

일리아스

《일리아스》는 B. C. 8～7세기경에 고대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가 창작한 서사시이다.

호메로스는 고대그리스의 눈 먼 랑송시인으로서 그의 구체적인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는 전해지고있는것이 없다. 그의 작품으로서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듀쎄이아》가 전해지고있다.

《일리아스》의 기초로 된것은 트로야전쟁에 대한 고대그리스의 전설이다. 전설에 의하면 B. C. 13～12세기경에 다다넬스해협의 남쪽에 자리잡은 성시인 트로야를 공격한 그리스원정군과 트로야수비군사이에 10년동안 전쟁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은 트로야왕자인 파리스였다. 그는 그리스를 방문했을 때 스파르타왕 메넬라우스의 아름다운 안해 헬렌을 유혹하여 트로야로 데리고 왔다. 분노한 메넬라우스는 자기 형인 미케네왕 아가멤논에게 호소하여 그의 도움밑에 전 그리스의 장수들을 궐기시키며 아가멤논을 총지휘자로 한 수십만명의 원정군을 무어 트로야를 포위공격한다. 트로야측에서는 왕자인 헥톨을 총대장으로 하여 완강히 자기 성시를 지켜낸다. 공격에서 실패한 그리스군은 마감에 큰 목마를 만들어 성밖에 세워둔 후 마치도 밤사이에 본국으로 철수한척하고 배를 타고 섬뒤에 가 숨는다. 트로야사람들은 자기들이 신령스러운것으로 믿고있는 토템인 말이 원쑤들을 쫓아준것으로 생각하

고 그 목마를 성안으로 끌어들인 후 승리를 즐긴다. 깊은 밤 그 목마속에 숨어있던 그리스병사들이 나와 성 보초를 죽이고 성문을 열어놓는다.

이때를 기다리고있던 그리스군병사들은 다시 트로야성을 공격하여 함락하는데 성공한다.

서사시는 이 10년간의 이야기가운데서 마지막시기의 51일동안의 전투이야기를 담고있으며 그중에서도 그리스장수 아킬레스와 트로야장수 헥톨에 대한 이야기만을 쓰고있다. 서사시는 총 24편으로 되여있는데 이것은 후세의 연구가들이 편리하게 나눈것이고 사실은 총 1만 5천 693행에 달하는 련속적인 대장편서사시였다.

서사시의 사건은 그리스의 가장 용맹한 장수인 아킬레스가 총지휘자 아가멤논과 다투고 전쟁터에서 물러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아가멤논은 지휘관회의에서 아킬레스를 모욕하고 그의 정정당당한 전리품을 빼앗아갔다. 분노한 아킬레스는 전쟁터에서 물러나며 자기 어머니인 녀신 테티스에게 억울한 사연을 호소한다. 테티스는 올림푸스신전의 최고통치자인 번개와 우뢰의 신 조브(제우스)에게 요청하여 아가멤논과 그리스군에게 징벌을 주게 한다.

아킬레스가 없는 그리스군은 련전련패하고 헥톨의 군대가 바다가의 그리스군진영에까지 쳐들어와 그리스군을 위협하게 된다. 그제서야 아가멤논은 장수들과 함께 아킬레스를 찾아와 사죄하면서 다시 전쟁터에 나와줄것을 요청한다. 고집스런 아킬레스는 응하지 않는다. 아킬레스는 전쟁에서 위급한 정황이 조성되였을 때에야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전우이며 부하인 파트로클로스가 자기 대신 자기 옷을 입고 출전할것을 승인한다.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스로 가장하고 트로야군을 무찌르며 용감히 싸워 일시 위기를 수습하였으나 트로야의 총지휘자인 용맹한 헥톨의 손에 피살된다.

아킬레스는 그제서야 아가멤논에 대한 분노를 삭이고 자기 전우를 죽인 헥톨에 대한 복수심에 불탄다. 그는 신들이 마련해준 갑옷을 입고 싸움터에 나가며 헥톨과 단독으로 싸움을 벌려 그를 죽여버린다. 이 부분을 선문으로 주었다.

서사시의 마감은 파트로클로스와 헥톨의 장례식이다. 아킬레스는 무서운 잔인성을 가지고 트로야병사들을 마구 죽일뿐아니라 사로잡은 병사들과 헥톨의 시체를 파트로클로스를 화장하는 장작더미

에 던져 제를 지낼 작정이였다. 그런데 한밤중에 트로야왕 프리암이 단신으로 아킬레스를 찾아와 아들 헥톨의 시체를 돌려줄것을 간청한다. 아킬레스는 그의 모습에서 이다음 자기가 죽은 뒤 그처럼 슬퍼할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노여움을 풀고 함께 손잡고 울며 헥톨의 시체를 트로야로 돌려보낸다.

서사시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 처음으로 계급사회에 들어선 인간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며 무서운 살륙전을 벌리게 된데 대한 그리스인들의 분노와 그 해결방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인간에게 그 무서운 불행들을 가져다준 원인은 그들자신으로서도 잘 알수 없다. 때문에 시인은 량쪽의 사람들가운데서 어느 한쪽은 옳고 어느 한쪽은 그르다는 식의 결론을 주지 않고있다. 량쪽을 다 동일한 애정으로 묘사하였으며 다만 자기 공동체, 자기 조국을 사랑하며 희생적으로 싸우는 용감성과 인간적인 성품들을 찬양하고있다.

제 22편

…
그 동안 아킬레스는 군신 마즈와도 같이
말총술 단 투구를 번쩍이며 닥쳐왔다.
바른편 어깨에서는 펠루스의 물푸레창이 처참히 떨고
청동갑옷에서는 타오르는 화염,
아니, 해살과도 같은 찬연한 광채가 풍기였다.
이 광경을 보고 녕맹한 헥톨도 가슴이 얼어붙는듯 몸서리치고
감히 한자리에 머물러서서 적의 진격을 기다리지 못하여
성문을 뒤에 두고 황급히 달아났다.
그러나 펠루스의 아들은 숨돌릴 틈도 없이 급추격하여왔다.
마치 새중에서 가장 빠른 새매가
높은 산꼭대기에서 비둘기를 쫓아
나래를 접고 쏜살같이 내리꽂히자
비둘기는 놀래여 황급히 바위틈으로 숨듯이
그렇게 헥톨은 추격을 피하여 성밑으로 도망쳤다.

이리하여 그들은 높은 장대밑에 서있는
바람맞은 무화과나무옆을 지나 큰길을 달리여
마침내 스카만델의 굽이치는 물결의
수원지인 두 아름다운 샘가에 다달았다.
하나는 더운물이 흐르는 샘으로서
그밑에서 무쇠도가니처럼 열탕이 솟고
또 하나는 삼복지경에도 우박이나 눈이나
얼음장같이 찬물이 솟았다.
그 샘가에는 곱게 깎은 빨래돌이 있어
그리스인들이 침입하여오기 전 평화롭던 시절에는
트로야의 안해들과 어여쁜 처녀들이
윤택있는 옷들을 빨던 곳이였다.
여기에 그들이 다달은것이다.
하나는 쫓기여, 하나는 쫓아
쫓기는 사람도 빨랐으나 쫓는 사람은 더욱 빨라 비호같았다.
말할나위도 없이 이 경주의 상은
심상한 짐승이나 하찮은 황소가 아니였고
위대한 헥톨의 생명이였다.
마치 날랜 경마들이 온갖 힘 다하여 경기장을 달려
삼각대나 혹은 죽은 용사의 안해를 상 타려고 열망하듯이
그렇게 그들은 힘을 다하여
트로야의 성벽을 세번 돌고
모든 신들은 이들을 구경하였다.
…
그러는 동안에도 아킬레스는 분노에 불타
맹렬히 헥톨의 뒤를 쫓았다.
마치 사냥개가 어느 골짜기에서 사슴을 몰아내여
숲과 쪼개진 봉우리사이로 추격하면
사슴은 잠간이나마 추격을 피할가 하여
넝쿨밑에 숨어보나 개는 그 냄새 맡아
지칠줄 모르고 달려들듯이
헥톨은 몸을 숨기려고 애썼으나
다리 날랜 펠루스의 아들을 피할수 없었다.

그는 행여나 전우들의 무기가
자기를 구출할수 있을가 하여
몇번을 견고한 문루아래 성문에 숨으려 하였으나
적은 그보다도 빨라
언제나 앞질러 막고 그를 평원으로 내몰았다.
…
이리하여 마침내 두 전사는 마주서게 되였고
투구 찬란한 위대한 헥톨이 먼저 소리쳤다.
《펠루스의 아들이여, 이 이상 내 도망치지 않으리라.
내 세번 성벽을 돌아 너의 습격을 피했노라.
그러나 이제는 내 네 손에 죽거나
또는 너를 베이거나 량단간에 끝장을 내리라.
그러나 우선 우리는 영원한 신들에게
우리의 언약의 증인과 보호자로 되여달라고 빌자.
만일 조브가 나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어
네 목숨 나에게 준다면
너의 갑주를 벗기고 시체를 그리스인들에게 돌려주어
너에게 치욕은 주지 않을것을 약속하노니
아킬레스여, 너도 같은 언약을 하라.》
아킬레스는 사나운 눈초리로 흘겨보며 대답하였다.
《헥톨이여, 너 가증스러운자여,
나에게 약속하잔 말을 말라.
사람과 사자가 서로 언약을 지킬수 없고
승냥이와 양이 결코 화해할수 없어
언제나 서로 해치듯이 너와 나는
어느 하나가 저 무장한 마즈를 피로 물들일 때까지는
서로 화친하고 언약할수 없노라.
자, 어서 있는 힘을 다하여
창의 명수요 용감한 전사인 네 낯을 깎지 말게 하라.
이제는 너 결코 도망치지 못하리라.
팔라스가 내 창으로 네 숨통을 찌르리니
네가 베인 모든 나의 전우들의 대가를 치르라.》
이렇게 말하고 무거운 창을 휘둘러쳤다.

헥톨은 이를 보고 곧 타격을 피하였다.
몸을 구부리매 그 청동촉 달린 창이
어깨너머로 날아 땅에 꽂혔다.
그러나 팔라스는 그 무기를 뽑아
헥톨이 보지 않게 아킬레스의 손에 쥐여주었고
헥톨은 펠루스의 아들을 향하여 웨쳤다.
《펠루스의 신과 같은 아들이여,
너의 창은 빗나가고 나는 무사하다.
네 장담이란 기껏 이런것이였구나!
그런데 나를 위협하여 명예와 용기를 빼앗겠다니
너의 혀바닥은 얼마나 교활하고 미끄러우냐?
과연 조브가 너에게 영광을 주었다면
내 결코 도망치지 않으리니
자, 나의 가슴을 찔러보라.
아니면 이번에는 내가 창을 던지리라.
내 창끝은 깊이 네 명문에 꽂히리라.
트로야인들의 가장 흉악한 적인 네가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만단 시름 놓으리라!》
말과 함께 시퍼런 창을 휘둘러 힘껏 쳤다.
과녁이 어긋날리 없었으니
펠루스의 아들의 방패를 정통으로 찔렀다.
그러나 그 빛나는 방패에 저지되여
창은 아킬레스의 뒤로 튕겨져 떨어졌다.
헥톨은 창이 이렇게 헛되이 손에서 떠났음을 슬퍼하였다.
그에게는 더는 창이 없는지라
부득이 데이포부스를 소리높이 불러서
새창을 가져오도록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벌써 거기 없었다.
헥톨은 비로소 속은줄을 알고
《아, 슬프다. 하늘의 신들이 나를 죽음에 떨어지게 하였구나!
나는 정말 용감한 데이포부스가 온줄 알았건만
그는 멀리 성안에 남아있으니
나는 애오라지 팔라스에게 배반당했도다.

아, 죽음은 가까왔고 퇴로는 막혔구나!
조브와 이제껏 나를 수호하던 활 쏘는 신이
급기야 나를 이 운명에 떨어지게 하였도다!
그러나 내 싸우지 않고 비겁하게 죽지는 않으리라.
아니다, 후일 나의 죽음을 찬양할만 한
위대한 최후로 생애를 마치리라.》
이렇게 말하며 옆구리에 찼던
서슬푸른 장검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몸을 도사렸다가 왈칵 뛰여들었다.
마치 새중에서도 가장 날랜 독수리가
어느 새끼양이나 또는 산토끼를 채려고
검은 구름을 가르고 한숨에 평원으로 내리꽂히듯이
그렇게 헥톨은 시퍼런 장검을 휘두르며 돌진하였다.
이를 보자 아킬레스는 노기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가슴에서는 찬란한 방패가 치를 떨고
마치 미풍에 흩어지는 황금구름처럼
머리우에서는 투구꼭지에 장식으로 단
벌칸의 말총술이 무섭게 흔들렸다.
그리고 황혼이 사라지고 밤이 깃들자
넓은 하늘에 무수한 성좌사이에
홀로 뛰여나 찬연히 빛나는 십자성처럼
그의 모진 창끝은 찬란히 빛났다.
아킬레스는 이를 바른편 손으로 휘두르며
신과 같은 헥톨의 급소를 겨누었다.
헥톨이 파트로클로스에게서 빼앗아 입은 갑옷,
그 갑옷은 비길데없이 견고한 일품이였으나
다만 울대뼈앞 목고대와 가슴걸이의 이음새에
옥에 티랄가, 조고만 빈틈이 있어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가장 급소였다.
헥톨이 맹렬히 돌진하여올 때
그를 맞받아 찌른 곳은 꼭 거기였다.
이렇게 정통으로 급소를 찔렀고
트로야의 맹장 헥톨은 먼지우에 쾅 쓰러졌다.

아킬레스는 그를 굽어보며 호통쳤다.
《헥톨이여, 파트로클로스에게서 갑옷을 략탈할제 너는 무사하리라 믿었고
전선에서 떨어져있는 나를 겁내지 않았으리라.
어리석은자여！ 그러나 내 오늘 배에서 나와
파트로클로스보다 몇갑절이나 무서운 힘으로
그가 받은 온갖 치욕의 대가를 치르었노라！
그를 그리스인들이 성대히 장례하는 동안에
너는 무참히 주린 개들과 독수리의 밥 되리라.》
그에게 투구 찬란한 헥톨은 넘어진채 대답하되
《너의 령혼과 너의 무릎과 너의 어버이의 머리를 걸어 청하거니와
아킬레스여, 나의 시체를
그리스의 개들에게 뜯기게는 하지 말라.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에게
내 시체의 대가로 거액의 황금과 청동을 치르리라.
트로야의 사나이들과 안해들이 명예로이
나를 매장하도록 시체만은 남겨다고.》
아킬레스는 눈 부릅뜨고 크게 질타하되
《이 몹쓸 개여！ 나의 무르팍을 안지 말라！
내 량친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나의 분노는 너를 찢어서 씹어도 부족하다.
황금과 청동을 일리움성루보다 더 높이 쌓아올려도
너를 치욕에서 구출할 사람은 없다.》
이에 명맥 진한 헥톨이 응수하기를
《내 너를 잘 안다. 내 너의 심보
돌이킬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있다.
너는 목석같은 인간.
그러나 너 아무리 녕맹하다 하더라도
후일 스카만델성문앞에서
아폴로의 원조로 파리스가 너를 벨 때
나의 사무친 원한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격노가 갑절될것을 명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눈은 암흑에 덮이고
운명을 통곡하며 청춘과 힘이 사라졌다.

이미 죽은 그에게 아직도 아킬레스는 말을 이어
《죽으라! 조브와 영원한 신들이 그렇게 한다면
나도 언제나 나의 마지막운명을 맞이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시체에서 창을 뽑아 옆에 세운 후
피에 묻은 갑옷을 벗기니
모든 그리스인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그들은 앞을 다투어 헥톨의 고귀한 몸과
얼굴을 란도질하며 서로 마주보고
《꼬락서니 좋다, 그전날 함대가에서
우리를 불사를 때보다는 손을 대기가 훨씬 수월쿠나.》
이렇게 지껄이면서 다시 시체에 달려들었다.
그러나 다리 날랜 펠루스의 아들은 갑옷을 벗긴 후
거기 모인 그리스인들을 돌아보고
《오, 전우들이여, 그리스의 장수들이여, 모사들이여,
혼자서 모든 적병의 련합군보다도
더 처참히 우리를 괴롭히던 그자를
이제 신의 도움으로 베여눕혔으니
우리는 무장을 갖추고 적진을 습격하여
그들의 투지를 시험하여보자
대장이 참살된 오늘 그들은 창검을 던지고 굴복하려는가,
또는 비록 헥톨은 죽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성을 고수하려는가?
그러나 어찌 내 이런 생각을 하는것이냐?
내가 아직 살아서 팔다리를 움직이는 동안은
한시도 잊을수 없는 파트로클로스가
배가에서 아직 충분한 애도도 받지 못하고
매장도 되지 않은채 누워있지 않는가?
아니다. 저승에 가면 모든것을 잊는다지만
나는 나의 죽은 전우를 잊을수 없다.
그리스의 아들들이여, 다 함께 개가를 부르며
빨리 함대로 돌아가자.
트로야의 자랑이요, 신들의 총애 받던
위대한 헥톨의 시체도 끌고가자.

우리의 영예는 실로 무쌍한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헥톨의 시체를 욕되게 하였나니,
두발을 복사뼈에서 발꿈치로 꿰뚫어
가죽끈으로 꿰여 전차에 거꾸로 매달고
머리가 질질 땅에 끌리게 한 다음
략탈한 갑옷을 안고 덩실 전차우에 앉아
말에 채찍을 얹으니 말은 한달음에 내달았다.
그러자 끌려가는 시체우에서는 자욱히 먼지구름이 일고
머리는 흩어져 그전날 아름답던 그의 얼굴이
온통 피와 먼지투성이가 되였다.
아, 헥톨은 제 나라에서 적의 손에 떨어져
이렇게 치욕될 운명을 신에게서 받은것이였다.
이렇듯 헥톨의 주검이 더럽혀질제
이 광경을 본 그의 늙은 어머니는
너울을 찢어던지고 머리를 쥐여뜯으며
애끓는 목소리로 아들의 참상을 통곡하였다.
그의 늙은 아버지도 목놓아울어
삽시간에 성내는 통곡과 비탄으로 가득찼다.
높은 일리움성이 흡사 검은 연기에 휩싸여
뿌리채 쓰러지고 불길이 맹렬히 치솟는것 같았다.
그렇게 호곡소리로 갑자기 온 성이 뒤흔들렸다.
무너진 나라의 불행한 왕은
불현듯 성문으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그는 만류하는 군중에 저지되여
먼지우에 딩굴어 몸부림치면서
《전우들이여, 놓아다고, 나를 막지 말라.
내 단신으로 배에 가서 저 잔인무도한 사나이를 만나
혹시 그가 늙은이를 존경하고
백발을 련민하는가 알아보려 하노라.
그에게도 나같은 애비가 있지 않으냐?
트로야의 재앙인 그를 낳아 기른 펠루스가 있지 않느냐?
그는 수많은 씩씩한 나의 아들들을 베여
나에게 어느 누구보다도 큰 슬픔을 주었다.

그러나 다른 아들 백천을 잃는단들
어찌 헥토르를 잃은 슬픔에야 비길소냐!
오, 천도가 무심쿠나, 내 어찌 홀로 살랴!
그를 내 팔에 안겨 죽게 했던들
그를 낳은 불행한 어미와 내가
이처럼은 모진 슬픔으로 가슴 찢지 않았으련만!》
늙은이가 이렇게 통곡하매 모든 군중도 따라 울었다.
이때에 녀인들에게 호위되여
헤쿠바가 달려나오며 호곡하였다.
《나의 아들이여, 너를 잃고 내 어찌 살랴!
오, 너는 낮이나 밤이나 나의 광명이요.
모든 트로야사람들, 모든 부녀들의 힘이였거늘,
그들은 모두 너를 신과 같이 우러렀고
너는 생전에 늘 그들에게 영광을 베풀었거늘!
그렇거늘 이제 너는 우리를 버리고 떠나갔구나.》
그러나 아직 헥토르의 안해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아무도 그의 남편이 홀로 성밖에 남아
싸우고있다는 사연을 알리지 않았던것이다.
그는 지금도 후원 초당에 홀로 앉아서
가지각색 꽃으로 호화로이 수놓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겹 자주빛외투를 짜고있었다.
그리고 남편이 전선에서 돌아오면 따스한 물로
격전의 땀을 씻고 심신을 말쑥하게 하도록
시녀들을 재촉하여 큰 솥을 불우에 놓게 하였다.
아, 그는 팔라스가 아킬레스의 손으로
이미 신과 같은 헥토르를 참살한 사연을 몰랐던것이다.
그러나 별안간 문루우에서 곡성이 랑자하니
간담이 서늘하여 손에서 북을 떨어뜨리고
베틀에서 일어서며 시녀들을 향하여
《이 어인 요란한 곡성인고?
어서 몇아이 나를 따르라.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려오지 않느냐?
가슴은 뛰고 입은 떨리고 다리가 말을 듣지 않누나.

분명 프리암의 가문에 무슨 비운이 닥쳐온 모양이로다.
아, 내가 어찌 이런 말을 입밖에 내는고?
그러나 웬일인지 용감한 헥톨이
트로야성에서 홀로 들판으로 몰리여
거기서 잔인한 아킬레스의 창에
화를 입은것이 아닐가 겁나하노라.
언제나 대오의 선두에 뛰쳐나서서
닥치는대로 적을 베이는 성품이였기에.》
이 말과 함께 가슴을 두근거리며
그는 천방지축 달려나갔다.
시녀들도 허겁지겁 그뒤를 따랐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엉켜있는 문루에 당도하여
성루로 치달아 황급히 사위를 둘러보다가
그 날랜 준마들이 그리스함대로 끌고가는
먼지에 휩싸인 시체를 보자
갑자기 암흑이 그의 눈앞을 가리여
털썩 주저앉아 그대로 정신 잃고 쓰러졌다.
아, 머리의 온갖 장식들,
머리의 그물이며 금사은사로 수놓은 꽃댕기며
투구 찬란한 헥톨이 이이티온의 집에서
그 부유한 신부를 맞아올 때
비너스가 결혼의 선물로 준 너울이 모두 벗어졌다.
이를 본 동기들은 우르르 그리로 모여와
죽은듯 까무러친 그를 부축하여 일으켰다.
그러나 제 정신 들어 숨을 내쉬였을 때에는
갑자기 비통한 곡성이 터져나왔다.
《아, 헥톨이여! 헥톨이여!
그대와 나는 다같이 불행한 별아래 태여났구나.
그대는 이 트로야의 프리암왕궁에서
나는 테베의, 어린 나를 길러준
숲 무성한 플라코스, 이이티온의 집에서.
불행한 헥톨! 그러나 나는 그대보다도 더 불행하도다.
아, 차라리 내가 태여나지 않았던들!

이제 그대는 지하로 돌아가 암흑세계에 있거늘
나는 홀몸되여 외로이 집에 남아있어야 하느뇨?
우리들의 아들, 아직 강보에 싸인 어린것은
참으로 불행한 어버이를 가졌구나.
다시는 그대가 그것을 보호하여주지 못하고
또 그 애가 그대를 돌보아줄 날도 없으리.
비록 그 애가 그리스인의 모진 손을 피한다 해도
그에게는 끊임없는 재난이 뒤따를것이고
이윽고 그가 받을 유산도 남의 차지 되리라.
고아란 벗도 없어 뺨은 눈물에 젖고 눈은 내리깔려
혹 아쉬울 때 그의 아버지의 친구에게 가서
옷자락에 매달리고 외투소매를 당겨도
가엾이 여겨 자기 식탁에서 한쪼각 떡을 집어줄지 모르나
다만 입가심뿐 목구멍 넘는것 없으니,
그러면 량친이 구존한 행복한 아이들은
그들의 향연에서 그 애를 쥐여박고 꼬집으며
〈가라! 너의 아버지는 여기 없다.〉
이렇게 구박이 자심하리. 그러면 그전날엔
아버지의 무릎에 안기여 언제나 극상의
어린 양의 골과 기름갓만을 먹고 자랐고
장난하기에 지쳐 혼곤히 잠이 들면
유모의 팔에 안겨 자장가를 듣고 또 부드러운 자리에 뉘여
모든 자애와 단란속에서 자라던 그,
고아된 아스티아낙스가 울며 풀없이
홀몸된 어미의 치마자락에 매달리리.
아, 트로야인들의 아스티아낙스라 이름 지어 부르던
그 어린것은 이제는 아버지를 잃어
비운만이 그를 기다리고있구나.
오직 그대만이 트로야를 지킬수 있는 영웅이였거늘
그대는 멀리 어버이를 떠나 그리스의 함대앞에서
원통히도 발가벗은채 개들의 배를 불린 다음
까마귀떼 모여들어 창자를 후비리.
집에는 수많은 녀인들의 손으로 지은

호화롭고 진기한 의복이 층층이 쌓여있건만!
나는 그것을 모조리 불사르리라,
다시는 그대에게 소용없는것,
다시는 그대 입을 날도 없는것이니.》
흐느껴울며 이렇게 말하매.
모든 녀인들도 함께 따라 울더라.

트로야—고대그리스의 도시의 이름.
녕맹하다—모질고 사납다.
천도—하늘이 낸 도리나 법.
천방지축—너무 바빠서 허둥지둥 분주히 날뛰는것.

삼국연의

《삼국연의》는 라관중이 창작한 장편소설이다.

라관중은 중국의 원나라말—명나라초에 활동한 력사소설가이다. 그는 1330년경에 출생하였는데 본래이름은《본》이고《관중》은 호이다. 그는《삼국연의》를 비롯하여 《수당지전》(수나라와 당나라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편의 력사소설을 창작하였으며 극작품들도 창작하였다. 그는 또한 유명한 력사소설 《수호전》을 편집정리하는 일에도 힘을 기울이였다.

이처럼 중국문학에서 처음으로 되는 장편소설을 창작하고 력사소설을 많이 창작한것은 라관중의 첫째가는 공로라고 말할수 있다.

장회체 력사소설 《삼국연의》는 2세기말—3세기에 있은 위, 오, 촉 3국이 서로 패권을 잡기 위하여 약 100년동안(184—280) 싸운 력사자료와 전설, 극작품에 기초하여 창작되였다.《삼국연의》란 세나라가 크게 판을 벌려 싸운 이야기란 뜻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소설은 2세기 말경부터 시작하여 근 100년기간의 중국의 당대 현실을 펼쳐보이면서 400여명의 실재한 인물을 등장시키고 구체적인 사건을 생동하게 그리여 당시의 시대적환경과 세 나라의 전쟁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습니다.》

소설의 이야기는 도원(복숭아동산)에서 류비(류현덕)가 관우

(관운장), 장비(장익덕) 두 호걸과 의형제를 맺는데서부터 시작된다.

류비는 황건농민봉기가 일어났을 때 관우, 장비와 함께 이를 진압한 《공로》로 그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다.

이무렵 지방군벌인 동탁이 궁중에 기여들어 온갖 못된짓을 다 한다. 한나라 장수인 조조가 동탁을 반대하여 군사를 크게 일으킨다. 류비도 조조의 휘하에 들어갔으나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각기 자기 지방으로 가게 된다.

조정의 대신 왕윤은 초선이라는 미인을 리용하여 동탁과 그의 양아들 려포를 리간시키고 마침내 려포로 하여금 동탁을 죽이게 하는데 성공한다.

동탁이 처단되자 도망갔던 그의 부하 리각과 곽사가 수도에 쳐들어와 황제의 가까이에서 전횡을 부린다. 황제의 조서를 받은 조조는 리각과 곽사를 치고 나라의 권세를 틀어잡는다. 조조가 함부로 대신들을 내쫓고 사람들을 마구 죽이며 온갖 못된짓을 다 하게 되자 황제는 장인벌되는 대신 동승에게 조조를 칠 대책을 세워달라고 부탁한다. 동승이 일을 꾸미고 거사하려던것이 사전에 드러나게 된다. 조조는 동승과 그 일가친척은 말할것 없고 황제의 둘째부인 동귀비까지 죽여버린다.

서주에서 조조의 대군과 맞서 싸워 실패한 류비는 원소에게로 찾아가며 관우는 조조에게 붙잡히고 장비는 일부 부하들을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다. 조조의 후한 대접을 받으며 지내던 관우는 여러 관문들을 돌파하면서 끌내 류비를 찾아온다.

한편 조조는 북방일대를 차지하면서 자기의 세력을 크게 넓혀간다.

이때 류비는 뛰여난 군사적지략을 가진 제갈량(공명)을 청해다가 스승으로 존경하며 자기 군대를 지휘하게 한다.

제갈량은 손권의 부대와 협력하여 조조를 치기 위해 로숙을 따라 강동으로 간다. 그는 손권의 수군도독 주유의 마음을 움직여 조조와 싸울 결단을 내리게 한다. 주유는 제갈량의 수가 높은데 대하여 못내 걱정되여 그를 몇번이나 죽이려 하였으나 번마다 실패하게 되자 그와 협력한다.

제갈량은 조조의 군대 83만이 숱한 배를 타고 장강으로 공격해올 때 주유로 하여금 화공전술을 쓰도록 모든 대책을 세워주고

비상한 지혜와 전술로 군사들을 이끌어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대군을 쳐물리치는 큰 승리를 이룩하게 한다. 이 부분이 교재의 선문으로 되여있다.

제갈량의 령을 받고 매복하고있던 관운장은 적벽싸움에서 여지없이 패하여 얼마 안되는 군사를 이끌고 간신히 도망치는 조조를 화용도에서 만나 사로잡을수 있게 되였으나 그전에 조조에게서 신세진것을 생각하여 그를 놓아보낸다.

류비는 제갈량의 도움으로 곡창지대인 형주일대를 점령하고 그 세력을 확장한다. 오나라 손권은 오래전부터 노려오던 형주를 빼앗으려고 주유에게 군사를 주어 치게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주유는 자기의 지략과 전술이 제갈량에게 미치지 못함을 통절히 느끼게 되자 화김에 까무라쳐 죽고만다.

류비는 제갈량의 도움으로 적을 막기에 유리한 곳인 서천을 점령한 다음 조조가 차지하고있던 한중땅을 점령하고 한중왕의 자리에 오른다. 스스로 위나라의 왕이 되였던 조조는 병으로 죽고 그의 아들 조비가 애비의 뒤를 잇는다. 그는 끝내 황제(헌제)를 내쫓고 제가 왕위에 오른다.

이무렵 손권이 남중국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오나라를 세운다. 서부중국에서는 류비가 한나라왕조를 잇는다고 하면서 황제가 되여 나라이름을 《촉한》이라 부른다.

류비가 죽은 다음 제갈량은 촉한의 승상으로 되여 전 중국땅을 통일하기 위하여 힘쓴다.

조비는 촉한을 치려고 다섯개 방향으로 쳐들어갔으나 실패하고 만다.

제갈량은 50만의 대군으로 남만을 평정한 다음 손권과 동맹하여 조비와 여러차례 싸움을 벌리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위나라에서는 왕 조비가 죽고 그의 아들 조예가 왕이 된다.

244년에 제갈량은 34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나라 손권의 30만대군과 합동작전으로 위나라를 공격하였으나 승리하지 못하고 병으로 죽는다.

이리하여 소설은 위나라가 패권을 잡는것으로 끝난다.

소설은 인민대중의 형상을 창조하지 못하고 몇몇 《영웅호걸》들만 내세운것이라든지 농민봉기군을《도적》으로 묘사하고 그것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운 류비를 찬양한것 그리고 봉건적인 충군사상을 강하게 내세운것(봉건군벌의 하나였던 류비를 리상적인 어진 임금으로 내세운것)과 같은 시대적 및 계급적제한성을 가지고있다.

제49회. 칠성단에서 제갈량은 바람을 빌고 삼강구에서 주유는 불을 놓다

이때 주유가 산마루에 서서 한동안 바라보다가 홀지에 뒤로 나가자빠지며 입으로 피를 토하고 인사불성이 되니 옆에서 그를 구호하여 장막안으로 들어갔다.

여러 장수들이 모두 문병하러 와서는 다들 깜짝 놀라 서로 돌아보며

《강북의 백만대병이 범처럼 도사리고앉아서 동오를 삼키려 하는판에 이제 도독이 이러하시니 만약에 조조군사가 한번 이르는 날에는 대체 어찌한단 말인고.》하고 황망히 사람을 보내서 오후에게 이 일을 알리고 일변으로 의원을 청해다가 병을 보게 하였다.

이때 로숙이 주유가 병으로 누운것을 보고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 공명을 찾아보고 주유가 급병으로 누운 일을 이야기하니 공명이 있다가

《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는다.

《이는 바로 조조의 복이요, 강동의 화지요.》 하고 로숙이 대답하자 공명은 웃으면서

《공근의 병은 나도 고칠수가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로숙은

《진실로 그렇다면 나라에 이만 다행이 없겠습니다.》 하고 즉시 공명에게 청해서 함께 병을 보러 갔다.

로숙이 먼저 들어가서 주유를 보니 주유가 머리우까지 이불을 들쓰고 누워있다.

《도독의 병세가 좀 어떠하십니까.》 하고 로숙은 물었다.

《가슴과 배가 쥐여뜯는것처럼 아프고 때때로 정신이 혼미하외다.》 하고 주유가 대답한다.

《무슨 약을 써보셨나요.》

《구역이 나서 약을 도무지 삼킬수가 없소그려.》

《바로 지금 공명을 가보았더니 그의 말이 자기가 능히 도독의 병환을 고쳐놓을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밖에 와있는데 청해들여다가 한번 보이시는것이 어떨가요.》

로숙이 말하자 주유는 청해들이라고 이른 다음에 옆에서 붙들어 일으키라고 해서 그는 자리우에 일어나 앉았다.

공명이 들어와서 그를 보고

《그간 여러날 뵙지 못하였는데 이처럼 귀체가 불안하실줄은 몰랐습니다그려.》 하고 인사말을 해서 주유가

《〈사람에게는 조석으로 화복이 있다〉고 하니 어찌 능히 보전할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 하니 공명이 웃으면서

《〈하늘에는 불측한 풍운이 있다〉고 하니 사람이 또한 어찌 헤아릴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꾸한다.

그 말을 듣자 주유는 금시에 낯빛을 변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내였다.

《도독은 가슴속이 답답하지나 않으십니까.》

《답답합니다.》

《그러면 서늘한 약을 써서 풀어야 합니다.》

《서늘한 약은 이미 써보았습니다마는 전연 효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운을 다스려야 합니다. 기운만 순하게 되고보면 곧 절로 낫습니다.》

주유는 공명이 필시 그 뜻을 알고있으리라 짐작하고 마침내 한마디 건네여보았다.

《기운을 순하게 하려면 어떤 약을 먹어야 할가요.》

공명이 웃으면서

《저에게 한 처방이 있으니 도독의 기운을 곧 순하게 해드릴수 있습니다.》 하고 말한다.

《바라건대 선생은 가르치심을 내리십시오.》하고 주유가 청하자 공명은 곧 종이와 붓을 달라고 한 다음에 옆사람들을 물리치고 남모르게 종이에다 글자 열여섯개를 썼다.

조공을 깨치려면
화공을 써야 하리
만사가 구비하되
동풍이 빠졌구나

다 쓰고나자 그는 종이를 주유에게 내여주며

《이것이 곧 도독의 병근원이외다.》 하고 말하였다.

주유는 보고나서 크게 놀라

《공명은 참으로 신령같은 사람이다. 제가 내 마음속을 벌써 환히 알고있고나. 이렇게 된바에는 실정을 고하고 청할밖에 없다.》

이처럼 속으로 생각하고 마침내 웃으면서

《선생이 이미 내 병의 근원을 알고계시니 장차 무슨 약을 써서 고쳐놓으시렵니까. 사세가 위급하니 곧 가르쳐주셔야만 하겠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공명이 대답한다.

《제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일찌기 이인을 만나서 기문둔갑천서를 전수받아 능히 바람을 불게 하며 비를 내리게 하는터입니다. 도독이 만일에 동남풍을 쓰시겠다면 남병산에다 단을 하나 모으되 이름은 칠성단이니 높이가 구척이요 모두 삼층이라 군사 일백이십명을 내여서 저마다 기를 들고 단을 둘러싸게 한 다음 제가 단상에 올라가 술법을 써서 삼일삼야의 동남풍을 빌어다가 도독이 군사를 쓰시는데 도움을 드릴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삼일삼야도 그만두고 단지 하루밤만 바람이 크게 불어주어도 대사를 가히 이룰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일이 바로 목전에 있으니 늦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십일월 이십 갑자일에 바람을 빌어서 이십이 병인일에 그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듣자 주유는 크게 기뻐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며 즉시 령을 전하여 정예군사 오백명을 남병산으로 보내서 단을 모으게 하고 또 일백이십명을 내여 기를 들고 단을 지키며 령을 듣게 하였다.

공명이 주유를 하직하고 밖으로 나와 로숙과 함께 말을 타고 남병산으로 가서 지세를 살펴본 다음에 군사들을 시켜서 동남방의 붉은 흙을 파다가 단을 모으게 하는데 단의 주위가 이십사장이요

매층의 높이가 삼척이니 모두가 구척이다.

제 일층에는 이십팔수 기를 세우니 동방의 칠면 청기는 각, 항, 저, 방, 심, 미, 기를 응해서 청룡의 형상으로 벌려세우고 북방의 칠면 흑기는 두, 우, 녀, 허, 위, 실, 벽을 응해서 현무의 형세를 만들고 서방의 칠면 백기는 규, 루, 위, 묘, 필, 자, 삼을 응해서 백호의 위엄을 보이고 남방의 칠면 홍기는 정, 귀, 류, 성, 장, 익, 진을 응해서 주작의 모양을 이루었으며

제 이층에는 주위에 황기 륙십사개를 세우되 륙십사패를 응해서 여덟방위로 나누어 세우고

제 삼층에는 네사람을 쓰되 매 인이 속발관을 쓰고 조라포를 입고 봉황무늬가 있는 옷에 넓은 띠를 띠고 모가 난 치마에 붉은 신을 신은 차림으로, 앞쪽 왼편에 선 사람은 손에 긴 장대를 들었으니 장대끝에는 닭의 깃을 달아서 바람의 방향을 잡게 하고 앞쪽 바른편에 선 사람도 손에 긴 장대를 들었으니 장대우에는 북두칠성을 그린 신호띠를 매달아서 바람의 형세를 표시하게 하고 뒤쪽 왼편에 선 사람은 손에 보검을 받들고 뒤쪽 바른편에 선 사람은 손에 향로를 받들며

단아래 있는 스물네명은 각기 장목기와 일산과 큰 민눌창과 긴 창과 누른 도끼와 흰 소꼬리기와 붉은기와 검은 득기를 들고 사면으로 둘러서게 하였다.

공명이 동지달 스무날 갑자일에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부정을 피한 다음 도의를 입고 발벗고 머리 풀고 칠성단앞에 이르러 로숙을 보고

《자경은 군중에 들어가서 공근이 군사포치하는것을 도우시되 혹시 나의 비는바가 효험이 없더라도 괴이하게 아시지는 마십시오.》 하니 로숙은 그와 작별하고 돌아갔다.

공명은 단을 지키는 군사들을 돌아보고

《함부로 제 자리를 떠나지 말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속살거리지 말며
함부로 지껄이거나 무엄한 소리를 말며
아는 일에 공연히들 놀라지 말라
만일에 령을 어기는자 있으면 참하리라.》하고 령을 내렸다.

모든 군사가 다 그의 령에 복종한다.

공명은 천천히 걸어서 단우로 올라가자 방위를 살펴보고나서 향로에 향을 피우고 바리에 물을 붓고 하늘을 우러러 속으로 가만히 축원하였다. 그리고나서 단을 내려와 장막안으로 들어가서 잠시 쉬며 군사들로 하여금 번갈아 밥을 먹게 하였다.

이렇듯 공명은 하루에 단에 오르기를 세번 하고 단에서 내리기를 세번 하였는데 동남풍은 졸연히 일어나지 않았다.

한편 주유는 정보와 로숙이하로 군관들을 장막안으로 불러들여서 동남풍이 일어나는대로 곧 군사들을 포치하기로 하고 일변 손권에게 보해서 호응하기를 청하였다.

이때 황개는 이미 불지를 화선 이십척을 준비해서 배머리에 큰 못을 빽빽하게 박아놓고 배안에는 갈대와 마른 섶을 가뜩 싣되 두루 생선기름을 뿌리고 우에다 류황과 염초 등 불당길 물건들을 얹어놓은 다음에 청포와 유지로 그우를 푹 덮어씌우고 이물에는 청룡기를 꽂고 고물에는 각각 쾌속선을 매여놓고서 장막아래에 대령하여 오직 주유의 호령이 내리기만 기다린다.

또한 감녕과 감택은 채화, 채중을 수중진안에다 붙들어놓고서 매일 함께 술을 마시며 단 한명의 군사도 륙지에 오르지 못하게 하니 주위가 모두 동오군마라 물 한방울 새나갈 틈이 없게 하여놓고는 오직 장막에서 호령이 내리기만 기다렸다.

주유가 바야흐로 장막안에 앉아서 일을 의논하고있는데 문득 정탐이 들어와서

《오후의 배가 수중진에서 팔십오리 떨어진 곳에 닻을 내리고 오직 도독에게서 좋은 소식이 있으시기만 기다리고계신답니다.》하고 보하였다.

주유는 곧 로숙을 시켜서 각 부하관원과 장병들에게 두루 알리게 하되

《모두들 배와 병장기와 돛과 노따위를 다 수습해놓고 호령이 한번 떨어지는대로 시각을 어기지 말게 하라. 만약에 어기는자가 있으면 곧 군법으로 다스리리라.》 하였다.

모든 군사와 장수들이 령을 듣자 저마다 주먹을 어루만지고 손바닥을 비비며 적과 싸울 준비들을 하는데 어느덧 날이 저물고 밤이 되였다. 그러나 하늘은 맑게 개고 가는 바람조차 불지 않는다.

주유는 로숙을 보고 한마디 하였다.

《공명의 말이 거짓이요. 이 깊은 겨울에 어떻게 동남풍을 얻어보겠단 말이요.》

그러자 로숙이

《내 생각에는 공명이 결코 거짓말은 안할것 같소이다.》 하고 말하는데 삼경때가 가까왔을 때 문득 바람소리가 들리며 기발이 휘날렸다. 주유가 장막에서 나가보니 기발이 펄펄 날려 서북편을 가리키며 삽시간에 동남풍이 크게 일어난다.

…

한편 류현덕은 하구에서 오로지 공명이 돌아오기만 고대하고있는데 문득 한떼 배들이 들어오니 이는 곧 공자 류기가 몸소 소식을 알려온것이다.

현덕이 그를 적루우로 청해올려 자리에 앉히고나서

《동남풍이 불 때 자룡이 공명을 데리러 갔는데 이제 이르도록 오지를 않아 내 마음이 불안하이.》하고 바야흐로 이야기를 하는중에 군사 하나가 손을 들어 멀리 번구 포구쪽을 가리키면서

《저기서 순풍에 돛을 달고 들어오는 일엽편주가 틀림없이 군사께서 타신 배올시다.》 하고 아뢰였다.

현덕은 공명을 영접하러 류기와 함께 적루에서 내려갔다. 얼마 기다릴것도 없이 배가 들어오며 공명과 자룡이 언덕에 내려서 현덕은 크게 기뻐하였다.

피차 인사를 나누고나자마자 공명은 곧 현덕을 향하여

《지금은 다른 일을 말씀할 겨를이 없습니다. 제가 전번에 여쭈어둔 군마와 전함들은 다 준비가 되여있습니까?》 하고 묻고 현덕이

《벌써 수습을 다 해놓고서 오직 군사를 쓰시기만 기다리고있는 길이외다.》 하고 대답하자 공명은 바로 현덕과 류기로 더불어 장막안에 올라가서 자리에 앉자 먼저 조운을 불러서

《자룡은 삼천군마를 거느리고 강을 건너 곧장 오림 소로로 가서 나무와 갈대가 빽빽하게 들어찬 장소를 가려서 군사를 매복해놓고있으면 오늘 사경이 지난 뒤에 조조가 반드시 그 길로 해서 도망하여올것이니 저들의 군마가 반쯤 지나가기를 기다려 중간에서 불을 지르고 내달으라. 비록 조조군사를 모조리 죽이지는 못하더라도 절반은 무찌를수 있으리라.》 하고 말하였다.

조운이 한마디 묻는다.

《오림에는 길이 둘이 있어서 하나는 남군으로 통하는 길이요 또 하나는 형주로 가는 길인데 저희가 대체 어느 길로 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공명이

《남군쪽은 형세가 촉박해서 조조가 감히 가지 못하고 반드시 형주쪽으로 와서 그다음에 대군이 허창으로 갈것이야.》 하고 일러주고 조운이 령을 받고 나가자 다시 장비를 불러서

《익덕은 삼천병을 거느리고 강을 건너가서 이릉길을 끊고 호로곡어구에 군사를 매복하라. 조조가 제 감히 남이릉으로 가지 못하고 북이릉으로 오려니와 래일 비가 한차례 내린 뒤에 제가 반드시 그리로 와서 솥을 걸고 밥을 지을것이니 연기가 일어나는것을 보는 길로 즉시 산기슭에다 불을 놓으면 조조는 비록 잡지 못하더라도 익덕의 이번 공로가 작지는 아니하리라.》

장비가 계책을 받아가지고 나가자 이번에는 미축과 미방과 류봉 세사람을 불러서

《너희들은 각자 배들을 타고 강을 돌면서 패잔병들을 사로잡고 병장기들을 뺏도록 하라.》

세사람이 분부를 받고 떠난 뒤에 공명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공자 류기를 대하여

《무창으로 말하면 빤히 바라다보이는데라 가장 요긴한 곳이니 공자는 이 길로 곧 돌아가셔서 수하군사들을 령솔하시고 강안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조조가 한번 패하고보면 반드시 그리로 도망해오는자들이 있을것이니 사로잡도록 하시되 결코 경홀하게 성을 떠나셔서는 아니되오리다.》

류기가 그 즉시 현덕과 공명을 하직하고 떠나가자 공명은 현덕을 보고서

《주공께서는 번구에다 군사를 둔쳐놓으신 다음에 높은데 올라앉으셔서 오늘 밤에 주랑이 큰 공을 세우는것이나 한번 구경하시지요.》 하고 말하였다.

이때에 운장이 바로 곁에 있었으나 공명은 전혀 못 본체 하고 있으니 운장은 참다 못하여 마침내 언성을 높여서

《관우가 형님을 따라서 싸움터에 나가기를 여러해포 하여오되

일찌기 한번이라도 남의 뒤에 떨어진적이 없는터에 오늘 모처럼 큰 적을 만나자 군사는 도리여 나를 쓰려고 하지 않으시니 이것은 대체 웬 까닭입니까.》 하고 물었다.

공명이 웃으면서

《운장은 행여 괴이쩍게 아지를 마오. 내가 본래 족하를 가장 긴요한 액구에 보내려 하면서도 다만 구애하는것이 있어서 감히 가라고 못하는것이요.》 하고 말하니 운장이 다시

《무슨 구애하시는것이 있어서 그러십니까. 아주 터놓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묻는다.

공명은 말을 해주었다.

《전일에 조조가 족하를 심히 후하게 대접해주었으니 마땅히 족하는 이것을 갚아야만 할것이요. 조조가 오늘 싸움에서 패하고보면 반드시 화용도로 달아날터인데 만일에 족하더러 가라고 하면 필시 조조를 놓아보내고말것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감히 가라고 못하는것이외다.》

듣고나자 운장이

《군사는 참으로 다심하시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과연 조조가 관우를 후대하여주었다고는 하지만 내가 이미 안량을 베고 문추를 죽여 백마의 에움을 풀어서 저의 은혜를 갚아준터에 오늘날 만나서 어찌 홀홀히 놓아보낼 법이 있겠습니까.》

공명이

《만일에 놓아보내는 일이 있으면 어찌하겠소.》 하고 따지니 운장은 선선히

《군법을 받겠소이다.》 하고 나선다.

《그러면 문서를 들여놓으시오.》

운장은 즉시 군령장을 들여놓은 다음에

《그런데 만약에 조조가 그 길로 오지 않을 때에는 어찌하시렵니까.》

공명이

《그럼 나도 족하에게 군령장을 놓겠소.》

운장이 크게 기뻐하는데 공명이 다시

《운장은 화용소로 높은 봉에다가 마른 풀을 쌓아놓고 불을 질러서 연기를 일으켜 조조를 그곳으로 유인하도록 하오.》하고 계교

를 일러주었다.

그 말에 운장이

《조조가 만약 연기나는것을 바라보면 매복이 있는줄을 알터인데 제가 어찌 그리로 오려들겠습니까.》한마디 물으니 공명은 웃으면서

《병법의 소위 거짓으로 꾀를 꾸민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셨소. 조조가 비록 군사 쓰는데 능하다고는 하지만 다만 이 계교에는 제가 속고말것이요. 연기가 일어나는것을 보면 제가 허장성세하는 것이라 하고 반드시 그 길로 해서 들어올것이니 장군은 결코 그에게 사정을 두어서는 아니되오.》 하고 말하였다. 운장은 명령을 받자 관평, 주창과 오백 칼 쓰는 군사를 거느리고 화용도로 매복하려 떠나갔다.

현덕이 있다가

《내 아우가 의리가 깊어서 만약 조조가 화용도로 오는 때에는 필경 놓아보내고말지나 않을가요.》 한마디 하니 공명의 대답이

《량이 간밤에 천문을 보니 조조가 아직 죽을 신수가 아닙니다. 그래 운장에게 한번 인정이나 쓰게 한것이니 이것도 역시 아름다운 일이겠지요.》 한다.

《선생의 신기묘산은 세상에 짝이 없을가 합니다.》 하고 현덕은 탄복하였다.

공명은 드디여 현덕과 번구로 가서 주유의 지휘하는양을 보기로 하고 손건과 간옹을 남겨두어 성을 지키게 하였다.

한편 조조는 병영안에서 여러 장수들과 일을 의논하며 오직 황개에게서 소식이 있기만 기다리는데 이날 동남풍이 심하게 분다.

정욱이 들어와서 조조를 보고

《오늘 동남풍이 부니 미리 방비하시는것이 좋을가보이다.》하고 일깨워주었으나 조조는 웃으면서

《동지에 이르면 양기가 비로소 생긴다고 하니 다시 돌아올 때에 어찌 동남풍이 없겠소. 괴이하게 여길 일이 아니요.》하고 말할 뿐이였다.

그러자 군사가 홀연 보하되

《강동에서 작은 배 한척이 들어왔사온데 황개의 밀서를 가지고왔다 하옵니다.》 한다. 조조는 급히 불러들였다.

그 사람이 글을 갖다 바치는데 그 글의 사연은

…주유의 방비가 심히 엄해서 이로 인하여 탈신할 도리가 없더니 이제 파양호로부터 새로이 운반해오는 군량이 있어서 주유가 저를 보고 순회하며 적정을 탐지하라 하여 이미 방편을 얻었으므로 강동의 명장을 죽이고 그 머리를 가져다 항복을 드리려 하옵거니와 오늘 밤 이경에 배우에 청룡기를 꽂고 가는것이 바로 군량 실은 배인줄로 아옵소서.…

대강 이러하였다. 글을 보고 조조는 크게 기뻐하여 마침내 여러 장수들과 함께 수중진안의 큰 전함우로 나가앉아서 오직 황개의 배가 이르기만 고대하였다.

이때 강동에서는 어느덧 날이 저물자 주유는 채화를 불러낸 다음에 군사에게 령을 내려서 그를 잡아 묶게 하였다.

채화가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자 주유는 곧 꾸짖었다.

《네가 대체 어떤 사람이관대 감히 내게 와서 거짓항복을 한단 말이냐. 내가 지금 기에다 제사를 지내려고 하나 다만 제물이 없어서 그러니 아무래도 네 머리를 좀 빌어야만 하겠다.》

채화는 아니라고 잡아떼여보다가 안되니까 마침내 소리를 버럭 질러

《너의 편의 감택이와 감녕이도 다들 나하고 함께 모반하기로 했다.》 하고 웨쳤다.

그러나 주유는

《그것은 다 내가 시켜서 한 일이다.》 하고 말할뿐이다. 채화는 후회하였으나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었다.

주유는 강변에 세운 도독기아래로 채화를 끌어내여다놓고 술을 올리며 종이를 사른 다음에 한칼에 그의 목을 베여 그 피로 제 지내고나서 곧 떠나라고 령을 내렸다.

황개는 셋째 화선우에 홀로 몸에 엄심갑을 입고 손에 날카로운 칼을 들고 기우에는《선봉 황개》라고 크게 쓰고 순풍을 좇아서 적벽을 향해 나아갔다. 이때 동풍이 크게 일어 파도가 자못 사나왔다.

조조가 중군에서 멀리 강건너를 바라보느라니까 이윽고 달이 떠올라서 강물이 환히 비추어 마치 일만마리 황금배암이 물결을 희

롱하는것 같다. 조조는 바람을 받고 앉아 크게 웃으며 바로 양양자득해하였다.

그러자 문득 한 군사가 손을 들어 가리키며

《강남쪽에서 은은히 한떼 돛배가 바람을 타고 이편으로 옵니다.》 하고 말한다.

조조가 높은데 앉아서 바라보니 다시 아뢰는 말이

《모두 청룡기를 꽂고있사온데 그중의 큰 기에는 선봉 황개의 이름이 크게 씌여있소이다.》 한다.

조조는 웃으며

《공복이 항복해오니 이는 하늘이 나를 도우시는것이다.》하였다.

오는 배가 점점 가까와지는데 이때 정욱은 한동안 바라보고있다가 조조를 향하여

《오는 배가 반드시 간사하니 수진가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무엇으로 아오.》 하고 조조가 묻자 정욱이

《배안에 군량을 실었으면 배가 반드시 무거울터인데 이제 오는 배를 보매 거뿐하니 물우에 떴고 또 겸해서 오늘 밤에 동남풍이 크게 부니 만약에 간사한 계교라도 있다면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하고 자기 소견을 말하였다.

조조가 깨닫고 즉시

《누가 가서 멈추어놓고.》 물으니 문빙이 나서며

《제가 물에 매우 익으니 한번 가보겠습니다.》하고 말을 마치자 작은 배로 뛰여내리며 손으로 한번 가리키니 순선 십여척이 문빙이 탄 배를 따라서 나온다.

문빙은 배머리에 가 우뚝 서서

《승상의 분부시니 남쪽배는 수중진으로 가까이 들지 말고 강심에다 닻을 던져라.》 하고 큰소리로 웨쳤다.

수하군사들이 또 일제히

《빨리 돛을 내려라.》 하고 부르는데 그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시위소리 울리는 곳에 문빙은 왼편 팔에 화살을 맞고 배가운데 쓰러졌다. 배안이 벌컥 뒤집혀서 각자 도망해 돌아온다.

남쪽 배는 조조의 수중진에서 겨우 둬마장 떨어진 곳까지 들어오자 황개가 칼을 한번 휘두르니 앞의 배에 일제히 불이 일어나서

불은 바람의 위엄을 좇고 바람은 불의 형세를 도우며 배는 쏜살처럼 내닫고 연기와 불꽃은 하늘을 덮는다.

이십척 화선이 수중진안으로 몰려들어오자 조조병영안의 배들에 일시에 불이 붙는데 쇠고리로 모든 배가 련쇄되여있어서 어디로 피할 곳이 없다.

이때 강 건너서 포성이 크게 울리며 사면에서 화선들이 일제히 몰려들어 삼강구 물우에 불길은 뒤를 쫓고 바람은 몰아쳐서 온 천지가 시뻘거니 모두 불빛이다.

조조가 언덕우의 병영을 돌아보니 여러곳에서 연기가 나고 불길이 오르는데 이때 황개는 작은 배로 뛰여내려 배후에 사오명으로 배를 젓게 하고 연기를 무릅쓰고 불속을 뚫고서 조조를 잡으러 왔다.

조조가 시세 위급한것을 보고 바야흐로 언덕을 뛰여오르려 할때 홀연 장료가 작은 배를 타고와서 조조를 붙들어내렸다. 이때 아슬아슬하게 큰 배에는 이미 불이 붙었다. 장료는 십여인과 더불어 조조를 보호해서 언덕을 향해 배를 몰았다.

황개는 강홍포를 입은자가 작은 배로 옮겨타는것을 바라보자 그가 곧 조조임을 짐작하고 즉시 배를 재촉하여 급히 나오며 손에 날카로운 칼을 들고 목청을 높여

《조조는 달아나지 말아. 황개가 예 있다.》하고 크게 웨쳤다.

조조가 련달아 비명을 올릴 때 장료는 활에 살을 먹여들고 황개가 좀 더 가까이 들어오기를 기다려서 깍지손을 뚝 떼였다. 이때 바람소리가 대단하니 황개가 화광속에서 무슨 수로 시위소리를 가려들을것이랴. 그는 바로 어깨죽지에 살을 맞자 뒤재주쳐서 물속에 떨어지고말았다.

불의 재앙 성한 때에
물의 재앙을 또 만나고
나무로 당한 상처 겨우 낫자
쇠로 당한 상처 또 앓는구나

황개의 목숨이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

베니스의 상인

《베니스의 상인》은 영국작가 윌리암 쉐익스피어가 창작한 그의 대표적희극작품의 하나이다.

쉐익스피어(1564—1616)는 영국의 문예부흥기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쉐익스피어는 1564년 4월 영국의 지방도시 스트래트포드에서 태여났다. 그의 아버지는 상인이였고 어머니는 박식한 녀자였다. 쉐익스피어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서 영국의 신화, 전설들을 자주 들었다.

쉐익스피어는 어려서부터 연극에 흥미를 가지고 극장에서 일해볼 생각을 하고있었으나 아버지가 경영하던 상업이 파산되여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586년에 런던에 옮겨온 이후에 극장에 들어가게 되였는데 처음에는 배우로, 그다음은 극장의 전속작가로 되였다.

쉐익스피어는 7살 때 《그래머스쿨》이라고 하는 지방초등학교에서 6년간 공부한것을 내놓고는 학교교육도 따로 받은것이 없지만 지난날의 낡은 극형식과 다른 자기 식의 독창적인 극을 창조하여 인민들에게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쉐익스피어는 37편의 극작품과 150여편의 시를 창작하였는데 그가운데서도 기본은 극작품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쉐익스피어의 극문학은 인문주의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쉐익스피어의 극문학이 문예부흥기의 시대적특징과 인문주의문학의 긍정면과 약점을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고있기때문입니다.》

그는 초기에 인문주의적인 리상이 실현될수 있다는 희망과 락관을 가지고 봉건적신분제도와 종교적금욕주의에서 벗어나 마음껏 삶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지향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데로부터 《한 여름밤의 꿈》, 《베니스의 상인》, 《윈저의 유쾌한 아낙네들》, 《열두번째 밤》과 같은 희극작품들을 주로 창작하였다.

그러나 말기에 그는 생활을 통하여 인문주의적리상이 자본주의적조건에서는 실현될수 없다는것을 깨닫고 미래에 대한 비관과 위

구심을 느끼면서 악과 충돌하여 파멸당하는 선량한 사람들을 형상한 비극을 많이 창작하였다.

《햄리트》, 《오쎌로》, 《리어왕》, 《마크베스》는 쉐익스피어의 4대비극으로 불리우는 그의 대표작들이다.

《베니스의 상인》은 쉐익스피어가 1596년에 쓴 희극작품이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새로 나타난 부르죠아지의 탐욕과 황금만능의 사상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작가는 돈많은 부자인 안또니오를 선량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샤일로크를 유태인으로 설정함으로써 인종주의적편견을 나타낸것과 같은 제한성도 발로시켰다.

희극의 사건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베니스의 상인 안또니오는 가장 가까운 친구인 바싸니오가 부유하고 아름다운 녀자에게 청혼하러 가는데 돈이 없어 걱정하는것을 알고 서슴없이 도와주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안또니오의 배들은 모두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아 할수없이 평소에 미워하던 유태인고리대금업자 샤일로크에게서 석달 기한으로 돈 3천냥을 꾸어 바싸니오에게 준다.

안또니오는 샤일로크가 늘 리자를 비싸게 받기때문에 그를 욕하면서 자기는 리자를 안 받거나 적게 받는것으로써 샤일로크에게 골탕을 먹인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샤일로크는 늘 복수할 기회만 노리다가 안또니오가 돈을 꾸러 오자 기한을 어길 때에는 심장근처에서 살 한근을 떼낸다는 조건부로 돈을 꾸어주었던것이다.

그런데 안또니오의 배들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한척도 돌아오지 않아 계약된 기일안에 돈을 물수 없게 된다.

샤일로크는 안또니오를 복수할 더없이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면서 그를 재판에 건다. 이때 바싸니오의 약혼녀 포오샤가 법관으로 가장하고 재판정에 나타난다. 교재는 재판장면을 발취한것이다.

나오는 사람들

안또니오 베니스의 상인

바싸니오 그의 벗, 포오샤의 청혼자

그라시아노 안또니오와 바싸니오의 친구

포오샤 부유한 녀자상속인

네리싸 그의 시녀

샤일로크 부유한 유태인

제4막

제1장. 베니스, 재판소

…

샤일로크 소인이 그르다면 이 목을 베십쇼!
소인은 법을 요구하오. 증서대로 죄책할것을 요구하오.

포오샤 피고는 현금을 지불할수 없는가?

바싸니오 있습니다. 이 법정에서 제가 대신하여 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배의 금액을, 그래도 부족하다면
그 열배라도 지불할것을 맹세합니다.
이 손과 머리와 심장을 저당하더라도!
만약 그래도 만족할수 없다면 이는 정녕코
악심으로써 바른 사람을 억누르려는 심보이오니,
원컨대 정부의 권력으로 한번만 법을 굽히시고
큰 의를 위하여 작은 불의를 범하시더라도
이 잔인한 악마의 모진 결심을 눌러주소서.

포오샤 그건 안될 말, 베니스의 그 어떤 권력도
이미 정해놓은 법령을 고칠수는 없다.
그러한 행위는 하나의 선례로서 기록되여
그를 본보기로 허다한 위법행위가 속출하여
길이 이 나라의 병집으로 되리니 그는 안될 말.

샤일로크 다니엘님이 환생하여 재판하러 오셨구나!
암, 다니엘님이 분명하다!
오 젊고도 영특하신 박사님, 어찌 다 경의를 표하리까?

포오샤 그 차용증서를 보여줄수 없는가?

샤일로크 네네, 옛소이다. 존경하는 박사님, 옛소이다.

포오샤 샤일로크여, 피고는 이 금액의 세배를 내려고 한다.
샤일로크 맹세하였소, 천지신명앞에 맹세하였소.
이 넋에 어찌 거짓맹세한 죄를 들씌우리까?
싫소이다, 베니스를 통채로 준대도 싫소이다.
포오샤 물론 이 증서는 기한이 지났으니
유태인은 상인의 심장근처에서
손수 살 한근을 베여낼것을 정당히 요구할수 있는 일.
그러나 자비심을 베풀라.
이 금액의 세배를 받고 증서를 찢게 하라.
샤일로크 증서대로만 갚아주시면야 어련히 찢겠소이까.
보오매 당신은 훌륭하신 재판관
법률에도 정통하고 그 해석 또한 지당하외다.
당신은 국법의 중요한 기둥
그 국법에 따라 요구하오—어서어서
재판을 진척시켜주십시오. 내 넋을 걸고 맹세하오—
그 어떠한 인간의 혀바닥도 이 굳은 결심을
움직일수는 없소이다. 꼭 증서대로 해주십시오.
안또니오 소인도 간청합니다.
포오샤 그러면 판결을 내리노라.
피고는 가슴에 원고의 칼을 받도록 차비하라.
샤일로크 오 공명정대하신 판사나리님!
오 뛰여나신 도련님!
포오샤 법률의 취지와 목적으로 보아
이 증서에 기재된 과료는 마땅히 승인되여야 할것이다.
샤일로크 지당하신 말씀, 오 공정하신 명판사님!
볼썽보다는 참 숙성도 하시구료!
포오샤 그런즉 피고는 가슴을 헤쳐라.
샤일로크 아무렴 가슴입죠.
증서에 그렇게 씌여있습죠. 판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심장근처에서》 바로 그렇게 씌여있습죠.
포오샤 그렇다… 근수를 달 저울은 있는가?
살의 근수를?

샤일로크 네, 벌써 준비해왔습니다.
포오샤 샤일로크, 그대 비용으로 외과의를 불러두라.
　　상처를 막지 않으면 출혈로 죽을지도 모를 일.
샤일로크 증서에 그렇게 지적되여있습니까?
포오샤 그렇게는 밝혀있지 않으나 그런들 어떠랴?
　　자비심으로 그만한 인정은 써도 좋으리라.
샤일로크 그런 조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증서에는 없습니다.
포오샤 상인이여, 그대는 무슨 할 말이 없느냐?
안또니오 별로 없습니다. 소인은 벌써 각오하였습니다.…
　　바싸니오, 악수를… 부디 편안히 계시오.
　　그대 위해 내가 이 지경 되였다고 서러워하지 마오.
　　운명의 녀신도 평소의 행습보다는 한결
　　친절히 구나보오. 그 녀신의 버릇은 언제나
　　불쌍한 인간을 재산보다 오래 살리여
　　주름진 이마, 움펑한 눈으로 자기자신의
　　가난에 찌든 늙은 꼴을 보게 함이 일쑤이언만
　　그 녀신이 이토록 비참한 가난의 고통에서 나를 구해주었구려.
　　바싸니오, 부디 부인에게 인사 전해주오.
　　그리고 이 안또니오가 어찌하여 죽었으며
　　얼마나 임자를 사랑했던가도 이야기해주오.
　　내가 죽거든 부디 나에 대한 말을 자상히 전하고
　　이야기가 끝났을 때 부인에게 판단해달라시오—
　　바싸니오에겐 과연 참된 벗이 있었던가 없었던가를!
　　다정한 벗을 잃는다 하여 슬퍼하지 마오.
　　그대의 빚을 갚는 나는 후회하지 않소.
　　왜냐면 저 쮸우가 살을 깊이 벨수록
　　나는 온 마음으로 그대의 빚을 갚게 되기때문이요.
바싸니오 안또니오형, 나는 안해를 얻었소.
　　그는 바로 내 목숨과 같이 소중한 안해.
　　그러나 이 목숨도 안해도 온 세계도

당신의 생명보다 더 귀할순 없는것.
나는 모든걸 잃더라도, 아니 이 모든걸 저 악마에게
희생으로 바치더라도 당신만은 구해내고야말겠소!

포오샤 (혼자말하듯) 그런 말을 부인이 곁에서 듣는다면
그다지 반가와하지 않을걸요.

그라시아노 나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안해가 있소만
그 안해가 차라리 옥경엘 가서 상제전에 신소 드려
이 승냥이같은 쮸우놈의 심보를 고쳐줬으면 하오.

네리싸 (혼자말하듯) 그런 말을 부인이 없는데서 했기망정이지
그의 귀에 들어갔단 집안에 큰 풍파가 일어날걸.

샤일로크 (혼자말로) 예수 믿는 남편이란 모조리 요꼴이야.
내겐 딸년이 하나 있지만 저따위 예수쟁이에게 줄바엔
차라리 바라바스 같은 도적놈의 자손에게나 치워버리겠다.…
괜히 시간만 지나가오. 어서 선고를 내려줍쇼.

포오샤 이 상인의 살 한근은 그대의것.
법정은 이를 시인하며 법률은 이를 그대에게 주노라.

샤일로크 오 더할나위없이 공명정대하신 판사나리님!

포오샤 그리고 그의 살은 그대가 손수
그의 가슴에서 베여낼것이다.
법률은 이를 허가하며 법정은 이를 시인하노라.

샤일로크 오 가장 박식하신 판사님! 자 선고다! 칼을 받아라!
(샤일로크가 안또니오 가슴에 칼을 대려 할 때)

포오샤 잠간만 기다려라. 또 할 말이 있노라.
이 증서엔 한방울의 피도 너에게 준다는 말이 없을뿐아니라
명백히 《살 한근》이라고만 씌여있은즉
그대는 증서대로 오직 살 한근만 베여낼것이다.
그러나 상인의 가슴에서 살을 베여낼 때
만약에 그의 피를 한방울이라도 흘린다면
그대의 토지와 재산은 베니스국법에 의하여
전부 베니스국가에 몰수될것이다.

그라시아노 오 공명정대하신 판사님.

것 봐라 이 쮸우놈아. 오 박식한 판사님!
샤일로크 그것이 법률입니까?
포오샤 (법전을 펼쳐보이며) 제 눈으로 이 조문을 보라.
그대는 끝끝내 엄정하기를 주장하였은즉
소원보다 더욱 엄격한 재판을 받으리라.
그라시아노 오 박식하신 판사님! 것 봐라 쮸우놈, 오 박식하신 박사님!
샤일로크 그렇다면 그의 제안대로 하겠소이다.
계약의 3배를 물어줍쇼.
저 그리스도교인을 용서해주리다.
바싸니오 옛다. 이 돈을 받아라.
포오샤 가만있거라!
샤일로크는 끝까지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였은즉…
가만! 서두르지 말라.
그는 과료외에 아무것도 받을수 없노라.
그라시아노 오 쮸우놈! 공정하신 판사님! 박식하신 판사님!
포오샤 그런즉 샤일로크는 살 벨 차비를 하라.
피는 한방울도 흘리지 말지며
살은 많고적음없이
정확히 한근만 베여낼것이다. 만약 한근보다
많거나 적게 벨 때에는 비록 그것이
눈대중으로 경중을 헤아릴만 할지라도
혹은 불과 1푼의 20분지 1의 차이라 하더라도,
아니 머리털 한오리의 무게만큼 저울대가 기울어지더라도
그대는 사형에 처하며 재산은 일체 몰수당하리라.
그라시아노 다니엘의 환생이다! 다니엘이다. 이 쮸우놈아!
이제야말로 네놈의 덜미를 잡았다. 이놈아!
포오샤 샤일로크는 어찌하여 망설이는가? 빨리 과료를 받으라.
샤일로크 본전만 주어 소인을 돌려보내주십쇼.
바싸니오 네놈의 돈은 벌써 마련해놨다. 옛다 가져가라.
포오샤 원고는 이미 공판정에서 돈을 거절하였은즉
법대로 증서의 과료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노라.

그라시아노 다니엘이다. 언제까지나 말할테다. 다니엘의 환생이라고!
고마와, 샤일로크 네놈에게서 좋은 말을 배웠네.
샤일로크 본전만이라도 받을수 없겠소이까?
포오샤 그대는 과료외에 아무것도 받을수 없노라.
유태인이여, 생명을 무릅쓰고 받을 과료외에는!
샤일로크 그렇다면 에잇 될대로 되여라!
인젠 시비를 따져야 소용없는짓.
(하고 분연히 퇴장하려 할 때)
포오샤 샤일로크는 거기 섰거라.
그대에겐 아직 법정의 용무가 있노라.
베니스의 법률에 규정된바에 의하면
만약 이 나라에 사는 외국사람이
직접 또는 간접의 방법으로써
시민을 살해하려던 죄가 드러났을 땐
그에게 살해당하려던자가
살해하려던자의 재산을 반을 가지며
나머지 절반은 베니스국고에 몰수하기로 되여있다.
또한 범인의 생명은 오로지 공작님의
자비심에 맡기며, 아무도 이에 항의할수 없다.
알겠느냐, 그대는 바로 이러한 처지에 서있느니라.
왜냐하면 그대는 간접 또는 직접으로
이 피고의 생명을 앗으려 꾀한 사실은
움직일수 없는 확연한 증거에 의하여
명명백백하기때문. 그러기 샤일로크여, 그대는
앞서 본관이 재삼 충고한 그 위험을 불러왔은즉
공작님전에 엎디여 삼가 용서를 빌지어다.

베니스—이딸리아의 도시이름. (지금은 베네찌아라고 부른다.) 당시에는 베니스가 한개의 도시국가였다.
상속인—물건을 가진 임자가 죽은 뒤에 그가 가지고있던 물건이나 권리 등을 물려받는 사람.
시녀—낡은 사회에서: 몸가까이에 있으면서 시중드는 녀자하인.

죄책하다—죄를 진 책임을 묻거나 따지다.
선례—이전부터 하여내려오는 일처리의 관습.
다니엘—옛날 종교에서 말하던 소위 유명했다는 재판관의 이름.
차용증서—꾸어썼거나 빌려썼다는것을 증명하는 글쪽지.
천지신명—종교나 미신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것을 움직이는 온갖 신.
피고—재판에 걸린 사람.
원고—재판을 건 사람.
과료—벌금으로 물리는 돈.
행습—이루어진 버릇 또는 버릇이 되도록 행동함.
옥경—종교나 미신에서: 《하느님》이 사는 하늘의 수도.
상제—《하느님》.
바라바스—예수가 사형당하였을 때 석방되였다는 도적의 이름.

로빈슨 크루소우

《로빈슨 크루소우》는 영국의 계몽주의작가 다니엘 디포가 쓴 장편소설이다.

계몽주의란 봉건적신분제도를 반대하고 인간의 평등과 자유를 주장한 부르죠아민주주의사상이다. 계몽주의자들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 박애(모든 사람을 다같이 사랑한다는 뜻)를 주장하면서 그것을 실현하려면 사람들을 계몽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계몽주의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다.

다니엘 디포(1661—1731)는 바로 이러한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작가의 한 사람이다. 그는 1661년 런던의 청교도인 육류상인가정에서 태여났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종교학교를 다닌 디포는 목사가 되지 않고 상업을 하면서 당시의 정치적사건들에 참여하였으며 영국의 귀족들을 비판공격하는 소책자들도 써냈다.

그는 1702년 나라의 법으로 정한 종교 즉 국교를 반대하는 내용의 책을 쓴것으로 하여 감옥에 갇히여 박해를 받기도 하였다.

디포는 1705년부터 자기가 발간하는 신문에 글을 써서 돈에 팔린 재판관들과 승려들의 반동성을 폭로비판하였다. 이러던 그는

환갑나이에 가까운 58살 때인 1719년에 장편소설 《로빈슨 크루소우》를 발표한데 뒤이어 약 5년동안에 《몰 폴랜더즈》(1721), 《캡틴 싱글톤》(1720), 《커늘 잭크》(1722), 《록사나》(1724) 등 소설을 발표하였다.

그는 자기의 작품들에서 부패무능하고 기생충적인 봉건귀족들을 신랄히 폭로비판하고 그들보다 정신도덕적으로나 실천능력에 있어서 훨씬 우월한 평민들, 부르죠아지들을 찬양하였다. 그는 아직 자본주의사회의 반동적본질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데로부터 봉건사회는 《악마의 왕국》으로, 방금 수립된 자본주의사회는 자유와 평등, 정의가 실현된 《리성의 왕국》으로 인식하였던것이다.

디포의 장편소설 《로빈슨 크루소우》는 그의 대표작인 동시에 계몽주의문학의 대표작이기도 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소설 《로빈슨 크루소우》에는 반봉건적인 계몽주의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던 18세기 유럽의 사회력사적환경과 계몽주의사상과 운동의 진보성과 제한성이 반영되여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소설은 주인공이 무인도에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창조적로동을 통해 삶을 개척해나가는것을 통하여 로동의 의의를 강조하고 평민들, 부르죠아지들의 완강하고 근면한 실천능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주인공은 로동을 통해 얻은 재부는 혼자서 독차지하며 흑인청년을 구원한 다음에는 그에게 주인님이라는 영어부터 배워주고 그를 자기의 노예로 삼는다. 이것은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등장한 부르죠아지에 대한 생동한 형상이다.

작가가 이런 형상을 긍정한것은 그의 세계관적제한성에서 오는것이다.

소설의 사건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1632년 영국의 요크시의 한 상인가정에서 태여난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우는 그가 19살이 되던 해인 1651년 9월 1일 바다로 나가 세계를 구경하겠다는 오직 한생각으로 항해의 길에 올랐는데 조난을 당하였다가 해안에 겨우 상륙한다.

그후 바다에 대한 생각을 버릴수 없어 다시 기네로 가는 무역선을 탄 로빈슨은 항해도중 해적들에게 포로되여 해적선 선장의 종살이를 2년간이나 하게 된다. 그후 그는 뽀트를 타고 도망치는데

성공한다.

여러날동안 바다에서 남쪽으로 나가다가 뽀르뚜갈의 배를 만난 로빈슨은 그 배에 옮겨타고 마침내 브라질에 상륙한다.

브라질에서 자그마한 농장을 경영하면서 4년세월을 보낸 그는 다시 흑인매매무역을 하러 기네로 가는 배를 타게 된다. 배는 항해도중 또다시 폭풍을 만나 모두가 죽고 로빈슨만이 간신히 해변에 오른다. 이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였다.

섬에 오른 로빈슨은 처음에 몹시 당황하였으나 실망하지 않고 자기의 생활을 개척해나가기 시작한다. 그는 잠자리도 마련하고 통나무를 촘촘히 박아 울타리도 만들며 탁상과 의자도 만들고 산양을 잡아 울타리안에서 길들여 먹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한다.

또한 산양의 가죽을 말리워 옷과 신발과 모자를 만들기도 하고 산에서 포도를 따서 건포도도 만들고 보리도 심어 가꾼다.

그러던 어느날 로빈슨은 섬의 북쪽끝에 야만인들이 매생이를 타고 올라와 춤을 추며 포로해온 사람을 잡아먹는것을 보게 된다. 그는 야만인들을 처단하고 한 포로를 구원한다. 그날이 금요일이였으므로 그를 후라이디(금요일)라고 이름짓고 같이 지내게 되는데 그가 이 섬에서 살아온지 25년만에 만난 첫 사람이였다. 후라이디는 그후 로빈슨의 충실한 노예가 될것을 맹세하고 그의 일을 적극 도와나선다.

이 섬에 올라온지 27년이 되던 해의 어느날 21명의 야만인들이 세척의 매생이에 세명의 포로를 싣고 섬에 올라온다. 그들이 백인포로들을 잡아먹고있을 때 로빈슨과 후라이디가 총을 가지고 몰래 접근하여 야만인들을 모두 살상한 다음 두명의 포로를 구원한다.

로빈슨은 불어난 세 식구를 데리고 농사도 더 많이 짓고 산양도 더 많이 기르고 광주리도 더 결어 낟알과 건포도도 더 많이 저장하며 살림을 넉넉히 꾸려나간다.

그러던 어느날 아침 섬의 남쪽에 열한명의 유럽사람들이 영국식대형뽀트를 타고 와서 상륙한것을 발견하게 된다. 자세히 살펴보니 세사람을 결박하여 끌고 와서 이 섬에서 죽여버리려는것 같았다.

로빈슨은 후라이디와 함께 그들을 구원하고 무역선을 빼앗는데 성공한다. 이 대목이 선문교재로 되여있다.

그리하여 이날까지 실로 28년 2개월 18일간을 이 외로운 섬에

서 악전고투하여 살아온 로빈슨은 이 무역선을 타고 오랜 항해를 한 뒤에 1687년 6월 11일 바로 35년만에 그리운 고국 영국에 도착한다.

——————— ☆ ———————

제17장. 뜻밖에 일어난 사건

…

뽀트는 점점 해변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상륙하기에 편리한 물굽이를 찾아서 뽀트를 갖다대려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들은 섬쪽으로 깊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떼목을 갖다붙인 작은 물굽이를 보지 못하고 나에게서 반마일쯤 떨어진 바다가에 뽀트를 갖다대였다. 이것은 나에게는 아주 다행한 일이였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바로 우리 집 정문에 상륙하여 그 즉시 성새에서 나를 두들겨대고 재물을 깡그리 로략질해갔을것이다.

해변에 상륙한자들은 거의 다 영국사람이 분명하였다. 한두사람은 네데를란드사람 같았으나 딱히는 알수 없었다. 모두 열한명인데 그중의 세사람은 무기를 빼앗기고 (내가 생각하였던것처럼) 결박을 당했다. 그들중에서 네댓명이 선참으로 해변에 뛰여오르더니 세사람을 죄수처럼 뽀트에서 끌어내였다. 그러자 세사람중의 한명은 애원과 고민과 절망을 나타내는 정열적인 몸짓을 하였다. 그 꼴은 몹시 호들갑스럽게 보이였다. 다른 두명은 이따금 손을 쳐들며 자못 근심스러운 기색들을 하고있었으나 첫째번 사람처럼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였다.

이 광경에 사뭇 어리둥절하여진 나는 도대체 어찌된 셈판인지 알수 없었다. 후라이디는 힘에 부치는 영어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주인님! 영국사람도 야만인처럼 포로를 잡아먹는군요.》

《후라이디, 너는 무얼 보구 영국사람이 포로를 잡아먹는줄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구요. 저 사람들은 꼭 포로를 잡아먹을거예요.》

《아니야, 후라이디, 그들은 포로를 죽일지는 모르나 잡아먹는 일은 결코 없을거야.》

그 동안 나는 어찌된 영문을 모르는채 이제 곧 세 포로가 맞아 죽으려니 생각하며 그 무서운 광경에 몸을 떨고 서있었다. 그러자 한 악한이 불쌍한 포로중의 한사람을 치려고 사공들이 큰 단도라고 부르는 칼을 번쩍 쳐드는것이 보이였다. 나는 그 포로가 당장 거꾸러질것만 같아서 전신의 피가 일시에 얼어붙는듯 하였다.

에스빠냐사람과 그와 함께 간 늙은 야만인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하고 나는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았다. 나는 세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어떻게든지 악당들을 사격할수 있는 거리까지 몰래 접근해가고싶었다. 왜냐하면 놈들에게는 사격무기가 없는것을 알고 있었기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나의 마음속에는 딴 방법이 떠올랐다.

오만한 사공들은 세사람을 함부로 짓모고나서 섬구경을 하고싶었던지 륙지로 뿔뿔이 헤여져가는것이 보이였다. 포로들은 아무데나 마음대로 갈수 있는 자유를 얻었으나 세사람이 다 맥없이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두 절망에 빠진 사람같이 보이였다.

그것을 본 나는 처음으로 이 섬에 상륙하였을 때 주위를 두릿두릿 살펴보던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얼마나 실망을 하였던가, 얼마나 미칠듯이 사방을 돌아보았던가, 얼마나 무서운 불안에 떨었던가, 야수들에게 잡혀먹힐가봐 몇날, 며칠밤을 나무우에서 지새웠던가.

그날 밤 나는 폭풍과 조류로 말미암아 배가 섬가까이 떠내려와서 그렇듯 많은 물자를 얻게 될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그것으로 나는 오래동안 목숨을 부지해왔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가엾은 세사람은 틀림없이 구원과 식량을 얻을수 있을뿐만아니라 그것이 바로 눈앞에 있으며 그들은 실제로 안전한 상태에 있다는것을 조금도 모르고있는것이다. 그와 동시에 그들의 처지는 절망적이며 이제는 살아날 가망이 없는줄로 생각하고들 있는것이다.

그들이 상륙한것은 밀물이 한창 들어올 때였다. 한패는 포로들과 이야기를 하며 서있고 또한 한패는 섬구경을 하러 돌아다니는 바람에 그들은 조수가 다 빠져나가도록 분수없이 머뭇거리고있었다. 조수가 빠져나가자 뽀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말았다.

뽀트에는 두명이 남아있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일이지만 이자들은 브란디를 지나치게 마시여 정신없이 자고들 있었다. 이윽고 한놈이 먼저 깨여서 뽀트가 주저앉은채 꼼짝달싹하지 않는것을 알

게 되자 근처에 쏘다니고있던 다른 패들을 소리쳐 불렀다. 그들은 즉시 뽀트로 달려왔으나 전력을 다하여도 배를 물에 띄울수가 없었다. 뽀트가 오지게 무거운데다가 그쪽 해변은 모래가 진창처럼 폭폭 빠졌기때문이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이 세상에서 가장 성미 마른 배사람답게 그들은 이내 단념을 해버리고 다시 섬구경을 하러 어슬렁어슬렁 걸어갔다. 그러자 한놈이 뽀트안에서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보게, 뽀트를 팽개치고 가면 어떻거나? 이번에 조수물이 들어오면 떠내려가버리지 않나.》 이로써 그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하는 주요한 점이 명백하여졌다.

나는 그 동안 몸을 숨긴채 성새에서 한번도 나간 일이 없었다. 고작해야 언덕배기근처의 감시소에서 더 나가지 않았었다. 성새가 든든한것을 생각하면 그지없이 기뻤다. 뽀트가 다시 뜨기까지는 적어도 열시간이 걸릴것이며 그때는 이미 날이 저물리라는것을 나는 알고있었다. 그때는 좀 더 자유롭게 그들의 행동을 살필수 있을것이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라도 한다면 그것도 엿들을수 있을는지 모른다.

한편 나는 전과 같이 전투준비를 갖추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강적을 상대하지 않으면 안되니만큼 더욱 조심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우수한 사격수가 된 후라이디에게 명하여 총에 탄약을 재우게 하였다. 나는 새 총 두자루를 가지고 후라이디에게는 소총 세자루를 내주었다. 나의 풍채는 실로 어마어마하였다. 무시무시한 산양가죽저고리에 앞서 말한 커다란 벙거지를 쓰고서 허리에는 칼을 차고 혁띠에는 권총 두자루를 꽂고 량쪽 어깨에는 총을 한자루씩 메였다.

앞서 말한것처럼 나의 계획은 날이 저물 때까지 아무짓도 하지 말자는것이였다. 그런데 두시경이 되여 날이 한창 더워지자 모두 숲속에 들어가버리였다. 생각컨댄 잠들을 자러 드러누운 모양이다. 그러나 가엾게도 고민에 빠진 세사람은 하도 기막힌 처지에 근심이 얼마나 많았던지 잠들도 자지 않고 나에게서 약 400m 떨어진 큰 나무그늘밑에 우두커니 앉아들 있었다. 그런데 거기는 다른 놈들의 눈에 띄지 않을것 같았다.

이에 나는 그들앞에 나타나서 사정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그래

서 앞서 말한바와 같은 풍채로 후라이디를 뒤에 멀찍이 거느리고서 그들앞에 나갔다. 후라이디도 나만 못지 않게 무시무시한 무장을 하였지만 그래도 나처럼 도깨비같은 풍신은 아니였다.

나는 될수 있는대로 슬그머니 다가가서 그들이 이편을 보기 전에 에스빠냐말로 이렇게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요?》

이 말에 깜짝 놀래여 뛰여일어났으나 나의 괴상한 풍채를 보았을 때는 열배나 더 기겁을 하였다. 그들이 아무 대답도 없이 달아나려 하는것을 보고 나는 영어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뜻밖에 가까운 벗을 만나게 되였소.》

《그럼 당신은 하늘에서 보내신분임에 틀림없을거요. 우리 처지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썬 구할수 없으니까요.》하고 그중의 한 사람이 자못 엄숙한 말투로 말하며 모자를 벗어들었다.

《사정이 몹시 딱하신것 같습니다. 초면이긴 합니다만 어떻거면 당신들을 도와드릴수 있을는지 말씀해주실수 없을가요? 나는 당신들이 상륙했을 때부터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 짐승같은 놈들에게 애원을 하였을 때 한놈이 칼을 들고서 당신들을 쳐죽이려는것도 보았습니다.》

이 가엾은 사나이는 눈물을 줄줄 흘리고 몸을 떨면서 놀랜 사람처럼 나를 쳐다보고는

《나는 하느님과 말하고있는것일가요? 사람과 말하고있는것일가요? 당신은 정말 사람인가요, 그러찮으면 천사인가요?》 하고 되물었다.

《공연히 겁을 내십니다그려! 하늘에서 보낸 천사라면야 좀더 버젓한 옷과 무장을 차리고왔을테지요. 이렇게 검정귀신같은 꼴을 하고야 왔겠습니까. 공연히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사람입니다. 영국사람입니다. 당신들을 구해드리려는 사람입니다. 보시다싶이 나에게는 한명의 부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기와 탄약을 가지고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드릴수 있을는지요. 생각대로 말씀해보십시오.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를 죽이려는 놈들이 가까이 있어서 긴 사연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나는 저 배의 선장이였습니다. 그런데 선부들은 나를 반대하여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놈들은 나를 죽이자니 살리자니 하다가 결국은 이 두사람과 함께 무인도에 내버리고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운전사이고 저 사람은 배손님입니다. 여기는 무인도인줄만 알고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당신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는 말하였다.

《그 짐승같은 원쑤들은 어디 있소? 놈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놈들은 저기 있습니다.》 하고 그는 무성한 나무숲을 가리키며《놈들이 우리를 보거나 당신말씀을 엿들을가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놈들은 반드시 우리를 죽이고말것입니다.》

《놈들은 총을 가지고있습니까?》 하니까

《총은 두자루뿐인데 한자루는 뽀트안에 있습니다.》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뒤일은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놈들은 잠이 든 모양이니 처치하기 쉬울것입니다. 그렇지만 놈들을 생포하는것이 좋지 않을가요?》

이 말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놈들중에는 결코 용서할수 없는 흉악한 악당이 두놈 있는데 이 두놈만 처치해버린다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직분으로 돌아올줄 믿는다는것이였다. 나는 그 악당들이 어느 놈이냐고 물었다. 그는 거리가 멀어서 놈들을 대줄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내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명령대로 하겠다는것이였다.

《그럼 놈들이 깨면 재미없을테니 멀찍이 물러가서 의논하기로 합시다.》

이 말에 그들은 기꺼이 숲까지 물러나왔다. 그곳은 숲에 가리워서 악당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런데 만약 당신들을 구해드린다면 두가지 조건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나의 제안을 지레 눈치챈 선장은 자기의 배가 원상대로 회복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내 지시와 명령대로 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만약 배를 다시 찾지 못한다면 세계의 어느곳에 가더라도 나와 생사를 함께 하겠다는것이였다. 다른 두사람도 역시 같은 말을 하였다.

《좋습니다. 내 조건은 두가지뿐입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이 섬에 살고있을 동안은 어떠한 권력도 요구하지 않을것, 여러분에게 무기를 드리더라도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도로 바치며 나와 이 섬에 있는 물건들을 해하지 말것, 그 동안은 내 명령에 복종할것, 둘째는 만약 배를 탈환하게 된다면 나와 친구들을 영국에까지 무료로 보내줄것, 이상 두가지입니다.》

선장은 인간으로서 생각할수 있는 온갖 성의를 다하여 이를 보증하며 가장 정당한 나의 요구조건을 승낙하였을뿐만아니라 자기 생명은 나의 덕택으로 구원되였으니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하였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소총 세자루와 탄약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거면 좋을지 말씀해보십시오.》

그는 사의를 표하고나서 나의 지시대로 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나는 위험하기는 하나 놈들이 누워있을 때에 일제히 사격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한다, 만약 첫번째 사격에 죽음을 면하여 항복해오는자가 있다면 그자들은 목숨을 살려주어도 좋을것이라고 말하였다.

선장은 겸손한 말투로 이렇게 말하였다. 자기는 될수 있는대로 그들을 죽이고싶지 않으나 그중의 두놈은 도저히 버릇을 고칠수 없는 악당들로서 배에서 폭동을 일으킨 주모자들이다. 만약 그 두놈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또 멸망하게 될것이다. 왜냐하면 놈들은 뽀트를 타고 가서 선원들을 모조리 데려다가 우리를 몰살하고말것이기때문이다.

《그렇다면 내 충고도 결코 무법한것이 아니지요. 우리 목숨을 구하자면 그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고 나는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피를 흘리는것을 주저하고있었다. 그래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정 그렇다면 당신들이 몸소 가서 마음대로 처리하는것이

좋을것이라고.

한참 이런 말을 하고있을 때 누구인가 잠을 깬듯 한 인기척이 들려오더니 이윽고 두놈이 일어서는것이 보이였다. 나는 저 두놈이 폭동의 주모자가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아니요.》 하였다.

《좋소, 그러면 저 두놈은 놓아보냅시다. 그렇지만 다른 놈들을 놓친다면 그건 당신들의 실수입니다.》 하고 나는 말하였다.

이 말에 힘을 얻은 선장은 소총을 받아들고 혁띠에 권총을 꽂았다. 그러자 그의 두 친구도 제가끔 총을 잡았다. 앞서간 두사람이 인기척을 내는 바람에 배사람들중의 한놈이 잠이 깨여서 둘레를 두릿두릿 돌아보다가 그들이 오는것을 보고서 다른 놈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었다. 그놈이 고함을 지르는 순간에 이편에서 총을 쏘았기때문이다. 총을 쏜것은 두사람뿐이고 선장은 약삭바르게 총을 쏘지 않았다. 그들은 정확히 두 악당을 묘준하여 한놈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또 한놈은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그놈은 죽지 않고 일어서서 다른 놈들을 향하여 열심히 구원을 청하였다. 선장은 그놈에게 다가가서 구원을 청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으니 천벌을 받으려 염라대왕이나 부르라 하며 총탁으로 후려갈겨서 그놈은 찍소리도 못하고 푹 거꾸러졌다. 놈들편에는 아직도 세놈이 남아있었으나 그중의 한놈은 경상을 당하였다.

이때에 나는 비로소 그들앞에 나갔다. 이제야 위험을 깨달은 놈들은 저항한댔자 소용없음을 알고 제발 목숨을 살려달라고 파리발을 드리였다. 이에 선장은 너희들이 감행한 반역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배를 탈환하여 쟈메이카로 도로 돌아갈것을 맹세한다면 목숨을 살려주겠노라 하였다. 그들은 소원대로 충실하겠다는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그래서 선장은 그들을 믿고서 목숨을 살려주기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나는 아무 반대도 없었다. 다만 그들이 이 섬에 있을 동안은 수족을 묶어두게 하였을뿐이였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나는 후라이디와 선장의 운전사를 보내여 뽀트를 이쪽 손에 넣게 하고 노와 돛을 떼오게 하였다. 이윽고 따로 떨어져서 섬을 돌아다니던 세놈이 (따로 떨어진것이 이자들에게는 오히려 다행이였다.) 총소리를 듣고 돌아왔다. 이때까지 자기들

의 포로였던 선장이 지금은 승리자가 된것을 보자 그들도 항복을 하고 순순히 오라를 졌다. 이리하여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제는 선장과 서로 통사정을 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 내가 먼저 말문을 열고 신세이야기를 쭉 내리풀었다. 선장은 자못 놀라운듯이 내 말에 잠착히 귀를 기울였다. 더우기 식량과 탄약을 마련한 나의 놀라운 솜씨에는 귀가 솔깃해서 들었다. 사실 나의 이야기는 어느것이나 다 신기한 일뿐이였다. 그래서 선장은 이에 깊이 감동되였다. 그러나 자신을 돌이켜보았을 때 그는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내가 이 섬에 살아있은것만 같아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흘러내리고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하였다.

이 이야기가 끝난 뒤에 나는 선장과 두사람을 집안에 청해들이였다. 즉 내가 나왔던 집 꼭대기로부터 그들을 안내해들였던것이다. 여기서 나는 음식을 대접하고나서 내가 이 고장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에 고안한 물건들을 죄다 보여주었다.

내가 보여준것과 이야기한것은 무엇이나 놀라운것뿐이였다. 더군다나 숲으로 감쪽같이 집을 가리운것과 요새를 보자 선장은 감탄하기를 마지 않았다. 이 숲은 심은지 20여년이 되였는데 영국보다 나무들이 빨리 자라서 지금은 무성한 숲이 되였다. 그래서 숲속에 낸 꼬불꼬불한 오솔길외에는 아무데도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이것은 성새이자 곧 집이라고 나는 말하였다. 그리고 시골에는 별장이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거기에 들어앉을수 있는데 그것도 멀지 않아 보여드리자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당면한 문제는 배를 탈환하는 방법을 생각하는것이라고 하였다. 선장은 이에 찬성하였으나 어떠한 방법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왜냐하면 배에는 아직도 스물여섯명이 남아있는데 그자들은 저주스러운 음모에 가담한탓으로 법률에 의하여 모조리 사형을 받게 되여있는만큼 설령 항복을 한다 하더라도 영국이나 그 식민지로 가는 날에는 즉시 교수대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됨을 잘 알고있으니까 모두 한사코이에 반항할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처럼 이렇게 적은 수로써는 도저히 그들을 공격할수 없을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잠시 선장의 말을 생각해보았다. 그것은 과연 옳은 말이

였다. 그래서 배에 있는자들을 불의에 습격하여 생포하든가 또는 그자들이 상륙하여 우리를 몰살하지 못하도록 재빨리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이에 문득 한 생각이 떠오른것은 미구에 배사람이 저의 동료와 뽀트가 어찌되였는지 의심을 품고서 그들을 찾으러 다른 뽀트로 상륙해올것이다, 그때에는 무장들을 하고 올는지도 모르니 우리 힘으로써는 감당하기 어렵지 않을가 하는것이였다. 선장도 그렇게 생각하는것은 당연하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선참으로 착수해야 할것은 해변에 주저앉아있는 뽀트에 구멍을 뚫어서 놈들이 가져가지 못하게 하며 뽀트부속품을 꺼내여 물에 띄울수 없을 정도로 못쓰게 만들어야 한다고 나는 선장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뽀트에 가서 그속에 남아있는 무기와 그밖에 눈에 띄운 물건들을 모조리 꺼내였다. 브란디 한병과 단술 한병, 비스케트, 뿔로 만든 귀약통, 돛쪼각에 싼 커다란 설탕덩어리(설탕은 대여섯근쯤 되였다.) 등속이 나왔다. 어느것이나 다 반가운 물건이였지만 특히 브란디와 설탕은 여러해나 맛을 못 보았던만큼 각별히 반가왔다.

이 물건들을 죄다 해변에 날라놓고나서 (노와 돛대, 돛, 키따위는 앞서 말한것처럼 벌써 꺼내놓았던것이다.) 우리는 뽀트에 커다란 구멍을 뚫어놓았다. 그래서 놈들이 더 강하여 우리를 이긴다하더라도 뽀트는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다. 사실 우리편에서 배를 탈환할수 있으리라고는 그리 생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놈들이 뽀트를 두고 간다면 그것을 수리하여 리워드섬에 건너가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것이니 그 길에 에스빠냐친구들을 찾아볼 생각이였다. 나는 아직도 그들을 생각하고있었던것이다.